

2024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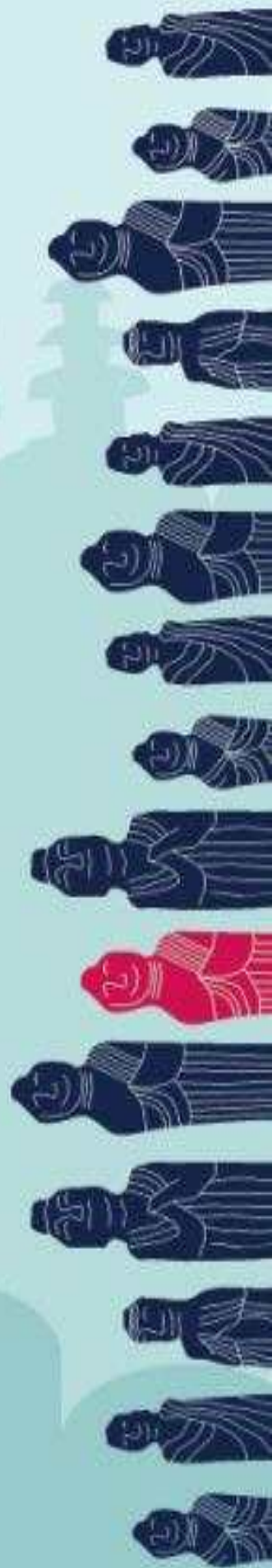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FORUM

on Heritage Values of
the Hwasun Unjusa's Thousand Stone
Images and Pagodas

결과보고서

2024.9.13



본 보고서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재
국제학술대회 대행」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주)프럼에이

대표 강기영

목 차

I. 사업 개요	1
- 사업개요	1
- 정량적 성과	3
- 정성적 성과	4
- 기대효과	4
II. 운영 현황	5
- #1-1. 오찬/차담회	5
- #1-2. 만찬(1일차)	6
- #1-3. 중식(2일차)	7
- #2. 식전공연	8
- #3. 개회식	9
- #4-1. 발제 및 토론(1일차)	11
- #4-2. 발제 및 토론(2일차)	14
- #5. 운주사지 답사	20
- #6-1. 전문가 의견-숙박지원	21
- #6-2. 전문가 의견-통역서비스	22
- #7. 유튜브 중계 / 영상 녹화	23
III. 부 록	24
- 전문가 이력사항	24
- 오프라인 홍보	27
- 온라인 홍보	30
- 지출내역 / 운영인력	31
- 발제자료집	32

I.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명 칭 :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 일 시 : 2024. 6. 20.(목) 13:00 ~ 6. 21.(금) 16:30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 (의회동 4층)
- 내 용 :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운영
- 주최/주관 : 화순군
- 학술 연사 : 17명 (국내발제자6, 토론6, 사회2, 외국학자3)
- 세부 일정

No.	시간		행사 내용	발제자	사회자
1 일 차					
#1	11:30~12:50	오찬	오찬(수림정) / 차담회(군수실)		-
#2	12:50~13:00	공연	식전 공연(2곡)	여미합창단	-
#3	13:00~13:30	개회식	개회사, 축사 1, 2, 3	개회사 (구복규) 축사1 (박우육) 축사2 (김세원) 축사3 (무안스님)	아나 운서
#4	13:30~14:00	기조발제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	박경식	허 권
	14:00~14:30	발제1	간다라 타흐티바히의 불교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모함마드 튜페일 (파키스탄)	
	14:30~15:00	발제2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이숙희	
	15:00~15:30	발제3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	아마라 스리수첻 (태국)	
	15:30~16:30	토론	1부 토론	주수완, 최선주	
#5	16:30~18:00	답사	운주사 현장답사	-	-
#6	18:00~19:30	만찬	만찬 (수림정)	약 20명	
	19:30~		숙소 이동	-	-

No.	시간	행사 내용		발제자	사회자
2 일 차					
#7	09:30~10:00	발제4	운주사 석탑의 유형과 세계유산적 가치	천득염	허 권
	10:00~10:30	발제5	운주사 석불상의 조성과 세계유산적 가치	이경화	
	10:30~11:00	발제6	운주사의 종교사상적 배경	정성권	
	11:00~11:30	발제7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인식과 제고	한정훈	
	11:30~12:00	발제8	일본 불교세계유산과 동아시아 교류	아라키 준	
	12:00~13:00	토론	2부 토론	장준식 김일권 정경운 김희태	
#8	13:00~14:30	중식	중식	-	-
#7	14:30~16:30	토론	종합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최선주
	16:30~	-	행사 종료	-	-

정량적 성과

- 총 참여인원 : **368명**
- 오프라인 참여 : 1일차 174명, 2일차 85명
- 온라인 중계 : 109명(1일차)
- 자료집 배포 : 200권+별권 50권
- 주민참여 지원 : 현장참여자 식권 배포 (2일차/52개)
- 오프라인 홍보
 - 홍보유형 : 대형현수막2종, 거리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 VIP초청장 발송 : 총 337건
 - 기념품 제작 : 150개 (에코백, 펜, 컵, 노트 등)
- 온라인 홍보
 - 홍보영상 제작 : 제작하여 군청 외부 외벽, 내부 계단실에 실시간 영상 송출
 - 언론매체 홍보 : 수도권 10건(사전홍보5, 사후홍보5) / 전남권 15건

참고이미지



정성적 성과 (전문가 주요의견)

- 박경식** 화순 운주사지의 유산적 가치를 석불석탑의 창조성에 두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반영 필요
- 감미니** 운주사지의 창조적 성격 부각이 중요
- 아마라** 태국 세계유산 보호제도 설명과 함께 태국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지역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
- 천득염** 운주사지의 독창성은 석불석탑의 무정형성에서 찾아야 함. 아직 운주사지 조성시기, 주체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으므로 기존의 미술사적 관점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 필요
- 정성권** 석불석탑 조성에는 고려에 귀속한 거란의 유민들이 주체였기 때문에 기존 석불탑과 다르게 조성되었음. 운주사지는 ‘사찰’이 아닌 ‘아미타’ 정도로 봐야 함
- 한정훈** 운주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 무형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은 세계 유산적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제고하는 기제가 될 것.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 축적이 필요

기 대 효 과

- 본 학술대회는 기존 성과와 함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
- 화순 운주사지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하여 각종 사업 추진 예정임
- 운주사지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에 대한 논의 중요하여 추가적으로 보존관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추진 준비 중

II. 운영 현황



#1-1. 오찬 / 차담회 (1일차)

- 시 간 : (오찬) 2024.6.20.(목) 11:30~12:40
(차담회) 12:40~12:50
- 장 소 : (오찬) 식당 수림정 / (차담회) 군수실
- 참석자 : 총 11명
군수 1
국내 전문가 4 (허 권, 최선주, 천득염, 박진호)
국외 전문가 3 (파키스탄, 태국, 일본)
행정 관계자 2
통역 1
- 주요내용
 - 공식 일정 전 화순군-전문가 간 교류 및 학술대회 운영 방향성 공유



#1-2. 만찬 (1일차)

- 시 간 : 2024.6.20.(목) 18:00~20:00
- 장 소 : 식당 수림정
- 참여자 : 총 19명
 - 부군수 1
 - 국내 전문가 8 (허권, 최선주, 박경식, 장준식, 한정훈, 이숙희, 천득염, 박진호)
 - 국외 전문가 3 (파키스탄, 태국, 일본)
 - 행정 관계자 3
 - 통역 1
- 주요내용
 - 화순군-전문가 간 교류를 위한 공식 만찬 및 기념품 전달



#1-3. 중식 (2일차)

- 시 간 : 2024.6.21.(금) 13:00~14:30
- 장 소 : 식당 벽오동(오성로 388)
- 참여자 : 총 22명
 - 국내 전문가 11 (최선주, 천득염, 이경화, 정성권, 한정훈, 아라키 준, 장준식, 김일권, 김희태, 허 권, 박진호)
 - 국외 전문가 3 (파키스탄, 태국, 일본)
 - 행정 관계자 3
 - 통역 1
 - 기타 4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회의장 인근 한정식 점심 제공



#2. 식전 공연

- 시 간 : 2024.6.20.(목) 12:50~13:00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 (의회동 4층)
- 공연팀 : 여미합창단 20여명
- 주요내용
 - 공식 일정 전 문화공연을 통한 학술대회 몰입 유도
 - 주민동아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
 - 공연 2곡 :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요), 강원도 아리랑(민요)



#3. 개회식

- 시 간 : 2024.6.20.(목) 13:00~13:30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 (의회동 4층)
- 내 빈 : 15명 내외
- 주요내용

식순	이름	소속	비고	
국민의례	-	-	-	
내빈 소개	구복규	화순 군수	-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전남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중앙부처	
	조명순	화순군 의회	화순군	
	강재홍			
	정연지			
	김지숙			
	오형열	화순군 교육지원청장	종교계	
	조영래			
	고경 스님			송광사 송보 박물관장
	무영 스님			송광사 교무국장
	무안 스님			운주사 주지
	증언 주지 스님 외			화순 사암연합회 회장 외 6인
	임영택	화순 문화원 부원장	문화예술계	
장여환	화순예총 지회장			
내빈 소개 (비대면)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 의장	축전 대독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조계원	대한민국 국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박강철	전남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구복규	화순군수	-	
축사 1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	
축사 2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축사 3	무안 스님	운주사 주지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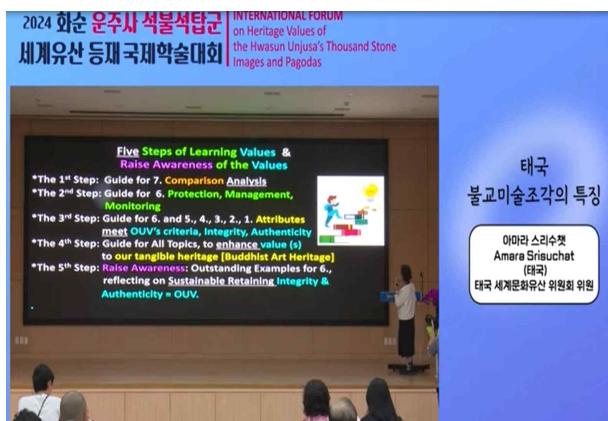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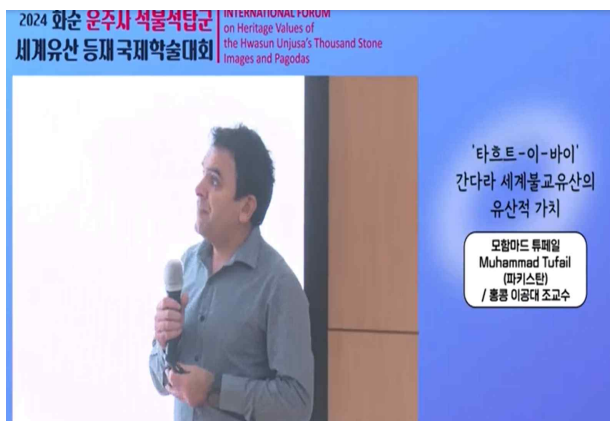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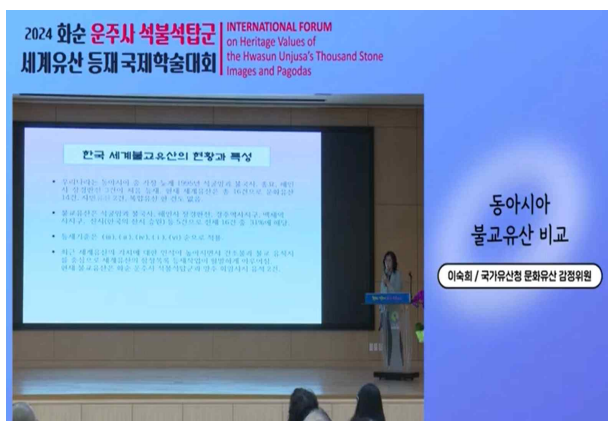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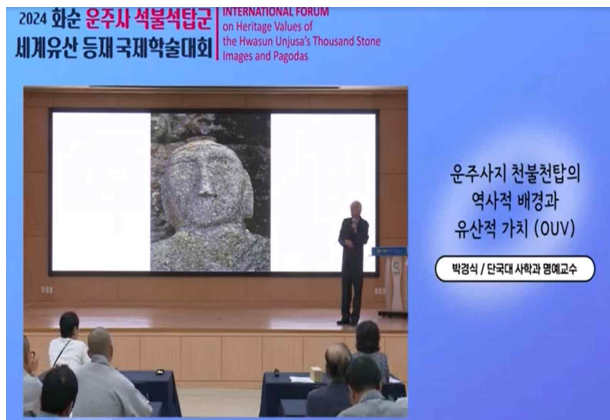
#4-1. 발제 및 토론 (1일차)

- 시 간 : 2024.6.20.(목) 13:30~16:30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 (의회동 4층)
- 발제자 : 총 4명 (박경식, 모함마드 튜페일, 이숙희, 아마라 스리수첿)
- 토론자 : 발제자 외 3명 - 주수완 / 우석대 교수
 - 최선주 / 전)국립경주박물관장
 - 박진호 / 고려대 연구교수
- 사회자 : 허권 / 전)유네스코 아테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주요내용

구분	주제	이름	소속
기조발제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	박경식	단국대 명예교수
발제1	간다라 타흐티바히의 불교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모함마드 튜페일 (파키스탄)	홍콩이공대 조교수
발제2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발제3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	아마라 스리수첿 (태국)	태국 세계문화유산위원회위원
1부 토론	지정 토론 (주수완→아마라 스리수첿) - 한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유적일지라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 유적을 개인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세계유산 추진이 안되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지.	주수완	우석대 교수
	지정 토론 (최선주→이숙희) - 아시아 불교미술과 상호비교해서 연구성과 및 방향은 어떠한가. - 등재조건 중 2, 3번 조건이 강조되고 있는데, 6번 조건에 대한 검토의견 (유형적+무형적 요소 강조)	최선주	전)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지정 토론 (박진호→모함마드 튜페일) - 타흐티바히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감회는 어떠한가. - 유네스코 등재로 확대를 위한 생각은 어떠한가.	박진호	고려대 연구교수 - 디지털헤리티지 복원전문가

· 토론 요약

<p>주수완 (토론자)</p>	<p>Q1. 한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유적일지라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Q2. 유적을 개인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세계유산 추진이 안되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지.</p>
<p>아마라 스리수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국제사회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임. 우리 문화유산은 국수주의(내셔널리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고, 한국의 보호법도 예술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가주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유산협약'은 기본적으로 그 땅에 있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부동산유산은 인류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한다고 약속하기때문에 세계유산으로 올라가는 것임. - 분쟁에 대한 부분은 끊임 없는 대화가 필요함.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관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냐. 태국의 경우는 세계유산을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잠정목록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세계유산을 전부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지는 않음.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끌고가되 커다란 대의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형태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노력이 필요함.
<p>최선주</p>	<p>Q3. 아시아 불교미술과 상호비교해서 연구성과 및 방향은 어떠한가. Q4. 등재조건 중 2, 3번 조건이 강조되고 있는데, 6번 조건에 대한 검토의견 (유형적+무형적 요소 강조)</p>
<p>이숙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해외 세계유산과의 비교연구 강조되어옴. 2010년대부터 비교연구 시작됨. 운주사의 경우 2013년에 비교연구 시작했고, 운주사 석탑을 다른 지역 석탑과 비교해서 세계유산적 가치를 분석한 논문이 나오기도 함. 그러나 현재까지 비교연구의 성과는 심도 있게 했다고보다는 관련 불교유산의 현황,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쳤음. - 1990년 이전까지는 등재기준 2, 3번이 가장 많이 적용됨. 90년대 이후부터는 등재기준 1번(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 대신 3번이 비중이 늘어남.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에 건수도 양산이 되는 계기가 됨. 94년도 이-후부터는 등재기준 3번과 함께, 4번도 충족하는 유산들이 늘어나면서 고고유적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 본인은 결론부분에 등재기준 6번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했는데, 등재기준 적용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불교유산이 단일한 형태의 성격이 아닌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의 경우에는 등재기준 6번(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이 적용된 경우를 다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음.
<p>박진호</p>	<p>Q5. 타흐티바히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감회는 어떠한가. Q6. 유네스코 등재로 확대를 위한 생각은 어떠한가.</p>
<p>무함마드 튜페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석굴암의 디지털헤리티지 프로젝트 참여를 한 경험이 있고, 왜 우리 파키스탄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한 적이 있음. 이를 계기로 파키스탄에서도 다양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 활용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음. - 활용과 아카이빙 측면에서 운주사 또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굴되고 이를 디지털적인 다양한 방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p>방청객 질의응답</p>	<p>[김종훈 (화순군 거주 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불탑을 창조할 때에는 내면에 어떤 정신적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착안한 조형물을 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석탑에 새겨진 문양(마름모꼴)의 의미를 '오행'으로 생각함. 또한 와불에 대해서는 본인은 와불이 아니라, 좌불이라고 생각함.



#4-2. 발제 및 토론 (2일차)

- 시 간 : 2024.6.21.(금) 09:30~12:00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 (의회동 4층)
- 발제자 : 총 4명 (박경식, 모함마드 튜페일, 이숙희, 아마라 스리수첿)
- 토론자 : 발제자 외 4명 - 장준식 / 국원문화재연구원 원장
 - 김일권 /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 정경운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김희태 / 전남 문화재위원
- 사회자 : [2 부] 허 권 / (전)유네스코 아테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종합토론] 최선주 / (전)국립경주박물관장
- 주요내용

구분	주제	이름	소속
발제4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	천득염	전남대 건축과 명예교수
발제5	간다라 타흐티비히의 불교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발제6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정성권	단국대 교수
발제7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	한정훈	전남대 국문과 교수
발제8	일본 불교세계유산과 동아시아 교류	아라키 준 (일본)	교토대 역사학부 인류학 박사
2부 토론	지정 토론 (장준식→천득염) - 사찰창건보다 석탑 조성시기가 크게 후행 주장에 대한 설명	장준식	국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지정 토론 (장준식→이경화) - 칠성바위의 상징성을 불상과 석탑들의 배치와 연계하여 설명	장준식	국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지정 토론 (김일권→정성권) - 석감, 석불의 종명을 어떻게 정해야할 것인가.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지정 토론 (정경운→한정훈) - 운주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높이기위해 라키비움의 개념 적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관광시스템에 대한 추가적 의견 부탁.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유산명칭, 구역, OUV, 보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종합 토론	1. 조성시기 2. 조성배경 3. 운주사 석불석탑의 조형성 (석불석탑의 양식적 특성 등), 4. 무형문화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5. 세계유산 등재조건에 대한 검토	-	-

· 토론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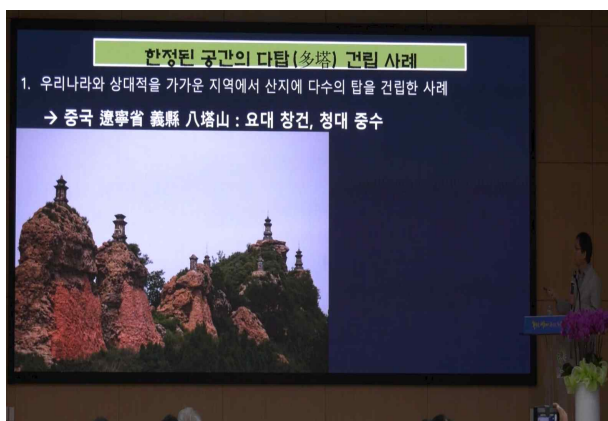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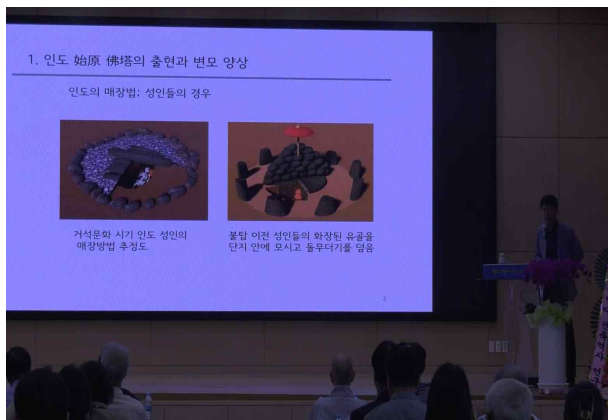
장준식	Q1. 사찰 창건보다 석탑 조성시기가 크게 후행한다고 주장한 바에 대한 설명 부탁.
천득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 특징적으로 중앙집권 세력이 아닌 자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에 참여했을 것임. 또한 어떠한 다른 민중세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갖고있는 대단히 정형적이고 경직된 사고에서 일탈해서 해학적이면서 파격적인 조형미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예를 들어 백제계 석탑이 통일신라시대에는 하나도 안보임. 삼국시대 탑이 백제지역에는 안나타나는데 고려시대에는 많이 나타남.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왕족들이 문화현상에까지 강하게 잡고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함.
장준식	Q2. 칠성바위의 상징성을 불상과 석탑들의 배치와 연계하여 설명이 되는가.
이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감자리가 진짜로 배꼽자리, 중요한 자리인가 생각해보았을 때 불감하고 와불은 상관관계를 갖음. 이동거리상 불감을 먼저 보고나서 불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와불을 보러가게 되는 이 힘의 역선이 중요하다 생각함.
장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 운주가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음. 본인이 소속된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에 소재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국립 충주박물관' 유치를 성공시켰음. 원주의 경우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던 '지광국사탑'을 원처인 원주로 환수해 돌아왔음. - 이처럼 운주사와 같이 엄청난 문화재를 가지고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시민단체에서 나와야 함.
김일권	Q3. 석감, 석불의 종명을 어떻게 정해야할 것인가.
정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주사의 시간의 폭 900년 정도인데, 처음 만들었을 때와 다르게 그 이후에 석불과 석감이 가득찰 때 석감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고려후기, 조선전기,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미타불, 미륵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어느 시대의 석감을 어느시대의 부처로 해석했는지. 역사적인 중첩성을 앞으로 더욱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함.
전경운	Q4. 운주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높이기위해 라키비움의 개념 적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관광시스템에 대한 추가적 의견 부탁.
한정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주사가 가진 문화에 대한 해설시스템은 실망스러움. 사람들이 그저 보고만 지나감. 유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지자체는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음. 고인돌과의 연계성까지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스토리적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함. 거기에 따르는 지역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서사문학적 관점에서 엄청 가치있는 것들임. 그러나 관 차원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거의 없음. - 서울사람들 입장에서 광주도 시골인데 화순은 시골 중에 시골임. 여기 문화재를 체험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자기비용과 관심이 필요함. 이런 문화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울이나 중심부와 연결되는지 살펴봤는데 첫째로 개성이 많은 곳, 디지털기술, 실감기술을 활용해서 서사와 경험들을 함께 다루는 접근을 하고 있음.

· 종합 토론

<p>최선주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비교연구를 통해 운주사의 유적, 유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음. - 크게 종합토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풀어가고자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성시기 (언제 이 곳이 형성되었는가) 2. 조성배경 (조성의 주체는 누구고, 불교신앙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3. 운주사 석불석탑의 조형성 (석불석탑의 양식적 특성 등) 4. 무형문화적인 특성 (유형문화 외에 무형적 요소에 대한 확장성) 5. 세계유산 등재조건에 대한 검토 Q1. 조성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이경화</p>	<p>[조성시기 관련 문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이견이 있음. 현재의 연구 여러가지 설 중에서 12세기를 전성기로 봄. - 운주사의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스터플랜은 있었던 것 같음. 단순복제가 아니라, 굉장히 개별적 이면서 모듈적인 조성시기가 있었다고 봄.
<p>최선주 (사회)</p>	<p>Q2. 처음부터 이 많은 것들을 한번에 조성했는지, 나누어서 조성했는지에 대한 의견. 이 석불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적 예산지원이 필요했을텐데, 기술력, 신앙의 결집 등이 뒷받침 될만한 자료들이 제공되면 좋겠음.</p>
<p>정성권</p>	<p>[조성배경 관련 문답 (석불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기(1925년 거란이 멸망한 전후시기에 거란민족이 많이 들어온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음. 10세기 후반~11세기 초반의 석불석탑의 양상을 보았을 때 운주사와 맞지는 않음. 12세기 초반, 빈 땅을 주어서 머물게 했다는 내용(거란장)이 있고, 운주사 일대에 거란장이 있었다는 것이 추정 가능함. 거란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경제력, 기술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머물렀을 때 만들었던 것은 어디 갔을까, 한번에 다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음. 대형석탑들은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고, 감실도 요대의 형식과 비슷함. -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일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로서 양식분석을 해야함. 점차 평면적 얼굴이 아니라 볼이 다듬어진 얼굴이 나오고, 불상 중에는 삼각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이 표현된 불상도 있음. - 어떤 종교적 근거로 이 불상들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팔대영탑(석가의 주요 행적 팔상을 상징함)’ 사상에 ‘대승본생심지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모태를 만드는 주요 경전으로 사용됨. - 1세대 정도 대형 석탑, 석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거란장에 머무르며 그 자손들이 동화되어 앞서대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많은 불상, 불탑들을 계속 만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음. - 그 후 고려 정부가 사찰을 만들 때 방치만 하진 않았을 것임. 적어도 지방정부의 허가 안에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왜 고려 정부는 이것을 만들도록 허락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남아있다고 봄. -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고려 땅에 새로운 사찰, 엄청나게 많은 탑과 불상을 조성했을 때, 지방세력들의 반항, 수용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함. - 요탑의 특징은 굉장히 고층의 탑을 만듦. 최고의 장인들을 데려다 만드는데, 운주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문장인은 아니었다고 봄. 거란유민들이 고려에 투하에서 화순까지 올 때에 그쪽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자 등 여러 노동력들이 있었을 것임. - 운주사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는 것 중에 천곡사지탑(정읍), 용담사탑(남원)이 있는데, 용담사의 경우 석불은 운주사보다 앞선 양식임. 이처럼 사람들이 한반도로 오면서 여기저기 노동력으로 동원되었고 그런 와중에 고려석탑 양식을 배웠던 것 같음.

<p>천득염</p>	<p>[조성배경 관련 문답 (석탑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연 뒤에서 누가 탑을 짓기위해 도와주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혁신적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생각함. - 탑의 양식이 최소한 5가지 이상 되는데, 다소 잘 만들어지고 정형화 되어있는 탑은 초기에(재료도 좋은 것을 쓴거 같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대에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탑들은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음. 면의 마감 부분을 보았을 때 '많이 만들면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함.
<p>최선주 (사회)</p>	<p>Q3. 석조불감 조형성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p>
<p>이숙희</p>	<p>[석조불감의 조형성 관련 문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경화 박사의 발제에 따르면 동서남북의 배치에 따라서 미륵과 석가로 보았음. 보통 사방 구분을 할 때는 방위에 따라 불상배치 되어있는 경전이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불상의 종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어 하나의 '설국암 본존불' 종명을 따질 때도 비로자나불, 석가불, 아미타불로 많음. 아직도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
<p>최선주 (사회)</p>	<p>Q4. 무형문화적 특성은 어떠한가.</p>
<p>한정훈</p>	<p>[무형문화적인 특성 (유형문화 외에 무형적 요소에 대한 확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학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속학적 측면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유용을 할 때 양식이나 의미, 형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음. 예를 들면 누군가 기획하고 양식화 해서 만드는 불교적 의미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또 다른 의미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민속학적 관점의 자유로움임. - 그 오랜기간동안 여러 석불과 석탑이 제자리에 위치해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임. 일정공간에 저 문화재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불교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음. 그 공간 속에 다층적으로 의미들이 축적되어 왔음. (도교-미륵신앙-불교- 칠성신앙 등) - 민속학적으로 볼 때, 막대기 하나, 돌덩어리 하나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미륵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비는데, 그 민간신앙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관념과 추상적 어떤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현세의 목적, 질서 같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신앙의 행위들임.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다양한 시선들을 걸차시키고, 찾아내고, 의미화시켜서 운주사를 바라보면서 의미적 요소들과 무형문화적 해석들을 확장시켜야 함.
<p>최선주 (사회)</p>	<p>Q5.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p>
<p>아마라 스리수첿</p>	<p>[세계유산 등재조건에 대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주사가 한국유산만의 세계유산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이 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실적인 고민, 큰 시야에 둬서 운주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

<p>방청객 질의응답</p>	<p>[홍석경 (한국 고미술사 취미로 답사하는 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 본인이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학'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천불천탑은 14세기 초에 고려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을 반영해서 조형된 조형물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아마추어의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방청객 질의응답</p>	<p>[한병일 (주엔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참여중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하는 부분 준비 중인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p>최선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화순 운주사의 등재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등재조건에 대한 검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아카이빙이 중요함. 자료축적과 공개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이라도 홈페이지 제작하여 이런 자료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술적 흥미유발, 관심을 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영상 자료들도 구축되도록. -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민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되도록, 등재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함.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함. - 보존관리 대책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잘 연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5. 운주사지 답사

- 시 간 : 2024.6.20.(목) 16:30~18:00
- 장 소 : 화순군 운주사지 일대
- 참여자 : 총 24명
 - 국내 전문가 9 (허권, 최선주, 박경식, 장준식, 이숙희, 이경화, 천득염, 박진호, 김희태)
 - 국외 전문가 3 (파키스탄, 태국, 일본)
 - 행정 관계자 4
 - 통역 1
 - 기타 7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현장 답사를 통해 운주사지 주요 유산에 대한 소개 및 환경 검토
 - 세계유산으로서의 환경적 보완요인 검토 등



#6-1. 전문가 의견 - 숙박 지원

· 숙박시설 이용 현황

구분	소재지	장소명	주소	주요 내용	비고
#1.	화순	화순스테이호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총로136	화순군청 도보 5분	행사당일 기준 10명 숙박 수용
#2.	화순	대화모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총로112	화순군청 도보 5분	행사당일 기준 6명 숙박 수용
#3	화순	화순 소재 민박 (에어비앤비)	-	차량이동 5분	운영사 숙소 운영
#4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용산역 도보 5분	해외전문가 서울 체류시 숙박 이용

· 일별 숙박인원

구분	6.18(화)	6.19(수)	6.20(목) /D-day	6.21(금)	6.22(토)	6.23(일)
전문가 (국외)	-	입국 / 3	3	3	3	출국
전문가 (국내)	1 허 권	1 허 권	6 이경화, 허 권, 이숙희, 정성권, 장준식, 박진호	2 김일권, 허 권	-	-
운영사	3	3	3	3	-	-
통역사	-	2	2	-	-	-
기타	-	-	5 중앙대 대학원	-	-	-
총원	4	9	19	7	3	-

· 해외전문가 비공식 의견 지원

일시 : 2024. 6. 22.(토) 09:00 ~ 14:00

내용 : - 화순 고인돌 세계유산지구(모산마을 외)

-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방문



#6-2. 전문가 의견 - 통역서비스

- 통역 서비스 운영 : [1일차] 총 400분 (6시간 40분) - 동시통역, 동행통역
 [2일차] 총 420분 (7시간) - 동시통역
- 통역사 : 총 2명
- 언어 지원 : 2개 언어 (영어 ↔ 한국어)
- 통역 수신기 운용 : 총 100개

시간	행사 내용	통역 형태	통역사	언어	비고	
1 일 차						
6.20(목)	12:50~16:30	학술대회 통역	동시통역	2명	영어	수신기 100기, 현장 통역부스 운용
	16:30~18:00	운주사 현장답사	현장 동행통역	1명	영어	참여인원 24명
	18:00~19:30	만찬 (수림정)	현장 동행통역	1명	영어	참여인원 19명
2 일 차						
6.21(금)	09:30~16:30	학술대회 통역	동시통역	2명	영어	수신기 100기, 현장 통역부스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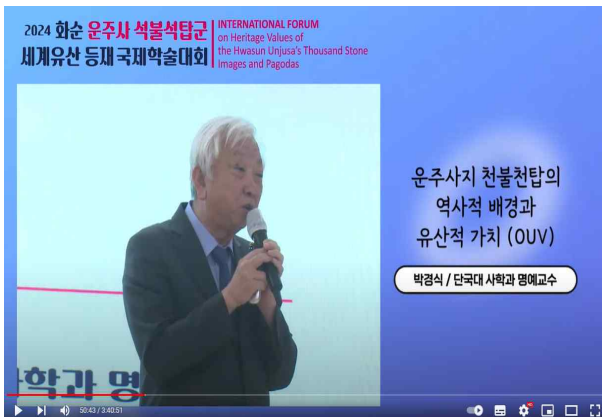


#7. 유튜브 중계 / 영상 녹화

□ 유튜브 중계

- 시 간 : 2024.6.20.(목) 12:50~16:30 (1일차) / 총 220분
- 장비운용 : 카메라 총 3대
- 세부내용 : 공연-개회식-발제-1부 토론 내용의 실시간 유튜브 중계 제공
- 시청인원 : 109명
- 온라인 링크 : 화순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s5FYJRCad8A>



□ 영상 녹화

- 시 간 : 2024.6.21.(금) 9:30~16:30 (2일차) / 총 330분 (5시간 30분)
- 장비운용 : 카메라 총 1대
- 세부내용 : 발제-2부 토론-종합토론 내용의 영상 녹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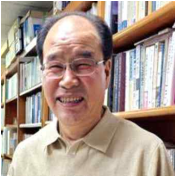









III. 부 록



전문가 이력사항

○ 국내 전문가 : 13명

구분	사진	이름	직책
사회자		최선주	전남대 졸업, 홍익대 등 수학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등
		허 권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전) ICOMOS 한위 부위원장 현) CIOFF 한국위원회 이사
발제자		정성권	동국대학교 문학박사(불교미술 전공) 단국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경기도, 충청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 교수 현) ICOMOS 한위 위원
		한정훈	현) 전남대 국어국문학 교수
		박경식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단국대 교수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재감정위원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재감정위원

토 론 자		김일권	서울대 자연대학 생물학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희태	전) 전남도청 근무 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수완	고려대 미술사학과 현) 우석대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등
		장준식	국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최선주	전남대 졸업, 홍익대 등 수학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등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수완	고려대 미술사학과 현) 우석대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등
		장준식	국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최선주	전남대 졸업, 홍익대 등 수학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등

○ 국외 전문가: 3명

구분	사진	이름	국적	직책
발제자		Amara Srisuchat 아마라 스리수챗	태국	태국 문화부 고고미술부 원로고문 태국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원 수코타이 박물관, 국립박물관장 역임 태국 국무총리상 수상
		Araki Jun 아라키 준	일본	인류학 박사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 구교수
		Muhammad Tufail 모함마드 튜페일	파키스탄	홍콩이공대학 조교수 울산과기대(UNIST) 창의디자인공학과 박사



오프라인 홍보

#1. 대형현수막



#2. 대형현수막(세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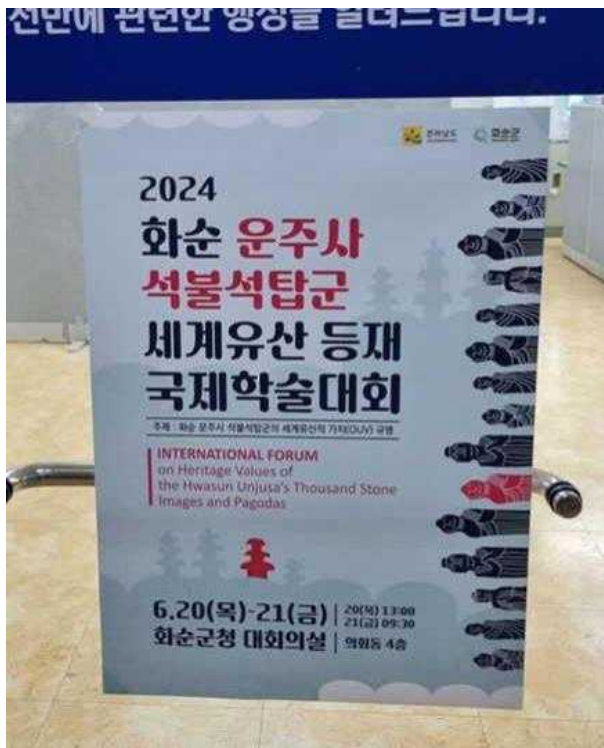
#3. 거리현수막 1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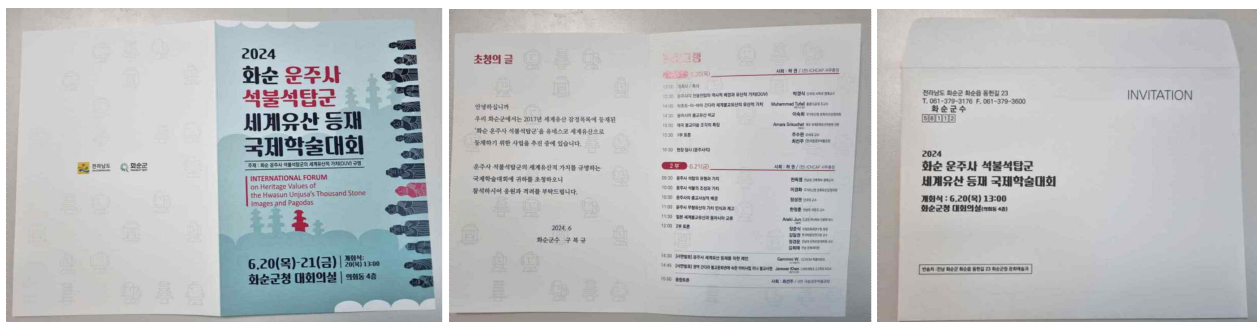
#4.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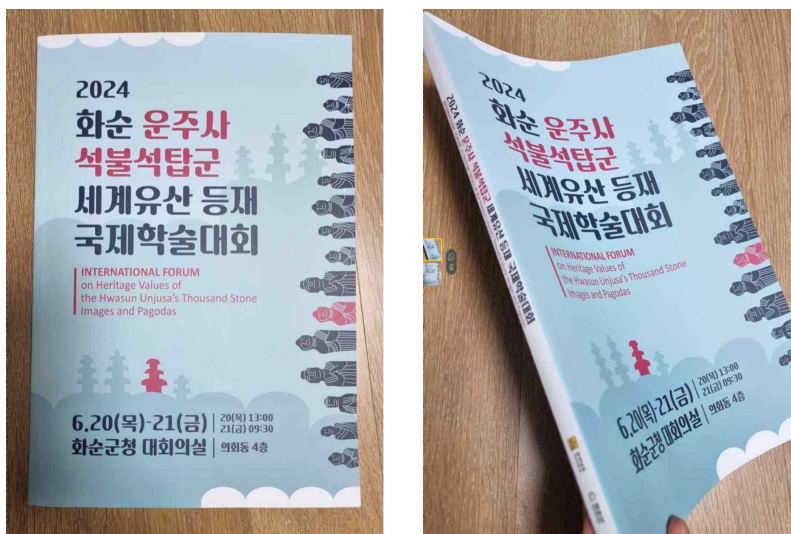
#5.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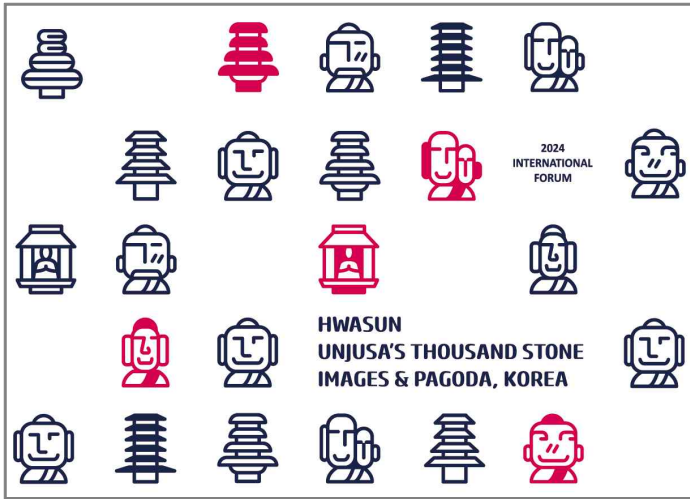
#6. 초청장



#7. 발제 자료집



#8.기념품



온라인 홍보

언론홍보 결과 종합			
클라이언트	주식회사 로설리티	보도자료 배포일	2024.06.04(화)
기사 제목	전남 화순군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행언론사	세계비즈, 아시아투데이, 시민일보, 데일리경제, 에너지경제 등 총 5곳 기사화		

기사 URL		
B	세계비즈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0604513123?OutUrl=naver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05001042351
C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7442224445
	데일리경제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90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605001340187

N 석불석탑

< 전체 뉴스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인 인물루터 >

에너지경제 · 4일 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국...
 전남 화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국제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가
 운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
 술대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

아시아투데이 · 4일 전

화순군,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남 화순군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일~21일 화순군청 대회의
 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7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

세계비즈 · 5일 전

전남 화순군,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
 전남 화순군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
 일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7년에 ...

데일리경제 · 5일 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국제학술대회 ...
 전남 화순군이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술대
 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

시민일보 · 5일 전

전남 화순군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
 전남 화순군이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양일간 화순군청 대회의
 실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7년에 세계유...

D 석불석탑

통합 통합릴 뉴스 이미지 동영상 사이트 어학사전 지도

전남 화순군,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
 전남 화순군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이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1...
 세계비즈 2024.06.04

화순군,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남 화순군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이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일~21일 화순군...
 아시아투데이 2024.06.05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국제학술대...
 전남 화순군이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화순군청 대회의실
 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
 데일리경제 2024.06.04

전남 화순군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양일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술대...
 시민일보 2024.06.04

지출 내역

- 총 사업비 : 7,400만원
- 세부 지출내역

사용월	비목	금액	비고
24.5월	통번역비	12,144,000	
24.7월	전문가 사례비	9,400,000	
24.6월	교통비 (항공료, KTX, 쓰카, 공항픽업대행)	3,970,000	
24.6월	숙박비	2,400,000	
24.6월	식비	4,900,000	
24.6월	홍보비 (홍보물, 자료집제작, 기념품, 유튜브중계, 영상제작, 언론보도)	12,600,000	
24.6월	기타 운영비	870,000	
24.1-6월	운영사 인건비	13,854,000	
	일반관리비	4,800,000	소계의 8%
	순수익	2,527,200	소계합+일반관리비의 3.9%
	합 계	67,327,200	일반관리비+순수익
	부가세	6,732,720	합계*10%
	총액	74,000,000	

운영 인력

- 운영인력 : 총 5명
- 담당업무

no.	비목	업무
1	허 ○ ○	- 운영 총괄
2	허 ○	- 전문가 의견 및 사전 소통
3	윤 ○	- 홍보마케팅 (홍보물, 자료집 제작 등) - 통번역 및 협력업체 실무 소통
4	김 ○ ○	- 행사 현장 운영지원 / 행사장 외부 - 다과 운영 및 방문객 대응
5	박 ○ ○	- 행사 현장 운영지원 / 행사장 내부 - 현장 진행 보조 (음향 및 객석 안내)

2024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주제 :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

INTERNATIONAL FORUM
on Heritage Values of
the Hwasun Unjusa's Thousand Stone
Images and Pagodas

6.20(목)-21(금) | 20(목) 13:00
21(금) 09:30
화순군청 대회의실 | 의회동 4층



개 회 사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주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군수 구복규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천년 고찰 운주사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
함마드 교수님, 아마라 스리수챗 교수님, 아라키 준 교수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 운주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천불천탑의 신비가 있는 유적지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지금까
지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
다시피 2017년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
었습니다. 이후 정식 등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난 2000년 화순 고인돌 유
적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제가 2022년 군수로 취임하면서 화순 운주사 세계
유산 등재 추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그 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에서 화순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운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화순 운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미
등재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세계인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길 소망해 보
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군에 머무는 동안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0.
화순군수 구 복 규

Opening Speech

My fellow Hwasun residents and renowned professionals visiting us, I, Gu Bog-gyu, would like to extend the warmest welcome to everyone as the Governor of Hwasun-gun.

It is my great pleasure to hos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at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for Unjusa Temple, a millennial temple that Hwasun-gun is immensely proud of.

At the same time, I would convey my utmost appreciation and respected experts from each field attending today's conference by finding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

Hwasun Unjusa Temple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of Hwasun-gun viewed by countless visitors as a historical site embedded with mythical features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the one and only of its kinds in the whole world. Hwasun-gun has been engaging in various projects in order for Unjusa Temple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nce 2012 through today; and as you all are well aware, the site was registered with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a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n 2017. Though official designation has yet to be completed, I was responsible for having the prehistoric cemeteries at Hwasun successfully designated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in 2000, and as I took the office of Governor of Hwasun-gun in 2022, we are now fully mobilizing this project for Hwasun Unjusa Temple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also part of our ambitious project. I truly hope that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would deliver great measures for this precious heritage of Hwasun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of the UNESCO. Also from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on, I sincerely envision Hwasun Unjusa Temple to be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 and tourist attraction throughout the world together with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previously designated.

Again, I am very much grateful, and I do hope everyone to have pleasant and peaceful experiences while staying at Hwasun-gun. I wish the very best and happiness for everyone attending today's event. Thank you.

2024. 06. 20.

Governor of Hwasun-gun, Gu Bog-gyu

축사 1

가로수가 만든 녹음이 잠시 햇빛과 더위를 잊게 하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주, 화순 국회의원 신정훈 인사드립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구복규 군수님과 화순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순 8경 중 2경에 속한 운주사는 “천불천탑도량” 현판이 걸려있는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9층 석탑을 시작으로 쌍 교차문 칠층석탑, 광배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조불감은 불감 안에 양쪽으로 불상이 배치된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있고, 원형 다층석탑은 지붕돌이 둥근 모양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양식입니다.

운주사 경내를 돌아 뒷산에는 와불 한 쌍과 칠성바위와 칠층 석탑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천불 천탑 운주사는 모양이 다른 석불들도 사람들처럼 모두 모양이 같지 않고 크고 작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다르니 신기하고 독특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운주사의 천 개의 불상과 천 개의 불탑은 2017년 3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출발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 06. 20.

나주, 화순 국회의원 신정훈

Congratulatory Message 1

Welcome, everyone. I am SHIN JEONGHO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ju and Hwasun, and I am happy to meet you all in this season where the green from street trees helps us forget the hot weather and even the sunligh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ation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o World Heritage. Especially, I would convey special thanks to Governor Gu Bog-gyu and all officials of Hwasun-gun for their hard works.

If you walk through the Iljumun Gate with a signboard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Learning Place,” Unjusa Temple, the second spot from 8 famous spots at Hwasun, allows you to appreciate 9-story Stone Pagoda, National Treasure No.796, followed by Double Cross Gate 7-story Stone Pagoda and Seated Stone Buddha of Glory.

Especially, the Stone Buddha is in a unique form where the statue is place on both sides of Buddhist Niche, and a circular multistoried stone pagoda illustrates a distinct shape with round roofs, unprecedented in Korea.

At the mountain behind Unjusa Temple, you can see a pair of Lying Buddhas, Seven Star Rock and 7-story Stone Pagoda. All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of Unjusa Temple offer different appearances just as human does, and they bring mythical yet unique fun for us with their big, small, thin or thick shapes.

Thousand Buddha and Stupa of Unjusa Temple recorded in the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was finally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a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n March of 2017, and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s included in the UNESCO Global Geoparks.

Private and public sectors came together 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I also pledge to invest my best efforts to ensure the site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that we can pass down to our next generations through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 wish the very best for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ank you.

2024. 06. 20.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ju and Hwasun,
SHIN JEONGHOON

축사 2

존경하는 학술연사와 청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장 하성동입니다.

귀중한 우리 고장의 유산인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화순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지 8년째 되는 올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화순과 나주, 장흥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으며 다양한 석불상
과 석탑, 별자리, 칠성신앙과 관련된 칠성석 등 다양성과 조형성은 동아시아에서 찾기 어
려운 사례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순을 찾아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를 높이
고, 더욱더 발전하여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06. 20.

화순군의회 의장 하성동

Congratulatory Message 2

Welcome, every academic speaker and everyone in the audience.

I, HA Seong-Dong, Chairperson of Hwasun-gun Council,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your participation.

It is my honor to welcome you paying a visit to Hwasun-gun to help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he heritage of our town, being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t find this yea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ation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o World Heritage" truly meaningful after 8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ite was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s nested at the location where Hwasun, Naju and Jangheung cross each other, and its diversity and sense of formativeness is quite a rare case to fi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since it is featured with various Stone Buddhas and Pagodas and Seven Star Stone associated with constellations and Seven Star Faith.

I sincerely hope many people to visit Hwasun for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their visits to help elevating the valu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nd eventually escalating the site to be the world-class cultural assets through further advancements.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ation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o World Heritage” and convey my utmost appreciation to every scholar offering precious insights at today’ s conference.

2024. 06. 20.

Chairperson of Hwasun-gun Council, HA Seong-Dong

회의 일정

- 일시: 2024.6.20.(목)-21.(금)
- 장소: 화순군청 대회의실
- 회의 일정

시간	내 용	발제자
1부 / 6.20(목)		사회 : 허 권 / 전)ICHCAP 사무총장
12:50~13:00	식전행사 (여미합창단)	
13:00~13:30	개회사 / 축사1, 2, 3	-
13:30~14:00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OUV)	박경식 / 단국대 명예교수
14:00~14:30	'타흐트-이-바이' 간다라 세계불교유산의 유산적 가치	모하마드 튜페일 (파키스탄) 홍콩이공대 조교수
14:30~15:00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이숙희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15:00~15:30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	아마라 스리수첻 (태국) 태국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
15:30~16:30	- 1부 토론 -	주수완 / 우석대 교수 최선주 / (전)국립경주박물관장
16:30~18:00	현장답사 (운주사)	
2부 / 6.21(금)		사회 : 허 권 / 전)ICHCAP 사무총장
09:30~10:00	운주사 석탑의 유형과 가치	천득염 / 전남대 건축과 명예교수
10:00~10:30	운주사 석불의 조성과 가치	이경화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10:30~11:00	운주사의 종교사상적 배경	정성권 / 단국대 교수
11:00~11:30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인식과 제고	한정훈 / 전남대 국문과 교수
11:30~12:00	일본 세계불교유산과 동아시아 교류	아라키 준 도쿄대 역사학부 인류학 박사
12:00~13:00	- 2부 토론 -	장준식 / 국원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일권 /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정경운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희태 / 전남 문화재위원
종합토론		사회 : 최선주 /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15:00~16:00	종합토론	

Schedule

- Date : 2024.6.20.(Thurs)-21.(Fri)
- Place : Hwasun County Office conference room
- Time-table

Time	Title	Presenter
Session 1 / 6.20(Thurs)		Moderator : Huh, Kwon former Director General, ICHCAP
12:50~13:00	Pre-Ceremony Event	
13:00~13:30	Opening speech / Congratulatory Message ^{1,2,3}	-
13:30~14:00	Study Achievement of Hwasun Unjusa Temple and Exploration for World Cultural Heritage	PARK, Gyung-Sik 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14:00~14:30	The Digital Reconstruction and Representation of Takht-i-Bahi World Heritage Site	Muhammad Tufail (Pakistan)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14:30~15:00	Directionality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East Asia and Comparison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LEE, Sook-Hee Cultural Heritage Apprais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5:00~15:30	Learning Values of the Buddhist Heritage Sites in Thailand and A Practical Approach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s	Amara Srisuchat(Thailand) member of the Committee of Cultural World Heritage of Thailand
15:30~16:30	Discussion	Joo, Soo-Wan Professor Arts Management a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osuk University Choi, seonju former Director of Gyeongju National Museum
16:30~18:30	Field Trip (Unjusa)	
Session 2 / 6.21(Fri)		Moderator : Huh, Kwon former Director General, ICHCAP
09:30~10:00	World Heritage Value of Stone Pagoda at Unjusa Temple based on Comparison with Buddhist Pagodas in Other Countries	Cheon, Deuk-Youm Honorary Professor/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0:00~10:30	Value of Stone Buddh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LEE, Gyeong-Hwa Cultural Heritage Apprais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0:30~11:00	Religious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Unjusa	Jeong, Seong-Kwon professor of dangook University
11:00~11:30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Heritage Value of Unjuas Temple	HAN, Jeong-Ho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1:30~12:00	Japan's World Buddhist Heritage and East Asian Exchange	Araki Jun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
12:00~13:00	Discussion	Jang, Jun-Shik President of the Kook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Kim, Il-Gweon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hung, Gyeong-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Hee-Tae Cultural Heritage Expert Member of Jeollanam-do
Wrapping Session		Moderator : Choi, seonju former Director of Gyeongju National Museum
14:30~16:30	Wrapping Sission	

목 차

발제문

1. 박경식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OUV)	15
2. 이숙희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21
3. 아마라 수리수첻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	27
4. 천득염 운주사 석탑의 유형과 가치	37
5. 이경화 운주사 석불의 조성과 가치	49
6. 정성권 운주사 종교사상적 배경	59
7. 한정훈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인식과 제고	86
8. 아라키 준 일본 세계불교유산과 동아시아 교류	94
9. 가미니 위제수리야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언	106
10. 자라와 칸 광역 간다라 불교문화권에 속한 아바사힉 치나 불교사원	112

토론문

1. 최선주 '주제발제: (이숙희)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에 대하여	124
2. 주수완 '주제발제: (아마라 스리수첻)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에 대하여	126
3. 장준식 '주제발제: (천득염)운주사 석탑의 유형과 가치'에 대하여	128
4. 장준식 '주제발제: (이경화)운주사 석불의 조성과 가치'에 대하여	130
5. 김일권 '화순 운주사 칠성석과 와불의 천문학적 특성과 천문유산적 가치'	132
6. 정경운 '주제발제: (한정훈)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 인식과 제고'에 대하여	138
7. 김희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제언'	140

Contents

Presentation

1. PARK, Gyung-Sik / Study Achievement of Hwasun Unjusa Temple and Exploration for World Cultural Heritage 144
2. Muhammad Tufail / The Digital Reconstruction and Representation of Takht-i-Bahi World Heritage Site 152
3. LEE, Sook-Hee / Directionality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East Asia and Comparison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162
4. Amara Srisuchat / Learning Values of the Buddhist Heritage Sites in Thailand and A Practical Approach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s 170
5. Cheon, Deuk-Youm / World Heritage Value of Stone Pagoda at Unjusa Temple based on Comparison with Buddhist Pagodas in Other Countries 182
6. LEE, Gyeong-Hwa / Value of Stone Buddh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196
7. HAN, Jeong-Hoon /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Heritage Value of Unjusa Temple 208
8. Gammini Wijesuriya / Some suggestions for Unjusa-ji as World Heritage 216
9. Jarawar Khan / The Buddhist Complex of Abba Sahib Cheena in Greater Gandhara 222

Discussion

1. Choi, Seon-Ju / About Presentation 3 (Lee sook-hee) 234
2. Joo, Soo-Wan / About Presentation 4 (Amara Srisuchat) 236
3. Jang, Jun-Shik / About Presentation 5 (Cheon, Deuk-Youm) 238
4. Jang, Jun-Shik / About Presentation 6 (LEE, Gyeong-Hwa) 240
5. Kim, Il-Gweon / Astronomical Characteristics and Astronomic Heritage Value of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at Hwasun Unjusa Temple 242
6. Chung, Gyeong-Un / About Presentation 7 (HAN, Jeong-Hoon) 250
7. Kim, Hee-Tae / Suggestion for Designation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252

발 제 문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OUV)

박경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I. 머리말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와 용강리 일원에 건립되어 있는 운주사는 千佛千塔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석불은 모두 101개체로, 석탑은 30여기 이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석탑과 석불의 존재로 인해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서 “千佛千塔의 사찰”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綾州牧誌』와 『綾州邑誌』를 비롯해 근세의 문헌자료에 이르기까지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고 있다. 이처럼 한 사찰에 많은 수의 석탑과 석불이 현존하는 예는 국내의 어느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예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불상과 불탑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유적과도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오늘 운주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그간 연구되어 온 성과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겠다.

II. 운주사에 대한 연구성과

운주사의 불탑과 불상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우현 고유섭선생에 의해 주목된 이래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이후 국내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더욱이 1984년부터 1989년에 걸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사찰의 창건과 폐사는 물론 유물과 유적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결과를 밑거름으로 다양한 발굴 및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석탑과 석불을 비롯해 천문학은 물론 보존과학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다. 그간 진행된 연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창건설화연구

문헌기록에 등장한 운주사의 창건과 천불천탑의 조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즉, 도선국사의 비보사찰설과 『동국여지』(1656년)에 등장한 ‘고려 승 惠明의 천불천탑 조성설을 필두로 능주 지방에 이주해 온 이민족 집단에 의한 개창설, 미륵의 혁명 사상을 믿는 천민들과 노비들이 들어와 천불천탑과 사찰을 만들어 미륵공동체 사회를 열었다는 주장, 와불이 일어서면 이 지역이 백제의 한을 이은 한반도의 수도가 된다는 주장까지도 등장하였다. 이 중 혜명은 은진 관촉사의 미륵불 조성을 조성한 승려로 추정됨에 따라 가장 신빙성이 있는 설화로 판단되고 있다.

2. 발굴조사 연구

1984년부터 1989년에 걸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4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용강리 지역에서는 총 8동의 건물지와 4개의 기단이 조사되었으며, 대초리 지구에서는 3동의 건물지와 2단으로 구성된 석축이 확인되었다.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주사는 11세기 초반에 창건되어 12세기 말에 이르러 가람의 규모가 완비되는 전성기를 거치며

네 차례의 중창을 거듭한 사찰로 확인되었다. 이 중 12세기 말에 이루어진 3차의 중창기에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어 법등을 잇다가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운주사는 대초리와 용강리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건물을 신축하고 19세기까지 존속해 왔고, 이후 19세기와 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 운주사는 창건 이래 끊임없이 법등을 이어 온 사찰로 판단된다.

3. 학술연구

운주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32년 고유섭 선생이 집필하신 「朝鮮塔婆概說」에서 운주사를 밀교적 의미로 파악한 이래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들(野村孝文, 關野貞, 杉山信三)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후 최몽룡, 성춘경, 천득염, 황호균, 김혁정, 강우방, 박경식 등 국내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4년부터 89년에 걸쳐 발굴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발굴조사보고서와 운주사종합학술조사가 발간된 바 있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운주사의 실체에 한층 더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진행되었던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운주사의 창건 배경 : 이 지역의 호족세력, 이주 집단에 의한 창건설, 천민에 의한 미륵공동체설, 몽고침략으로 인한 인왕도량, 원의 건립설 등이 대두되었다.

2) 운주사의 성격 : 불교사원, 도교사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의 진언문을 통한 밀교사원,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둔 사원, 민간신앙의 기복처, 천민의 자치구역이라 설 등 다양한 견해가 표방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역내에 조성된 불탑과 불상의 존재는 이 지역이 사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운주사의 창건연대 : 도선국사의 창건으로부터, 고려 초기, 12세기 초, 11세기 초반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된 바 있다.

Ⅲ. 운주사의 유적과 유물

1. 석탑

석탑은 방형이 17기, 원형이 5기, 형태 불명 8기를 포함해 모두 30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지닌 특성을 정리해 보면,

1) 다양한 유형의 석탑 분포: 다양한 층수와 다양한 평면 구도 및 양식을 구현한 석탑이 건립되고 있다. 특히 원형탑과 난형탑의 존재가 특이하다.

2) 석탑 배치의 특이성 : 불탑은 가람 배치상에서 건탑의 위치는 대웅전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이 통식이지만, 운주사에서는 30여기에 달하는 다양한 양식과 층수의 석탑이 골짜기의 평지와 산 중턱에 배치되고 있다. 이는 기왕에 확립된 가람배치의 정형에서 벗어난 자유분방함이 보이는데, 이 같은 배치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탑에서도 볼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닌다.

3) 지형에 따른 기단 양식의 다양성 : 석탑이 건립된 이래 기단의 구축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운주사의 석탑에서는 전형적인 기단을 구축하지 않고, 자연암반이나 커다란 단일석 암석덩어리인 석괴를 기단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탑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암반의 상면에 흠을 파고 탑이 안전하게 자리하도록 한 구조적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흠을 파고 석재를 꽃는 방식은 백제시대에 건립된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되고 있어, 앞 시대에 확립된 기술력의 전승이 주목된다.

4) 불상 및 불탑 배치를 통한 신앙적 공간의 창출 : 석탑과 석불의 배치가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불탑과 불상이 함께 어우러지게 배치되어 소규모의 신앙 공간들이 따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5) 백제계 석탑의 양식이 확인된다 : 이는 다양한 석탑의 옥개석에서 확인되는데, 옥개 받침부와 처마선의 길이, 양쪽 지붕이 만나는 합각선의 조형, 전각의 반전 등에서 찾아진다.

이같은 특성외에도 겹우주와 보조우주, 탑신의 면적에 표현된 마름모(◇, ◇), 교차선(X, XX), 수직선, 사절선(<, >) 등의 특수문양, 원형석탑의 탑신에서 나타나는 10각형으로의 작도와 황금비 적용 등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면장엄과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2. 불상

지금까지 확인된 불상은 101개체로, 이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춘 불상은 62구이다. 석불은 크게 단독으로 조성된 것과 군집을 이루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독불은 대체로 입상으로 조성되었지만, 후자의 경우는 대개 좌상을 주존으로 하고 입상을 좌우에 협시불 성격으로 안치하고 있는 것, 좌상의 좌우에 입상이 많게는 8구까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운주사 석불들의 특징으로는 추상성과 밀집성을 들 수 있다. 추상성은 조형적 특징으로 불상의 각 부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향이며 석불의 상호나 의습, 수인 등에서 확인된다. 이 같은 면면은 사용된 석재가 응회암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평판적으로 조각할 수밖에 없는 재료상의 한계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운주사 석불이 지닌 독특한 양식적 특징은 갑자기 나타난 기법이 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고려시대 석불들에서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석불과 多佛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추구한 점은 운주사 불상군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는 裨補와 천불의 신앙을 충족시키면서도 불상 봉헌자들이 개인 혹은 집단이 추구했던 원당 형식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운주사에서는 독립적 예불이 가능한 대형석불상이 밀집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복두칠성석

운주사에서 찾아지는 천문학적 의미는 칠성석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하늘의 별자리를 거대한 복두칠성 모양의 원반석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별자리 거석문화라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칠성석의 크기와 배치가 실제 보이는 걸보기 등급과 거리에 비례하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앙 차원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관점이 반영된 중요한 사례이다.

IV.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운주사

운주사가 지닌 불교 문화적 특성은 국내 어느 유적에서도 이처럼 많은 석탑과 불상을 건립한 예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국의 국보나 보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도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운주사의 모든 것이 국내를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과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기에 이의 규명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먼저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문화유산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로 정리된다. 발표자는 다음의 표에서 운주사는 제 I 항, III항, IV항이 해당하며 특히 진정(성)과 공통사항에서 완전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 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1) 운주사에 현존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창의성에 내재되어 있다.

문화는 모방과 전파를 거치며 발전하는 속성을 띠고 있다. 한편, 새로운 문화 특히 양식의 탄생은 그 지역의 자연과 인문환경을 대표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운주사에 존재하는 불탑과 불상은 불교를 믿는 나라라면 당연히 존재하는 유적이다. 하지만, 운주사에 유적에서는 창의적인 면이 내재된 유물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와불이다.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 불상의 조성은 당연한 것이기에, 다채로운 자세의 불상이 조성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와불 역시 조성되는데, 이는 인도 아잔타 석굴에서부터 중국 및 여러 나라의 석굴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측면으로 누워있고, 단독상으로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석가모니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과 신도들의 한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운주사의 와불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양식이다. 두 분의 부처님이 하늘 향해 누워있는 지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와불은 모두 다리를 뻗고 있는 형상이지만, 운주사의 와불은 가부좌를 틀고 있어 특이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운주사의 와불은 세우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설도 있지만, 주변의 넓직한 자연 암반의 상면에 조각했다. 이 같은 면면을 볼 때 이 불상은 세우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넓직하고 판판한 암반의 상면을 활용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운주사만의 와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와불이 조성될 당시 고려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와불의 조성 방법과 양식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와불의 표현에 있어 보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수행 한 단계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2) 운주사의 석탑에는 660년에 멸망한 백제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한국의 석탑은 백제시대에 건립된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백제는 660년에 멸망한 탓에 그들이 이룩한 문화는 통일신라시대의 그것과 혼재되어 명맥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진행된 문화의 복고현상에 따라 백제의 옛 영토지역안에서 백제의 문화가 다시 유행하는데, 바로 운주사의 석탑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즉, 옥개석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식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오층석탑에서 구현된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3)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에는 한국 석조건축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석조건축의 나라이다. 이는 석조문화가 발달했던 인도, 그리스, 중국 등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발달한 석조문화는 각각 독자적인 자연환경과 밀접한연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도의 사암, 그리스의 대리석, 중국의 사암과 역암이 이들 국가의 석조문화를 주도했다면, 한국은 화강암이 그 중심에 있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석재를 사용해 석탑과 석불을 조성한 이래 지속된 한국 석조문화만의 특수성이다. 즉, 자연조건을 활용한 측면에서 석조문화가 발달했던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별성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석탑의 경우는 목조건축의 재현에 양식적 근원을 두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전통적인 석탑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지만, 연화문이 새겨진 대좌나 광배를 비롯해 모든 석불에서 확인되는 의문이 새겨진 통견법외와 수인을 볼 때 삼국시대에 확립된 석불조각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더불어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에서 드러나는 조형성은 빼어난 조형이나, 정제된 균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우현 고유섭 선생은 한국미술의 특색을 “無技巧의 技巧, 無計劃의 計劃, 質朴한 맛, 鈍厚한 맛, 純眞한 맛, 非整齊性, 無關心性, 구수한 큰 맛”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운주사에 건립되어 있는 석탑과 석불에서 확인되는 다양성과 해학성은 바로 이 같은 한국미의 본질을 추구하고, 구현한 결과로 해석된다.

4) 운주사는 전통적인 불교사찰이라는 점이다.

운주사에는 30여기의 석탑과 101개체의 석불이 봉안되어 있는 불교 사찰이다. 불교를 신봉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유적 중에서 운주사에서처럼 많은 불탑과 불상이 밀집해 있는 곳은 인도의 보드가야 사원과 나란다 유적,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드르, 중국의 소림사 탑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미얀마의 바간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유적에서는 탑과 불상이 분리된 객체로 건립된 유적이 아니라 불탑이라는 거대한 구조체에 불상을 포함한 여러 신상을 봉안하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적에서는 순수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불교와 힌두교가 결합된 형태로 건립되었다는 점 역시 공통점

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건축적인 면에서도 인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다각의 평면을 지닌 구조체와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각국의 독특한 건축구조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남방건축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소림사 탑림은 경내의 한적한 곳에 수많은 불탑이 뿔뿔이 건립되어 있고, 이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불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운주사의 石塔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주사의 석탑이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불탑의 성격이라면, 소림사의 그것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이다. 결국 운주사의 석탑과 소림사의 탑림은 불탑과 승탑이라는 완전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운주사에 건립되어 있는 석탑과 석불은 불교를 신봉했던 여러 나라에서 건립된 유적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 주목된다. 더욱이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에서는 한국의 전통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객체로서 건립되었기에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명확하다. 게다가 불탑과 불상은 일정한 군집을 이루며 독립된 예배공간을 이루고 있어 공간(간)의 부족함 역시 극복하는 신앙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5) 운주사에서 확인되는 문화의 다변성은 외래적인 요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불교문화의 계승과 전라남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빚어낸 결과이다.

운주사의 석탑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 힌두교 또는 몽골의 게르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석탑에 새겨진 마름모꼴의 문양을 힌두교 사원의 부조에서 찾는다면, 운주사의 석탑과 불상에서 힌두교의 요인이 검출돼야 이에 대한 해석의 당위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운주사의 그 어느 곳에서도 힌두교의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불상 역시 몽골의 석인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적인 면과 양식적인 면에서 양자를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왜냐하면 이 같은 양식의 불상은 전남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운주사 석탑과 불상에 구현된 양식을 힌두교 또는 몽고나 원나라와의 영향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석탑에 구현된 문양은 외래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운주사의 석탑 불상에 참여했던 집단의 조영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석탑의 경우에 우주와 보조우주, 마름모와 X자 문양의 상호 연관성은 역동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석탑이 목조건축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운주사의 석탑에 구현된 마름모와 X자형의 문양들은 상승감이 강조된 석탑에 공간감을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했던 당시 장인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불상에서 드러난 해학성과 파격적인 특성 역시 고려시대에 전남지역에 유행되었던 장인집단의 문화적 역량이라 판단된다.

한국에서의 호남지역은 경상도지역에 이어 다음으로 불교조형물이 많이 건립된 지역이다. 이 같은 현상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이르러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불교문화의 동향 가운데서 보면 타 지역에서 먼저 건립된 조형물은 호남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예술적인 면에서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승화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는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인근에 있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구례 연곡사의 동부도,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 등의 승탑에서 보듯이 기왕의 양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수법과 더불어 화려한 양식을 완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곡사 동부도비에서 확인되는 조형적인 파격성,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보듯이 불상의 대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자상이 탑신을 받치는 부재로의 변화, 간주석 전체를 바꾼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및 개선사지 석등에서 보듯이 고북형 석등이라는 특수한 장르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산성쌍사자 석등에서 보듯이 기왕의 양식을 완전히 뒤바꾼 쌍사자 계열의 석등도 건립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듯 호남지역은 기왕에 완성된 문화적인 양상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양식에서 진일보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던 지역이었다. 이처럼 단순한 모방과 계승이 아니라 새로움을 창출하던 지역에 바로 운주사도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면에서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특성들은 바로 호남지역의 불교문화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특수성이 계승된 것으로, 이 지역 장인들이 지닌 예술적인 감각과 소양이 그대로 묻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호남지역의 문화동향과 예술적 능력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불교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운주사만의 천불천탑을 탄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6) 운주사는 창건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등을 이어오는 사찰로, 진정성과 완전성이 동시에 확인되는 사찰이다.

운주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고문서와 지리지인 『동국여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와 흑백유리건판 등 관련 문헌과 다양한 자료에 의해 그 실체가 분명한 사찰이다.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결과 11세기 초반에 건립된 이래 모두 4차에 걸친 중수를 거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특히 12세기 말에 이루어진 3차의 중창기에는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어 정유재란 때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후 대초리와 용강리 일대로 사역을 이전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20세기에 이르러 대규모의 중창불사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면면을 보면 운주사는 창건이래 한시도 쉼없이 법등을 이어온 사찰이다. 이 같은 면면은 앞서 언급한 아시아지역의 대규모 불교유적지가 모두 폐허화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국 불교의 끈질긴 생명력과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이라는 사실이다.

V. 맺는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주사가 지닌 탁월한 문화와 유산적 가치는 많은 수의 석탑과 석탑을 통해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들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를 불교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 풍수, 도교, 천문학 등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교류의 결정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사찰에서 다양한 교류의 흔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운주사는 매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석조유물이 지닌 불교적 속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교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석조기념물의 寶庫라고 하겠다.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



동아시아 세계불교유산의 방향성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과의 비교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I. 머리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유산은 현재 중국 61건, 일본 22건, 한국 16건이 등재된 상태이다.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위원회를 설립하여 등재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은 1987년부터, 일본은 1993년부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등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는 서구 문화강대국들에 비해 등재 시기가 늦은 편이며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해석도 서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양 불교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을 보면, 모두 14개국 48건으로 불교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중국 15건, 일본 6건, 한국 5건, 인도 5건, 스리랑카 4건 등의 순으로 등재되어 있다. 불교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표적 종교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사찰의 단독유산 외에 궁궐, 왕도, 중요 경관지역의 일부로 조성되거나 유사 유산과 함께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1970년대에 네팔의 카투만두 계곡이 처음 등재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서남아시아의 불교유산이 10건 이상 등재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급격히 늘어났으며 200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 등재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에 백제역사지구와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태국의 씨텡 고대마을과 드바라바티 유적지 등 연속유산이 불교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세계불교유산의 등재 경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1990년대에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 의해 10세기 말인 고려 초기에 창건되어 조선 전기 16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사원임이 밝혀졌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은 불교와 민간신앙인 도교 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와 특이한 조형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유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불교 외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사원과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등재 추진 중인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불교유산으로 좁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불교유산을 대상으로 등재기준의 적정성, 진정성 및 완전성의 충족여부 등을 세계유산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 연후에 등재를 위한 전략으로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특이성과 보편적 가치의 타당성 여부를 동아시아 불교유산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를 다양한 종교와 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적인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석하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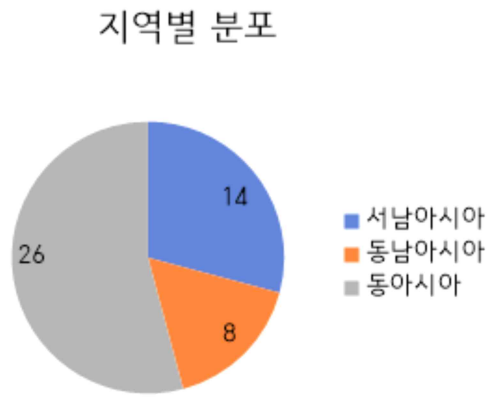
II. 세계불교유산 등재 현황과 방향성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을 지역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103건의 유산(문화 56, 자연 42, 복합 5)이 등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유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 지역은 93건의 유산(문화 84, 자연 6, 복합 3)이 등재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89건의 유산(문화 205, 자연 72, 복합 12), 유럽 및 북미 지역은 565건의 유산(문화 485, 자연 69, 복합 11)이 등재되었다. 특히 유럽 및 북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수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149건의 유산(문화 103, 자연 38, 복합 8)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불교유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에 14건이 등재되었고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8건이 있다.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에는 26건으로 전체 54.0%에 해당되며 불교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1).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불교가 자연숭배사상, 도교 등과 융합되면서 다양한 종파로 발전했으며 국가의 강력한 중심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사찰과 함께 불상, 불탑 등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국가	유산수(건)	계(48건)
서남아시아	인도	4건	14건
	스리랑카	4건	
	네팔	2건	
	파키스탄	2건	
	아프카니스탄	1건	
	방글라데시	1건	
동남아시아	태국	3건	8건
	미얀마	2건	
	인도네시아	1건	
	캄보디아	1건	
	라오스	1건	
동아시아	중국	15건	26건
	일본	6건	
	한국	5건	



[표1] 지역별 세계불교유산 등재 현황

동아시아에서의 불교유산은 그 나라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자연성지(Sacred site)로서의 역할과 함께 당시대의 문화예술 집합체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석굴 형태(둔황 모가오굴, 룡먼석굴, 원강석굴 등)의 초기 불교와 각 지역의 원림 및 건조물의 산악(타이산, 황산, 우타이산 등)에 의한 자연숭배사상과 유교, 도교적 특성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국교인 불교와 조선시대 유교 숭상정책으로 인하여 불교, 유교의 종교적 유산이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섬이라는 자연적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 숭배와 민족종교인 신도(神道) 그리고 외래종교인 불교가 습합하여 형성된 종교유산이 특징이다.¹⁾

이와 같이 동아시아 불교유산에는 인도에서 유래된 불교가 공통적이지만 각 나라마다 역사와 자연환경, 토착신앙 등에 따라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불교유산의 등재를 위한 방향으로서는 국가적 맥락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여 상호, 협동적일 때 세계불교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더욱 드러날 것이다.

III. 동아시아 세계불교유산의 등재기준 및 주안점

1. 중국 세계불교유산의 현황과 특성

중국은 1987년에 둔황 모가오 굴, 만리장성, 진시황릉, 자금성(명청시대의 황궁), 이화원 등 5건과 타이산 1건을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하였다. 현재는 문화유산 39건, 자연유산 14건, 복합유산 4건으로 총 5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 김일림, 「한중일 세계종교유산의 가치탐색」,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8권(2018), pp. 31-47.

중국 북부를 통치했던 고대 고구려의 수도와 무덤도 2004년에 등재되어 포함되어 있다.

문화유산 중 불교유산은 15건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표2]. 등재기준을 보면 (ii), (iii)번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i)번은 인간의 창의적 천재성으로 만들어낸 결과품으로 불교의 둔황 모가오 굴, 다쭈 암각화, 룡먼석굴, 윈강석굴 등이 해당된다. 타이산, 라싸 포탈라궁 역사유적군도 그 유례가 드문 불교유산들이다. (ii)과 (iii)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하며 가치를 교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산으로 독창적이거나 특이한 사례로 대부분의 불교유산이 이에 속한다. 석굴사원을 비롯하여 루산국립공원, 핑야오 고대 도시, 우타이산, 항저우 시후호 문화경관, 실크로드 등 10건이다.

(iv)번은 둔황 모가오 굴과 같이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나 기술, 경관 등의 유형을 대표하는 탁월한 예들이다. (v)번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주지, 토지,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둔황 모가오 굴, 타이산, 실크로드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vi)번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나 사상, 계승된 전통, 중요한 예술이나 문학작품 등 가치적이거나 비가시적인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유산을 말하며 석굴 사원 외에 라싸 포탈라궁과 루산국립공원, 덩핑 역사기념물과 같은 도교와 유교가 결합된 유적이 해당한다. 특히 타이산과 황산, 어메이산과 러산대불 3건은 (i)~(vi) 외에 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인 (vii)~(x)이 적용되어 복합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복합유산의 경우는 보기 드물다.

중국의 불교유산은 불교 외에 유교와 도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조성된 유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유교와 도교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교와 함께 오랫동안 중국인의 삶과 생활방식에 동화되어 왔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 또는 불교와 유교가 결합된 유산이 있는가 하면 세 종교가 모두 융합된 유산도 있다.

연번	불교유산	종교	등록기준	등재 연도
1	둔황 모가오 굴	불교	i ii iii iv v vi	1987
2	타이산	불교, 도교	i ii iii iv v vi vii	1987
3	황산	불교	ii vii x	1990
4	청더 피서산장과 주변 사찰	불교, 티베트불교	ii iv	1994
5	라싸 포탈라궁의 역사유적군	티베트 불교	i iv vi	1994
6	어메이산과 러산대불	불교	iv vi x	1996
7	루산국립공원	불교, 유교, 도교	ii iii iv vi	1996
8	핑야오 고대 도시	불교	ii iii iv	1997
9	다쭈 암각화	불교, 유교, 도교	i ii iii	1999
10	룡먼석굴	불교	i ii iii	2000
11	윈강석굴	불교	i ii iii iv	2001
12	우타이산	불교, 유교	ii iii iv vi	2009
13	덩핑 역사 기념물	불교	iii vi	2010
14	항저우의 시후호 문화경관	불교	ii iii vi	2012
15	실크로드: 창안-텐산회랑	불교	ii iii v vi	2014

[표2] 중국 세계불교유산 현황

2. 한국 세계불교유산의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석굴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3건이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창덕궁과 화성 2건, 2000년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2건,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 2009년 조선왕릉 1건 2010년 양동, 하회의 한국역사마을 1건, 2014년 남한산성 1건, 2015년 백제역사 유적지구 1건, 2018년 산사 한국의 승원 1건, 2019년 한국의 서원 1건, 2021년 한국의 갯벌 1건 등 15건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거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23년 가야고분 1건이 추가되면서 총 16건의 세계유산이 있다. 북한지역으로는 개성의 역사기념물과 유적지, 고구려 고분군 등 총 2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 세계유산의 등재 현황을 보면, 16건 중 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 복합유산은 한 건도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상황과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는 불교와 유교 관련 종교유산이 16건 중 9건으로 전체의 56.2%에 해당한다. 그중 유교유산이 4건이고 불교유산은 5건이 포함되어 있다. 불교유산으로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석굴암 및 불국사를 비롯하여 경주역사지구, 백제역사지구(공주, 부여, 익산)가 있고 최근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통도사, 봉정사, 부석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표3]

1995년에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한 단층 목조건물이며 창건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iv), (vi)번의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조물이며 종교유산으로서 보편적 의미와 사상, 계승된 전통 등과 연계된 유산임을 의미한다.

(i)번과 (iv)번에 의거하여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한국 고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품이다. 특히 석굴암은 건축, 공간 구조, 불교조각 등에서 뛰어난 기술과 완벽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등재기준이 (ii), (iii)번으로 공통적이며 절터를 비롯하여 궁궐, 고분, 성곽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유산이다. 신라와 백제의 고대 도시인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중심으로 불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2018년에 등재된 한국의 산지 승원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의 사찰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불교 출가자와 신도들이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승원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는 산지형 불교사찰을 대표하는 사례로 (iii)번의 등재기준에 해당된다. 이외 유교 관련 종교와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의 역사마을이 등재되었고 왕실과 관련된 창덕궁과 화성, 남한산성과 같은 탁월한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성곽 등이 있다.

연번	불교유산 명칭	종교	등록기준	등재 연도
1	해인사 장경판전	불교	iv vi	1995
2	석굴암과 불국사	불교	i iv	1995
3	경주역사지구	불교	ii iii	2000
4	백제역사지구	불교	ii iii	2015
5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불교	iii	2018

[표3] 한국 세계불교유산 현황

3. 일본 세계불교유산의 현황과 특성

호류지 지역(法隆寺)의 불교기념물을 비롯하여 히메지성(姬路城) 2건의 문화유산과 시라카미(白神山地) 산지, 야쿠시마(屋久島) 2건의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²⁾ 현재 세계유산은 총 25건이며 문화유산이 20건, 자연유산은 5건, 복합유산은 한 건도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불교유산은 호류지 지역의 불교 기념물과 교토(京都) 및 나라(奈良)의 역사 기념물 등을 포함하여 닛코의 신사와 사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히라이즈미 등 6건으로 전체 25건 중 24.0%에 해당한다[표4]. 이외 종교적 건물군에 속해 있는 기념물과 유적지 10건을 포함하면 64.0%로 일본 세계유산의 절반 이상이 종교유산임을 알 수 있다.

최초로 등재된 일본 나라현의 호류지 불교 기념물은 48개의 불교사원으로 7세기 아스카(飛鳥)시대에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세운 것이나 한차례 소실된 후 8세기 초에 재건되었다. (i), (ii), (iii), (iv) 등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호류지에는 아스카시대와 각 시대를 상징하는 목조건축물이 다수 있는데 중국 육조시대의 건축 양식과 백제시대의 목조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예들이다.

교토의 역사 기념물은 교토시, 우지시(宇治市),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있는 17개의 신사와 불교사원을 말한다. 등재기준은 (ii), (iv)번에 해당된다. 교토는 8세기에서 17세기까지 불교건축과 일반건축, 정원 설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중심지로 다이고지(醍醐寺)와 닌나지(仁和寺), 묘도인(平等院), 우지가미신사(宇治上神社) 등은 당시의 시대양식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조창민부, 「일본의 세계유산 추진전략」, 『백제문화』 제40호(2009), pp. 5-34.

나라의 역사 기념물은 (ii), (iii), (iv), (vi)번에 해당되는데 중국과 한국 불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찰과 일본 민족 종교인 신도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호류지와 나라의 사찰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 백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깊다. 불교조각도 전반기에는 삼국시대 불상양식과 비교되며 후반기는 통일신라시대 불상과 관련이 있으면서 중국 당나라와도 문화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 된다.

닛코의 신사와 사찰과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은 (iv), (vi)번이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외래 종교인 불교와 일본 특유의 신도(神道)가 습합되면서 동아시아 종교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보여준다. 일본의 불교는 자연숭배사상, 민족종교인 신도(神道)와 결합되어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이 특성이자.

히라이즈미 유적은 11세기 지방 호족의 후원으로 현실세계에 정토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립된 선종 사원이다. 일본의 토착적인 자연숭배사상과 불교가 융합된 특이한 형태의 사찰로 현재 목조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적지(절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유일한 사례이다.

연번	불교유산 명칭	종교	등록기준	등재 연도
1	호류지(法隆寺) 지역의 불교기념물	불교	i ii iii iv	1993
2	고대 교토(京都)의 역사기념물	불교	ii iv	1994
3	고대 나라(奈良)의 역사기념물	신도, 불교	ii iii iv vi	1998
4	닛코(日光)의 신사와 사찰	신도, 불교	i iv vi	1999
5	기이(紀伊) 산지의 영지(靈地)와 참배길	신도, 불교	ii iii iv vi	2004
6	히라이즈미-불교 정토사상을 대표하는 사찰, 정원, 고고 유적군	불교, 신도	ii vi	2011

[표4]일본 세계불교유산 현황

IV. 동아시아 불교유산과 운주사 석불석탑군과의 비교

지금까지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해석이 서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구 문화유산의 비중이 높고 동아시아의 불교유산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재 등재 추진 중인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형태가 다양하고 특이한 조형성 때문에 서로 비교, 고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도상적으로도 연결시킬만한 불상이나 석탑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불교 외에 밀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별자리와 관련된 칠성석(七星石)이 남아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주사 석불석탑의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세계불교유산으로 등재된 사례와 비교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i), (iii), (iv)의 등재기준에 근거하여 2017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는 화순 운주사가 고려 초기에 창건되어 조선 전기까지 존속했던 사찰로 풍수지리, 불교, 밀교, 도교, 천문학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의 불상과 석탑을 창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욱이 추상적인 조형미와 독창적인 군집성을 보여주는 천불천탑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불교유산 중에서 보기 드문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도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등재된 세계불교유산 중에는 (ii), (iii)번이 많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등재 기준 (i)번의 인간의 창조적 재능을 나타내는 걸작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등재기준 (iii)번을 적용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실제로 1994~2005년까지 등재된 대부분의 불교유산은 (iii)번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세계유산 등재 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는 (iii)번이 사라진 문명 뿐만 아니라 현존 문명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iii)번과 함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양식 혹은 건축적, 기술적인 집합체”로 규정한 (iv)번을 충족하는 유산이 증가하게 되었다.³⁾ 이러한 추세에서 본다면 세계유산으로서 불교유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고려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추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동아시아 불교유산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등재기준 (iii)번을 포함하고 있는 불교유산은 둔황 모가오 굴을 비롯하여 타이산, 평야오 고대 도시, 다쭈 암각화, 룡먼석굴, 윈강석굴, 우타이산, 덩핑 역사 기념물, 항저우 시후호 문화경관, 실크로드(장안-텐산회랑) 등 상당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주역사지구, 백제역사지구, 산사(산지 승원)가 해당되며 일본의 호류지 지역 불교 기념물, 나라의 역사 기념물,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도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불교유산은 세계불교유산과 같이 (iii)번의 등재기준이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iii) 외에 (i), (iv)번의 등재기준이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등재기준은 우리나라 불교유산 중에서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지만 중국 둔황 모가오 굴, 윈강석굴, 타이산과 일본의 호류지 지역 불교 기념물 등에서 볼 수 있다. 또 아시아 지역으로 좀더 넓게 본다면, 인도의 산치 불교 기념물과 부다가야의 마하보디사원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 아프가니스칸의 바미안계곡 문화경관 및 고고유적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재기준으로 볼 때 운주사 화순 석불석탑군의 (iii)번은 공통적인 요건으로 많이 볼 수 있지만 (i), (iii), (iv)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불교유산은 8건 정도가 해당된다. 이는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이 동아시아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된 불교의 확산에 의한 유산이며 고려시대의 고유한 문화, 종교, 조형미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V. 맺음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은 (i), (iii), (iv)번에 해당된다. 이는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뿐아니라 그 나라 민족의 신앙, 문화, 종교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유산으로 독창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잠정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더욱이 화순 운주사의 탁월한 유산적 가치는 대형의 와불(臥佛)과 석실상배불(石室相背佛), 다불(多佛), 그리고 원반형 탑과 원구형 탑, 문양탑, 칠성석 등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14세기 동아시아에 전개되었던 불교문화의 발전과 전개를 증명하는 예로서 고려시대 불상의 독특한 조형성과 불탑의 공간 구성체계를 보여준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보다 집중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181개국 1,753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량이 등재 추진 중에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상징성 확보와 경제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불교유산, 즉 시리즈형의 연속유산, 해당 국가의 고유한 문화경관 등을 발굴하여 이를 등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유산의 등재 경향을 보면, 경관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점 단위의 단독유산이 아닌 연속유산의 등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등재 기준의 적용도 보다 강화되어 비교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유산의 등재는 2010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문화유산 복원센터에서는 신규 등재보다는 기존에 등재된 유산들의 보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속가능한 보호 방안 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 이후에는 1국 1건 신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간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2023년에 등재된 태국의 씨텡 고대 마을과 드바라바티 유적지는 지금까지 불교유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유적지(절터)나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유산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등재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은 세계유산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향후에 각 나라간의 협조를 통해 불교유산 등재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윤성호, 「세계유산 등재 고고유적과 양주 회암사지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64집 (2021), pp. 450-451.

화순 운주사의 연구 성과와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모색

아마라 수리수첵 박사

태국문화부 미술국 수석 고문(고고학 및 박물관),
태국 세계문화유산 위원회 위원

초록 :

본 논문은 태국의 불교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 문화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불교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간 유산 보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의 활용을 통해 유형유산의 가치를 높인 성과 사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불교 예술 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발표와 홍보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I. 들어가는 글

가장 철학적인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2,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인 부처 <고타마 싯다르타>가 열반에 드신 후 약 5000년이 지나 불교는 대승불교의 형태로 발전했고, 이후 인간 부처, 천상 부처, 불멸 부처, 보살로 이루어진 밀교(또는 탄트라 불교)가 탄생했다. 불교 철학은 대승불교, 상좌부불교(정통 불교)를 가리지 않고 불탑, 법륜, 부처님의 발자국 등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과 보리수 심기 등에 담겨 있다. 초창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종파의 철학과 관행을 모두 수용했다(Srisuchat, 2018 a: 7). 불교 전파 이전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정령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신을 숭배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기준으로 각각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주요 문명인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초로 바다를 건너 접촉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400-300년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 세기 초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두 전통이 본토와 말레이 군도에 널리 자리잡았다. 기원후 3 ~ 8 세기 중국 공식 문서에 중국과 접촉한 동남아시아 도시 국가 또는 왕국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동남아시아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문화적 요소들을 취사선택한 결과 탄생한 토착 전통과 외래 전통의 습합 문화는 예술 작품에도 반영되었다(Srisuchat, 2018 b: 29-30, 40). 이 지역의 불상과 불교 건축물은 토착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오늘날 태국 지역에서도 다양한 시대의 가용한 재료가 사용된 불상이나 불교 건축물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II. 간략한 태국 불교의 역사 - 세계문화유산 중심

태국의 불교는 기원전 5세기 ~ 6세기 초에 경에 인도 및/또는 스리랑카로부터 도입되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 들어온 불상은 태국 반도와 태국 중부에 모서지면서 현지 문화가 접목되어 변형되었다. 기원후 6세기부터 13세기까지 태국의 각 지방은 드바라바티(Dvaravati), 스리비자야(Srivijaya), 라바푸라(Lavapura) 등 3개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드바라바티(6 - 12세기, '시텡(Si Thep)의 고대 마을 및 관련 드바라바티 건축물'로 대표되는 세계유산(이하 TWH no. 3))은 오늘날 미얀마에 해당되는 지역의 피우족과 몬족('피우 고대 도시'와 '바간'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불교 세계유산)과 함께 태국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북부 지역에는 이후 11 ~ 13 세기 경에 불교 국가인 하리폰자야(Haribhunjaya)가 들어섰다(Srisuchat, 2018 b: 42). 중부 및 북동부 지역의 라바푸라(Lavapura) 또는 롱부리(Lopburi)(7 -13 세기)의 성장은 현재 캄보디아에 위치한 크메르가 발전한 시기와 겹치며, 10~13 세기 경에는 두 지역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다 (라바푸라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캄보디아의 세계유산, 예를 들어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이 모두 나타나는 '앙코르', 힌두교 유산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 힌두교 유적 '삼보르 프레이 쿡(Sambor Prei Kuk) 사원 구역, 고대 이샤나푸라(Ishanapura) 고고학 유적지' 등). 태국 반도 남부에는 스리비자야 연합 국가 (7 -13세기)가 들어섰으며, 8 ~ 13 세기에는 그 영역이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 태국-말레이 반도까지 넓어졌다; 스리비자야는 동남아시아 내 해상 무역과 서양과 극동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지배했다. (인도네시아 본토의 스리비자야 주와 관련된 세계유산으로는 대승불교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 단지'와 힌두교 ' 프람바난(Prambanan) 사원 단지' 등이 있다). 초기 왕국들과 그 전통이 몰락한 후 새로 등장한 태국 지역의 국가들은 일시적인 토착 정령신앙, 힌두교의 정치 전통, 그 밖의 외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주로 상좌부불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이민자들이 태국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불교, 유교, 도교 전통이 더해졌다(Srisuchat, 2016: 8-26). 이 시기 상좌부불교는 태국의 국교가 되었다.

상좌부 불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가운데 이 시기 번성했던 태국의 주요 왕국들은 다음과 같다: 탐브랄링가(Tambralinga)(12 - 14세기), 태국 남부 나콘시탐마랏 지방; 란나(Lanna), 12 - 18세기),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방 (13 - 18세기); 수코타이(Sukhothai)(13 -15 세기), 태국 북부 수코타이 지방, 아유타야(Ayutthaya) (1350 - 1767), 태국 중부 프라 나콘시 아유타야 (Phra Nakhon Si Ayutthaya) 중심, 톤부리(Thonburi)(1767-1782), 태국 중부 톤부리 지방, 라타나코신(Rattanakosin) (1782 - 현재), 현재 태국의 수도인 방콕 지방(Srisuchat, 2017 a: 8). 태국 북동부(메콩강 西岸) 지역과 현대 라오스(메콩강 東岸) 지역에는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세계문화유산 등재)'과 비엔티안(Vientiane)을 중심으로 한 '란창'(Lan Sang 또는 Lan Xiang)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의 일부가 각각 아유타야와 방콕에 있는 시암 왕국(현재 태국)의 통치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의 라오스 지역은 1893년 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53년 10월 22일, 독립 정부인 라오 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이 들어섰다(Wyatt, 2003: 76 -126, 184 -192, 273 - 274). 란창의 불교 전통은 메콩강 서안(라오스)과 동안(태국 북동부)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유네스코 가입국으로서 태국 정부는 현재 태국의 영토 내에 있는 불교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수코타이 역사 도시 및 관련 역사 도시', 1976년[이하 TWH 1호], '아유타야 역사 도시', 1976년[이하 TWH 2호], '시탐의 고대 도시 및 관련 드바라바티 건축물', 2023년[이하 TWH 3호], 등 세 개의 국가 유산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 문화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은 해당 유적지와 그 불교 건축물, 예술품이 가지는 가치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태국의 다음과 같은 6개 문화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 서류'를 준비 중이다. 푸프라밧(Phuphrabat) 역사공원, 2004[이하 TTL 1호],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의 왓 프라 마하탓 워라마하위한(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2012[이하 TTL 2호], 란나의 수도 치앙마이의 기념물, 유적지 및 문화경관, 2015[이하 TTL 3호], 프라탓 파놈(Phra That Phanom)과 관련 역사적 건물 및 경관, 2017년[이하 TTL 4번], 파놈룽(Phanom Rung), 무앙탐(Muang Tam), 플라이 바트(Plai Bat) 보호구역 유적군, 2019년[이하 TTL 5번], 송클라(Songkhla) 및 관련 라군(Lagoon) 정착지, 2024년[이하 TTL 6번] 등이 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잠정목록'에 등재된 해당 국가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 상태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회원국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자국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유네스코, 2018: 93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WHC.21/01, 2021년 7월 31일'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잠정목록과 후보목록을 바탕으로 보호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의무를 진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지,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할지, 또는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해야 할지를 결정한다(세계유산센터, 2021: 15).

III. 가치 학습의 5단계

1. 첫 번째 단계: 지리-문화 권역의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배우기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불교유산에 대한 평가에 앞서, 유산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후보지 비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유산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BWH] 인도 1. 아잔타 석굴, 2. 엘레판타 동굴, 3. 산치의 불교 기념물군, 4. 부다 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단지, 5. 비하르 날란다의 날란다 대승원(날란다 대학교) 고고학 유적; 네팔: 6.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7. 카트만두 계곡, 파키스탄: 8. 탁실라, 9. 타흐티바히의 불교 유적과 사리바롤의 도시 유적, 방글라데시: 10. 파하르푸르의 불교 유적; 아프가니스탄: 11.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 및 고고학적 유적; 중국: 12. 타이산, 13. 둔황 모가오 동굴, 14. 라싸의 포탈라 궁의 역사 유적군, 15. 다쭈 암각화, 16. 룡먼 석굴, 17. 원강 석굴, 18. 우타이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 개성역사유적지구, 대한민국: 20. 해인사 장경판전, 21. 고려대장경 목판 수장고, 22. 경주 역사유적지구, 23.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본: 24. 호류지 지역의 불교 기념물, 25.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교토, 우지, 오쓰 시), 26.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27. 히라이즈미-불교 정토 사상을 대표하는 사원, 정원, 고고 유적군, 28. 후지산, 신성한 장소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 스리랑카, 29. 폴로나루와 고대 도시, 30. 시기리야 고대 도시, 31. 담불라 황금 사원, 32.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 33. 캔디 신성 도시, 베트남: 34. 호이안 고대 도시, 라오스: 35. 루앙프라방, 캄보디아: 36 앙코르, 인도네시아: 37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군, 미얀마: 38 퓨 고대 도시, 39. 바간.

참고: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일부 불교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논의할 태국의 세계유산 제외).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불교적 측면의 속성에 대해 학습한 후, 위에서 언급한 세계유산 중 괄호(..) 안에 표시된 번호를 특별히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1)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 [기준 I]

위 목록 중 등재번호 1, 2, 3, 4, 10, 11, 12, 13, 15, 16, 17, 20, 24, 29, 31, 36, 37번이 불교 세계유산(BWH)이다. 세계유산은 규모가 거대하거나 수가 많은 기념물, 고고학적 발굴물 중 인간의 높은 잠재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 작품 또는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해 많은 인내와 결단력이 필요했고, 거대한 작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통해 그 가치가 인정 된다. 문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의 혁신을 이루거나 독창적인 예술 작품, 즉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 [기준 II]

1, 2, 3, 4, 10, 11, 12, 13,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7, 28, 30, 32, 34, 35, 36, 37, 38번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이 기준은 다양한 문구나 개념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된다: '상당한 예술적 영향을 미쳤다' (1), '캄보디아에서 멀리 떨어진 불교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10), '예술적, 문화적 발전'(11), '인도의 탄트라 불교와 중국의 도교 및 유교 신앙이 이곳에 모여 영적 조화를 이루는 영향력 있는 표현을 만들어냈다'(15),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16), '네팔에서 몽골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풍부한 사상 교류를 반영한다'(18), '동아시아에서의 불교에서 성리학으로의 전환'(19),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 사이에 상당한 기술, 종교(불교), 문화 및 예술 교류의 교차점' (23), '일본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국 문화 및 불교' (25), '모두 일본 건축 발전의 중심'. (26), '정토 불교 우주론의 일본에 전파'(27), '정원 계획 및 설계 개념의 발전'(27), '이 바위에 새겨진 시들은 가장 오래된 텍스트 중 하나로 이 도시가 문학과 사상에 미친 상당한 영향을 보여준다'(30), '앙코르에서 발전한 크메르 예술, 동남아시아 대부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36)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증거 [기준 iii]

이 기준은 WBH 1, 2, 3, 4, 6, 7, 8, 11, 12, 13, 15, 16, 17, 18, 19, 22, 23, 26, 28, 29, 30, 32, 36, 38번에 해당된다. 평가에 사라진 전통이나 문명에 관한 문구가 포함된다: '불교 승려와 장인들이 거주했던 동굴 사원'(1), '사라진 문명에 대한 독특한 증거'(2), '12세기까지 인도 불교의 주요 중심지'(3), '중요한 불교 학문의 중심지'(8), '12세기까지 유명한 지식의 중심지'(10),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간다라 불교 예술과 결합된 고대 박트리아의 특징을 형성했다'(11), '불교와 도교 모두의 중요한 종교 활동 중심지'(12), '12세기에 신도 요소를 포함하는 고행 불교 수행의 중심지가 되었다'(28), '폴론나루와는 여러 문명의 증거이다'(31). '살아있는 문화 전통 또는 문명'과 관련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7), '순례자들의 목적지'(8), "'깨달음의 나무'(보리수)에서 자른 가지가 번성하여 오늘날에는 성지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있다'(32).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 [기준 iv]

BWH 3, 4, 5, 6, 7, 9, 11, 12, 13, 14, 17, 18, 20, 21, 24, 25, 26, 30, 33, 35, 36, 38, 39번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치를 제시하는 평가는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성지이며 인도에서 불교의 주요 중심지였다'(3),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4대 성지 중 하나이다'(4), '사원과 학술 기관으로 구성된 고고학적 유적이다'(5), '인도 황제 아쇼카가 그곳에 기념 기둥을 세웠다'(6), '도시 발전의 여러 단계를 보여준다'(8), '이 유적지의 불교 사원 단지는 여러 차례의 침입을 견뎌왔으며 여전히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9), '수많은 불교 사원과 성역, 이슬람 시대의 요새화된 건축물'(11), '바위 비문, 석판, 사원은 황제와 저명한 학자들 방문을 증언하고 있다'(12), '티베트 불교와 전통 행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상징한다'(14), '중국 불교 동굴 예술의 뛰어난 업적을 대표한다'(17), '건물, 조각상, 그림, 비석 장식이 가치를 인정받았다'(18),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존경받는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다'(21), '종교사적으로도 한반도를 통해 중국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된 시기와 일치'(24), '큰 사찰의 건축..., 일본식 정원 조성'(25), '기념비적인 목조 대불전이 있는 동대사(東大寺)....신사 주변의 자연 환경이 신사의 필수 요소로 신성한 숲으로 보존되어 있다'(26), '치아 사원 유적지는 ... 불교 확산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33), '라오스 전통 건축과 도시 구조가 유럽 식민지 시대의 건물과 융합된 뛰어난 사례이다'(35), '벽돌로 쌓은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세 개의 도시 유적은... 1,000년 이상 지속되었던 퓨 왕국의 번영을 보여준다...(38), '불교 예술과 건축의 뛰어난 확장성이 특징인 신성한 풍경이다'(39).

5)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 [기준 v]

12번, 13번, 34번, 35번이 해당된다. 관련 문장 또는 구문은 다음과 같다: '이 풍부한 문화유산이 자연 경관과 통합된 방식'(12), '전통적인 사원 거주지의 훌륭한 예'(13), '건물들이 좁은 길을 따라 정렬되어 있으며 탑, 사원, 집회소와 같은 많은 종교적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34).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된 유산 [기준 vi]

1, 3, 4, 5, 6, 7, 8, 10, 11, 12, 13, 14, 18, 21, 24, 26, 27, 28, 29, 31, 32, 33, 37번에서 제시하고 있다. 운영 지침 WHC.21/01 2021년 7월 31일, 29~30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준은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즉, 문화유산은 위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v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주요 관련 문구/문장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배 공간'(4), '사원 및 교육 전통의 번성'(5), '순례 장소'(6), '사원과 안뜰이 많은 작가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7), '이 유산은 비극적인 파괴의 증거이기도 하다'(11), '가장 잘 보존된 동굴 사원 단지 ... 그리고 지속적인 재도장(再塗裝) 전통'(31), '유명한 순례지 ... 여전히 불교의 종교 수도이자 수백만 신자의 성스러운 도시'...(33).

위에서 언급한 불교 세계유산[BWH]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태국의 '등재유산' 또는 태국의 잠정목록[TTL] 포함 유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태국의 6개 문화유산 중 5개 유산이 불교 건축, 불상, 불교 상징물이다. 같은 가치를 표현하는 태국의 잠정목록[이하 TTL]과 비교할 수 있는 BWH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i)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암석 사원과 암벽화 TTL 1은 BWH 1, 2, 13, 16, 31 번과 유사하다. ii) TTL 2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원 단지 BWH 35, 39, 태국 세계유산 1, 2번과 유사하지만, 태국 세계유산의 종 모양의 사리탑은 스리랑카 불탑의 영향을 받은 TTL 2번의 주탑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그 형태와 디자인, 건축기법 등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이 잘 나타난다; iii) TTL 2, 3, 4번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나무인 보리수를 심고 숭배하는 전통은 BWH 4, 32번과 유사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iv) BWH 35번, 라오스의 '오목한 연꽃 모양의 사리탑' TTL 4번과 같은 태국 북동부 지역의 사리탑에서 불탑을 통한 문화 교류를 살펴볼 수 있다; v). 현재 도시 공동체 내에 위치한 불교 기념물인 TTL 2, 3, 4, 6번은 BWH 7, 14, 25, 33, 34, 35, 39번의 불교 기념물과 가치를 공유한다. 이 유적지의 '유형 유산'과 만나는 '무형 유산'에 대해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 다룰 예정이다.

2. 두 번째 단계:

적절한 보호, 보존,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유적지의 보존 상태, 완전성, 진정성을 파악한다.

보존의 가치가 곧 유산의 가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태국 내 불교 유적지의 보호 상태는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나타난다. 지역 불교 유적은 태국 문화부 산하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및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인 미술국(FAD)에서 '공식 목록'에 등재하면 그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FAD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불교 유적지는 '국가 재산 목록' 또는 '국가 보호 기념물 목록'에 등록되며, 유적지의 이름과 특성이 법적으로 공표되고 왕실 관보에 게재된다(미술국, 2000: 27-46). FAD 또는 지방 정부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 보호 기념물'은 '태국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문화부 장관이 임명)에 제출되어 평가를 받고 책임 기관이 유적지 공식 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잠정목록' 또는 '등재 서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정목록' 및 '등재 서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학술팀이 직접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주/지방정부가 작성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3곳의 관할 성/지방정부의 '등재 서류'가 7~11년이 지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특성이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할 당국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관할 당국은 단지 '등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을 뿐,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나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할 유산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할 책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와 보존의 순차적 과정, 단계별, 주기적 절차, 즉 보존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무지와 핵심 인력(예: 보존 관리자, 고고학자, 자격을 갖춘 현장 관리자)의 부재,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전략 부재는 태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 시키거나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대부분의 유적지가 지방 정부 관할인 것과는 달리 이미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3곳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2곳을 포함하여 FAD 관할 하에 있는 유적지들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일부를 '국가역사공원'으로 지정하여 잘 보호, 보존, 관리되고 있다. 국가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역

사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건에 따라 현장 근무 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몇몇 불교 유적지는 사원에 속해 있는 '실제 생활 공간'이라는 이유로 국가역사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원들이 승가법(불기 2502년, 불기 2535년(서기 1992년) 개정(2호)에 따라 '태국 승가최고위원회'(승가=승려)에 속한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는 지방 정부 관할의 세 후보지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방 사찰의 법적 소유자와 지방 정부가 사찰 내 불교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찾고 관계 당사자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3. 세 번째 단계:

유적지의 전체적, 종합적 특성 또는 특정 부분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특성을 찾는다.

경험적 탐구: 대상 유산이 가진 특성의 '유형'을 불교 문화유산의 특성과 연결한다:

유네스코 운영 지침은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특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형태와 디자인, (2)재료와 물질, (3)용도와 기능, (4)전통, (5)기법, 관리 체계, (6)위치, 주변 환경, (7)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8)정신, 감정, (9)기타 내부 및 외부 요소(세계유산센터 2021: 31,107). 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이러한 특성의 유형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태국의 3개 불교 관련 국가 자산이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유산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9가지 특성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을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등재 서류' 작성을 위한 선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코타이 및 주변 역사도시(시사차날라이(Si Satchanalai), 캄팡펏(Kamphang Phet))[이하 TWH 1번]

이 유적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사리탑'과 '이상화된 보행 불상'의 전형적 **형태와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라는 기준 1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TWH 1번에는 불상과 함께 '태국 건축'의 **기원**을 보여주는 수많은 불교 유적들이 있다. 정교한 **재료**로 제작된 치장 벽토와 도자기, 지하에서 파낸 거대한 라테라이트 덩어리를 기둥으로 설치해 상부 구조를 지탱하도록 한 **기법**, 뛰어난 **재료**와 고도의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는 뛰어난 **불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불교 성지라는 **주변 환경**에 계획적으로 세워진 이 불교 사찰은 '**사라진 문화 전통에 대한 증언**'이라는 기준 iii에 부합되는 유산이다.

2) '아유타야 역사도시[이하 TWH 2번]

기준 iii에 부합되는 불교 유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에는 불교 사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특징적인 건축물로는 '유물탑'('프랑(prang)')으로 알려진 태국의 전형적인 불탑)을 들 수 있다. '부처님의 유물' 외에도 금, 수정, 보석 등 귀중한 **재료**로 만들어진 많은 공양물들이 탑 내 보관고에서 발견되었다. 불교 건축물의 영광은 외국의 여러 문헌과 **지도**에도 언급되어 있다. TWH 2번은 승려들의 거주와 종교의식 수행 공간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불교 기념 건축물(불탑)과 다양한 **형태**의 불상 등 태국 상좌부 불교의 건축 **전통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원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보조 사리탑(태국어 '체디(chedi)')이 많다. 이 사리탑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고 유족이 고인의 유골함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참배하는 **용도로** 지어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영역**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태국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도시에 들어선 수많은 사원들과 그 사원들이 수행한 다양한 **기능**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동서양 간의 해상 무역로 확장이라는 **외적 특성**을 가능케 한 중요한 **내적 특성**이었다.

3) '시텡의 고대 마을과 관련 드바라바티 기념물[이하 TWH 3번]

불교 우주론에 기초하여 잘 계획된 도시와 주변의 사원 **환경**.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대한 벽돌 불탑의 건축 **기법**, 토착적인 **기법**을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디자인**에 잘 접목시켜 저명한 외국 연구자들로부터 뛰어난 예술 양식으로 평

가받는 '시탑 양식' 등을 통해 드바라바티 문화의 복잡성과 독특한 예술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준 ii와 iii를 충족하는 '유산군(群)'이다; 이는 **외부 요인**에 해당되는 여러 **언어의 문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높은 석회암산 내부에 희귀한 **재료**인 종유석과 석순에 새겨진 부처와 보살의 부조상은 고대 불교 신자들의 **정신과 감정**을 증언한다. 이 신성하고 우주적인 유적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결과로 탄생했다.

4. 네 번째 단계:

불교 유형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특성 유형'에 부합되는 국제적 수준의 관련 '무형문화유산 및 또는 '기록유산' 제시.

'세 번째 단계'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하여, '유형' 7, 8, 9번이 앞서 언급한 유산들과 관련이 있다. 태국의 여러 무형 문화와 인물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이하 IH], '세계기록유산'[이하 DH], '유네스코 위대한 인물 및 역사적 사건 기념일'[이하 PH]에 등재된 바 있다. 태국의 세계유산[TWH] 및 태국 잠정목록[TTL]과 연계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WH 1번은 '**람캄행(Ramkhamhaeng) 왕 비문**'[DH no.1, 2003]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비문은 해당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태국 문자의 발명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TTL 2번, 4번을 불교의 성지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TWH 1번과 2,4번 사이의 '가치의 교환'[기준 II]을 재확인한다.

- '**왕실 사진 유리판 네거티브 및 원본 인화 컬렉션**'[DH 5호, 2017]은 TWH, TTL의 오래된 사진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가장 오래된 시각적 기록 (1845~1929년)으로서 유산의 보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입증하고 불교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사진에는 '태국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라마 4세, '위대한 사랑받는 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라마 5세, 각각 '태국 역사의 아버지'와 '태국 건축과 전통 예술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진 담롱(Damrong)과 나리사라누와티웁(Narissaranuwattiwong) 두 왕자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위대한 인물**'[PH]로 선정된 유명 인사들의 유적 현장 방문 모습도 담겨 있다. 유적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유적지 보호를 권고한 이들의 학술적 견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명하여 유적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태국 불교의 최고위 승려인 승왕(Sangharaja) 두 분과 전 세계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Buddhadasa bhikkhu*)이 해당 유적지를 방문하여 부처님의 철학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불교 유적의 주요 특징에 대한 글과 시를 남겼다. 참고: 이는 문학, 영상, 감정 특성을 통해 기준 II와 IV를 충족한다.

- '**쭈랄롱꼰(Chulalongkorn) 왕의 시암 개혁 기록 문서(1868-1910)**'[DH 2번, 2009]는 1999년 '타임' 아시아 매거진 (Time Asia Magazine)이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인 2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쭈랄롱꼰의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노예제 폐지'와 '인간 평등과 존엄'에 대한 그의 뜻을 반포한 이 문서들은, 그의 다른 글들과 함께 그가 방문했던 불교 유적지의 상태와 가치에 대한 국왕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 TTL '등재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게 위해서는 해당 유적지의 가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학술 연구 논문을 검토해야 한다. DH 4번, 2013 '**예술과 과학 분야의 연구와 지식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기록한 100년의 기록, 시암 학회 회의록**'은 참고할 만한 자료 중 하나이다.

- 기준 iii '문화 전통에 대한 증언' 을 충족하는 TTL의 가치 평가는 '왓포(Wat Pho)의 금석 기록물[DH 제3호, 2011년]과 '프라탓파눔(Phra That Phanom) 연대기의 종려나무 잎 필사본 컬렉션[DH 제6호, 2023년]의 등재 경험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TTL 4번 '프라 닷 파눔과 관련 역사적 건물 및 경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TTL 2-5번의 성지는 '태국의 전통 새해 축제인 송끄란[IH 4호, 2023]이 열리는 중요한 장소이다. 송끄란 축제는 불교 신자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전통이 생겨나고 발전했기 때문에 기준 II, III, IV을 관련된 태국의 불교 유무형 문화유산에 적용할 수 있다.

- 태국 남부 나콘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의 왓 프라 마하탓 워라마하위한(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에서 태국 남부의 춤극, 노라(Nora)[IH 3번, 2021년]가 여러 차례 공연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뤄진 고고학적 발굴로 이 춤극의 기원을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전통적 활용을 확인하고, 정신적 감정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활동을 펼친 결과 TTL 2번이 기준 II, III, VI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라'의 발상지로서 불교 유적지를 해외에 알리는 것은 유형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외부 요소로 볼 수 있다 ['특성 유형' 4, 7, 8, 9]

IV. 불교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불교유산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홍보를 할 때는 사람들이 불교유산을 대하는 태도가 각자의 이념적,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교문화유산의 소개와 홍보는 유적지 용도의 모순(종교 의식만을 위한 제한적인 공간, 관광을 통한 수익 창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불교 유산을 소개하고 홍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 무형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과 연계하여 불교 유형 유산에 대해 교육한다.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불탑과 불상 등 인간의 지성을 담은 작품을 통해 평화와 인간 평등을 증진하는 불교의 철학적 가르침을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한다.
- 불교 문화유산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산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한다.

홍보 계획은 불교 유산의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불교 기념물 및/또는 유물은 인류 문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 문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인류 문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분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 건축물과 예술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증거이다. [기준 II, III, IV, VI]
- 불교 예술 유산은 교육, 삶의 질과 지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관광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 관광지이다. [기준 I - VI]
- 불교 문화유산은 그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기술 발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문학, 예술 및 건축 영감의 원천이다. [기준 I, II, III, IV, VI]

이와 같은 문구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불교 유적지의 가치를 적절히 인식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홍보 자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대상 집단'과 그 배경을 파악한다. 불교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대상 집단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일반 대중, 취약 계층, 장애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신념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견해는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정보성 메시지**: 짧거나 길게, 간략하거나 자세히, 언어: 대상 지역, 국가, 국제사회, 특수 언어 '점자', '수화'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에 적합하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일러스트 - 그림, 도표, 지도 등 불교의 상징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 또는 3D 애니메이션을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충 자료는 대상 집단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 '중점 홍보 대상'에 적합한 불교유산 콘텐츠의 **범위와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점 홍보 대상은 홍보 활동 중간 평가의 대상이 된다.
- **메시지 전달 방식 및 채널**: 출판물(책, 팸플릿, 카드), 온라인(소셜 미디어, 전자책, QR코드, 웹사이트), 현장(안내판, QR 코드), '대상 집단'이 참여하는 활동(포럼, 워크숍, 컨퍼런스, 심포지엄, 여행) 등 대상 집단에 적합한 전달 방식 및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
- 불탑이나 불상, 보살상, 불교 상징물 등 불교 유적에서 나타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엄선된 문장**' 또는 '**문구**'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그 '**숨겨진 의미**'를 명확히 한다.

불교 유적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위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편적 가치를 학습하고 정리해야 하는가?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틀과 도덕적 규범을 형성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불교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적 신념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태국 잠정목록 2번 '왓 프라 마하탓 워라마하위한, 나콘시 탐마랏' 불교 사원에서, 수 백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 주탑에 참배하기 위해 늘어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긴 천에 쓰여진 '문구'의 숨겨진 의미를 밝히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 전통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문구는 다음과 같다:

"다르마(Dharma) 유산은 세계 유산의 전승이다."

"고귀한 진리는 민속 전승이 아니라 다르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다르마가"

우리를 자유와 평화로 이끈다."

참고 문헌

- Fine Arts Department. 2000. **Act on Ancient Monuments, Antiques, Objects of Art and National Museums**, B.E. 2504 (1961) As last amended by the **Act on Ancient Monuments, Antiques, Objects of Art and National Museums (No. 2)**, B.E. 2035 (1992). Bangkok: The Fine Arts Department.
- Srisuchat, Amara. 2016. **Roots of ASEAN's Cultures**. Bangkok: Fine Arts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of Thailand.
- _____.2017 a. 'Introduction Featuring Buddhist Imagery from Bharata to Suvarnabhumi' pp. 7-11;
2017 b. 'Thailand's Buddhist Sculptures Mirror Suvarnabhumi', pp. 27-50. In **Featuring Buddhist Imagery from Bharata to Suvarnabhumi**, edited by Amara Srisuchat and Wilfried Giessler. Bangkok: The Fine Arts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of Thailand.
- UNESCO 2017. 2018. **The World Heritage: The definitive guide to all 1073 World Heritage sites**. Reprinted 2018. Glasgow: Collins Bartholomew Ltd.
- World Heritage Centre. 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21/01 31 July 2021**.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yatt, David K. 2003. **Thailand A Short History**. Second Edition. Bangkok: O.S. Printing House.

각국 불탑과 비교를 통한 운주사 석탑의 세계유산적 가치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1. 인도 시원(始原) 불탑의 출현과 변모양상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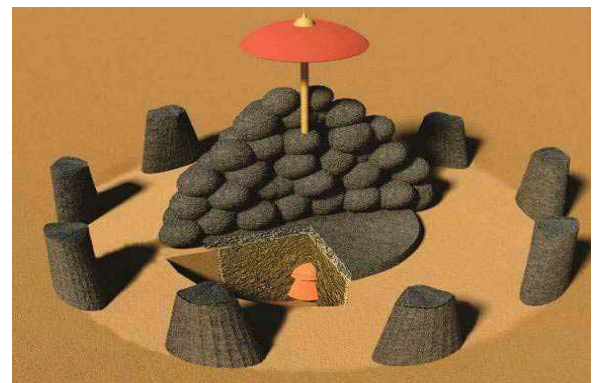
세계 어느 나라이건 오래된 불교사찰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불탑이 우뚝 자리한다. 시원적인 불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다. 따라서 불탑은 물리적인 시설로 인식되기 보다는 부처님 자체로서 가장 숭엄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불탑 이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불탑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은 이미 있었다. 성인이나 아라한들의 화장된 유골을 단지 안에 모시고 돌무더기를 덮었다.[\[그림1\]](#)

단순한 형태로 출발하였던 초기 인도불탑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의미와 형식, 그리고 재료 등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불탑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불탑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 불교국가에서 현존하는 실레나 고문헌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 수 있다.[\[그림2\]](#)

불탑의 발생지인 인도의 탑은 돌과 벽돌로 된 사발을 엮어놓은 형태인 복발형(覆鉢形) 탑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너무 더울 것이 염려되어 고분(古墳) 위에 우산(日傘)을 세워 더운 열을 막아주거나, 일종의 위치 표식이었는데 여기에서 복발형 불탑형식이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 후로 묘의 주인인 석존을 존경한 나머지 흙으로 만든 만두형 복발 정상부에 사리를 모시고 복발의 아랫부분에 기단을 만들어 불탑의 정형을 이루었다.
[\[그림3.4\]](#)

즉, 낮은 기단이 점차 커지고 높아지며 건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여러 단을 중첩하여 몸체가 높아졌다. 특히 기단에는 기둥이 조립되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장엄을 위한 장식을 하였다. 동시에 맨 꼭대기인 정상부에는 平頭(Harmika)라고 칭하는 방형의 공간이 생기고 그 중앙에 우산(日傘) 1본 뿐만이 아니라 2-3본으로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5\]](#)



[\[그림1\]](#)
불탑 이전에 성인이나 아라한들의 화장된 유골을 단지 안에 모시고 돌무더기를 덮었다.



[\[그림2\]](#) 인도 초기스투파 산치대탑



[\[그림3\]](#) 기단, 상륜이 나타난 네팔 키티푸르 chilanchu stupa

[\[그림4\]](#) 기단부가 뚜렷한 간다라의 굴바투나 스투파

4) 천득염, 인도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pp.298-304에서 주로 참고함.

이러한 시원((始原)형 불탑은 인도의 서북부지방인 지금의 파키스탄의 간다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방형의 기단부가 생성되고 그 위에 원형의 몸 부분이 중첩되어 더욱 높아진 모습으로 강조 되었다.[그림6.7]

서북부가 간다라라면 동남부는 안드라지역이다. 지금은 인도 땅이지만 고대 인도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다른 곳이다. 바르 후트불탑과 산치대탑이 시원적인 것으로 중앙에 위치한다면 간다라 불탑과 안드라불탑은 그 다음에 변모하여 지역적 특색을 지닌 변형이다.

안다라의 경우는 나가르주나콘다대탑과 아마라바티대탑이 대표적인 탑이다.[그림8] 안드라불탑 기단부의 외부에 석판을 돌려 장식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많이 현존하고 있다.[그림8.9]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적 조형문화는 서쪽으로는 소위 간다라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을 지나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여러나라에까지.[그림10],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네팔과 티베트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세일론, 동쪽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대륙이나 반도, 특히 중앙아시아나 해로를 통하여 중국에 전해지고 이는 다시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불교문화의 전파범위는 북부의 시베리아 지방이나 서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시아 전역에 까지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5)



[그림5] 산개가 여럿인 판들레나 차이티야 9굴의 스투파 부조



[그림6] 간다라 다르마라지카 대탑



[그림7] 탁실라 박물관, 모란 모라두 봉헌용 스투파



[그림8] 안드라지역 아마라바티 대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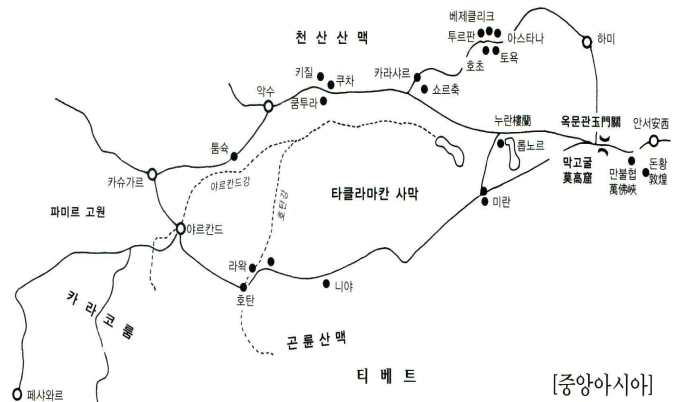
[그림9] 안드라지방 아마라바티불탑의 기단부 부조



[그림10] 간다라 Takht-i-Bahi 불교사원

II. 한국불탑의 원류, 多層樓閣形 木造佛塔

한국불탑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외부에서 도입된 불교의 소산인 불탑은 결국 불교의 도래와 함께 하였을 것이라는 당연한 귀결이다.[그림11] 불교전래 초기 서역 지방의 불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우즈베키스탄까지만 해도 복발식인 인도 탑의 형태가 남아있지만 일단 중국령에 들어오면 신강성 호탄의 타클라마칸사막가운데 있는 라와크 사원터.[그림12]의 탑에서는 인도탑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불탑이 나타난다. 지방에는 도교를 종교적으로 신봉하였고 사원의 중심에는 중층누각형 사원건물이 자리하였다. 이때는 목조 건축으로 된 사원의 한 전각이었다. 이곳에 불교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도교에 불교가 함께 습합된 것이다. 즉, 도교사원은 목조다층구조의 탑 모양이 사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목탑이 중국탑의 출발이 되었다.



[그림11] 천산북로와 천산남로(불교미술, 디트리히 제켈)

중국 한국 일본 동양삼국에서 목조가구형식의 건물이 널리 사용된 것은 채득이 쉬운 건축소재와 당시 사람들의 재료 선택적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목조건축은 불에 타기 쉽고 습기와 충해를 받아 내구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대체적인 재료로 구축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벽돌탑이 생겼고 한국에서는 석조탑이, 일본은 당연히 목탑이 주를 이루었다.

5)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彰局社, p.193
 黃壽永, 인도의 불탑, 한국의 미, 석탑, 중앙일보사, p.164
 김성우, 극동지역의 불탑형의 시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83년, 10월.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중국불탑은 인도초기형식의 탑에서 중국으로 전달과정에서 탈바꿈한 것으로 목조건축의 다층누각형식을 하고 있다. 일명 “극동모형”이라고 불리는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탑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그림13]



[그림12] 신장 타클라마칸 라와크사원 불탑, 인도불탑의 전파



[그림13] 중국 다층누각형 불궁사목탑

즉, 불탑은 먼저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비롯되어 동방으로 전파함에 따라 간다라와 중앙아시아 지방을 거쳐 중국에 이르렀고, 마침내 오랜 시간과 전통 속에서 형태적인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고 다소 변화된 모습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한국,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인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교문화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림14] 목조탑인 법주사 팔상전



[그림15] 중국 목조탑의 원형, 樓閣形 明器

모든 불교국가들이 모두 돌이나 벽돌을 주재료로 하고 있으나 한중일 3국만이 목조를 주된 재료로 삼는 목탑을 그 대상으로 삼았고 나중에서야 지역적 환경에 어울리는 재료를 선택하여 전형적인 탑으로 자리하였던 것이다.[그림13,14,15]

III. 운주사의 의미와 석탑 현황⁶⁾

‘다탑봉(多塔峰)의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알려진 운주사의 불교유적은 화순군 도암면의 해발 1백여 미터의 야트막한 야산의 남북 방향으로 뻗은 두 산등성이와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양쪽으로 벌어진 낮은 구릉의 산등성이 사이, 계곡 여기저기에 불상과 불탑이 다소 불규칙하게 서 있다.



[그림16] 운주사의 석탑군

운주사는 고려 후기라는 왕조 말기적 분위기 속에서 풍수 지리사상에 입각한 행주론(行舟論) 곧 한반도를 배 형국으로 보고 운세가 일본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풍수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썩 널리 적용되고 있다.

운주사의 창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먼저 도선 국사와 관련된 전설과 미륵의 혁명사상을 믿는 천민들과 노비들이 들어와 천불천탑과 사찰을 만들어 미륵공동체 사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더욱이 운주사의 성격에서조차 불교사원이라기보다는 도교사원이었다는 주장,⁷⁾ 밀교 사원이었다는 주장,⁸⁾ 민간 신앙의 기복처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다.

또한 운주사에는 천기(千基)의 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운주사에 천기의 석탑이 있었고 이것들은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였을까?

천(千)은 불교에서는 만수(滿數)로서 무량무변(無量無數)의 여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천불신앙은 중국의 남북조시대 이래 당대까지 각지에 천불이 조성되고 유지되었다.

6) 이 절의 내용은 주로 황호균의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2014.1.17.),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 공정 복원론, 66-71쪽에서 참고함.

7) 김창현,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2014.1.17.), 운주사 천불천탑의 도교적 성격, 269쪽

8) 최몽룡, 발굴조사보고, 운주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4, 168-169쪽

허일범,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2014.1.17.), 운주사의 밀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293쪽

우리나라에 천불 신앙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후기였으며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운주사 이외엔 천탑의 예는 없다. 이는 천이 실제적인 천이 아닌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가득한’ 개념을 가진 불교의 상징적 의미로만 사용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운주사의 탑의 건립과 사찰의 창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신비스러운 사찰이라 석탑의 건립 배경이나 연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양식적으로 보면 운주사의 석탑은 대부분 고려 중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곧 운주사 석탑들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무정제성으로 보아 건립 연대를 낮추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들이 보여준 정형적인 균형 감각은 사라지고 약간은 무계획적이고 거친 무작위의 기법, 민예적이고 토속적인 모습이 운주사 석탑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운주사 석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기록은 1928년 11월 6일자 중외일보의 운주사 고적순례 기사이다. 이 기사는 현존하는 불탑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다.⁹⁾ 이 글에 의하면 탑의 상황은 총 30기이며 최고 탑의 크기를 기록하였다. 방형이 17기, 원형이 5기, 불명이 8기로 모두 30기이다. 하지만 완전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방형 12기, 원형이 2기로 14기에 불과하고 불확실한 것은 8기이다



[그림17] 운주사 계곡의 석탑군

IV. 고려 초 시대상과 건탑 양상(建塔 樣相)

고려시대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경주라는 왕도 중심의 일률적인 석탑양식규범에서 벗어나 각 지방의 토착세력이 건탑에 관여하여 과거의 일률적인 규범보다는 각기 제 나름대로의 특징이 반영되어 다양성 있는 석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적인 특색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일반대중이 참여하여 지방의 산곡까지 각양각색의 새로운 형식의 석탑이 건립된 것이다. 소위 고구려양식, 백제양식, 신라양식이라는 석탑양식의 구분과 나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석탑건립 양상의 변화 즉 지방으로의 전파, 지방민중이나 토착세력의 참여, 다양한 석탑조형 등은 고려의 창업기를 지나고 고려다운 새로운 성격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11세기 이후부터라 추정된다. 이는 고려 초기탑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운주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보다는 더욱 뒤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운주사 석탑의 조형기법이 고려초기의 석탑들에서 보이는 양식이나 축조기법 보다는 다소 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주사 석탑 건립연대의 상한을 운주사의 초창 년대보다 늦은 12세기로 낮춰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12세기를 석탑건립의 상한연대로 하면 실제로는 13세기경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동향이 군소종파가 난립하고 토착적인 신비사조가 부활되며 민중중심의 지방 불교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¹⁰⁾ 이 시기를 건탑의 적절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황호근,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2014.1.17.),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 공정 복원론, 97쪽

10) 許興植, 13세기 高麗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韓우특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년, p.455-458.

V. 운주사석탑의 건립시기와 건립기간

운주사에는 현재 18기의 석탑이 있으며 석탑의 부재를 포함하면 20여기에 이른다. 신라양식인 방형석탑을 비롯하여 원형석탑, 모전형석탑, 그리고 바루모양석탑, 실패모양석탑 등 참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석탑이 한 사찰에 널리 펼쳐져 있다.

석탑의 건립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에 이처럼 많고 다양한 석탑이 조영된 것일까? 석탑 1기의 건립기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으나 금산사 5층석탑이 약 4년가량 소요되었다고 하니 이를 운주사에 준용시킨다 해도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동원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많은 석탑을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운주사의 창건에서 폐사까지 3-4차의 중창이 있었던 점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창사시(혹은 중창시)에 얼마 정도의 석탑이 건립되고 중창시에 다시 새로운 석탑들이 건립되고 부가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운주사 석탑들이 양식상 몇 가지의 형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형의 석탑들이 제일 먼저 즉 12 - 13 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보다 더 늦은 시기에 원형의 석탑과 옥개석 윗 부분이 계단형식인 전탑형 석탑, 그리고 석주형(石柱形)석탑들이 건립된 것이라 추정된다. 운주사에서의 건립은 11, 12세기부터 시작되어 15세기까지 3-4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그 순서는 방형탑, 원형탑, 전탑형석탑, 卵形塔(球形塔), 석주형 탑신만 남아 있는 탑, 그리고 일명 거지탑의 순으로 건립된 것이라 여겨진다.

VI. 운주사 석탑의 형식분류

그러나 한국석탑연구의 일반론적 분류 논거는 석탑의 재료, 평면형태, 양식상의 특성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운주사에 있는 21기의 석탑은 다음과 같이 형식상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형석탑(方形石塔)

이 석탑형식은 한국의 전형적인 석탑형식으로 탑신과 옥개가 방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에 속한 탑은 11기이다.

2. 원형석탑 (圓形石塔)

이 형식은 전형적인 방형탑에 대하여 이형적인 탑으로 탑신이나 옥개석이 원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이들 원형석탑들은 다시 원구형과 원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에 속한 탑은 4기이다.

3. 모전계열석탑 (模塼系列石塔)

운주사의 대웅전 앞 중정에 위치한 모전석탑은 벽돌과 같은 조그마한 석재로 옥개석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1매의 석재로 벽돌의 내쌓기와 들여쌓기 한 모습을 모방한 층단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 속한 탑은 2기이다.

4. 실패형탑

현재 대웅전 앞에 자리한 모전석탑 가까이에 있는 탑으로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실을 감는 실패모양을 한 석탑이다. 석탑으로서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아주 이색적이고 해학적이다.



[그림18] 운주사9층석탑

[그림19] 구의(球形) 석탑

5. 석주형(石柱形) 폐탑

이 형식은 두툽한 1매석으로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과 원형의 중간에 가까운 거친 석재를 기다란 기둥형식으로 세운 다음 다시 그 위에 옥개석과 비슷한 석재를 얹은 모습이다. 다만 옥개석이 몇 개 층이 올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석탑의 형태라면 그 위에 1내지 2층이 더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한 탑은 4기이다.



[그림20] 원반형 석탑

[그림21] 모전형(模塼形) 석탑

Ⅶ. 운주사 석탑의 구성요소

한국의 석탑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운주사의 석탑은 이형적인 석탑이 많아 구성요소 또한 이질적이나 전형탑의 구성요소를 적용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단부

운주사석탑의 기단형식은 석탑의 기단다운 기단을 갖추지 않고 거대한 암반 위에 1층탑신이 었힐 자리를 깎아내고 직접 탑신부를 놓은 예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커다란 암괴의 상면을 다듬어 낮은 1-4단의 물당형 받침을 깎아내고 그 위에 직접 탑신부를 얹은 형식이다.

결국 운주사석탑의 기단형식은 전형탑에서 보이는 단층기단이나 이중기단형식을 따르지 않고 거대한 암반 위에 직접 탑을 세우거나 5m 내외의 커다란 석괴를 이용하여 기단을 대신한 단일석 기단형식을 하고 있다.

또한 운주사 석탑에서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자연암반 위에 석탑을 세울 때 어떻게 축조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거대한 자연암반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를 이루고 있어 경사면 위에 높은 석탑을 세우는 데는 대단한 기술과 축조기법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탑신

운주사석탑의 탑신은 4매 판석 조립형과 방형 단일석형, 원통형, 석주형 등 다양하다.

4매의 판석을 조립한 형식은 1매의 판석에 兩 隅柱와 補助 우주 및 면석을 모각하여 표현하고, 다시 이를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앞 뒤로 면석을 끼워 넣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석탑들은 1층은 4매 판석 조립을 하였으나 2층 이상은 단일석으로 탑신을 이룬 예가 많다. 석주형식은 기다란 장주형 단일석재로 탑신을 이룬 예로 석주형 폐탑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면석에는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가 양각 혹은 음각되어 있어 통일신라후기석탑에서부터 흔히 보이는 불교적 장식 문양을 대신한 것인지 아니면 운주사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관련이 되는 특별한 의미가 내재된 종교적, 무속적 문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우주를 면석과 별석으로 조립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판석에 우주를 돌출하게 彫出, 模刻하였는데 면석과 우주 사이에 보조 우주를 하나씩 더 조출 모각하여 운주사 이외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조형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석탑들이 초층의 탑신이 높고, 5층 이상이어서 세장고준(細長高峻)한 모습, 가늘고 긴 모습을 보이며 백제계 석탑에서 나타나는 조형감과 비슷하여 상호 친연성을 보인다.

3. 옥개석(屋蓋石)

한국석탑형식에서 지붕 모양인 옥개석은 옥개와 옥개받침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옥개석의 상부면을 옥개라 하고 하부면은 옥개받침이라 하였다.

ㄱ. 옥개

- 주사석탑의 옥개석 형태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방형, 원형, 모전탑형, 자연석형 등 여러 종류이다.

ㄴ. 옥개받침

- 운주사석탑의 옥개받침은 흔히 전탑에서 유래된 것이라고하는 적출식 받침과 옥개받침 대신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조출한 형식, 그리고 전혀 옥개받침이 없는 형식 등 다양하다.

이상 옥개와 옥개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주사석탑에서 보이는 옥개석의 형태는 백제계석탑, 즉 목조건축적인 의장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와 같은 조형 요소들은 백제계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정된다. 보다 근본적인 출발은 백제탑이 목조건축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상륜

운주사석탑의 상륜부는 대부분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복발과 짧은 찰주가 몇 기의 석탑에 남아 있을 뿐이다. 보륜 등에도 장식이 전혀 없어 간단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5. 사리공

한국석탑에 있어서 사리장치의 위치는 탑의 하부에서 상부로, 1개소에서 2개소로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그 위치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주사석탑의 내부에 안치되어 있는 납장품(納藏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폐탑의 한 부재로 버려져 있는 옥개석에서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발견될 뿐이다.

이들 옥개석들은 어떤 탑의 몇 층에 해당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옥개석 상부면의 중앙에 알개 파여 있어 일반적인 사리공과 다를 바 없다.

VIII.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¹²⁾

운주사 석탑은 한국석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불탑에 있어서도 참으로 특이한 존재이다. 운주사라는 그다지 넓지 않은 한 장소에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이렇게 많은 불탑이 산재해 있는 것도 특이 하지만 석탑의 양식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민예적이며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 세계적인 특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탑은 목조건축적인 백제형식탑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탑은 신라탑과 같고 어떤 탑은 모전석탑계이다. 또 어떤 탑은 항아리를 쌓아 올린 모습이고 어떤 탑은 중국 원나라 시대 불탑형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탑신과 옥개 모두가 원형이다. 또 어떤 탑은 판석을 대충 다듬어 적층하여 탑을 이루었다. 다듬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균형이 잡히고 아름답다. 그렇다면 운주사의 불탑이 차지하는 세계불탑으로서 의미는 가치와 어떠한가?

11) 운주사석탑에서 백제계석탑적인 의장요소가 다분히 나타남은 이미 성춘경과 박경식이 거론한 바 있고 필자도 「百濟系石塔의 構成要素 分析에 관한 研究」(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 2월호)에서 밝힌 바 있음.

12) 千得球, 「雲住寺石塔의 造形的 特性에 대한 考察」, 『雲住寺綜合學術調查』, 全南大學校 博物館 . 和順郡, 1991.

천득염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통권38호, 1991년 12월

천득염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통권39호, 1992년 1월

황호균, 운주사자료집성, 화순군, 전남대박물관, 2009

이태호, 천득염, 황호균, 운주사, 빛깔있는 책, 대원사.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재고찰한 내용임.

1) 무엇보다도 불상과 불탑이 보여주는 민조(民藝)적인 조야함과 해학성이다. 불가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의 모습 그 자체인 불상과 또 하나의 부처님의 화신이며 그를 모시는 공간이라 생각되는 불탑은 그 장엄함에 지극한 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최고의 권위와 정치함을 불탑이 갖추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주사 불상과 불탑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파격적인 조형은 참으로 이색적이다.

2) 다른 불교국가의 불탑과 비교하여 보면 어떠한가? 세계불탑에서 한 곳에 이다지도 수많은 탑이 산재해 있는 것은 미얀마의 바간(Bagan)을 비롯하여 중국 소림사의 塔林, 인도 부다가야대탑이나 파키스탄 간다라의 다르마라지카대탑과 부카라 1 대탑 주변의 봉헌용 소탑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림21] 민예적 조형성을 지닌 오층탑



[그림22] 네팔의 민예적이고 토속적인 탑 오층탑

3) 운주사석탑이 지니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석탑 형태의 다양성과 석탑 수요가 한 사찰에 유별나게 많다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석탑이 그 형식을 달리하여 하나의 가람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1~2기의 탑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던데 운주사는 22~30 여기에 이를 정도로 많은 탑이 건립되는 것은 가장 돋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천불천탑이라고 한다. 한 사찰에 이처럼 수많은 석탑이 다양한 모습으로 건립된 예가 국내에는 없고 석탑의 조형양식이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즉, 방형탑, 원형탑, 구형탑 등과 이들이 다시 단층, 3층, 5층, 7층, 9층 등 동일한 장소에 이처럼 각양각색의 탑이 있는 예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없다.

세계의 불탑 중에서 우리나라 불탑처럼 목구조형식을 석탑으로 옮긴 예는 없다. 인도시원탑이나 이를 잘 이어받은 스리랑카불탑, 네팔의 불탑은 복발형으로 거의 대부분 벽돌로 축조된 것이다. 태국의 불탑은 이를 보다 고준하게 변형시킨 옥수수 모양을 하고 있는 예이다. 인도의 시원형불탑이 간다라에서 건축적 기단이 생성되고 규모가 적어지면서 고준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모한다. 티베트로 옮겨진 사원의 불탑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4) 운주사라는 가람공간에 소규모의 신앙공간들이 각각 따로 따로 조성되어 이들이 각기 또 하나의 독립된 예배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모두 9개소이며 8개소¹³⁾는 불상과 1개소는 칠성바위와 인접하다. 이는 불상과 불탑을 하나의 세트로 조성하여 각기 독립된 예배공간을 창출하였다. 그래서 풍수설에 입각한 가람배치이고 가람의 공간에 석탑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석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전형적인 기단이 없고 자연암반이나 커다란 단일석 암석덩어리 석괴를 기단으로 하고 있다. 경주 남산의 통일신라시대 석탑들이나 정읍 천곡사지7층석탑, 남원 용담사지7층석탑 등에서 그 예가 발견되고 있으나 드문 형식이다. 대지적 조건이나 주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고 평이하게 석탑을 건립한 것이다.

6) 일반적으로 석탑에 있어서 기둥형식의 표현은 모서리에 우주, 중앙에 탕주를 두거나 이를 흉내 내어 모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운주사석탑의 경우 초층탑신 우주의 안쪽에 다시 우주와 비슷한 모습의 보조우주가 하나 더 모각되어 있다.

7) 탑신의 면석에 표현된 마름모(◇, ◊), 교차선(X, XX), 수직선, 사절선(<, >) 등 우리나라 석탑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탑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하학적인 도형의 등장이다. 그간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 문양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 도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마름모(◇)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름모(◇)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사원의 외벽에 뽀뽀하게 장식한 다이아몬드(diamond) 모습과 관련된 문양이다. 다이아몬드는 빛과 단단함을 상징하며 金剛石으로도 부르는 자연산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불교의 최고의 경전도 『金剛經』이라 부른다.

일부학자들은 이 마름모꼴과 XX를 몽골식 도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13) 황호균, 운주사자료집성, 화순군, 전남대박물관, 2009에 의하면 가 석불군과 탑18, 다 석불군과 탑19, 라 석불군과 암반 탑 기단, 바 석불군과 탑15 . 16, 석조불감 남쪽과 탑4, 석조불감 북쪽과 탑5, 광배를 갖춘 석불좌상과 탑3, 연화문대좌 암반과 암반 탑 기단



[그림24] 기단이 없이 암반 위에 세운 탑. 補助隅柱의 예



[그림25] ◇, ×× 문양석탑



[그림27] 탑신의 (보조)우주와 탕주



[그림 26] ◇ 문양 석탑

8) 운주사 석탑의 방형옥개석에 있어 옥개받침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 사선 문양으로 장식하여 옥개받침을 대신하고 있다.

9) 석탑의 지붕돌을 옥개석이라고 한다. 특이하게도 운주사에서 나타나는 추녀 모양의 두툼한 돌기는 한국의 석탑에서는 유일하다.

10) 운주사석탑의 옥개석에서 발견되는 사리공의 형식도 특이하다. 운주사에서 나타난 사리공은 전형과는 달리 옥개석의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 파였거나 정방형이 아닌 장방형의 사리공도 등장하는 유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운주사에서는 사리공이 대부분 하나이나 두개인 경우도 있다.



[그림28] 옥개석 하부 모서리의 추녀형 돌기

11) 대부분의 방형탑의 경우 옥개석이 평평하면서 넓고 약간 살포시 올라가는 反轉이 있으며, 탑신이 高峻하여 백제계 석탑의 양식을 띠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엔 백제의 구영토에서 백제미술이라고 생각되는 조각물이 보기 드물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외진 곳 화순 땅 운주사에서 백제 미술과 친연성을 지닌 백제양식의 석탑이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관심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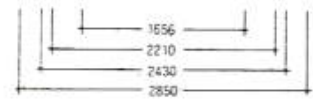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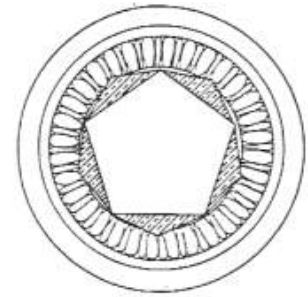
12) 흔히 불탑은 금당 앞의 중정에 탑이 세워진다. 그런데 운주사 불탑은 가람배치와 무관하게 사찰의 중심공간에서 떨어진 곳에 다소 무질서 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운주사석탑들의 배치에 천문학적 질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주불전 앞에 단탑이나 쌍탑으로 배치된 일반적인 모습과 벗어나 가람터의 옆으로 펼쳐지는 골짜기에 길이 200여m 너비 90여m의 범위 안에 집중적으로 탑을 건립하는 현상도 또 하나의 주목거리이다.

탑의 배치는 골짜기 평지에 10기, 올라가는 방향의 왼편 산중턱에 7기(탑자리 흙 3기 포함), 오른편 산중턱에 5기가 분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크게 보면 3열을 이룬다.

13) 원형석탑의 탑신에서 나타나는 10각형으로의 작도와 황금비 적용 예는 참으로 귀한 구조방법과 기하학적 조형감각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조형물 중에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정면과 측면의 비를 황금비로 해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석조 유구에서 황금비를 찾을 수는 없었다.

14) 화순 千佛山의 산꼭대기까지 불사를 일으키고 이처럼 많은 불상과 불탑을 세운 것은 지방 세력과 민중의 참여와 더불어 풍수지리설의 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운주사의 석탑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유행 하던 풍수도참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는 산천비보진압과 미래를 염원하는 미륵사상의 뜻이 담겼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약한 곳을 보강하고, 강한 곳을 눌러 너무 강하지 않게 함은 흥한 것을 길하게 고쳐서 복을 주도록 하는 裨補風水의 개념이다.



기단 양시도

[그림29] 10각형 탑신의 구조

IX. 운주사불탑의 세계유산으로서 가치

운주사는 고려중기 이후에 창건되어 몇 차례에 걸쳐서 중건된 사원으로서 고려말 불교유산이다. 운주사의 불상과 불탑은 세계불교문화권 어디에도 보기 드문 창의적이며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독특한 유적이다. 1970년대 이후 4차에 걸친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해 유적에 내재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운주사는 한 계곡에 수많은 석불과 석탑이 무리지어 있다는 점이나 토속적, 해학적인 조형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곳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처럼 운주사는 워낙 신비스러운 사찰인지라 석탑의 건립배경이나 건립연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전설적인 도선의 건립설에서부터 고려 초기에 건립되었다는 주장, 12세기에 건립되었으리라는 주장, 11세기 초반까지를 상한선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운주사는 11세기 초반에 사찰이 성립되어 12세기에 이르러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번창하다가 弘治八年(1495)의 불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고 있다가 丁酉再亂 때 폐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립의 주체에 대하여서도 도선에 의하여 비보적 사찰로 건립되었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통일신라말의 능주지방 호족 세력에 의해서 개창되었다는 주장, 또한 운주사를 불교사원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신앙의 기복처, 천민과 노비들의 해방 구역, 도교사원, 밀교사원이었다는 주장까지 있다.

사료적으로 운주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능성현 편을 보면, “운주사는 천불산에 있는데 좌우의 산등성이에 석불과 석탑이 각 1천개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언제 누가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東國輿地志》에는 “세상에 전해지기를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도 하고 혹은 고려 승려 해명이 대중 수천을 모아 그들 각자로 하여금 천불, 천탑을 조성케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운주사 석탑의 조형기법이 고려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주사 석탑 건립연대의 상한을 12세기로 낮춰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12세기를 석탑건립의 상한연대로 하면 실제로는 13세기경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동향이 군소종파가 난립하고 토착적인 신비사조가 부활되며 민중중심의 지방 불교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건립의 적절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들이 보여준 정형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약간은 무계획적이고 거친 무작위의 기법, 민예적이고 토속적인 모습이 운주사 석탑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주사의 석탑에 대해 조잡하다거나 불심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배경이 있어

상응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불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운주석탑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진정성,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가람배치형식에 있어 부정형적 공간적 특성이 돋보인다. 양쪽 산등성과 골짜기 안 평지에 비정형적으로 자유롭게 자리한다. 탑과 불상이 하나의 팀을 이룬 공존성인지, 아니면 각자 자유롭게 조형 의지에 따라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체성을 이룬 것인지 파악이 어렵지만 오히려 독립적 개체성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한국의 불탑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한국불교미술의 정통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전탑, 일본의 목탑과 다른 '석탑의 나라'로서 석조불교문화의 특수성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교 석조문화유산은 화강암을 치석하여 미학적으로 잘 다듬은 것이 많다. 그러나 운주사는 사찰 바로 인근에서 채석하고 가공한 응회암을 사용하였는데 양질의 화강암을 사용한 예와는 양상이 다른 모습이다.

운주사 석탑의 조형성은 한국의 전형적인 석탑과는 어긋나 파격적인 조야함을 느끼게 한다. 이는 석불도 마찬가지이다. 미학적 전형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불탑건립 자체에만 의미를 둔, 무작위적 조영에 의미를 둔 것이다.

정형을 깨버린 파격미, 그러면서도 힘이 실린 도전적인 단순미, 친근하면서도 우습게만 느껴지는 토속적인 해학미와 아울러 그것들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서도 가람 안에 집단적으로 배치된 점이 운주사 불적의 신선한 감명이며 특별한 매력이다.

하나의 가람에 조성된 석탑양식의 다양성이다. 원형탑과 벽돌탑이 쉽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점이 많고 오히려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조성된 독자적인 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송, 혹은 원나라의 원형탑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와는 다른 점이 나타나 우리만의 독특함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특히 탑신의 면석에 표현된 마름모(◇, ◆), 교차선(X, XX), 수직선, 사절선(<, >) 등 우리나라 석탑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탑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하학적인 도형의 등장이다.

- 불규칙한 칠성석이 복두칠성의 형태와 같고 밝기에 따라 크고 적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주장이다. 일곱개의 원반형 돌판들로 천불천탑 운주사가 지상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공중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함에 그 조성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운주사석탑과 불상에서 느끼는 무절제한 조야성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기의 염원을 표현하는 것 같다. 즉 민중이 자기들의 미적 감각으로 불탑과 불상을 만들었다고 느껴진다. 다른 불교국가들의 작품은 크기와 제작기법에서 정치함과 완결성을 느낀다. 그러나 운주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운주사의 불교적 조형은 한국불교미술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2-13세기 중앙세력의 지방화, 억눌린 민중의 이상향적 해방 공간 구현, 양반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민중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변화, 전형에서 토속적 해학으로 변이 등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운주사 1.2.3. 전남대학교박물관.
2. 野村孝文, 全羅南道多塔峰の遺蹟, 「朝鮮と建築」
3. 新增東國輿地勝覽
4. 東國輿地志
5. 梵宇考
6. 大東地志
7. 朝鮮寺刹史料
8.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전라남도, 1988.
9. 朝鮮古蹟圖譜
10. 千得琰, 「雲住寺石塔의 造形的 特性에 대한 考察」, 『雲住寺綜合學術調查』, 全南大學校 博物館 . 和順郡, 1991.
11. 천득염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통권38호, 1991년 12월
12. 천득염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통권39호, 1992년 1월
13. 이태호, 천득염, 황호균, 운주사, 빛깔있는 책, 대원사.
14. 운주사자료집성, 화순군, 전남대박물관, 2009
15. 운주사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미나, 2013년 11월 1일
16. 천득염,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 호남문화연구 제 54집(2013년 12월)
17.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2014.1.17.)
18. 박춘기, 내가 보는 운주사 와불이 사라진다. 중도, 2013

화순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I. 머리말

운주사는 화순의 천불산 계곡에 위치하며 80여 존의 불상과 20여 기의 탑으로 천불천탑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석불과 석탑은 계곡을 따라 배치되며 노천에 놓여 접근이 용이하다. 현장에 남은 파손된 석재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석불과 석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¹⁴⁾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 11세기에 처음 시작된 사찰이며 12세기에서 13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이룬 불교 유적이다.

운주사는 천불천탑을 세운 시기, 후원세력, 사원종파 등이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적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고려 역사에서 도선의 비보사상은 산전을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고 고려시대 내내 한국 토착불교의 핵심을 이루었다. 운주사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따른 산천비보진압설에 바탕을 두고 고려 중후기에 천불 신앙을 반영하여 천불천탑을 조성하였다는 견해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¹⁵⁾

II. 운주사 불상의 유형

1. 석조 불감

한국미술에서 팔각지붕의 목조건축을 재현한 거대한 석조 감실은 거의 없다. 불상의 대좌 형태 위에 석조 불감을 올렸다. 안쪽 공간은 하나의 광배를 사이에 두고 남.북면에 불상이 앉아 있도록 하였다. 광배의 어깨를 고리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대들보가 걸쳐지며 지붕의 하중을 받는다. 바깥 중앙에 여닫이문을 시설하였고 팔각지붕 꼭대기에 굽은 용마루가 수평으로 지난다. 석조로의 재현과 거대한 지붕돌을 지탱하는 그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둔 창의성에서 가능하다.

남쪽을 향한 석불좌상은 가부좌한 자세에 오른손을 배 앞에 붙이고 왼손은 축지인을 취한다. 일반적인 축지인 수인에서 좌우를 바꾼 변형 선정인으로 오른손을 몸에 붙이고 왼손을 무릎에 내린다. 두상이 크고 둥글며, 육계는 파손되거나 별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리는 오른발을 앞으로 보이게 앉아 있다. 신체 볼륨감이 평면적이며 도식적인 경향의 고려시대 불상이다.

북쪽을 향한 석불좌상은 남쪽 불상과 유사한 조형이다. 긴 얼굴에 둔중한 몸체이며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수인과 착의를 달리하여 변화가 있다. 수평을 이루는 눈매에 콧날이 뚜렷한 기다란 코가 수직을 이룬다. 인종의 세로선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인종이 길고 입이 작다.

힘의 방향을 따라가면 남쪽을 향한 불상을 시작점으로 북쪽을 향한 불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방불의 배치와 연결시켜 본다면 남면상이 석가, 북면상이 미륵이다. 미륵은 역사적인 붓다인 석가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생애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정법을 잘 지킨 이에게 남은 죄를 멸하고 수기를 줄 미래불이다. 일반적으로 북쪽은 미륵과 연결된다. 다만 토속화된 고려시대의 지방문화 속에서 정형화된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14) 전남대학교 박물관 화순군, 『雲住寺綜合學術調査』, 1991.

15) 이계표, 「운주사의 사상적 배경」,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1.

2. 와불과 칠성바위

1) 와불

운주사 와불은 오른쪽 옆구리로 눕는 일반적인 와불이 아니다. 산 정상에 거대한 바위 바닥에 좌상과 입상을 고부조로 윤곽을 충분히 드러낸 상이다. 큰 좌상 좌측으로 훌쩍한 입상이 지면에 등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좌상은 오른발을 앞으로 내어 널찍하게 걸가부좌하였다. 얼굴은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이 분명하고 반달형 눈매가 주위를 압도한다. 입술은 크고 두툼하다. 얼굴은 운주사의 대체적인 불상처럼 긴 편이다. 길고 통통한 얼굴에 인중선을 길게 표현하여 다른 인상을 준다. 육계는 별개의 돌로 만들어 두상 옆에 놓았다. 목이 넓고 삼도가 표현되지 않았다.

입상은 석불좌상의 왼편에 있다. 얼굴이 긴 편이며 눈썹, 반달형 눈, 코, 입, 인중의 표현이 좌상의 조각 수법과 동일하다. 법의는 일반적인 착의와 달리 오른쪽 어깨를 가린 이른바 편단좌견이다. 인도 등에서 통견과 편단우견이 일반적 착의법임을 감안하면 편단좌견은 매우 독특하다. 중심불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내려 시선이 웅장한 좌상에 더 머물도록 한다. 수인이 허공에 떠있는 듯 하나, 시무외 여원인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누워있는 불상은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남쪽이 좁은 방향의 바위에 의해 좌향이 선택되었을 수 있다. 수인은 석조불감의 북향 석불과 동일하다. 운주사에서는 이 와불을 세우면 유토피아가 열린다는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일반적인 석불의 제작 방식에서 채석 후 일정한 장소로 옮겨 조각하고 최종 자리로 이동하여 얼굴 등 세부 마무리하는 공정을 거친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의 와불처럼 이미 조각을 끝낸 불상을 자리에서 떼어 세울 의도는 실제 없었던 듯 하다. 한편, 와불로 통하는 입구에 세워진 일명 시위불(일명 머슴불)이 구전상 와불의 우측에서 떼어낸 상이라고 하며 와불이 삼존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돌 재질이 확연히 다르고 조각수법도 차이를 보여 와불이 삼존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와불의 무게는 화강암 밀도 2.63으로 잡았을 때 214ton이다.

2) 칠성바위

칠성바위는 와불의 서쪽 산비탈에 놓여 있다. 일곱 개의 커다란 원반형 바위가 북두칠성 별자리를 형상한 매우 독특한 유적이다. 각 원반 지름이 276~385cm, 두께가 39~56cm이다. 바위의 지름은 천문학에 기반한 북두칠성의 밝기 등급과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¹⁶⁾ 칠성바위 무게를 계산하면 칠성바위 대 15.5ton, 소 5.2ton이다.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갈고리처럼 굽은 네 개의 별 끝의 방향에서 그 간격의 다섯 배 거리에 위치하며 인류 역사에서 북쪽 방위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하늘의 구심점인 북극성은 인도의 밀교와 점성술, 중국 도교의 천문관이 불교와 결합하여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에 치성광여래라는 신앙으로 탄생하였다. 도불습합의 성격에 고려 천문사상이 반영되어 불화에는 중국, 일본과 달리 북두칠성, 남두육성 등이 그려져 차별화되는 점에서 고려 천문사상의 전통을 시사한다.¹⁷⁾

운주사 칠성바위의 배치는 하늘의 북두칠성이 거울 보기처럼 좌우가 역전되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접어 지상에 비친 북두칠성의 그림자와도 같은 역전 북두칠성 이미지는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22개의 북두칠성 중 그 절반을 차지한다.¹⁸⁾ 칠성바위 끝이 가리키는 가장 밝은 자리에 와불이 위치하고 있다.

3. 광배불상과 마애불

1) 광배불상

운주사에서 광배가 있는 불상은 3개이다. 광배불상과 마애불, 그리고 석조 불감이다. 광배의 끝이 깨어지기는 하였으나 사다리꼴로 길고 늘씬한 상이다. 양손을 ‘八’ 형태로 가슴 앞에 모아 대의로 손을 감추었으며 오른발을 앞으로 하여 가부좌하였다.

타원형의 얼굴에 코와 인중이 길며 좁은 이마에 백호가 있다. 두툼한 입술은 와불, 석불군 가-2 석불입상 등에 보이는 특징이다. 귀 언저리에서 살집이 붙어 목이 두툼한 형태이며 굽직한 목에는 삼도 표현이 없다. 와불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다.

16) 김일권, 「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 『정신문화연구』 37, 2014, 185~189쪽.

17) 정진희, 「고려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신앙 고찰」, 『정신문화연구』 36, 2013, 334~337쪽.

18) 김일권, 앞의 논문, 186쪽.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인데 왼쪽 소매가 민무늬이며 오른쪽 소매에 사선으로 주름이 잡혀있다. 이는 운주사 불상에 종종 보이는 특징으로 실제로 편단우견 착의법에서는 착용 불가한 독특한 표현이다. 소매가 일반적인 불상의 복식에 비해 현저히 좁은 점도 운주사 불상의 특징이다. 인도 착의와 중국식 장삼 모두 소매가 넓다. 이에 비해 운주사 불상은 소매가 좁다. 이는 현실적인 고려시대 복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선의 옷주름이 오른발과 왼발을 구분하여 음각되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의 구분 없이 선각의 화염문이 불상 가까이 배치되었다. 화염문은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다.

2) 마애불

마애불은 현재의 대웅전에서 북쪽으로 약 40~50m 떨어진 암벽 벼랑에 있다. 광배 불상의 변신인 듯 수인과 자세, 착의법, 광배가 동일한 형식이면서 세부적인 표현을 달리한다. 불상의 시선은 남서향으로 운주사 진입로를 향한다. 앞게 부조하였고 균열과 탈락이 많이 진행되었다.

마애불은 타원형의 얼굴에 이마가 좁고 곧바로 육계와 연결된다. 운주사 불상 특유의 눈썹과 코가 하나의 획으로 연결되며, 코의 형상이 또렷하게 돌출되었다. 귀는 짧은 편이며 귓바퀴를 표현하였다. 목은 긴 편이며 삼도가 뚜렷하게 선각되었다. 대의는 편단우견이며 운주사 불상 특유의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음각선의 옷 주름이 오른쪽 소매의 옷 주름과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며 연결되는 형식이다. 가슴 앞에 모은 팔은 대의에 가려지며 ‘^’자형을 이룬다. 대좌는 8개의 연꽃무늬를 복련으로 새겼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의 구분 없이 두상에서 무릎 위쪽까지 불신에 매우 근접하여 화염문이 음각선문으로 표현되었다.

마애불은 수인, 어깨와 팔의 옷주름 표현 방식, 불상 쪽으로 말린 화염문 등 광배불상과 유사한 형식이다. 광배불상에는 삼도가 없으나 이 마애불은 삼도가 유독 두드러진다.

4. 석불군 가~바

운주사 석조불상군은 산자락 자연 암벽에 지형을 이용하여 기대어 있다. 동-북-서쪽의 순서로 작은 나선형을 그리며 가~바(A~F)의 불상군을 차례로 돌아볼 수 있다. 석조불상군은 암반의 단애면을 이용하여 불상을 보호하는 개방형 감실을 이룬다. 감실은 단애면 일부를 다듬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거북바위 형상이다. 석불은 주로 발 표현을 생략하여 암벽에 기대는 특성이 보인다. 독립형 석불에 비해 많은 개체수를 빠른 시간에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기도 할 것이다. 대좌는 주불에 장식을 하며 나머지는 간략한 방형 별석이다. 예외적으로 불상군 라(D)의 경우 발을 조각하여 기대어 있다.

석불군의 배열은 주불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작은 석불을 두는 형식이다. 주불은 크기가 크거나 연꽃대좌와 같은 표현으로 좌우 작은 석불에 비해 우월성을 보여준다. 석불군 가, 다, 마, 바의 주불은 대좌를 갖추어 앉은 좌상이며 모두 암벽에 기대지 않는다.

석불군 가(A)의 주불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자형을 이루며 광배불상의 다른 버전처럼 보인다. 두상이 크고 신체가 보통 체격이다. 편단우견 법의에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소매에 옷주름이 표현되는 운주사 불상 특유의 방식을 보인다. 감실의 위쪽으로 작은 감실이 있어 층을 이루며 그 위쪽으로 탑 1구가 세워져 있다.

석불군 다, 마, 바(C,E,F)의 주불은 대체로 유사한 통견의 법의에 계단식으로 주름이 흐르고 양손 축지의 수인을 내려 유사성을 보인다.

고려시대 양손 축지인 불상의 사례는 경남 고성 교사리 석불, 함안 백암사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구미 대원사 석조여래좌상은 양손 축지인 수인에서 왼손 바닥을 밖으로 보이는 변형을 보인다. 따라서 운주사 석불군 다, 마, 바의 주불이 대중적이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생소한 수인은 아니다. 석불군 라(D)는 암벽에 기대어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발을 표현한 상이 섞여 있다. 주불의 원칙이 보이지 않고 비슷한 크기를 보인다. 교란된 것인지, 후대에 추가로 개창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석불군 마(E)와 바(F)의 군상 중에서 법의에 가려진 수인이면서 양손을 배 앞에 수평으로 두어 편의상 공수와 같은 결인의 석불은 규모가 작고 조각이 상대적으로 처진다.

독립불상과 석불군의 특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준	위치	자세	‘^’ 수인	양손 축지	시무외 여원	삼도	가부좌	통견	편단 우견	편단 좌견
석조 불감	남	좌상		○		○	우	○		
	북	좌상	○			○		○		
와불	우	좌상	○				우		○	
	좌	입상			○					○
광배 불상		좌상	○				우		○	
마애불		좌상	○			○	우		○	

[표1] 독립 불상 특징

구분	조사 수효	주불 (수인)	좌상	입상	탑	‘^’ 수인	공수	양손 축지	합장	시무외 여원
석불군 가A	7	좌상 (‘^’)	1	6	1	4	1			2
석불군 나B	8	입상 (시무외여원)		8		4			1	3
석불군 다C	8	좌상 (양손축지)	1	7	1	5	1	1		
석불군 라D	4	입상 (‘^’)		4		3				1
석불군 마E	8	좌상 (양손축지)	2	2			1	2		1
석불군 바F	10	좌상 (양손축지)	2	8	2	6	2			

[표2] 석불군 불상 특징

운주사 석불은 대체적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석조불감의 불상은 사방불의 배치와 연결시켜 본다면 남쪽을 향한 상이 석가상, 북쪽을 향한 상이 석가의 뒤를 이어 오는 미래불인 미륵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석불의 제작방식에서 보면 조각적으로 완성된 와불을 자리에서 떼어 세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시위불(일명 머슴불)을 와불에서 떼어냈거나 삼존을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칠성바위는 거대한 복두칠성 석조물로는 유래를 찾기 어렵다. 전통적인 역전 이미지이며 하늘과 땅을 하나로 접어 지상에 비친 복두칠성의 그림자와도 같은 거울보기 형상이다. 고려의 전통 천문을 바탕으로 운주사에서 천문과 불교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점을 시사한다.

운주사 광배불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주사 불상은 소매가 일반적인 불상의 복식에 비해 현저히 좁은 특징을 갖는다. 인도 착의와 중국식 장삼 모두 소매가 넓게 표현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옷소매가 넓지 않고 손목이 좁아 든 복식은 고려시대 복식을 반영한 토속적인 표현으로 추론된다.

마애불은 광배불상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럼에도 삼도의 유무, 대좌의 유무로 변화를 준다. 이는 일정한 모듈을 사용하여 다양한 도상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낸 운주사 불상 특유의 제작 방식을 시사한다.

석불군 다, 마, 바(C,E,F)의 주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견의 법의에 계단식으로 주름이 흐르고 양손 축지의 수인을 내려 유사성을 보이지만, 다양한 모듈의 결합 방식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보인다. 즉 팔에 옷주름을 넣거나 생략하며 가부좌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하거나 왼발을 앞으로 하는 변화, 목에 삼도를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변화 등이다.

운주사 석불의 수인은 절반 이상이 ‘^’ 형태 수인을 취하며 대의 안으로 손을 가린다. 우견편단임에도 왼쪽 소매가 아닌 오른쪽 소매에 주름이 표현되는 특유의 표현 방식을 보인다. 손을 가리는 형태는 통천을 걸치는 경우와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손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

운주사 석불에는 복제하지 않는 변형의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된다. 이는 모듈에 의한 변용이며 제작 초기부터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제작 의도를 확증해 준다. 고려시대 석불은 통일신라에 비해 추상적 경향을 띠며 지방 문화를 바탕으로 토속적 표현을 다양하게 변주하였다. 운주사 석불은 단순한 복제가 아닌 추상성과 토속성을 변용하여 종합한다.

III. 수인을 가린 불상들의 서사

1. 수인을 가린 천불(千佛)의 이미지

운주사 석불에는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대의로 수인을 가린 불상이 많다. 일반적으로 수인을 대의 안으로 가린 표현은 광배의 화불이나 천불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불상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다.

계유명삼존천불비상(676년)은 백제의 옛 영토인 연기지역에서 출토된 작은 불비상이다. 삼존을 전면 하단에 돌출시키고 측면과 뒷면에 이르기까지 불비의 4면에는 작은 불상들을 줄지어 새겼다. 이렇게 얇은 불상이 동일하게 줄 맞춰 있는 유형을 천불비상이라고 부른다. 높이 91cm, 폭 50cm의 불비상에 있는 작은 불상들은 모두 가부좌한 다리에 손을 모은 선정인의 명상하는 자세이며 안쪽에서 밖으로 꺼낸 대의가 손을 가린다(도).¹⁹⁾

천불상은 한 세계에 한 붓다가 있는 불교세계관에서 무수한 삼천대천세계를 암시한다.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사방의 공간으로 이루어졌고 천불은 무수한 화신(化身)으로서의 붓다이다. 천불은 과거, 현재, 미래 3겁에 각기 출현하며 현겁의 천불 가운데 제4불이 석가불이다. 천불은 1세기경 성립된 경전에서 이미 언급되어 5세기 이후 대승불교 지역에서 조각과 벽화 등으로 표현되었다.²⁰⁾

천불에서 명상하는 작은 부처의 이미지는 일반적이며 동일 크기 불상의 병렬을 특징으로 한다. 행과 열을 맞춰 규칙적으로 부처의 모습을 반복한 천불은 중국에서 성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최대한 많은 불상을 최소한의 시간에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적합하였다. 중국 석굴사원에서 천불은 초기인 북조석굴에서 전면에 배열되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중요도가 높았으나, 수당대가 되면 전면보다는 천정으로 밀려나 예배 대상이기보다 장엄의 기능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²¹⁾

중국 맥적산 석굴 불비상 가운데 133굴 천불상(북위, 510~530년)에서는 가부좌한 다리 앞에 선정인이 놓이기도 하지만, 선정인을 뒤집어서 가슴 앞에 ‘^’자 형태로 올리는 작은 불상도 열을 지어 함께 앉아 있다. 그것은 흘러내리는 대의가 손을 가리거나 넓은 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 방식 등 몇 가지 형태를 보인다(도).²²⁾

19) 최병식, 「계유명삼존천불비상에 대한 재검토」, 『선사와 고대』 19, 2003, 413쪽; 전면에 9개의 단을 구획하여 198구의 소불상을, 좌우측면에는 14단에 각단 7구씩 새겨 196구의 소불상을, 뒷면에는 16단에 각단 21구씩을 새겨 336구, 석재가 깨어진 보개에는 190구 정도인 것으로 모두 920구를 헤아린다.

20) 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전탑 천불상 연구」, 『선사와 고대』, 2015, 44쪽.

21) 김혜원, 「천불도, 무수한 깨달음의 세계」,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국립중앙박물관, 2006, 34-36쪽.

2. 수인을 가린 주존의 전개

천불상의 이미지가 당당하게 앉아 있는 주존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7세기 백제와 8세기 신라에 있다. 김제 금동판불은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된 7세기 백제 말기의 상으로 추정한다. 함께 출토된 4개의 사각판불 가운데 가장 큰 판(7.7×7.1×0.6cm)에 삼존불이 부조되었다. 본존의 통견 법의가 두 손과 다리를 덮고 있다. 머리 위에는 영락이 사방에 매달린 천개(天蓋)가 장식되어 있다. 좌우 보살상은 자유롭게 손을 드러내며 부처에게 헌화한다(도).

이러한 형식이 신라의 중심 경주지역에서는 경주 탑곡마애불의 네 면 주존 불상 모두에 적용이 되었다. 높이 10m, 둘레 30m의 장방형 바위이며 삼존 등의 불보살상과 탑, 비천, 승려 등의 조각이 새겨진 신라 8세기 마애조상군이다(도). 네 면의 불상 대부분은 흘러내리는 대의가 손을 가리며, 보살과 비천은 손을 드러내어 합장을 한다. 통일신라 8세기의 경주 남산 보리사 마애불 역시 이와 같은 불상을 독존의 마애불로 새겼다.

경주를 벗어난 9세기 대표적인 불상에서는 주존이 아닌 부처적인 조각이다. 부석사 자인당 석조석가여래 좌상의 중대석에 장식된 여래상의 수인은 완만한 공수인처럼 손을 가슴 아래로 올려 소매 안으로 넣었다. 충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광배에는 두광과 신광에 걸쳐 9구의 화불이 선정인 혹은 완만한 공수인을 취하여 대의로 가려진다.

이러한 불상의 수인에 대해 합의된 명칭이 있지는 않다. 가부좌한 다리에 모은 선정인을 흘러내리는 대의로 가리거나 양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소매에 넣어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형태 등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고려시대에는 입상의 주존에서도 그러한 수인이 종종 보인다. 수인을 가린 불상들의 존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관행에서 고려시대 입상의 주존에 적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고려시대에는 일부 지방 양식으로 퍼져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여 보인다.

3. 고려시대 수인을 가린 주존 입상

지리산 정상 부근인 정령치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있다. 불상의 크기가 3-4m 정도에 이르는 두 주존이 중심이 되어 소형의 불상이 8존 혹은 9존이 더 새겨져 모두 10존 혹은 11존이 군집된 마애불이다. 암벽의 표면은 거칠고 마애불과 명문은 박락된 부분이 많아 어떤 주제의 불상인지 확증하기 어렵다. 가장 크고 또렷한 주존은 입상이며 양손을 중앙으로 모아 소매 안으로 넣었다. 이 상의 향좌측에 ‘月智佛’이라는 명문이 보인다(도). 월지불은 『화엄경』 여래수량품과 『불설불명경』 제7권에 이름을 보이는 부처이다. 또 하나의 주존은 좌상이며 오른손을 가슴에, 왼손을 배에 대는 변형 수인을 하였다. 향좌측에 ‘毗盧遮那佛’ 명문을 적었다(도).²³⁾ 『불명경』류에는 대체로 600명 부처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예참하고 공덕을 얻는다. 불명경류는 천불사상의 전파와 성행에 영향을 주었다.²⁴⁾

강을 내려다보는 산기슭에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이 있다. 30여 구의 불좌상이 어느 정도 열을 맞춰 5단으로 나뉘어 배열되었다. 모두 좌상의 여래로 구성되며 향좌측에 이름과 같은 명문을 새겼다. 천불도에 소형의 불좌상 옆에 각각의 불명을 적는 구조와 유사하여 천불신앙과 결합된 마애불상군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先生’ 등의 명문을 연관지어 해독할 방법이 없다. 모두 같은 수인은 아니며 네다섯 가지의 수인 종류가 있다. 그중 양손을 소매 안으로 넣어 ‘^’자 형태를 취하였다(도).

두 불상군의 공통점은 보살상이 없는 불상으로 군집된 점이다. 그리고 불명경 계통의 경전에 보이는 부처 이름 혹은 천불도의 형식을 보여준다. 부처의 명호를 수지독송하여 죄를 참회하고 공덕을 얻는 불명경 계통의 신앙을 따른다고 확인하기 어렵지만, 동일하게 양손을 소매 안에 넣어 수인을 가리는 불상을 포함한다. 손이 완만하거나 ‘^’자 형태인 점은 구분된다. 각각 10세기, 고려전기 불상으로 파악이 된다.

앞서 양손 축지의 불상을 살피면서 보았던 堯대 대동 화엄사 해회전(海會殿) 불상 18존 가운데 양손을 소매에 넣어 수평의 손동작을 하는 불상이 있다(도). 고려와 요의 교류 양상은 고려는 거란대장경을 네 차례에 걸쳐 유입하면서 불교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²⁵⁾ 요대 불상은 일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으며 얼굴 생김이 온화하고 단정하며 엄숙하고 풍만하여 당 양식의 영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18존 불상에 수인을 가리거나 양손 축지를 한 자세는 있으나 고려에서 이루어진 변형과 역사성이 주목된다.

22) Dorothy C. Wong, *Chinese stel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124쪽.

23) 황호균, 「智異山 鄭嶺峙 磨崖佛像郡의 造成背景」, 『불교문화연구』 4, 1994, 77-78쪽.

24) 원혜영, 「돈황문헌의 『佛說佛名經』 연구」, 『동방학지』 175, 2016, 61-62쪽.

25) 김수연, 「고려-거란 밀교 교류의 양상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61, 75-76쪽.

논산 송정리 마애불은 본존불이 높이 3.2m의 입상이다. 협시보살은 작은 크기이며 삼존을 구성한다. 본존은 옷소매 안에서 공수인과 유사한 형태를 짓는다. 흥미롭게 형겅 조각을 바둑판 모양으로 꺾매어 입는 할절의(割截衣)를 표현하였다(도). 좌상으로 김해 초선대 마애불좌상은 너른 소매에 손을 넣고 완만한 공수인을 취한 듯이 보인다.

왕인적상으로 알려진 영암 월출산 석불입상은 두 팔을 소매에 넣어 공손히 읍하는 자세로 서 있다(도). 11세기 불상으로 추정된다. 장수 원흥사 석불입상, 임실 학정리 석불입상 등이 법의 표현에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자세이다(도).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은 흘러내린 대의가 수인을 가린다.

남원 용담사 석불입상은 6m가 넘는 대형의 불상이다(도). 얼굴과 수인은 마멸이 되어 희미하게 보이지만 임실 학정리 석불입상과 유사한 자세인 점은 식별할 수 있다. 불상 앞에 세워진 높이 10m 가량의 칠층석탑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칠층석탑은 13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단층기단 위 1단의 꺾임 위에 매우 세장한 1층 탑신을 올렸으며 홀쭉한 이 용담사 칠층석탑이 운주사 석탑과 유사한 종류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도). 한편,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은 손을 가슴 앞으로 ‘^’자 형태로 올렸다(도). 장흥 미륵사 석불상은 그 영향을 받았다. 운주사 석불의 수인과 가장 유사한 손모양을 하고 있다. 다만 소매 넓은 대의 안에 넣은 점이 차이다.

논산 신평리 마애여래입상은 가슴 앞으로 ‘^’자 형태로 올렸다(도). 얇은 선각의 서툰 솜씨이지만 화염문 광배를 표현하고 두상과 어깨에 내려앉은 듯한 화불을 나타내었다. 신평리 마애여래입상은 대의로 수인을 가리지 않았으나 손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혹은 운주사 석불과 같이 소매가 매우 좁은 옷을 표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가슴 앞으로 ‘^’자 형태로 올린 점에서 운주사 석불의 수인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고려시대 불상에서 수인을 가린 불상으로 공수인 혹은 ‘^’자 형태인 상을 살펴 보았다. 현재로서는 조사된 상은 10여 점이다. 흥미롭게 남원, 장흥 등 운주사를 둘러싼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었다. 운주사 석불의 수인이 독특하지만 고려의 전통에서 12세기에 이미 분포되었던 상의 수인을 도식화하고 중요성을 부여하여 운주사 불상 특유의 표현으로 변모시켰다.

IV. 운주사 석불의 성격과 특이성

운주사 천불천탑 유적은 여래상과 탑이 계곡 평지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일반적인 천불상이 열을 지어 배치되는 방식과 다른 형태이다. 고려 건국 이후 11세기는 왕실 미술문화 발달의 전형을 이룬다. 운주사는 높은 수준의 정교한 불교조각이 아니며, 12세기 이후 지방문화와 상호 작용하여 혁신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 조각품을 대표한다.

불탑의 4면에 수많은 불상을 조성하는 양식의 기원은 간다라불탑에 있으며 천불신앙은 이러한 불탑의 신앙적 배경이다.²⁶⁾ 특징적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전돌을 쌓아 탑으로 만든 천불상은 불상과 탑, 전각이 배열되었다. 고려불교에서 천불신앙은 지속되었다. 운주사 천불천탑의 유적은 자연 계곡에 개방되어 여래상, 석탑, 전각형 불감 등이 배치되었으며 천불신앙을 배경으로 한 변용일 수 있다.

풍수와 불교의 교섭은 한국의 문화와 사상에서의 독특한 흐름이다. 도선국사는 사·탑(寺·塔)이라는 불교적 수단을 풍수적인 비보로 이용하는 이른바 비보사탑설을 창안하였다.²⁷⁾ 비보사탑은 태조의 훈요십조에 제시되어 도선국사가 정한 곳 이외에 함부로 사찰을 창건하지 않도록 하였다.²⁸⁾ 비보설은 고려시대 내내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²⁹⁾ 비보사사(裨補寺社)는 무신정권기에 재정비되어 1198년에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이 설치되었다.³⁰⁾ 이는 고려사회에 팽배한 비보압승에 의한 나라의 안정과 이를 추인하는 지리도참사상을 시사한다.³¹⁾ 지리환경에 부족함이 있으면 더하여 복돋우는 것이

26) 이해주,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의 기원 고찰」, 『동양학』 87, 2022, 177쪽.

27)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45쪽; 한기문,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278~279쪽.

28)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4월.

29) 최원석,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 『대한지리학회지』 44-1, 2009, 78~81쪽.

30) 李在範, 「崔氏政權의 成立과 山川裨補都監」, 『成大史林』 5, 1989, 17~18쪽.

31)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275~278쪽.

비보이며 과함이 있으면 눌러주는 것이 압승이다.

운주사 석탑은 12~13세기 전반에 1층 탑신이 길어지는 백제계 탑의 특징과 자연암반에 세우는 비보탑 방식을 보이며 일반 석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하무늬 장식과 함께 이를 하나의 구성으로 통합한다. 운주사 석탑에서 백제계와 신라계 탑을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백제계 탑이 절반을 차지한다.³²⁾ 12~13세기 전반의 석탑에서 기단부 없이 자연암반에 세우는 탑이 집중되며 그 의미는 풍수도참, 산천비보탑으로 이해되었다.³³⁾ 하나하나는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는 고려시대 석탑의 요소이며 건축적 장식들이지만, 그것의 통합은 다른 어느 석탑에서도 찾기 어려운 독창성을 보인다.

운주사 석불은 독립적인 석불과 군집된 석조불상군으로 구분된다. 독립적인 석불의 배치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운주사 석조불감은 목조건축을 재현한 석조 감실 안에 남쪽을 향한 석불 좌상과 북쪽을 향한 석불좌상이 각각 수인을 달리하여 앉아 있다. 남쪽을 향한 석불좌상은 변형 축지인이며, 북쪽을 향한 석불좌상은 양손을 가슴에 모아 수인을 법의로 가렸다.

산 정상과의 와불은 열반에 의한 와불이 아닌 지면에 등을 붙이고 있는 거대한 좌상과 입상이다. 와불의 시선은 북향이며 거대한 좌상의 와불은 불감 불상의 북쪽을 향한 석불과 동일한 수인이다. 운주사를 대표하는 설화는 도선국사에 의해 이 와불을 세워 유토피아가 열린다는 기대이다. 석불의 제작공정을 감안하면 채석 후 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을 끝낸 와불을 자리에서 떼어 세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칠성바위 끝이 가리키는 가장 밝은 자리에 와불이 위치한다.

별자리 인식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이를 땅에 투영시킨 것이 명당이다. 운주사에는 7개의 원반형 돌로 거대한 북두칠성을 만든 칠성바위가 있다.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교와 음양, 풍수 지리설 등은 고려의 건국사상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도교는 천지, 산천, 성수에 대한 신앙이 포함된 복합신앙이다. 고려중기에 도교는 정치이념으로 대두되었고 어느 시기보다 성행하였다.³⁴⁾

석조불상군은 모두 다섯 개의 군집이다. 암반의 단애면을 이용하여 개방형 감실을 이룬다. 배치 방식은 산자락 자연 암벽에 지형을 이용하여 기대어 있다. 대체로 발이 생략된다. 주불은 크기가 크거나 연꽃대좌와 같은 표현으로 좌우 작은 석불에 비해 우월성을 보여준다.

석불의 제작에서 지루한 복제가 아닌 모듈에 의한 변형의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된다. 이는 초기부터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제작 의도를 확증해 준다. 비슷한 불상의 다른 버전이지만 팔에 옷주름을 생략하거나 가부좌에서 발을 바꾸는 변화, 목에 삼도를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변화 등 다양한 모듈의 결합 방식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보인다.

운주사 석불의 복식은 일반적인 불상의 복식에 비해 소매가 현저히 좁은 특징을 갖는다. 인도 착의와 중국식 장삼 모두 소매가 넓게 표현된다. 옷소매가 넓지 않고 손목이 좁아 든 복식은 고려시대 복식을 반영한 토속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운주사 석불의 주요 특징으로 석불의 반절 이상이 ‘^’ 형태 수인을 취하며 대의 안으로 손을 가린다. ‘^’자 형태 수인을 가린 불상에 대해 합의된 명칭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수인을 대의 안으로 가린 표현은 천불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불상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다. 흥미롭게 고려시대에는 입상의 주존에서도 그러한 수인이 종종 보인다. 그리고 공교롭게 운주사를 둘러싼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었다. 단독의 주존 입상은 특정한 부처를 나타내었음을 암시한다.

운주사 석불은 고려 전통에서 이미 분포되었던 수인을 도식화하고 중요성을 부여하여 운주사 불상 특유의 표현으로 변모시켰다. 이 석불들이 어떠한 존명을 나타내는지, 지형 위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배치되는지 많은 질문을 품게 한다.

32) 정선중, 「百濟系石塔에 관한 일고찰-건립 배경과 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 20, 1986; 박경식, 「和順 雲住寺의 石塔에 관한 考察」, 『박물관기요』 5, 1989, 7~8쪽.

33) 진홍섭,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고고미술』 138-139, 1978.

34) 金澈雄, 「高麗中期 道敎의 盛行과 그 性格」, 『史學志』 28, 1995, 101쪽.

V. 맺음말: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

운주사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 77항에 명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평가기준에서 (i)와 (vi)를 충족한다. 곧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이자(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상과 신앙, 예술 등이 유형적으로 연관된다(vi).

운주사의 탁월한 유산적 가치는 대형 석불과 군집된 불상들 그리고 석탑과 칠성바위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들 문화유산의 독특한 양식과 표현을 통해 운주사는 불교와 천문, 도교, 풍수지리 등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교류의 결정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의 흔적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유적이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운주사는 언제, 누구에 의해 건립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목조전각을 재현한 불감이나 산비탈에 세워진 탑, 7개 원반형 바위를 깎은 칠성바위 등 기술적으로도 불가사의에 가깝다.

운주사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곳의 석불과 탑은 한국 석조각의 전통, 불교와 도교, 토속적 경향이 혼합된 고려시대 종교 관습, 지방문화 속에서 꽃피운 예술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운주사는 한국의 풍부한 불교 유산, 수수께끼 같은 과거, 지속적인 예술적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운주사는 불교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지역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독특하게 변화해 간 중요하고 희귀한 표본을 제시한다. 운주사 이후 불교와 지방문화가 만나 거대한 지역 후원의 연속된 구조물이 만들어진 사례가 드물며 한국 중세 불교의 조각, 기술, 창의성, 예술적 영감,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참고문헌

『고려사』권57,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능성현

『신증동국여지승람』권40, 전라도 능성현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2006

김병인, 「화산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학』57, 2015

김수연, 「고려-거란 밀교 교유의 양상과 특징-『梵書摠持集』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62, 2021

김일권, 「화산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과불의 고려천문학」, 『정신문화연구』 37-2, 2014

김창현, 「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 『史叢』 72, 2011

金澈雄, 「高麗中期 道教의 盛行과 그 性格」, 『史學志』 28, 1995

박경식, 「百濟系石塔의 建立背景에 關한 考察」, 『문화사학』 24, 2005

박광연, 「고려와 거란의 보살계 문화」, 『이화사학연구』 62, 2021

朴宗基, 「武人政權下의 農民戰爭」, 『한국사 시민강좌』 8, 1991

박지훈,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 『강원사학』 27, 2015.

변동명, 「高麗 武人政權期의 百濟復興運動과 李延年」, 『남도문화연구』 6, 1997

원혜영, 「돈황문헌의 『佛說佛名經(불설불명경)』 연구」, 『동방학지』175, 2016

이몽일, 『한국풍수사상사연구』, 日駟社, 1991

이승혜, 「高麗時代 佛腹藏의 形成과 意味」, 『미술사학연구』 285, 2015.

李在範, 「崔氏政權의 成立과 山川裨補都監」, 『成大史林』 5, 1989.

이종은·양은용·김낙필, 「高麗中期 道教의 綜合的 研究」, 『韓國學論叢』 15, 1989.

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전탑 천불상 연구」, 『先史와 古代』 44, 2015

이태호·전득염·황호균, 『운주사』, 대원사, 2007

李海朱, 「雲崗石窟의 간다라 모티프와 그 含意: 塔型浮彫를 中心으로」, 『文化史學』 56, 2021

장남원·강병희·권순형·김순자·김영미·안귀숙·정은우, 『고려와 북방문화』, 양사재, 2011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雲住寺綜合學術調査』, 1991.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雲住寺 資料集成』, 2009

- 정선종, 「百濟系石塔에 관한 일고찰-건립 배경과 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 20, 1986
-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 정진희, 「羅末麗初 熾盛光如來 信仰과 圖像의 傳來-『高麗史』기사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20, 2015
- 천득염, 『百濟系石塔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 최병식,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대한 再檢討」, 『선사와 고대』19, 2003
-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44, 2002
- 최원석,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 『대한지리학회지』 44-1, 2009
- 한기문,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 황호균, 「智異山 鄭嶺峙 磨崖佛像郡의 造成背景」, 『불교문화연구』4, 1994
- 황호균, 「운주사의 사찰 창건과 천불전탑의 조성 배경론」, 『불교문화연구』 11, 2009
- 國立京都博物館, 『遼代多寶千佛石幢』, 1973
- 賴鵬舉, 「關河의三世學與河西의千佛思想」, 『東方宗教研究』4, 1994
- Dorothy C. Wong, Chinese stel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

정성권

단국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화순 운주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산출되었다. 특히 석불과 석탑으로 대표되는 운주사 석조미술은 다른 지역의 석조미술과 다르게 미술사학이나 역사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민속학, 기호학, 천문학, 보존과학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³⁵⁾ 운주사의 학술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시기는 1984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운주사의 건립시기와 중창시기, 폐사시기 등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 운주사의 수많은 석불과 석탑을 누가 세웠으며 어떠한 종교 사상적 배경으로 건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글의 발표자는 ‘2024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에서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주제로 발표를 의뢰받았다.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누가, 언제 건립하였는지 먼저 확인한 후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운주사 대해서는 운주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선이나 혜명의 이름이 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이밖에 다양한 주장도 등장하였으나 누가 왜 전통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불탑과 불상을 건립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문에서는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 먼저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운주사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운주사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선과 혜명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은 전통적인 석조미술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특성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국내와 국외에서 찾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주사의 건립세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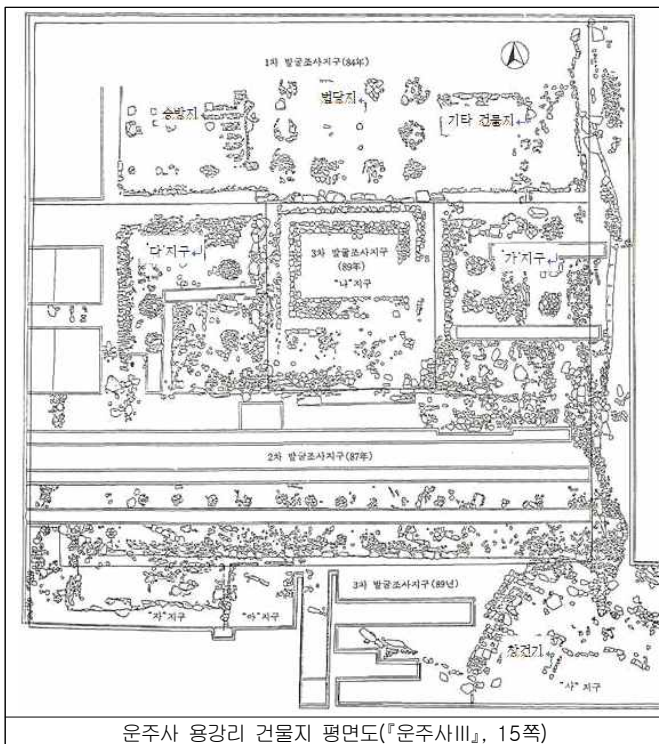
운주사는 고고학 발굴조사 결과 늦어도 11세기경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주사의 법당은 창건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다 정유재란 때 폐사되었다. 폐사 이후 17세기경 대초리 일대에 다시 사찰이 건립되어 근대기까지 사찰이 존재하였다. 운주사는 11~12세기경 창건기와 여말선초기, 전쟁 이후인 17세기경의 종교 사상적 배경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서는 운주사의 조성시기와 조성세력을 밝힌 후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창건기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35) 운주사 연구업적은 釜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관련자료 총목록」, 『운주사 자료집성』, 2009, 529~543쪽 참조. 2009년 이후 출간된 연구업적은 본문의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II. 운주사의 조성시기

1. 발굴 조사를 통해 본 조성시기

운주사의 조성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주사 발굴조사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1984년, 1987년, 1989년에 걸쳐 4차례 실시되었다.³⁶⁾ 운주사 발굴조사에서는 운주사 입구에 해당되는 용강리 지구에서 8동의 건물지와 4개의 기단이 확인되었다. 현재 운주사 사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초리 지구에서는 3동의 건물지와 2단의 석축이 조사되었다. 운주사에 처음 건물이 들어서고 정유재란 이전까지 운영된 곳은 용강리 지구이다.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주사는 11세기 초반에 창건되어 12세기말에 이르러 가람의 규모가 완비되는 전성기를 거치며, 총 네 차례의 중창을 거듭한 사찰이다. 운주사의 1차 중창기는 11세기말~12세기초반이며 2차 중창기는 12세기, 3차 중창기는 12세기말부터 13세기 초반으로 파악되었다. 4차 중창기는 ‘弘治八年銘’ 명문기와가 출토된 1495년이다. 운주사는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초리 지구의 유적은 17세기 이후 운영된 곳임이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³⁷⁾



운주사 용강리 건물지 평면도(『운주사III』, 15쪽)

용강리 지구 건물지는 운주사 구층석탑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운주사 입구에 해당된다. 운주사는 11세기 초반 초창기 건물이 운주사 계곡의 주향과 평행인 남서 30도의 방향으로 건립되었다. 운주사 초창기 건물은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용강리 건물지 남동쪽 모서리 최하층에 있는 ‘사지구’ 건물지이다. 용강리 건물지는 정남향인 반면 초창기 건물지는 남서 30도의 방향으로 건물의 주향이 다르다. 초창기 건물지는 보고서에서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굴보고서의 도면을 통해 보면 측면 3칸 정면 3칸으로 여겨진다.³⁸⁾

초창기 건물지의 조성시기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중 10세기 후반 작으로 추정되는 해무리굽 청자편을 통해 정해졌다. 이 청자편을 통해 운주사의 초창기 건물의 조성시기는 늦어도 11세기 초반에는 지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자의 경우 쉽게 파손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의 창건시기는 10세기 후반경까지 소급할 수 있다. 운주사가 10세기 후반 또는 늦어도 11세기 초반에 처음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늦어도 11세기 초반에 건립된 운주사의 초창기 건물은 11세기 말 이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³⁹⁾ 운주사 초창기 건물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초창기 건물 북쪽의 운주사 계곡에 위치한 석탑과 석불은 건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석조미술사 연구를 통해 볼 때 10세기~11세기 초반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 전남지역의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운주사 석불 및 석탑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⁴⁰⁾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운주사의 시기별 변천 과정 중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조성시기와 연관지을 수 있는 시기는 1

36) 1차 발굴조사는 1984년 5월~6월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는 1984년 11월에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1984). 2차 발굴조사는 1987년 9월~11월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는 1988년에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II』, 1988). 3차 발굴조사는 1989년 2월~3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는 1990년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III』, 1990). 4차 발굴조사는 1989년 9월~11월에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는 1994년 발간되었다(전남대학교 박물관 『운주사IV』, 1994).

37) 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資料集成』, 2009, 169~173쪽.

38)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III』, 1990, 20쪽.

39) 全南大學校 博物館, 위의 책, 22쪽.

40)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10세기 조성 석불과 석탑은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등과 같이 대형 불상이 대표적이다. 10세기대 석탑으로는 대흥사 북미륵암 앞 석탑 등이 있으며 11세기 초 석탑은 영암 성룡사지 오층석탑이 있다. 이 석탑에서 발견된 탑지를 통해 성룡사지 오층석탑은 1009년(목종 12) 조성된 탑임을 알 수 있다.

차~3차 중창 시기인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의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4차에 걸친 운주사 발굴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주사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경 사찰의 중심축이 남서 30도에서 정남향의 구도로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이후 12세기 말에 이루어진 3차의 중창기에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어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16세기말까지 지속적인 변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12세기 말에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세기 경에는 운주사의 주요 석탑과 석불 역시 대부분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차례 중건된 용강리 건물지는 법당과 승방 등을 갖춘 규모 있는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탐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사찰의 규모가 완비된 시점에 수많은 석탑과 석불이 운주사 계곡에 가득 들어서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발굴조사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12세기경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 문헌기록을 통한 조성시기 검토

운주사와 관련된 기록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명문기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선시대 기록이다. 운주사 창건과 관련해서는 9세기 인물인 도선국사 창건설화가 있으며 10세기 주로 활동하였던 혜명 스님이 건립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구비전승 역시 역사적 사실을 은유와 상징적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후대에 등장한 이야기가 마치 창건 당시부터 전해져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역사적 사실 여부를 파악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운주사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비전승이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의 역사적 층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인의 연구성과는 운주사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의 연구는 운주사에 대한 전근대 기록 대부분이 ‘천불천탑과 쌍배불’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명문기와를 제외하면 운주사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부터⁴²⁾ 『綾州牧邑志』(1871)까지 대부분의 문헌기록에서 운주사에 대한 서술은 천불천탑과 쌍배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⁴³⁾ 이를 통해 조선시대 운주사는 천불천탑 신앙을 구현하기 위한 도량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면 운주사의 천불천탑 신앙은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한 종교 사상이지만 운주사 창건기의 종교 사상적 내용으로까지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파편으로 확인된 개체수까지 포함하면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100여기 이상 건립되었다.⁴⁵⁾ 마지막 중창 시기인 1495년부터 운주사가 폐사되는 1597년 정유재란까지 석탑과 석불이 앞 시대의 작품을 모방하여 꾸준히 제작되었다면 조선시대 운주사에는 100여기 이상의 석불과 석탑이 가득한 천불천탑의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천불천탑 사상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창건기 석탑과 석불의 개수가 마지막 중창기 이후보다 많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천불천탑을 계획하여 조성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건기 석탑과 석불의 종교 사상적 배경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는 도선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려 초기의 승려 혜명이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현존하는 기록 중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인물은 도선보다 혜명과 관련된 기록이 먼저 보인다.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에는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료 1> 운주사, 천불산 서쪽에 있다. 절은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다. 그 좌우 벼랑과 기슭에 크고 작은 석불과 석탑이 매우 많이 있어 이를 일러 천불천탑이라 한다. 또 석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두 석불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등지고 앉았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절은 신라 때 조성된 것이라 한다. 혹 일컫기를 고려 승려 惠明이 수천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 각각 명령해서 조성했다고도 한다.(『東國輿地志』)⁴⁶⁾

41)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174~175쪽.

4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0 전라도 능성현 불우조. “雲住寺 千佛山에 있으니 좌우의 산등성이에 있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천 개이다. 또 石室 둘이 있어 석불과 서로 등지고 앉았다”,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43) 김병인, 「운주사에 대한 해석양상의 역사적 층위」, 『역사학연구』24, 호남사학회, 2004, 237쪽

44) 김병인, 위의 글, 238쪽; 이계표, 「운주사의 사상적 배경」, 『운주사종합학술조사』, 全南大學校 博物館, 1991, 55~59쪽.

45) 韓國敎員大學校 博物館, 『雲住寺의 石塔과 石佛』, 1990, 21쪽.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혜명이 조성하였다는 내용은 나주 불회사의 산내 암자였던 일봉암에 대한 기록인 「日封庵記」에도 언급되어 있다. 「일봉암기」는 1737년 작성되었으며 글의 내용에 운주사라는 사찰명은 등장하지 않으나 ‘運舟之谷’이라 표현하고 있어 도선국사의 ‘行舟論’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조성한 혜명에 대한 기록은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49년 건립된 「관촉사사적비」에 나타난다. 아래의 사료를 분석하면 운주사 조성을 논할 때 도선국사와 혜명이 등장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사료 2> … 동국으로 돌아와 산천의 기맥을 저울질하여 점치니, (중략) 비유하건대 회오리바람이 부는 큰 바다 가운데 뜻 없는 외로운 배가 노를 잃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중략) 국사께서 이에 혈맥에 침이나 땀을 뜨는 법을 사용하여, 은진의 땅에 대인석상을 세우고 운주의 골짜기(運舟之谷)에 천개의 불탑을 건설하시니 뜻과 노가 있어서 능히 가볍게 흔들리는 배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서도 진정하여 편안하게 하였다고 이를 수 있다.(「日封庵記」)⁴⁷⁾

<사료 3> 반야산에 있다. 돌미륵이 있는데, 높이가 54척이나 된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고려 光宗 때에 반야산 기슭에 큰 돌이 솟아 오른 것을 중 慧明이 쫓아서 불상을 이루었다 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⁴⁸⁾

<사료 4> 968년(광종 19) 사제촌의 여자가 반야산 서북쪽 모퉁이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고 있는데, 홀연 동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보니 큰 돌이 땅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사위에게 말하니, 사위가 곧 현감에게 고하였다. 관에서는 조사와 함께 회의를 통하여“이는 반드시 불상을 만들 징조다.”라는 결론을 얻고 사신을 八路에 보내어 공사를 맡을 사람과 부처상을 만들 사람을 구하여 혜명이 천거되었다. 조정에서는 공장인 100여 명을 선발하여 968년(광종 19)에 일을 시작해서 무릇 37년이나 경과한 1006년(목종 9)에 만들어졌으며, 불상의 몸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중국의 승려 지안이 이를 보고 쫓아와서 ‘광명이 동시에 서로 응한다’라고 하여 관촉사라 하였다.(「灌燭寺事蹟碑」)⁴⁹⁾

<사료 5> …우리나라의 지형은 항해하는 배와 같으며 태백산, 금강산은 그 머리고 월출산, 영주산은 그 꼬리이며, 부안의 변산은 그 키이고 영남의 지리산은 그 노이며, 綾州의 雲柱는 그 북부라고 여겼다. 배가 물에 뜨려면 배의 머리·꼬리와 등·배를 눌러 주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키와 노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 가라앉거나 표류하는 위태로움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탑을 세워 진압하고 불상을 세워 눌러 놓았다. 특히 雲柱 아래는 지세가 굽틀거리듯 용감하게 일어나는 곳이라 별도로 천불천탑을 세워 그 등과 배를 채우게 하였다.…(『道誥國史實錄』)⁵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조성한 혜명에 대한 기록 중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석불의 조성을 혜명이 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전한다. 그런데 약 200여년 후인 1749년(영조 25) 「관촉사사적비」에서는 은진미륵이 조성되는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혜명의 주도하에 장인 100여명이 선발되어 37년간이나 걸려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에는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37년 작성된 「일봉암기」에도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사료 5>는 『도선국사실록』 중 운주사 관련 부분이며 운주사를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도선국사실록』은 1675년경(숙종 초년) 초간되었으며 현재 1743년(영조 19) 중간된 것이 남아 있다. 『도선국사실록』은 대부분 믿기 어려운 기사로 채워져 있어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⁵¹⁾

운주사를 혜명이 창건했다는 기록인 『동국여지지』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1656년경이며 『도선국사실록』 초간 되는 시기

46) 『東國輿地志』,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4쪽 참조.

47) 「日封庵記」,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1쪽 참조.

4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8 충청도 은진현 佛宇條.

49) 「灌燭寺事蹟碑」, 『朝鮮金石總攬』下, 亞細亞文化社, 1976, 1153쪽.

50) 「道誥國史實錄」,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4쪽 참조.

51) 최병현, 「도선의 생애와 풍수지리설」, 『선각도선국사의 신연구』, 영암군, 1988, 97~98쪽.

가 1657년경이다. 1656~1657년경 운주사 창건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2> 『동국여지지』의 내용에 운주사가 신라 때 조성되었다는 민간의 전언이 나오고 있으나 도선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도선국사실록』이 간행된 이후 만들어진 <사료 5> 「일봉암기」중 운주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선국사의 ‘行舟論’이 확인되는 점을 보아 『도선국사실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지』와 『도선국사실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등장했다는 점은 운주사를 창건한 중요 인물로 도선국사와 혜명이 언급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혜명과 도선국사는 17세기 중반경 ‘재발견’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창건설화가 17세기 중반경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혜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혜명은 <사료 3>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상의 제작자로만 간단히 언급되었다. 17~18세기 사이 ‘재발견’된 혜명은 1749년 건립된 「관촉사사적비」에서 풍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도선국사 역시 1657년 『도선국사실록』의 초간과 1743년의 중간을 통해 17~18세기 사이 도선국사의 ‘재발견’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9세기 인물인 도선국사와 968년경부터 시작된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조성의 책임자였던 10세기 인물인 혜명이 12세기경 건립된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건립자일 수 없다. 또한 ‘신양식’ 불상으로도 분류되는 고려초의 거석불을 만든 혜명이 운주사를 조성했다는 점은 시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식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도선국사나 혜명이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17세기경 등장한 附會된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의 특징

운주사에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세기 초반 이전이나 석불과 석탑의 조성시기는 발굴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11세기말부터 12세기경으로 파악되었다. 문헌기록에 남아 있는 도선국사나 혜명이 운주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은 17세기경 ‘재해석’된 이야기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세력과 운주사 건립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미술사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작품, 특히 석조미술의 경우 앞 시대 전통의 흔적이 마치 지문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개별 작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일반적인 중세 불교조각사나 석탑사의 전통과 연계시키면 ‘맥락’이 거의 없이 돌출되듯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건립 주체나 조성 배경 등에 대해 아직 뚜렷한 정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운주사의 수많은 석탑과 석불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사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운주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운주사 건립세력을 찾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석탑을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사례가 있는가? 둘째. 운주사 석탑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 운주사 석탑의 탑신석 및 옥개석 하단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은 전통에 기반한 것인가? 넷째. 원형탑 및 구형탑이 조성된 적이 있는가? 다섯째. 운주사 석감과 같은 석실이 조성된 적이 있는가? 여섯째. 운주사 석불은 전통적인 양식의 계승과 영향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일곱째. 운주사 석불의 상호와 같이 눈과 입이 생략되었으며 평면형 얼굴을 갖고 있는 석불이 존재하는가?

위에 언급한 질문은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개괄적인 답을 먼저 한다면 ‘없다’이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양식적 특징을 우리나라 석조미술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초대형 석탑과 석불이 혼재되어 있는 100여 기 이상의 운주사 석탑과 석불이 전통과 크게 연계되지 않은 점을 보인다는 것은 운주사 석조미술의 주요한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일곱 개의 미술사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가 보면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을 누가 왜 조성했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한정된 공간의 多塔 건립 사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한 공간에 많은 석탑이 조성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탑파는 익산 미륵사지에 목탑과 석탑이 섞인 3개의 탑이 건립된 것을 제외한다면 주로 쌍탑이 조성되는 것이 다탑 건립의 최대 수량이다. 사찰 경내 이외의 지역이나 산등성이 등에 건립된 비보탑의 경우도 주로 한 기의 탑이 건립된다. 운주사 계곡의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된 사례는 우리나라 탑파 건립의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립 방법이다. 또한 석탑뿐만 아니라 석불 역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석불 입상과 좌상이 함께 배치된 사례는 없다.⁵²⁾

한 장소에 수많은 탑이 산재해 있는 곳은 미얀마의 파간pagan을 비롯하여 중국의 塔林, 인도의 부다가야 대탑 주변의 봉헌용 소탑 등이 있다.⁵³⁾ 미얀마 파간의 탑과 인도 부다가야의 탑은 넓은 평지 사원에 건립된 탑이며 하남 소림사 탑림과 같은 중국의 탑림은 불탑이라기 보다는 고승들이 사리를 봉안하는 부도의 성격을 띤다. 인도 산치 대탑의 경우 대탑 주변에 중소형 탑이 함께 있으며 산치탑이 건립된 지역은 완만한 능선의 정상 부근이다. 산치 대탑이 있는 지역은 구릉의 능선 정상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부근은 대규모 승원이 들어설 만큼 넓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

운주사와 같이 좁은 계곡에 다탑이 건립된 사례는 간다라 지역인 파키스탄 스와트(Swat)의 암록다라(Amluk-dara) 탑과

52)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범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 같이 마애불의 경우 다수의 불보살상 등을 하나의 바위에 조각한 사례는 있으나 개별적인 석불을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수의 석불이 모인 사례의 경우도 석조삼존불입상과 같이 세트를 이루는 3개의 석불이 조성된 경우는 있으나 운주사와 같이 독립된 석불이 다수 건립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53) 천득영,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 『호남문화연구』54, 호남학연구원, 2013, 27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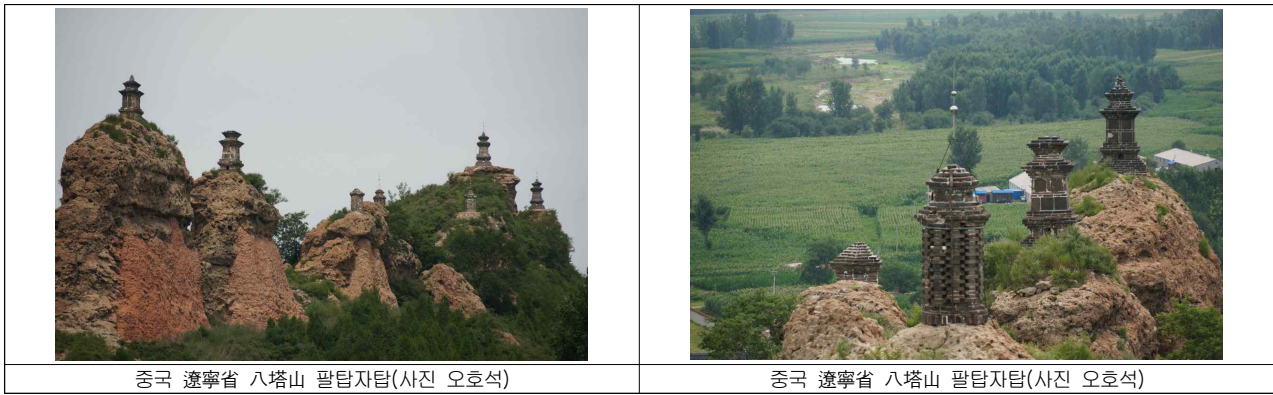
중국 소림사 탑림 (사진 필자)	인도 산치 대탑이 위치한 구릉 원경 (사진 필자)	인도 산치 대탑에서 바라본 승원과 주변 구릉지역 (사진 필자)

나지그람(Najirgram) 탑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암록다라 탑은 스와트 바리코트(Barikot) 지역에 있는 카라카 계곡(Karakar Valley)에 있으며 나지그람 탑은 바리코트 지역의 나지그람 계곡에 조성되었다. 암록다라와 나지그람의 탑은 2세기경 건립된 불교사원으로서 부다가야의 탑과 같이 대형 불탑 주변에 다수의 봉헌탑이 건립되어 있다.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암록다라 스투파(Amluk-dara Stupa) (사진 필자)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암록다라 스투파(Amluk-dara Stupa) (사진 필자)
파키스탄 간다라지역 나지그람 수투파 (Najirgram Stupa) (사진 필자)	파키스탄 간다라지역 나지그람 수투파 (Najirgram Stupa) (사진 필자)

이밖에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지에 다수의 탑을 건립된 사례는 중국 遼寧省 義縣 八塔山에서 찾을 수 있다. 팔탑산 유적에는 8개의 산봉우리에 각각 형태가 다른 8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이 탑들의 창건연대는 요대로 알려져 있으며 청대에 중수되었다.⁵⁴⁾ 일반적인 요대 탑은 평면 4각, 6각, 8각의 밀첨식 탑이 주요 지역에 1기씩 건립되는데 팔탑산의 요대 탑은 산 능선의 봉우리를 따라 8개의 탑이 특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양한 평면을 보이는 다수의 탑이 한 공간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요대 처음 조성된 팔탑산의 탑들은 운주사의 다탑 배치를 고찰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54) 주경미,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研究」, 『중앙아시아연구』14, 중앙아시아학회, 2009, 159~160쪽.



2.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운주사를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와 운주사 석탑의 양식과 문양이 전통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주사의 석탑은 현재 완전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면 방형이 12기, 원형이 2기로 14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100여 개에 이르는 무너진 탑재들이 확인되고 있어 본래 30여 기 이상의 석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운주사 석탑의 건립시기는 어느 특정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중창 시기마다 새로운 형태의 석탑들이 세워진 것이라 여겨진다.⁵⁶⁾

운주사 석탑은 백제계 석탑의 양식적인 수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형적인 석탑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무정제성, 다소 거친 무작위한 기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한 형식적 요소로는 자연암반을 이용한 단일석 기단, 보조우주, 면석과 층급받침의 기하적 문양, 추녀형식의 돌기, 옥개석의 하부에 뚫린 사리공 등으로 이는 여타의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⁵⁷⁾ 운주사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는데 운주사 석탑을 백제계 석탑으로 본 근거는 탑신의 구성에서 있어 별적으로 고준하게 구성된 점이나 옥개석의 평박광대한 감, 가벼운 반곡, 우아한 곡선미, 두툼한 우동 등에서 백제계탑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만이 남아 있다. 백제계 석탑은 후삼국 시대 이후 구 백제권역에 백제 석탑의 영향을 받아 건립된 석탑을 일컫는 용어이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이나 정형기의 불국사 삼층석탑과 같은 신라 석탑을 보았을 때 주요한 양식적 특징은 탑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면 방형의 이중기단과 삼층의 탑신부를 우선 말할 수 있다. 이와 비교되는 백제 석탑의 주요한 특징은 낮은 기단을 갖고 있다는 점, 평박한 옥개석, 넓은 옥개받침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후삼국시대 이후 등장하는 백제계 석탑은 일반적으로 순수백제계석탑과 절충양식 백제계석탑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순수백제계 석탑은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김제 귀신사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절충양식백제계 석탑은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공주 계룡산 청량사지 칠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55)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123쪽.

56) 천득영,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83쪽.

57) 천득영 외,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8-1, 대한건축학회, 1992,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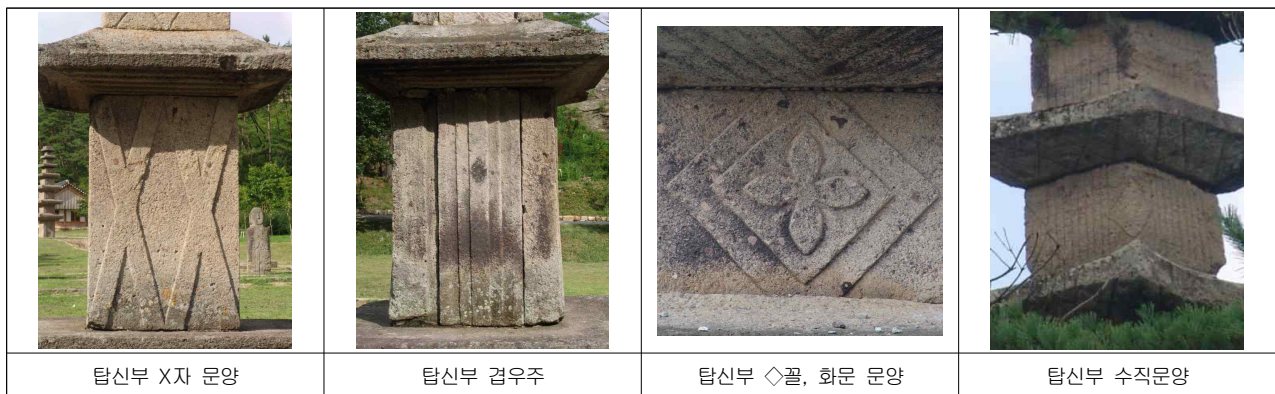
58) 천득영, 위의 책, 84.

절충양식백제계 석탑의 경우 백제계절충양식과 신라계절충양식으로 다시 구분되며 백제계절충양식은 탑신괴임대형과 고준세장형으로 더욱 세분된다.⁵⁹⁾ 이러한 분류 방법은 백제 석탑을 기준으로 후삼국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백제계석탑을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학문적으로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이다. 하지만 운주사 석탑을 세장고준형의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백제계’ 석탑이라 한다면 백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나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백제계 석탑에서는 간접적이거나 백제 석탑이 연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주사 석탑에서 상대적으로 평박한 옥개석을 제외하면 백제 석탑을 연상하기는 쉽지 않다. 기단부 없이 지대석 위에 바로 건립된 운주사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주변 백제계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일부 반영된 ‘고준세장형 고려석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운주사 석탑은 ‘고준세장형 고려석탑’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 전개의 관점에서 보면 운주사 석탑은 매우 파격적이며 특이한 석탑이다. 운주사 석탑의 중요한 특이성은 한정된 공간에 다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지대석이나 자연 암반을 일부 가공하여 기단부를 생략한 채 탑신부와 상륜부만 건립한 점, 탑신에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사찰의 주요 법당 앞이 아니라 자연 암반 위에 석탑을 건립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주 남산 능비봉 오층석탑, 경주 남산 용장사 삼층석탑,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증평 남하리 삼층석탑, 제천 소악사지 삼층석탑,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 석탑 중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의 경우 기단부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나 법계사 삼층석탑은 별석의 낮은 삼단받침을 조성하여 기단부를 대체하고 있으며 봉정암 오층석탑은 바위 위로 한 단의 받침을 만들어 탑을 받치고 있다.

운주사 석탑에서도 지대석을 방형의 기단부처럼 만들거나 지대석 위로 낮은 다층 단을 만들어 기단부를 대체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암반을 일부 다듬거나 지대석만을 조성한 후 기단부 없이 바로 탑신부를 세웠다. 운주사 대부분의 석탑은 기단부를 생략한 채 고층의 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성 수법으로 전통성에서 벗어난 건립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9) 천득영,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83쪽. 149~156쪽.

<p>파키스탄 스와트 박물관 소장 부조 불상 대좌 문양 (사진 필자)</p>	<p>파키스탄 탁실라 박물관 소장 다르마지카 스투파 (Dharmarajika Stupa) 장식용 석판(사진 필자)</p>	<p>파키스탄 탁실라 박물관 소장 다르마지카 스투파 (Dharmarajika Stupa) 장식용 불상 대좌 문양(사진 필자)</p>

운주사 석탑이 전통성에서 벗어난 석탑이라는 점은 석탑의 탑신부에 조각된 다양한 기하 문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운주사 석탑 탑신부에는 마름모, 엑스자, 십자꽃무늬, 수직선 및 수직사절선 등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문양 형태는 우리나라의 다른 석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석탑 장식이다. 운주사 탑신부 문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름모 도형의 변형으로 보아 이를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장식된 금강석(다이아몬드) 문양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⁶⁰⁾ 마름모 형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원시 사냥꾼들에게 삶의 원천이나 풍속, 안녕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나 친족관계에 의해 부각되는 성스러운 여성 표현으로도 풀이된다.⁶¹⁾ 이밖에 석탑 장식문양을 『법화경』에 나온 칠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⁶²⁾ 운주사 탑신부에 새겨진 문양의 기원을 찾아간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의 힌두교 사원이나 멀리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문화의 범주 속에서 기원을 찾는다면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 조각 문양에서 보다 확실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⁶³⁾ 간다라 지역의 불탑 형식은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 불탑 형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⁶⁴⁾

운주사 석탑의 기하 문양 기원은 간다라 불교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는 운주사 석탑에서 확인되는 마름모꼴 문양과 교차선 문양인 엑스자 문양이 석굴 벽화의 테두리 장식용 문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동아시아 불교 문명권에서는 테두리를 장식하는 다양한 기하문양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름모꼴과 교차선 문양이며 마름모꼴 무늬는 석굴 벽화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교차선 무늬는 부처의 금강대좌를 두르는 띠 장식문양으로 흔히 사용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키질석굴 제17굴, 제118굴의 벽화이다. 이와 더불어 키질석굴 제123굴과 돈황석굴 벽화의 테두리 장식은 운주사 석불의 기하 문양과 판박이라 할 만큼 닮았다.⁶⁵⁾

운주사 석탑의 탑신부에 장식된 문양의 기원은 문양 패턴의 유사성으로 보았을 때 최근의 연구성과에서 밝힌 바대로 간다라와 실크로드 상의 불교 석굴사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운주사 석탑을 만든 사람들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에 대해서는 형식과 양식의 극도의 변형과 왜곡, 그리고 극단의 도식화와 추상화로 인하여 민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며 이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전혀 조각의 경험이 없는山谷의 민간인들로 추정되기도 한다.⁶⁶⁾ 즉, 전문적인 불교미술 장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장인 아닌 이들이 어떻게 간다라와 실크로드 상의 석굴사원에서 유행하였던 장식문양을 운주사 석탑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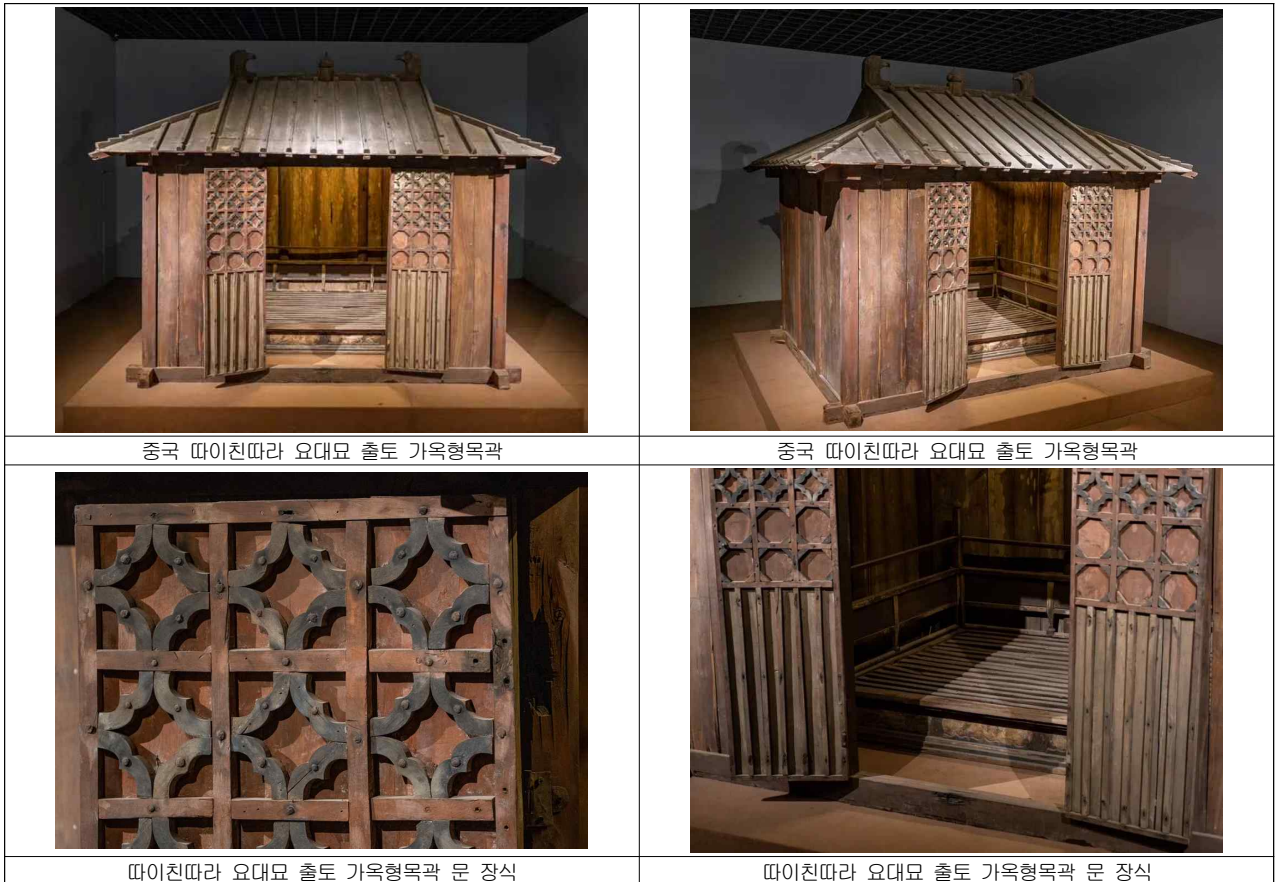
간다라 유적이거나 실크로드 상의 석굴사원 내에 조성된 불교미술들은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들의 후원이 뒷받침된 작품들이다. 이에 반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전통적인 전문 장인이 참여하여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양식적 특성은 ‘파격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⁶⁷⁾ 이러한 파격성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만든

60) 황호균, 「운주사의 사찰 창건과 천불전탑의 조성 배경론」, 『불교문화연구』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267쪽.
61) 선미라,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 천불 전탑의 문양들」, 『담론201』9-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113쪽.
62) 성준경, 『和順 雲住寺石佛-石造佛龕을 中心으로』,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200~201쪽.
63) 오호석, 「운주사 석탑의 특징과 가치」,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 2024, 43~46쪽.
64) 천득영·최정미·영승훈·김소영, 『인도 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심미안, 2018, 313쪽.
65) 홍석경, 『운주사 천불전탑의 미학』, 문화의 힘, 2024, 132~139쪽.
66) 강우방, 「韓國昆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圓融의 圖像의 實現」, 『미술자료』44, 국립중앙박물관, 1989, 61쪽.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던 집단이며 전통적인 전문 장인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주사 석탑 탑신부에 조각된 기하학적 문양은 그 기원이 간다라와 실크로드 석굴사원이라 하더라도 운주사 석탑을 만든 사람들이 장식 문양을 탑의 표면에 조각한 이유는 그들의 일상 생활과 장식문양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탑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며 목조건축물을 돌로 번안한 것이다. 목조건축물에 마름모꼴이나 수직선 등을 활용한 장식문양을 부착한 사례를 찾는다면 운주사 석탑을 건립한 세력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마름모꼴, 수직선문과 같은 기하 문양이 건축물에 장식된 사례를 요대 무덤에서 발견된 가옥형목곽에서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기하 문양이 장식된 가옥형목곽은 내몽골 흥안맹(興安盟) 타이친따라(代钦塔拉)의 요대 조성된 3호묘에서 발굴되었다. 현재 이 가옥형목곽은 興安盟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다. 가옥형목곽이 출토된 3호묘는 요대 귀족의 무덤이며 십자 형태의 평면 구조를 보인다. 무덤 남쪽(남동)에 입구가 있으며 입구의 반대편인 북쪽(북서)에 돛형태의 지붕이 있는 墓室이 있다. 입구와 묘실 중간에는 동서방향에 別室이 각 1개씩 있다.⁶⁸⁾ 가옥형목곽은 묘실 내에 있었으며 크기는 높이 291cm, 길이 271cm, 폭 208cm이다.⁶⁹⁾ 가옥형목곽은 팔작지붕을 한 목조건축물이며 창문은 만들지 않았고 건물의 중앙에 두 개의 미닫이 문이 달려 있다. 건물 중앙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시상대가 평상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타이친따라 3호묘 가옥형목곽의 미닫이 문에는 마름모꼴, 원형, 방형, 수직문 등 다양한 장식이 확인되는데 운주사 석탑 탑신부의 문양과 유사한 점이 있다.

운주사 석탑의 탑신부는 목조건축물의 벽체와 문이 있는 부분이다. 석탑이 목조건축물의 번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탑의 기하학 장식문양은 목조건축물의 벽과 문이 있는 곳에 장식을 가한 것이다. 요대 조성된 타이친따라 3호묘 무덤에서 확인된 목조건축물의 장식문양과 운주사 석탑 탑신부에 장식된 기하학 문양이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조성한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요 문화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67) 朴慶植, 「和順 雲住寺 石塔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57, 檀國大 東洋學研究院, 2014, 143쪽.

68) 刘未, 「辽代契丹墓葬研究」, 『考古学报』4,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 2009, 500~501쪽.

69) 가옥형목곽의 크기는 興安盟博物館에서 제작한 ‘辽代木质棺床小帐’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였다 (<https://www.bilibili.com/video/BV1n54y1B79c/>).

3. 원형다층탑과 구형탑

네 번째 질문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및 구형다층석탑과 관련된 문제이다.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 중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존재이다. 원형다층석탑은 운주사의 다른 석탑과 다르게 기단부가 존재한다. 원형다층석탑의 기단부는 대좌형 기단부로서 갑석은 평면 원형이며 갑석의 하단부에는 양련이 시문되어있다. 갑석 하단의 기단부는 5매의 돌로 결합되어 있는데 각 돌은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어 기단부의 평면은 10각을 이루고 있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탑신부의 평면은 원형이지만 기단부만을 놓고 보았을 때 10각의 평면을 보인다. 동아시아 탑파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평면 4각과 8각이 주를 이루며 드물게 6각이 나타나기도 한다.⁷⁰⁾ 탑파의 평면 구성이 10각으로 이루어진 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遼寧省 義縣 八塔山에 세워진 탑 중 1기의 탑이 10각의 평면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팔탑산의 탑은 청대에 중수되었으나 그 창건연대는 요대로 알려져 있다.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평면 10각의 탑이 운주사와 요대 창건된 팔탑산에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기단 갑석 하부가 10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단부의 하대석이 지대석을 겸하고 있다. 운주사 원형탑은 갑석 하부의 기단부만 빼면 전체 석탑은 평면 원형의 부재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석탑 부재에 평면이 원형인 부재가 포함된 석탑은 석굴암 삼층석탑과 도피안사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평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팔각 대좌형이며 하대상석이 원형의 양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석탑은 기단부가 원형이지만 탑신부는 평면 방형의 삼층석탑이다. 이에반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탑신부가 전체 원형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어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과 직접적인 양식의 영향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조형에 영향을 준 석탑을 우리나라에서 찾았다면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는 자연 암반위에 3층의 원형탑과 같은 불상 대좌를 조성하고 탑의 상륜부 자리에 불좌상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용장사곡 불상대좌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는 불상이 앉아 있는 상대석 하부에 양련 장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대좌가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인 모습은 용장사곡 석불 대좌와 운주사 원형탑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조형 의도 자체는 전혀 다르다. 또한 용장사곡 석불 대좌와 같은 석조대좌가 이후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직접적인 기원을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탑신은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원형으로 이루어졌다. 용장사 석불대좌의 형태는 운주사 원형탑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탑이 아니라 대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탑신부가 원형으로 조성된 유일한 탑이다. 이와 함께 탑신부가 발우와 유사하게 생긴 원구형 탑신으로 이루어진 운주사 원구형 석탑 역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원구형 석탑이다.

운주사 원구형 석탑과 유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유사한 형태의 원형 다층석탑은 중국 산서성 羊頭山石窟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두산석굴은 산서성 高平市에서 북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양두산에 있다. 양두산에는 석굴이 40여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 석굴은 9곳이 있다.⁷¹⁾ 주요 석굴 중 가장 큰 석굴인 5호굴이 굴착된 암반 상부에는 두 개의 원형탑이 있다. 5호굴 상부의 원형석탑은 현재 4층의 옥개석이 있으나 본래 5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양두산에는 5호굴 상부의 석탑과 외형이 거의 동일한 5층 원형석탑과 7층원형석탑도 있다. 5호굴의 굴착 시기는 북위시대대로 알려져 있으며 양두산석굴의 원형탑은 당나라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²⁾

70) 오호석, 『요대 탑파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3~55쪽.

71) 서남영, 「중국 산서성의 소형불교석굴에 관한 연구-양두산의 북조 석굴군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27, 불교미술사학회, 2019, 190쪽.

72) 朴慶植, 「和順 雲住寺 石塔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57, 檀國大 東洋學研究院, 2014, 141쪽.

		
<p>운주사 원형다층석탑 10각 기단부(3D)</p>	<p>중국 팔탑산 팔탑자탑 10각 석탑 (사진 오호석)</p>	<p>중국 양두산 석굴 석탑 (사진 필자)</p>

양두산석굴의 원형석탑은 1층 탑신에 감실이 있는 중공식 석탑이지만 그 외형만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어떤 석탑보다도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유사하다. 팔탑산 10각 석탑과 더불어 양두산석굴의 원형 다층석탑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양식적인 면과 조형 형식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운주사 석탑의 조성세력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4. 운주사 석조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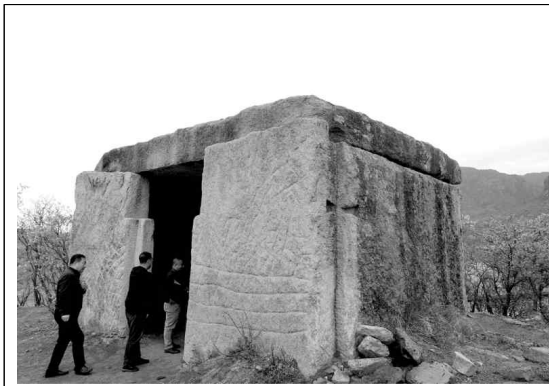
운주사 석조불감에 대한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운주사 석감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남쪽 약 11m 지점에 있다. 운주사 석감은 지붕의 평면 크기가 정면 4.2m, 측면 4.5m 정도이며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대형 석조불감이다.

석조불감의 기본적인 형태는 석감의 하부에 불상 대좌의 하대석과 중대석과 같은 방형 기단을 조성하였으며 그 위에 가옥형 석실이 조성되었다. 가옥형 석실은 팔작지붕 형식의 지붕이 있으며 창문이 없이 남쪽과 북쪽 중앙에 출입문이 있다. 석조불감의 내부에는 석불좌상이 높이 약3.2m의 광배를 사이에 두고 등을 맞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들의 건립에서 알 수 있듯이 거석문화가 선사시대부터 발달하였다. 이후 고대나 중세시대 돌방무덤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돌방무덤은 지하에 묘광을 판 후 돌로 무덤방을 만드는 매장시설이다. 돌방무덤의 석실은 대형 판석을 이용해 조성한 경우도 있으나 다듬은 석재를 축대를 쌓듯이 벽을 만들어 지하에 돌방을 조성기도 하였다.

지상에 노출된 석실 중 운주사 석조불감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석실은 요나라 초대황제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872~926)의 시신을 봉안하였던 석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야율아보기의 무덤은 바린좌기(巴林左旗) 다푸라거산(大布拉格山)에 위치하며, 능역과 奉陵邑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역에는 매장하기 전 아보기의 시신을 모셨던 돌방과 공덕을 적은 기공비, 능묘가 있다.⁷³⁾ 야율아보기의 시신을 안치했던 돌방은 운주사 석조불감과 비교하였을 때 기단과 지붕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이 없으며 돌방 중앙에 출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점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73) 김인희, 『움직이는 국가, 거란』, 동북아역사재단, 2020, 12쪽.



야율아보기 시신을 안치했던 석실
(『움직이는 국가, 거란』, 12쪽)



야율아보기 시신을 안치했던 석실 내 시상대(『움직이는 국가, 거란』, 12쪽)



赤峯市 출토 요대 가옥형목곽



운주사 석조불감

운주사 석조불감과 형태가 비슷한 건축물로는 요대 귀족무덤에서 출토되는 가옥형목곽이 있다. 興安盟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는 타이친따라(代钦塔拉) 3호묘 출토 가옥형목곽과 2011년도 규슈박물관 ‘契丹’ 특별전에 출토된 내몽고 赤峯市 출토 요대 가옥형목곽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팔작지붕의 용마루가 지붕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벽체에 창문이 없고 출입시설이 건축물 정면 중앙에 시설된 점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형태와 매우 닮았다. 특히 규슈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요대 가옥형목곽은 팔작지붕위의 용마루가 마치 별도의 통나무를 올려 놓은 듯한 모습인데 이러한 용마루의 모습은 운주사 석조불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5.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운주사 석불의 양식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남지역 불상의 전개양상을 보면, 기년명 불상으로 859년(현안왕 2) 조성된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으며, 이밖에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는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⁷⁴⁾,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광주광역시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경우 광주 및 전남지역의 전체 석조불상 숫자에 비교하면 절대적인 숫자는 적은 편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석조불상은 44구가 있으며 미지정 석조불상까지 포함하면 운주사 미지정 석불을 제외하고 약 70여 구의 석조불상이 알려져 있다.⁷⁵⁾

운주사의 석불은 98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형태가 완전한 석불은 62구이다.⁷⁶⁾ 운주사 석불은 상호와 수인의 표현 방법, 옷주름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는 석불이 있다. 이는 조성시기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같다. 운주사 석불은 석탑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기에 동시에 전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창기를 전후한 시기에 앞 시대의 석불 양식을 모방하

74) 보성 유신리 마애불의 통일신라 조성설에 대해서는 이경화, 「9세기 보성지역과 유신리 마애불의 조성」, 『역사와 경계』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41~64쪽 참조.

75) 정성권,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배경」, 『普照思想』64, 보조사상연구원, 2022, 205쪽.

76) 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資料集成』, 2009, 103~104쪽.

여 꾸준히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주사 석불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의 석불과 석탑이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운주사 석불의 양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주사 석불은 대부분이 판석형 석불이다. 운주사 석불은 석불입상뿐만 아니라 석불좌상 역시 대부분 판석형 석재를 다듬어 불상을 조성하였다. 판석형 석재를 다듬어 불상을 조성하는 방법은 주로 고려시대 등장하는 불상 제작 방법이다.

둘째, 운주사 석불의 수인은 손이 드러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의 석불이 두 손을 마주잡고 있으며 마주 잡은 두 손은 옷자락으로 가려져 있다. 두 손이 옷자락으로 가려진 사례는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에서도 확인된다.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에서는 “天寶十年(917)”으로 파악되는 명문이 있어 10세기 초반에 제작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⁷⁷⁾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중 향 우측, 높이 4.2m의 여래입상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데 대의 자락에 손이 가려져 있다. 고려초기 조성된 전남 장흥 고산사 석조여래좌상 역시 옷자락에 가려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있으며 수인의 형태가 운주사 석불의 수인과 유사하다. 고려시대 불상인 임실 학정리 석불입상,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의 수인 역시 옷자락으로 두 손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옷자락으로 손을 가린 불상은 중국에서는 북위 시대 이전부터 확인되며 이후 요대 불상이나 요대 인물상을 표현한 陶俑, 벽화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주사의 경우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대형 석불인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을 비롯하여 임실 학정리, 오수리 석불입상의 수인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셋째, 운주사 석불좌상 중 양손을 모두 아래로 내리고 있는 수인의 불상이 있다. 이른바 양손 축지인 수인은 양손을 무릎에 대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결인이다. 중국 요대 대동시 화엄사 海會殿 18존 가운데 그 사례가 보인다.⁷⁸⁾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마애불입상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
		
북경 수도 박물관 요대 陶俑	북경 수도박물관 요대 석경당 석불좌상(사진)	북경 수도박물관 요대 석경당 석불좌상(사진)

77)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의 명문에 대해서는 황호균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황호균, 「지리산 정령치 마애불상군의 조성배경」, 『불교문화연구』4,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4, 77~78쪽.

78) 이경화, 「화순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 2024, 57쪽.

(사진 필자)	필자)	필자)
		
운주사 석불좌상	운주사 석불좌상	운주사 석불좌상

넷째, 석불좌상의 대좌는 상대석에 양련이 조성되어 있으나 하대석에는 복련이 생략되어 있다. 일반적인 고려시대 대좌에 비하여 중대석이 매우 낮은 점이 특징이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불상대좌는 평면 팔각대좌가 주류를 이루며 사각대좌의 경우도 상대석과 하대석 모두 연화문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주사 양손 축지인 석불좌상의 대좌는 상대석에 양련 연화문이 있으며 낮은 중대석과 연화문이 없는 계단식 하대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좌는 山西省 大同 華嚴寺 薄伽教藏殿에서 확인된다. 화엄사 박가교장전은 遼 興宗 重熙七年(1038)에 건립되었다.⁷⁹⁾ 박가교장전 내부에는 3구의 대형 소조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보살상 및 천왕상 등 도합 31구의 불교조각상이 있는데 불·보살 좌상의 대좌는 기본적으로 양련이 조각된 상대와 낮은 중대, 계단식 하대로 이루어져 있다.

		
운주사 석불좌상 대좌 도면	요녕성 박물관 소장 요대 불상 대좌 (사진 필자)	요녕성 박물관 소장 요대 불상 대좌 (사진 필자)

다섯째, 운주사 석불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불상의 상호가 평면형 얼굴이라는 점이다. 평평한 평면 형태의 얼굴에 눈동자와 입을 생략한 채 눈썹과 코만 T자 형태로 단순하게 표시하였다. 불상의 상호를 평면으로 조각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복식 표현이 비슷한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의 경우도 불상의 얼굴은 광대와 입 부근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불상의 얼굴을 마치 갈아 놓은 듯이 평평하게 조성한 사례는 조선 전기에 조성된 제주도 복신 미륵 이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복신미륵의 평평한 얼굴과 수인 등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4기는 킵차크 칸국 출신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⁸⁰⁾ 운주사 석불의 평평한 상호는 우리나라의

79) 山西雲崗石窟文物保管所編, 『華嚴寺』, 文物出版社, 1980, 2쪽.

전통적인 불상 상호에서는 찾기 어려운 얼굴 형태이다. 평평한 얼굴에 좁은 이마, T자형으로 눈썹과 코를 표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북방 초원지대의 석인상 얼굴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석불은 석조미술 전공자들에 의해 몽골 또는 돌궐 석인상과의 유사성이 일찍부터 제기 되어왔다.⁸¹⁾ 즉, 운주사 석불의 상호는 북방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상호이다.

여섯째, 운주사 석불좌상의 결가부좌한 다리는 발을 표현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발을 생략하고 발이 있을 부분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마무리 하였다. 결가부좌한 부처의 다리를 조각할 때 발을 생략하고 삼각형으로 앉은 다리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한 경우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대 금동불의 보관에 부착된 화불에서 이런 형태의 다리 모양이 확인되고 있어 운주사 석불의 조성세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대 금동보살좌상	요대 금동보살좌상 보관	요대 금동보살좌상 보관화불
운주사 외불	운주사 석불좌상	운주사 감실 석불좌상 다리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을 정리하면 판석형 불상 제작 방법, 두 손을 마주 잡고 옷자락으로 가린 수인, 양손 축지인 수인, 하대 복련이 생략되고 중대석이 낮은 대좌, 평평한 얼굴에 주로 T자형 눈썹과 코를 강조한 얼굴표현, 삼각형 형태의 결가부좌 표현 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 중 판석형 불상 제작 방법은 고려 불상의 제작 방법 중 하나이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수인은 우리나라 석불 중 호남 지역의 불상에서 주로 확인되며 중국, 특히 요대 불상이나 陶俑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인이다. 이밖의 특징인 양손 축지인, 낮은 중대석과 복련이 생략된 하대의 대좌, 결가부

80) 제주도 복신미륵의 조성시기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24, 불교미술사학회, 2017, 197~199쪽;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5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5, 212~213쪽.
 81) 소재구, 「운주사 탑상의 조성불사」, 『동원학술전국대회자료집』, 2001(주수완, 「운주사 석불상군의 미출사적 의의」, 『천불전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4, 253~254쪽 재인용); 엄기표, 「光州 十信寺址 석불과 석비의 조성 시기와 배경」, 『동국사학』77,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137~141쪽.

좌 한 다리의 삼각형 모양 처리 방법은 요대 불상에서 확인되는 양식적 특징이며, 평평한 얼굴의 모습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분포한 돌궐계 석인상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에 지문처럼 남겨져 있는 양식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운주사 건립세력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누가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주장이 있었다.⁸²⁾ 근래의 연구성과에서는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은 호남지역 장인들이 지닌 예술적 소양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⁸³⁾ 다른 주장으로는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이 12세기초에서 13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으며 건립 이유는 고려 명종대 정안(장흥)임씨로 대표되는 나주권 세력이 대두되며 운주사에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운주사에 불탑과 불상을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⁸⁴⁾ 이밖에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건립을 ‘요세, 천책’ 등의 백련결사가 주도한 ‘법화도량 행법도량’으로 해석한 주장도 있다.⁸⁵⁾ 최근에 발간된 단행본에서는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관경16관변상도’가 현실에 현현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주도한 이는 14세기 백련사 스님들로 보는 의견도 있다.⁸⁶⁾

근래의 연구성과는 운주사의 건립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운주사 석탑과 석불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외래적 요소와 우리나라 미술사의 전통적 ‘맥락’과 관계없이 등장하는 외래적 양식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운주사의 건립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개별적인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비보사상이 사상적 배경이 되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보풍수와 관련 있는 인물인 신라의 도선과 고려초기의 혜명은 17세기 ‘재해석’된 인물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건립이 풍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보사상이 운주사 건립의 주된 건립 사상이라 한다면 왜 앞 시대에는 한정된 공간에 다탑과 다불이 건립된 적이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다탑과 다불의 건설은 불교조각사와 탑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사 방식이 아니며 고려시대 운주사에서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다. 산간지역에 다탑을 세우는 조탑 방법은 운주사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전통’은 계승되지 않았다.

다불의 조성과 다탑 조탑 방법이 갑자기 운주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전통의 ‘창안’에서 찾기보다 ‘이식’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는 외래적 요소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에 다탑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던 지역은 간다라, 인도 산치, 동남아시아, 중국 탐림, 遼寧省 義縣 八塔山 지역 등이다. 이중 지리적, 시대적 요건을 고려하고 탐림이 부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탑 건립의 전통은 요대 조성된 팔탑산 지역의 전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요대 문화의 영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운주사 석탑은 옥개석의 모습과 석탑 결구 방법 등을 보면 고려탑을 기본적인 양식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단을 생략한 채 지대석 위에 세장고준한 탑을 건립하는 것은 전통적인 조탑 방법이 아니다. 또한 탑신에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이 자유롭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운주사만의 독특한 장식 수법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석탑 조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석탑 장식 방법은 운주사 석탑을 건립한 세력들이 전통적인 양식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는 집단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조각 수준을 보았을 때 이들은 훈련된 전문적인 석장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전문적 석장이 아닌 집단이 운주사 석탑에 기하학적 장식 문양을 자유롭게 조각하였다면 이러한 문양은 이를 조각한 집단의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하면서 단순한 기하 문양이 목조건축물인 요대 귀족무덤에서 출토된 가옥형목곽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

82) 운주사를 누가 언제 조성하였는지와 건립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2009년까지의 주장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관련자료 총목록」, 『운주사 자료집성』, 2009, 44~5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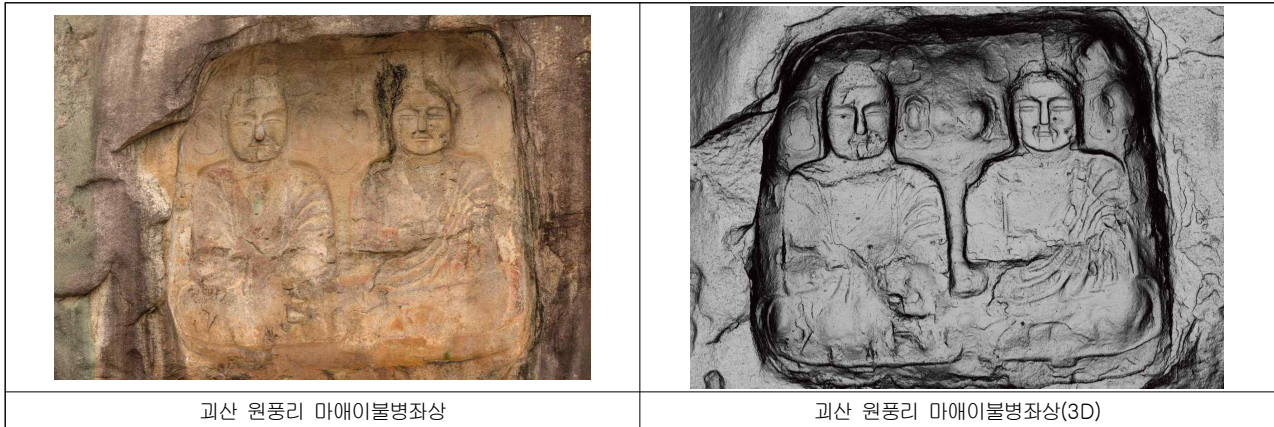
83) 朴慶植, 「和順 雲住寺 石塔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57, 檀國大 東洋學研究院, 2014, 135~154쪽.

84) 김창현, 「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 『사총』7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27~74쪽.

85) 박형상, 「화순 운주사 현상의 등장배경과 법화경 28품」, 『종교문화학보』19-2,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2, 125~168쪽.

86) 홍석경,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학』, 문화의 힘, 2024.

요가 있다. 가옥형 목곽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조형 양식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팔작지붕의 독특한 용마루, 창문이 없이 건물 중앙에 출입문이 조성된 점 등에서 건축물의 조형 감각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듬은 판석만을 이용해 지상에 돌방을 만든 사례가 바린좌기(巴林左旗)의 야울아보기 능역에 있는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주사 석조불감과 요대 가옥형목곽 및 바린좌기의 석실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건립은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거주하였던 토착세력이 아니라 이주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와 석조미술을 조성한 이주세력으로는 발해유민과 몽골세력이 있다. 발해유민은 고려 광종대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의 협시보살상 보관에는 화려한 발해 보살상만의 보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⁸⁷⁾

몽골세력이 만든 석조미술로는 제주도 대정현성에 있는 돌하르방 4기를 들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는 킵차크 출신 몽골인들이 몽골 킵차크 칸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았던 돌궐석인상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파견된 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⁸⁾ 1317년(충숙왕 4)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 광주 십신사지 석불 또한 돌궐 석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⁸⁹⁾ 아마도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 역시 몽골세력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전기황후릉 출토 석양과 석호도 몽골 장인들이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656년 반계 유형원이 편찬한 『東國輿地志』에는 연천에 기황후의 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⁹⁰⁾ 전기황후릉터는 연천군 상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2003년 石虎 2기와 石羊 3기가 수습되어 연천문화원으로 옮겨졌다. 전기황후릉 출토 석호와 석양은 몽골인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⁹¹⁾

발해유민이 조성한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의 조성시기는 10세기 후반이며 제주도 대정현성에 있는 몽골인들이 조성한 대정현성 4기의 돌하르방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경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십신사지 석불과 탑비는 14세기 전반기인 1317년이다. 전기황후릉의 석양과 석물의 조성시기는 14세기 후반경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유민과 관련된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은 10세기대 작품이며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석조미술은 대부분 14세기대의 작품이다. 운주사의 석조미술은 석탑의 양식적 특징과 고고학적 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주로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조사의 편년에 부합하며 석조미술에 요대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불과 석탑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주세력으로 거란유민을 상정할 수 있다.

운주사를 건립한 집단은 고려의 문화적 전통에서 자유로운 집단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양식적 파격성과 석불과 석탑에 담겨있는 요대의 문화적 요소는 운주사 석조미술의 건립세력으로 거란유민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이 거란유민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는 석탑뿐만 아니라 석불에서도 확인된다. 중대석이 낮으며 하대석에 복련이 없는 운주사 석불좌상의 대좌는 전형적인 요대 불상 대좌와 유사하다. 또한 양손 축지인 석불좌상의 수인 역시 요대 불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주사 석불입상이 거란유민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불상의

87)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의 조성배경」, 『문화재』5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232~239쪽.
 88)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몽골학』70, 한국몽골학회, 2022, 94~111쪽.
 89) 엄기표, 「光州 十信寺址 석불과 석비의 조성 시기와 배경」, 『동국사학』77,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137~141쪽.
 90) 『東國輿地志』 漣川縣 陵墓, “陵墓奇后墓 在縣東北十五里 俗傳元順帝奇皇后墓 石人石羊等石物今爲耕牧者所仆”
 91) 정성권, 「傳 기황후릉 출토 석상의 미술사적 해석」, 『기황후릉의 종합적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연천군, 2018, 57~73쪽.

결가부좌한 다리 표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의 다리는 일부 석불좌상을 제외하면 발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결가부좌한 다리를 마치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런데 원통형 보관을 착용한 요대 금동 보살상의 보관 중앙에 표현된 화불의 다리 표현이 운주사 석불좌상의 다리 표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삼각형 모양의 극도로 단순화된 결가부좌한 다리 모양이 요대 보살상의 원통형 보관과 운주사 석불의 다리에서 모두 확인된다. 결가부좌한 불상의 다리 표현을 소형 금동불에서만 아니라 운주사 마애불과 와불과 같이 대형 불상에서도 극도로 단순화 시킨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결국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사람들이 거란유민들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운주사 석불을 조성한 사람들이 거란유민들이라는 점은 석불의 상호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 상호는 타원형의 평평한 얼굴에 눈과 입을 생략한 채 눈썹과 코만 T자형으로 만들었으며 육계는 마치 상투처럼 솟아난 모양이 주류이다. 이러한 얼굴 표현은 돌궐계 석인상의 얼굴과 매우 닮아있어 주목된다. 돌궐계 석인상은 얼굴에 눈과 콧수염, 입 등이 조각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는 평평하며 상투가 마치 운주사 석불의 육계처럼 솟아난 경우가 있고 눈썹과 코가 T자 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운주사 석불상과 같이 상호가 평평한 불상은 제주도 복신미륵이 있다. 제주도 복신미륵의 평평한 얼굴은 몽골인들이 만든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의 평평한 얼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돌궐 석인상은 제주도에 목동으로 파견되었던 킵차크 칸국 출신의 몽골인들이 고향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었던 석인상이다. 현재 몽골공화국 내에는 약 500기의 석인상이 분포해 있다.⁹²⁾ 이 석인상들 중 약 400여기는 돌궐시대에 조성된 것이다.⁹³⁾ 6~8세기 만들어진 돌궐시대 석인상은 몽골 초원지대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있으며 흑해 연안까지도 분포해 있다.

운주사 석불상의 상호가 돌궐계 석인상의 상호와 같이 평평한 이유는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돌궐계 석인상과 형태적으로 비슷한 이유와 동일하다. 요의 영토는 현재의 몽골 영토를 모두 포함하며 서쪽으로 카자흐스탄의 영토 일부까지 포함하였다. 이 지역은 수백 개의 돌궐계 석인상의 분포해 있는 지역이다. 초원에 흩어져 있는 돌궐계 석인상은 유목민이었던 거란인들이 일상적으로 보았던 석인상이었으며 몽골의 성세 이후에는 몽골인들도 유목생활 중에 일상적으로 보았다. 생활 속에서 돌궐계 석인상을 보았던 거란인들은 1016년(현종 7) 2월 王美·延相의 來投를 시작으로 1117년(예종 12)까지 지속적으로 고려에 투화 하였다.⁹⁴⁾ 요나라는 1125년 멸망하였으나 멸망 이후에도 거란의 잔당들은 고려를 침략하거나 거란유민들이 고려에 지속적으로 투화하였다. 고려에 들어온 거란유민들과 거란의 포로들은 각 주현에 나누어 보내 비어 있는 땅을 택하여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토지를 지급하여 농사짓는 民이 되게 하였다. 거란유민들이 거처하는 곳은 속칭 契丹場이라 하였다. 이는 아래의 <사료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6> 조충은 호사연을 베풀었고 합진(哈眞)은 부녀자와 사내 아이 700구 및 우리 민으로 적의 포로가 된 200구를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나이 15세 전후인 여자로 조충과 김취려에게 각 9인씩과 준마 각 9필씩을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

92)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해안, 1994, 15쪽.

93) 윤형원, G.에릭센,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중앙아시아연구』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201쪽.

94) 남인국, 「고려전기의 投化人가 그 同化政策」, 『역사교육논문집』8, 역사교육학회, 1986, 88~91쪽.



신을 따르도록 하였다. 조충은 거란 포로들을 각 주현에 나누어 보내 비어 있는 땅을 택하여 거처토록 하고는 토지를 헤아려 지급하여 농사짓는 민이 되게 하였는데 속칭 거란장(契丹場)이라 하였다.⁹⁵⁾

거란유민들은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았으며 고려문화에도 깊이 동화하였다. 거란유민이 고려문화에 동화한 사례는 『고려사절요』 위초의 모습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료 7> 12월. 왕이 散員同正 위초가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아버지의 나쁜 병을 치료했다는 말을 듣고 재상에게 명하여 포상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한문준·문극겸 등이 아뢰기를, (중략) 지금 위초는 거란의 유종으로서 문자도 깨치지 못하였 으면서 능히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이고,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여 그 효도를 다하였 습니다. 마땅히 옛 전례와 같이 정문을 세우고 서책에 써서 후세에 무궁하도록 보여야 할 것입니다.⁹⁶⁾

고려에 내투한 거란유민들은 유목민의 전통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시묘살이를 할 정도로 고려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하였다. 거란유민들 생활 모습은 <사료 7>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료 8> 왕(睿宗, 재위 1105~1122)이 南京에 이르렀다. 거란에서 투항하여 귀화한 사람(投化人)들로서 남경에서 가까운 곳(圻內)에 흠어져 살던 자들이 거란의 노래와 춤, 여러 가지 놀이(雜戲)를 바치며 御駕를 맞이하였다. 왕이 임어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며 이를 보았다.⁹⁷⁾

거란유민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모습을 기록한 <사료 8>의 내용을 보면 운주사 일대에도 거란유민들이 거란장을 이루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세기경 고려에 투화하거나 포로로 잡혀온 거란유민들은 운주사 일대에 거란장을 조성하여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은 중장터로 알려져 있다. 중장터는 僮市의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중장터의 명칭이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⁹⁸⁾ 하지만 중장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고려시대까지 소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운주사 중장터 마을은 원래 거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장에 거주하였던 거란유민들은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후 그들의 상당수는 운주사를 자신들의 원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운주사의 승려나 거사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운주사의 대

95) 『고려사』 권16 제신 김취려.
 96) 『고려사절요』 1185년 12월 미상.
 97) 『고려사절요』 1117년 08월 미상 (음)
 98) 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資料集成』, 2009, 71~72쪽.

규모 불사에 참여한 능성현 거란장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운주사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초 관촉사 은진미륵을 조성한 인물은 승려 혜명이다. 혜명은 은진미륵 조성의 총감독이지만 한편으로는 僧匠이기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려중기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조성하는데 참여하였던 거란유민들은 승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거란유민들이 거주하는 거란장은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승려장, 즉 중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조성하고 운주사 근처에 거주하였던 거란유민들은 시간이 흐르며 고려사회에 동화되어 갔으며 이름도 고려식으로 바뀔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들은 이미 고유의 성씨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능성현조의 토성 중에 김씨가 “고려에서 백정으로 判定하였는데 온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⁹⁹⁾ 능성현의 토성 중 강씨는 旆州 강씨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김씨의 경우 “온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의 조상이 거란유민들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운주사가 거란유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사찰이라는 점은 송광사 16국사부도의 형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이 주석하면서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고 지눌부터 조선 초기까지 16명의 국사가 배출되었다. 송광사 출신 국사들의 석조부도는 고려중기 이후 건립된 석조부도의 양식사에서 하나의 주류를 이루며 호남 일대의 중요 사찰 부도군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채용되었다.¹⁰⁰⁾ 송광사 16국사 부도 중 1세 보조국사의 부도는 1210년 보조국사의 입적 직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국사의 부도는 탑신부가 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광사 16국사 부도는 2세 진각국사(1178~1234) 부도부터 팔각의 탑신부가 장신화 되는 형태로 바뀌며 이후 만들어지는 송광사 국사 부도의 모델이 된다. 2세 진각국사 부도 이후 13세기에 조성된 송광사 출신 국사 부도는 그 모양이 정제되어 있으며 낮은 중대석을 갖춘 연화대좌 위에 장신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을 올리고 상륜부를 장식하였다. 14세기이후 건립된 송광사 출신 국사 부도는 부도의 모습은 13세기 부도와 유사하지만 조각 수법에서 형식화가 진행되었다

송광사 부도의 경우 앞 시대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1세 보조국사 지눌의 부도는 탑신부가 원구형인데 2세부터는 탑신부가 기단부보다 긴 장신형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송광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운주사와 관련된 거란유민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세 이후 등장하는 국사 부도의 모습은 요대 탑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출토되는 금속제 사리탑이나 경탑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송광사 국사부도가 요대 금속제, 목제 사리탑이나 경탑의 모양을 따라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송광사 주변에 요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들은 운주사를 건립한 거란유민들이나 그들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광사 1세 보조국사 부도	송광사 2세 진각국사 부도	赤峯市 경주 백담 출토 요대 소탑	赤峯市 경주 백담 출토 요대 법사리탑

99)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능성현.

100) 엄기표, 「고려 후기 송광사 출신 16국사의 석조부도 연구」, 『文化史學』29, 한국문화사학회, 2008, 41 쪽.

V. 종교 사상적 배경

앞장에서는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사람들이 거란유민이라는 점을 밝혔다. 운주사 건립의 종교 사상적 배경에는 천불천탑사상, 비보사탑과 관련된 풍수지리사상, 운주사 칠성바위와 와불과 관련된 치성광여래사상, 범자문 막새와 관련된 화엄밀교사상, 법화도량과 연관된 법화사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의 연구성과는 운주사 천불천탑의 조성원리를 『관무량수경』에서 찾기도 하며 운주사의 건립에 아미타 정토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⁰¹⁾

운주사와 관련된 종교 사상적 배경을 논할 때 다양한 신앙 형태가 논의되는 이유는 운주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논의할 때 유의할 점은 운주사가 운영된 시간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고고학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운주사는 늦어도 11세기 후반 창건된 후 11세기말~12세기 초반 1차 중창하였으며 12세기경에 2차 중창을,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3차 중창이 진행되었고 1495년에는 4차 중창이 있었으며 4차 중창 후 정유재란이 발생하는 1597년까지 사찰이 유지되었다.

운주사에 대규모 석불과 석탑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인 12세기경의 시기와 이로부터 약 500년 후 폐사되는 무렵의 운주사는 운주사를 이해하는 종교 사상적 배경이 달랐을 것이다. 도선국사나 혜명이 운주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은 17세기경 '재해석'된 이야기임을 앞 장에서 확인하였다. 17세기에 풍수지리 사상과 관련된 비보사탑설이 '재해석'된 이유는 정유재란 때 운주사가 폐사된 이후 17세기경 대초리 일대에 다시 사찰이 들어서며 천불천탑이 가득 들어서 있는 운주사를 17세기에 '재해석'된 도선과 혜명을 통해 이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의 창건주로 시대와 맞지 않는 도선과 혜명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4차 중창기인 조선전기에는 운주사에 석불과 석탑이 처음 들어섰을 때보다 더 많은 석불과 석탑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당시 운주사에 대한 이해는 천불천탑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이 확실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4차 중창기의 운주사는 석불과 석탑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종교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으로 운주사를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운주사의 도량이 <법화경 28품>의 현상적 구현이라는 주장¹⁰²⁾, 또는 <관경16관변상도>의 세계라는 주장은 여말선초기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형 석불과 석탑이 처음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운주사의 창건 당시의 종교 사상적 배경으로 볼 수는 없다.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이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의 종교 사상적 배경은 운주사 건립세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운주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거란유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주사는 10세기후반 11세기 초반 경에는 작은 암자 형식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1세기말~12세기 운주사의 1차 중창시기가 실질적인 운주사의 창건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운주사의 실질적인 창건은 거란유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종교 사상적 배경을 고찰한다면 운주사의 창건을 처음부터 도선과 관련된 풍수지리사상이나 천불천탑사상 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운주사의 실질적인 창건 당시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세기경 조성된 석불과 석탑 위주로 종교 사상을 파악해야 한다. 12세기경에 조성된 운주사 석조미술 작품을 통하여 종교 사상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와불과 칠성바위, 기하문양이 새겨진 다수의 탑, 석조불감과 원형 다층석탑 등이다. 이와 관련된 종교 사상은 '치성광여래 신앙', '팔대영탑 신앙', '법화신앙'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 熾盛光如來 신앙

칠성바위와 와불은 운주사 내에서도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운주사 와불은 운주사의 다른 석불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점, 특히 결가부좌한 다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거란유민이 적극 참여하여 12세기경에 조성한 불상으로 볼 수 있다.

운주사 대형 와불은 칠성바위와 연관되어 북극성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치성광여래로 파악되고 있다.¹⁰³⁾ 치성광여래는 재

101) 홍석경,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학』, 문화의 힘, 2024, 34~64쪽.

102) 박형상, 「화순 운주사현장의 등장배경과 법화경 28품」, 『종교문화학보』19,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2, 125~171쪽.

103) 김일권, 「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94~202쪽.

난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수호하며 구원해주는 부처로 北極星을 如來化 하여 나타난 부처이다.¹⁰⁴⁾ 여러 부처들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치성광여래는 현존 유물과 관련 경전을 통해서 볼 때 9세기경 별에 관한 관심과 신앙의 유행으로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에 관한 신앙, 공양법 및 별에 의한 환난을 다룬 경전에는 『消除災難經』¹⁰⁵⁾, 『大妙經』¹⁰⁶⁾,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 『佛說聖曜母陀羅尼經』, 『佛說如意摩尼陀羅尼經』 등이 있으며, 모두 9세기 이후 만들어진 偽經으로 당시의 별자리 숭배에 대한 유행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치성광여래는 별에 의한 환난을 물리치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威力을 지닌 여래로서 대중이 선호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¹⁰⁷⁾

운주사 산정에 있는 대형 와불은 칠성석의 지극성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북극성 성격을 지닌 여래로 인식되었다.¹⁰⁸⁾ 북극성은 북극과 가장 가까운 별이기에 고대사회에서 방향을 잡는 중요한 별로 인식되었다. 요대 탑파인 朝陽北塔에서는 ‘吉星高照’라는 명문이 새겨진 磚이 출토되었다.¹⁰⁹⁾ ‘길성고조’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吉星으로 여겼던 유목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消除災難經』에는 부처가 천궁에 머물 때 설하였던 치성광다라니의 위력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온갖 재앙과 환난이 있을 때 청정한 도량을 세워 이 다라니를 108번 또는 1080번 읽고 독송하면 모든 재난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이다.¹¹⁰⁾ 운주사 대형 와불을 거란 유민이 조성하였다면 고려까지 흘러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란유민들 마음이 반영되어 조성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온갖 재앙과 환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하였을 것이며 그 종교 사상적 배경에 치성광여래사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운주사 와불은 세우게 되면 정북에 가까운 방향을 바라본다. 와불이 새겨진 바위는 다리쪽의 고도가 높고 머리쪽이 낮다. 와불을 본래부터 세울 계획이었다면 크기를 좀 더 줄여 다리와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조각하였다면 남쪽을 바라보는 불상을 상대적으로 쉽게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다리쪽을 지형 고도가 높은 방향으로 조각한 이유는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북쪽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들이 떠난 장소인 고향에 대한 향수가 반영된 의도적인 불상 배치로 생각된다.

2. 八大靈塔 신앙

운주사에는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多塔이 건립되어 있다. 운주사와 같이 다수의 탑을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탑 방법이 아니다. 한정된 공간에 돌을 치석하여 다탑을 집중적으로 건립한 사례는 운주사 이전에 없었으며 운주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운주사의 다탑 건립 방법은 한국의 전통 탑파 건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석조미술이 ‘맥락’ 없이 등장하는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에서 자유로운 이주민 집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 이주민 집단이 거란유민으로 볼 수 있다. 요대 탑은 밀침식의 탑으로 주로 4각과 8각 위주의 고층 탑들이 요나라 곳곳에 건립되었다.

요대 건립된 불탑 중 다탑이 조성되기도 하였는데 다탑이 건립된 장소는 遼寧省 義縣 八塔山이다. 의현 팔탑산에는 팔탑자탑으로 불리는 8기의 탑이 산 능선위에 조성되었다. 팔탑산의 봉우리마다 세워진 8기의 탑은 각각 정반왕궁생처탑, 보리수하성불탑, 녹야원중법륜탑, 급고원중명칭탑, 곡녀성변보적탑, 기도굴산반야탑, 암라위림유마탑, 파라림중원적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건립 시기는 성종 때인 1020년경이다. 팔탑산의 팔탑자탑은 요의 신앙이 사머니즘에서 불교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후 요의 밀교가 발달하면서 팔탑신앙과 밀교의 금강계만다라가 결합되어 부처의 생애를 대표하는 8대영탑을 오방불의관념으로 1개의 탑에 표현하게 되었다.¹¹¹⁾

요대 불탑의 탑신부에 장엄된 8개의 소탑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불교 도상의 하나로서, 『大乘本生心地觀經』에 나오는 八大靈塔을 표현한 것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나오는 8대영탑은 석가모니 8대 성지에 세워진 8탑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경전에서는 모든 신과 하늘과 용이 항상 공양하고 金剛密跡과 사천왕이 밤낮으로 호위하고 있으니, 만약 8대영탑을 만

104) 정진희, 『羅末麗初熾盛光如來信仰과 圖像의 傳來』, 『한국고대사탐구』2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187쪽.

105) 본래의 경전명은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이다.

106) 본래의 경전명은 大妙金剛大甘露軍擊利焰熾盛佛頂經이다.

107) 조성금, 『泰封時期 星宿信仰 研究』, 『문화사학』56, 한국문화사학회, 2021, 77~76쪽.

108) 김일권, 위의 글, 197쪽.

109) 朝陽市北塔博物館, 『조양북탑』, 文物出版社, 2007, 도판79-2.

110) K-1171(34-95), T-0964(19-338).

111) 오호석, 『요대 탑파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208쪽.

들어 공양하면 현신의 복과 수명이 연장되며 지혜가 증장되고 존경을 받아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고 만약 공양하고 마음으로 염원하더라도 같은 복과 덕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본생심지관경』에서 설명하는 8대영탑 조탑의 공덕은 요의 불탑과 사리장엄구에 나타나는 8대영탑 도상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음이 분명하다.¹¹²⁾ 거란유민들이 운주사에 다탑을 건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매우 강한 ‘八大靈塔’ 건립전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운주사 석탑은 기단부를 생략한 채 고층탑을 만들었으며 탑신부에 기하무늬를 자유롭게 조각하고 있다. 운주사 석탑 중 우리나라의 다른 석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탑신부에 기하무늬나 겹우주를 조각한 석탑은 거란유민에 의해 운주사에 12세기경 처음으로 건립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운주사에는 운주사 구층석탑을 비롯한 탑신부에 기하무늬나 겹우주가 조각된 석탑과 함께 원구형 석탑을 포함한 8기가 먼저 조성된 후 석감 앞에 원형다층석탑 1기가 더 추가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8기의 석탑 건립은 ‘8대영탑’ 사상이 반영된 석탑이라 할 수 있으며 추가적 1기의 석탑은 운주사 석조불감을 이불병좌상으로 보았을 때 이불병좌의 석감과 함께 다보탑을 상징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여러차례의 중창기를 거치면 앞 시대의 석탑 양식을 모방한 새로운 석탑이 운주사에 추가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처음 고려에 이주한 거란유민들이 고려에 동화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팔대영탑’ 신앙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 法華 신앙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과 석조불감은 『법화경』 「견보탑품」에 등장하는 이불병좌상과 다보탑으로 해석되고 있다.¹¹³⁾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석조불감을 「견보탑품」의 이불병좌상과 다보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운주사탑과 유사한 원형탑과 이불병좌상이 있는 산서성 양두산 석굴 5호굴을 통해서이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탑은 산서성 양두산 석굴에 있는 원형 탑이다. 양두산 석굴에는 4기의 원형 탑이 있는데 이 중 2기의 원형탑은 양두산석굴 5호굴 상면에 조성되어 있다. 5호굴은 굴 입구 향 우측에 대형 이불병좌상의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운주사 석조감실과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운주사 석조감실의 등을 맞대고 있는 불상은 그 존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법화경』 「견보탑품」의 이불병좌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운주사 석조감실을 조성한 세력이 거란유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화엄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소개되며 크게 유행한 불교 경전이다. 그런데 『화엄경』의 도상적 근거로 하는 비로자나불의 경우 9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며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이 반영된 이불병좌상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형 이불병좌상이 조성된 사례는 경주나 개경 인근이 아니라 소백산맥 골짜기인 괴산 원풍리가 거의 유일하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고려 광종대 발해 유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으로 밝혀진 바 있다.¹¹⁴⁾ 발해에서는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이불병좌상의 조성이 크게 유행하였다. 고구려 시대부터 계승되어져 왔던 동경용원부 지역의 불상제작 전통에

112) 주경미,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研究」, 『중앙아시아연구』14, 중앙아시아학회, 2009, 149쪽.
 113) 운주사 석조감실의 두 여래좌상을 이불병좌상을 본 의견은 성춘경, 『和順 雲住寺石佛-石造佛龕을 中心으로』,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187~204쪽; 박형상, 「화산 운주사 현장의 등장배경과 법화경 28품」, 『종교문화학보』19-2,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2, 147~148쪽.
 114)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배경」, 『문화재』5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232~239쪽.

새로이 二佛사상이 더해져 제작된 것이 발해의 이불병좌상이다.¹¹⁵⁾ 요대 불교문화는 당의 불교문화와 발해의 불교문화를 계승하여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요대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운주사 석조불감의 경우 이불병좌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운주사 석조불감을 이불병좌상으로 볼 수 있다면 석조불감과 그 앞의 원형다층석탑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이불병좌상 조형물이된다. 그런데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원형다층석탑이 중국 양두산 석굴 5호굴 상면에 존재한다. 5호굴 원형다층석탑 바로 아래에는 감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감실 안에는 전형적인 이불병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조성시대와 작품간의 거리를 고려한다면 양두산 석굴 5호굴의 불상과 원형탑이 운주사 석조감실과 원형다층석탑의 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두산 석굴 일대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고려한다면 이불병좌상과 원형탑의 도상이 운주사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두산 석굴은 山西省 高平市에 있다. 高平은 요나라 西京이 있었던 산서성 大同과 洛陽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있는 도시이다. 高平에서는 오대십국시대인 954년 후주를 상대로 北漢과 요나라의 연합군이 전투를 벌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때 요나라에서는 北漢의 요청으로 1만의 기병을 파견하였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하였던 요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高平 일대에 주둔하였던 요군은 高平 북쪽에 위치한 양두산 석굴사원을 방문하거나 적어도 양두산 석굴사원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감실에 들어있는 이불병좌상과 원형다층석탑의 조합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운주사에도 등장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고평전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한 문화의 교류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VI. 맺음말

본 논문은 운주사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운주사를 누가, 언제 창건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운주사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발굴조사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운주사는 늦어도 11세기 초반 창건한 후 11세기말~12세기 초반 1차 중창이 있었고 12세기에 2차 중창, 12세기말부터 13세기 초반에 3차 중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4차 중창은 1495년 있었음을 명문기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운주사는 1597년 정유재란으로 폐사되었으며 이후 17세기경에 다시 사찰이 들어선 후 근대기까지 법당이 이어졌다.

운주사의 창건은 천불천탑사상, 풍수지리사상의 비보사탑설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되며 도선국사나 관촉사 은진미륵을 조성한 혜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문에서는 도선과 혜명이 등장한 문헌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선과 혜명은 17세기경 '재발견'된 존재이며 이들은 운주사의 창건과 관련이 없음을 논하였다.

운주사를 누가 조성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정된 공간에 다탑을 건립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립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운주사 다탑 건립의 사례는 요대 조성된 遼寧省 八塔山 팔탑자탑의 다탑 건립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팔탑산 팔탑자탑에는 사례가 매우 드문 10각 탑이 존재하는데 이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기단부가 10각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운주사 석탑과 요대 문화가 연관성이 있음은 운주사 석탑의 기하무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운주사 석탑 탑신부의 기하무늬는 요대 가옥형목곽의 장식 문양과 흡사하며 요대 가옥형목곽의 형태는 운주사 석조불감과 매우 유사한 점을 논의하였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중국 양두산 석굴의 원형석탑과 매우 흡사한데 양두산 석굴 인근에 1만명의 요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던 역사적 상황(考評戰鬪)을 고려한다면 양두산 석굴의 이불병좌상과 원형탑이 결합된 5호굴의 도상이 운주사 석조불감과 원형다층석탑과 어떠한 형식으로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운주사 석불의 양식 분석에서는 석불의 중요한 특징인 평평한 얼굴이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과 관계 있음을 논하였다. 돌궐계 석인상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하여 몽골 지배기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으로 조성된 제주도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양손 축지인 자세, 하대석에 복련이 생략되며 중대석이 낮은 대좌 등은 요대 불상의 형식적 요소임을

115) 임석규, 『발해의 이불병좌상』, 『발해의 불교유물과유적』, 학연문화사, 2016. 43~45쪽.

논하였다. 운주사 와불을 비롯한 운주사 여래좌상은 대부분 결가부좌한 발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다리를 삼각형 모양을 표현한 사례는 요대 금동보살좌상이 착용한 원통형 보관의 화불 다리 모양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운주사는 12세기경 거란유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것임을 논의하였다. 운주사 앞 마을은 중장터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거란유민들이 고려시대 거쳐하였던 장소인 ‘거란장’이 운주사 중창 후 ‘중장’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이 처음 조성될 당시의 종교 사상적 배경으로는 ‘치성광여래 신앙’, ‘팔대영탑 신앙’, ‘법화신앙’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운주사는 거란유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것이 실질적인 창건이라 할 수 있다. 거란은 유목민이었으나 최초의 정복왕조로서 중국 내륙을 지배하였으며 풍성한 불교문화를 영위하였던 제국이다. 운주사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거란(契丹, Khitan)이 역사 속에 사라진 시점(1125년)을 전후하여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는 고려와 거란의 불교문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거란인들이 보았던 돌궐계 석인상의 문화 역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다면 운주사는 고려문화, 요 제국의 문화, 돌궐의 문화가 복합적, 중층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국제적이며 독보적인 역사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운주사는 유목문화와 정착문화가 결합하여 탄생한 국제적 문화의 융합 현장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 인식과 제고

한정훈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교수

I. ‘문화유산’ 운주사와 무형유산

화순군은 운주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성안(成案)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유산의 보호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¹¹⁶⁾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현재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¹¹⁷⁾로 규정되고 있다.¹¹⁸⁾ 유네스코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으로 총 10개 항목¹¹⁹⁾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Integrity)’ 및 ‘진정성(Authenticity)’이 충족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 기준(주석4 참고)을 운주사에 개략적으로 적용했을 때, (IV)과 (VI) 항목이 해당될 수 있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은 건조물의 유형적 측면에서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며, 수량적 측면에서 탁월한 경관을 창출하고, 특정 시기의 건축 및 미술의 기술적 총체를 담아내고 있다. 운주사가 (IV) 항목과 함께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VI) 항목이다. 운주사가 천 년 이상의 시간을 견뎌온 이면에는 장소가 품고 있는 수많은 석탑과 석불이 숨이 멎은 화석과 같은 유적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물리적 구체로서 당대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운주사는 오랜 시간을 관통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사기를 담아내면서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조를 만들어냈고, 그 자체로 탁월한 예술 작품으로 존재하면서 시대별로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 등을 배태해 내는 촉매가 되었다.

10가지 평가 기준 외에도 운주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향호균에 따르면 운주사는 완전성 측면에서 창건(11세기 이전)부터 폐사(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에 걸쳐 6백여 년간 종교적으로 왕성한 신앙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불교와 밀교, 도교, 천문학, 석불·석탑 건축술 등 종교와 과학 기술의 총체적인 집대성으로 조성·유지되었다. 진정성 측면에서 운주사는 1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천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신앙 행위가 이어져 온 문화유산으로 모든 유물이 진품임과 동시에 출처가 분명하며 재질과 기법 등이 원래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¹²⁰⁾ 이를 통해서 운주사의 ‘완전성’과 ‘진정성’ 조건이 설명된다.

116) 서재권,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념과 실제』, 『법학연구』 제26(4)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236~237쪽.

117)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21/01, 31 July 2021) para 49,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2021).

118)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와 자연의 혼합적 성격을 지닌 복합유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계유산목록은 유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등재되며,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 문화재나 음악, 미술, 공예, 놀이 등 무형 문화재’는 제외된다.(김지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제2(1)집, 무형유산학회, 2017, 157쪽.

119) 유네스코가 제시한 10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운영지침 제77항)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IX) 육상, 담수, 해양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X)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상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120) 향호균,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OUV 도출』, 『불교문화연구』 제12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14, 230~233쪽 참고.

세계유산으로서 운주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운주사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들이 실증에 입각한 역사적 연구, 즉 사실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운주사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물리적 구체가 증거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합리적이고 보편적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아가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운주사가 지닌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체결된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은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에 한정되어 문화유산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타자의 일방적 시각과 평가가 문화유산의 보호 가치를 판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¹²¹⁾ 유네스코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노력의 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2003)이다. 무형문화유산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이 지닌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무형문화유산협약은 문화유산이 연구자(타자)가 발견해야 할 가치를 ‘지닌’ 산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산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화유산화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정체성이 문화유산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집단의 기억·경험·의미를 지닌 상징물이 되게 만들어 이로써 문화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과정 자체이다. 이러한 문화유산(화)에 대한 논의는 단지 무형문화유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세계유산협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10개의 평가 기준 중 (VI)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운주사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 과정은 단편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운주사와 천불천탑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창건되었고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진다고 해서, 특별한 건축술과 미술 양식을 보여준다고 해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온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와불 등 물리적 구체와 시간성, 여기에 사람들이 오랜 동안 사회·역사적 관계 속에서 구성했던 무형의 가치(Intangible Value)가 더해졌을 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¹²²⁾ 그렇다면 운주사의 ‘무형의 가치’는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 지역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운주사에 기대어 꿈과 희망을 주조했고, 주조했던 꿈과 희망은 그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서 전승했던 이야기에 담겨 있다. 지역 사람들은 과거부터 운주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전승해 왔다. 이야기는 설화에서부터 경험담까지 다양하다. 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이 보여주지 않은 운주사에 대한 다양한 국면을 담고 있다. 사람들이 기억과 구술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운주사의 무형의 가치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운주사 이야기와 무형의 가치

운주사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되는 장소이다.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에 담아서 전승했으며, 상징과 은유를 이용해서 의미를 구성했다. 운주사 이야기는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과거부터 전해오는 ‘신화적’ 이야기부터 지역 사람들이 행했던 일상의 경험까지 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운주사 이야기가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데 운주사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이 개입되고, 천불천탑의 조성 과정과 운주사 창건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내면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문자와 기록을 갖지 못한 기층의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존재하는 물리적 구체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해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121) 김희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패러다임의 변화」, 『무형유산』 제2집, 국립무형유산원, 2017, 262쪽.

122) 무형의 가치가 세계유산목록 등재 및 성격 규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979년 호주의 버라(Burra) 지역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바라헌장’이 채택된다. 바라헌장은 지역 사회를 강조하며, 무형문화유산과 연계된 지역 사회의 가치를 문화유산의 중요성 평가에 있어서 최상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과 역사 등의 무형적 가치가 ‘올루루-카타추타(Uluru-Kata Tjuta) 지역의 거대한 바위를 중심으로 발원된다고 밝히면서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격상시키고, 1987년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1994년 이 국립공원이 자연적인 요소보다 호주 원주민의 전통생활과 토속신앙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변경하여 적용했다. 발칸반도의 모스타르 다리(the Bridge at Mostar)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연결하고 있으며, 427년에 세워졌다. 이 다리는 발칸-이슬람 건축의 백미로 인정되어 세계유산후보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93년 보스니아 전쟁으로 다리가 파괴되었고, 2002년 재건 과정에서 원래의 석재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축조기술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원형의 부재를 이유로 세계유산등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다리는 전쟁 이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두 지역을 잇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다리가 지닌 평화의 상징적 가치를 인정해서 2005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김희주, 앞의 논문, 2017, 273쪽.)

이야기적 구성이 집단의 보편적 인식에 수용될 경우, 기억의 역사로 안착된다.

이야기는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야기란 허구와 실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구성되는 인간의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야기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허구냐가 아니라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의미'이다. 이야기의 의미는 장소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가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하는 동력이다. 현재 이야기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리적 구체인 유형문화는 독자적으로 보존될 수 없다. 유형문화가 오랜 시간 의미를 지니며 보존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 공동체와 그들이 구성해 내는 무형의 가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야기는 유형유산이 가치를 형성하는 근간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중요한 무형유산이 되기도 한다. 문화유산에는 그에 수반되는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형유산으로서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장소와 관계되는 사람들(지역 공동체)이 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느낌의 장소성과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유산은 지역 사람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렇듯 무형유산은 하나의 유형유산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치를 담고 있다. 이를 '무형의 가치'라 한다.¹²³⁾

운주사가 현재까지도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전승된 운주사 이야기는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운주사와 천불천탑이 지닌 무형의 가치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운주사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1. 신성과 정의의 장소

1) <왕과 장군이 날 명당답 자리, 암장하면 가뭄이 들어 마을 여성들이 파묘>

산(山)은 한국인에게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장소로 인식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을 '신(神)'의 관념으로 전환해 신앙한다. 사람들은 운주사가 자리한 산과 계곡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혹여 죽은 사람이 그곳에 매장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성스러운 공간이 죽은 사람의 매장으로 오염될 경우, 그 피해는 공동체가 입게 된다. 성스러운 공간이 오염되면, 비가 오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동체는 이러한 징후가 어디에서 연유되는지를 바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행위로 암장한 곳을 찾아서 파묘한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장소가 개인적으로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풍수담을 이용해서 운주사 명당을 왕후지지(王侯之地)라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공동체의 경계 지표 설정이다.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운주사 지역이 공동체의 이익과 연결된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보호하려고 한다. 운주사 지역이 성스러운 공간이며 불교와 다른 층위의 민간 신앙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불의 코가 훼손된 이유, 석조불감 옆 석괴를 옮기면 '귀자(貴子)'를 낳는다는 속설, 석불을 마력으로 생각하며 소원을 비는 행위, 운주사의 칠성석 등이 민간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¹²⁴⁾, 이러한 공동체의 행위가 운주사 주변 공간을 성스러운 장소로 전환시키고 있다.

2) <중장(僧市) 운담 스님 이야기>

중장 이야기 중에는 운담 스님의 어희(語戲) 삽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장바닥에 말(斗)을 뒤집어 쓰고 죽어 있는데, 등에 '方九月八三'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사람들이 뜻을 몰라 어리둥절 하고 있을 때, 송광사 선승 운담이 옆 노인에게 빌린 장죽을 글 가운데 올려 놓았다. 글자는 '市中用小斗'가 되면서 '시장에서 작은 말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 사람은 중장에서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은 벌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¹²⁵⁾ 중장은 세속의 질서가 횡행하는 일반 시장과 달라야 한다. 특히 승려들이 거래하는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익을 중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세속의 질서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오히려 중장은 돈과 권력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비록 중장이 신성의 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속의 질서가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중장에서 세속적 탐욕으로 장사를 했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다. 글자의 의미가

123) 김희주, 앞의 논문, 2017, 271쪽.

124) "등근 원판 형태로 잘 다듬어진 일곱 개의 커다란 돌이 산중턱에 놓여져 있어, 누가 보든지 칠성신앙의 증거물임을 알 수 있다. 칠성신은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북두칠성신과 남두칠성신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의 칠성신으로 체현되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민속에서 믿어진다. 와불이 풍요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라면, 여기 칠성은 수명장수를 관장한다. 가장 세속적이며, 그래서 가장 민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풍요다산과 수명장수라는 두 민간신앙적 비원이 운주사의 신앙적 층위를 이루는 근간인 것이다." (나경수, 앞의 논문, 1997, 193쪽.)

125) 송기숙, 「설화조사의 의미와 조사 개요」,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1, 353쪽.

해석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죽은 이를 동정하지 않는다. 운담 스님의 중장 이야기가 사실인지, 허구인지 따지는 것을 어리석다.

운담 스님의 중장 이야기는 허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중장 이야기가 지역 사람들의 집합 기억을 형성하며 강하게 전승되는 이유는 바로 ‘의미’ 때문이다. 중장터가 스님들의 시장인가, 일반 시장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장소인 중장터는 올바름이 있어야 하고, 정의가 추구되어야 하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중장 이야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명하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었던 것이다.

중장 이야기는 표면상 운주사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기층 사람들이 구술하는 이야기는 표면에 드러난 문장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기억과 구술로 전하는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적층되면서 구성된 것으로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설화는 근대의 소설과 달리 주변의 환경과 맥락을 이루면서 형성되기에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설화는 텍스트의 주변 환경과 전승 집단의 심층 구조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올곧은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중장이 지닌 장소의 특이성은 승려들이다. 이들이 조선의 시대적 상황에서 주류 집단에서 배제되고 주변부로 쫓겨나면서 정착한 곳이 궁벽한 산골의 사찰이다. 승려들은 주류 집단의 눈을 피해서 교류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간다. 그러한 상징적 장소가 중장이다. 승려들의 상황과 궁벽한 시골에서 삶을 이어가며 살아 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모습이 곧 지역 사람들이고, 지역 사람들이 곧 승려들이다. 중장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올바름의 질서는 승려들만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기층 사람들도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 추구가 사람들의 초복을 기원하는 운주사의 장소와 연결이 되며, 운주사의 자장(磁場)에 중장이 놓이게 된다.

2. 신화와 꿈의 장소

1) <마고할미와 천불천탑,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

마고할미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노고, 마귀, 안가닥할무이, 설문대할망’ 등으로 불린다. 마고할미는 이야기에서 다양한 성격을 보이지만, 기저에는 천지창조의 여신격을 지니고 있다. 여신이 천지창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마고할미 이야기는 여성거인형 이야기로 하위 분류하면, 단순거인형, 이동하는 자연물과 지형의 형성형, 창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¹²⁶⁾ 거인신화는 원래 천지개벽신화였으나 신성성을 상실하면서 전설, 민담으로 변이하였다.

위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닌, 신화소를 품고 있는 이야기이다.¹²⁷⁾ 지역 사람들은 신화의 주인공인 마고할미를 소환해서 지식묘¹²⁸⁾가 곳곳에 산포된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마고할미를 지식묘의 배치 주체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고할미가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세우기 위해서 바위를 끌고 가는 도중에 님이 울어서 지금 그곳에 멈춰 있다고 설명한다. 당연히 이야기는 실재가 아니다.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분포한 다양한 지형과 지물을 합리적 이해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공간을 안정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마고할미 이야기가 산출된 것이다.

마고할미는 여성이다.¹²⁹⁾ 여성은 생산과 관련한 근원적 인식을 품고 있기에 풍요와 관련된 신화제어의 상징적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성의 상징성은 시대의 종교·역사·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서 약화되었고, 어느 시점에서 남성의 상징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여성의 신화도 여성의 상징성 약화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전승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이야기의 장르도 전설과 민담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마고할미는 도사, 운주도인 등으로 대체되고,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우면 서울이 된다는 조건, 천상의 동자와 선녀들이 내려와서 조력하는 모습도 첨가된다.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다양한 전개를 보이다가 결국 도선이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과 접속하게 된다.

126)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제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5-6쪽.

127) 나경수, 「운주사전설의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8집, 한국언어학회, 1997, 194쪽.

128) 한반도는 3만여 기 이상의 지식묘가 밀집 분포되어 있는 곳이며, 화순 지역은 약 1,300여 기의 지식묘가 있다. 화순의 지식묘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29) 신화적 명칭인 ‘할머니’는 ‘늙은 여자’의 의미가 아니다. ‘할머니’는 ‘크다’의 뜻을 지닌 고유한 우리말 ‘한’과 근원적인 생명을 뜻하는 ‘어머니’의 합성어로서 ‘대모(the great mother)’를 뜻한다.(강진욱, 앞의 논문, 1993, 20쪽.)

도선이 운주사 이야기에 기입된 시기와 이유는 무엇일까? 도선과 운주사가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17세기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도선국사실록(道詵國師實錄)』(1675년 초간본 추정)은 도선과 운주사의 관계를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믿을 수 없는 기사들이 다수 실려 있어서 사료로서 가치가 그리 무겁다 할 수 없으나¹³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단서를 제공한다. 『도선국사실록』은 도선이 우리나라 지형을 행주형(行舟形)으로 보고, 능주의 운주곡(雲住谷, 雲柱谷)이 복심(腹心)에 해당하는 곳으로 천불천탑을 세워서 채워야 한다고 했다.¹³¹⁾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7세기 경신대기근 등 국가적 혼란을 심하게 겪었고,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풍수의 비조(鼻祖)인 도선을 호출한다.¹³²⁾ 이러한 상황에서 운주사도 언급되기 시작했고, 천불천탑이 비보물로 임히기 시작했다. 운주(雲住)가 운주(運舟)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¹³³⁾

풍수도참의 ‘도선’ 기호는 ‘안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의 의미 지향은 ‘변화’이다.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기층의 사람들이 ‘밤’이라는 어두운 시간에 모여 ‘1000’이라는 완벽에 도달함으로써 운주를 서울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야기는 ‘기다림과 약동’, ‘변혁’, ‘새로움’ 나아가 ‘반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 어휘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어휘들로 가득한 이야기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을 맺는다.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난 ‘전설’이지만,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전설은 장르의 특성상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전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실패담이지만,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현실과 만나기에 ‘실패’는 ‘기다림의 미래’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이 실패했기에 오히려 운주사를 더 찾게 되고, ‘와불’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게 된다.

2) <추석 축제의 장소, 운주사>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이다. 꿈은 인간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념의 추동력이 된다. 그러나 꿈은 꾸는 주체에 따라 특성을 달리한다. 한 개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을과 사회는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는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꿈을 꾸다. 그래서 꿈은 주체에 따라서 사몽(私夢), 공몽(共夢), 공몽(公夢)으로 분화된다.¹³⁴⁾ 각 주체의 꿈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꿈의 일치는 관념적 이상(理想)일 뿐이다. 각 층위의 꿈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상호 조정해 가면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운주사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신성의 장소로 보호된 것은 공몽(共夢)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도선의 풍수도참설이 운주사에 기입된 것은 공몽(公夢)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운주사는 불교 사찰이었지만 오랜 시간 폐사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과 영원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서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찾아왔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각자의 꿈과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장소가 운주사였다.¹³⁵⁾ 사몽(私夢)이 구성되고 실현되길 바라는 장소가 운주사였다. 그렇다면 다양한 층위의 꿈들이 혼재된 장소에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길 바라는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어떻게 발생하고 전승되었을까?

지역 사람들은 사월초파일과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운주사로 갔다. 사명(寺名)처럼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사월초파일에 운주사로 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불교의 명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추석에 운주사에 오는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운주사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주사에 모였다. 사람들은 풍광을 즐기면서 곳곳에 씨름판과 놀이판을 벌였으며, 장사꾼들은 운주사를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물건과 음식을 파는 등 난장을 이루었다. 운주사는 지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축제의 장(場)이었다.

130)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풍수지리설」, 『선각도선국사의 신연구』, 영암군, 1988, 97-98쪽; 김동수, 「雲住寺의 역사적 고찰」,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1991, 45쪽.

131) “以爲我國地形 如行舟 太白金剛其首也 月出瀛洲其尾也 扶安之邊山其舵也 嶺南之智異其楫也 綾州之雲柱其腹也 舟之浮于水也 有物焉 以鎮其首尾背腹 有舵楫焉 以制其行 然後免乎欹危漂沒 歸之矣 於是乎 建寺塔以鎮之 立佛像以嚴之 特於雲柱之下 蜿蜒起處 則別設千佛千塔 以實其背腹 而於金剛月出尤致精 蓋以首尾爲重” 조범환 편저, 『도선국사실록』, 『穢土에서 淨土로』, 영암군·월출산 도감사·도선국사연구소, 2002, 198쪽.

132) 박미선, 「도선 「행주론(行舟論)」의 전개와 운주사」, 『호남학』 제5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회, 2015, 201쪽.

133) 김병인, 「운주사에 대한 해석 양상의 역사적 층위」, 『역사학연구』 제24집, 호남사학회, 2005, 239쪽.

134) 사몽(私夢)은 자아의 욕망에 근간한 꿈이며, 공몽(共夢)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적 시스템들 혹은 다양한 조직체가 생산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꿈이다. 공몽(公夢)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꿈을 가리킨다.(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224-227쪽.)

135) 『전라남도화순군도암면지』 명승조, 1923.

각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 장소와 한 시간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축제이다. 축제의 장소는 단일한 층위의 장소가 아닌 중층의 장소이다. 축제의 장소는 일상의 장소였다가도 꿈을 담아내는 장소가 되기도 하며, 신을 대면하는 종교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층(重層)의 장소가 운주사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축제의 장소로 운주사를 선택했다. 축제의 요소는 정전(正傳)의 질서와 현실의 공식적인 질서를 해체·위반, 전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화’를 통해서 두드러진다.¹³⁶⁾

사람들이 운주사로 왔던 이유는 그들의 꿈과 소원이 잠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운주사를 찾은 사람들이 각자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상사(相似)함을 느끼게 된다. 비슷한 고민과 번뇌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꿈과 염원으로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운주사에 모여 있다. 사람들은 운주사에 모인 자체만으로, 천불천탑과 와불을 매개로써 ‘서로성’을 확인한다. 축제의 장에서 대화는 우리가 생산해 낸 의미에 집중 하면서 나의 존재보다 우리의 문제에 더 집중한다.¹³⁷⁾ 축제는 ‘각자’가 ‘우리’로 전환되는 시간이며, 운주사는 이를 매개하는 장소이다. 운주사의 축제는 사몽(私夢)이 공몽(共夢)이 되고, 공몽(共夢)이 공몽(公夢)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공동체의 꿈 이야기이다.

III. 무형의 가치 확산과 보존

도선의 ‘천불천탑과 와불’ 이야기는 1980년대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¹³⁸⁾ 운주사는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1984)을 시작으로, 송기숙의 『녹두장군』(1989), 박혜강의 『운주』(2001) 등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서 이야기되었고, 문정희, 황지우, 조태일, 송수권, 고은 등 많은 시인들이 운주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읊조리기 시작했다.¹³⁹⁾ 운주사는 미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는데, 송필용의 <꽃잎>(1995), 홍성담의 <천인>(1995), 최진우의 <천불천탑>(1995), 이준석의 연작 <화엄광주>(2008), 윤일권의 <운주사> 시리즈(2010), 진시영의 미디어아트 <운주사>(2012) 등이 있다.¹⁴⁰⁾ 운주사는 지역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축적되어 구성된 장소에서 예술가들의 문예적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문화 텍스트로, 시대와 공명하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텍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운주사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와불 등 물질적 구체(具體)는 일찍부터 역사·종교·미술사적 가치가 증명되었고 다양한 제도와 방식이 동원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람들과 이야기, 즉 운주사의 무형유산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운주사의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유형유산에만 초점을 맞춘 관계로 관련 연구들이 운주사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천불천탑과 와불의 종교 및 미술사적 특이성을 찾아내는 데에만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⁴¹⁾ 운주사의 무형유산은 대부분이 지역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실체가 구체화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억과 구술로 구성·전승되는 이야기는 운주사의 역사를 살피는데 있어서 참조 자료로 활용될 뿐이지 중심 대상 자료가 되지 못했다. 혹여 운주사 이야기가 실증 자료로서 가치가 없거나 역사적 사실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연구 대상에서 배제된다.

136) 박승규,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제34집,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 64쪽.

137) 박승규,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제34집,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 66쪽.

138) 『중외일보』, 「고색창연」, 1928.11.6.

139) 운주사를 소재로 한 시 작품을 정리하면, 권천학의 <운주사>, 정진규의 <운주사 미륵불 만나고 와서>, 문정희의 <운주사 골짜기>, 황지우의 <구름바다 위 운주사>, <산경을 덮으면서>, <지하철역에 기대고 서 있는 운주사 석불>, 조태일의 <운주사>, 함민복의 <와불>, 조성국의 <운주사 와불>, 윤제림의 <운주사 천불>, <운주사 가는 법>, 정운천의 <운주사 와불>, 임영조의 <운주사 와불>, 송수권의 <운주사韻>, 이대훈의 <천년 동안의 사랑>, 고은의 <운주사>, 이종현의 <천불천탑 이야기1>, 이원규의 <미륵 와불>, 강순구의 <운주사> 등이 있으며, 운주사를 제목으로 하는 시집은 임동환의 『운주사 가는 길』(문학과지성사, 1992), 이철리의 『운주사』(이름신서, 2012), 신희의 『운주사에 가고 싶다』(오늘의문학사, 2014), 박노정의 『운주사』(떨복스, 2015), 변종환의 『겨울 운주사에서』(두손컴, 2020) 등이 있다. 김자환은 운주사를 소재로 창작 동화집 『운주사의 하얀 도깨비』(디자인하우스 2001)를 발간하기도 했다.

140) 정경운,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운주사-예술적 관습을 중심으로」, 『호남학』 제5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271~288쪽 참고.

141) 화순군과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2014년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탐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한 국내 연구자들은 역사, 종교, 건축, 미술 분야였다.

운주사 이야기는 무형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텍스트이며,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서 운주사의 모습을 증명하며 현대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운주사 이야기의 보존 가치는 충분하다.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으로서 운주사 이야기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네스코는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협약 대상국이 되었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보호법을 개정했고, 2024년 현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유산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무형유산법은 7개 목으로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¹⁴²⁾ 이중 (라)목은 “구전 전통 및 표현”이다. 공동체의 신화, 전설, 민담, 수수께끼, 속담 등은 무형유산법 제2조 1항 (라)목에 해당되며, 이 항목을 근거로 공동체가 오랜 시간 전승하면서 문화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이야기의 무형유산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⁴³⁾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한국의 무형유산법은 소멸 위기에 있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호는 공동체 활동을 보완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면서 당대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유산을 바꾸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매우 능동적인 정치 활동이다. 나아가 문화유산이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며 끊임없는 재창조를 도와야 한다.¹⁴⁴⁾

운주사 이야기는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보호의 당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¹⁴⁵⁾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와불이라는 물질적 구체와 지역 사람들이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접촉해 생산해 낸 무형의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의미가 계속적으로 갱신되었다. 의미와 가치의 갱신이 운주사가 긴 시간을 거쳐서 현재 우리 앞에까지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운주사가 현재의 시점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운주사의 유형유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나, 무형유산의 형태와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형유산의 가치는 외부 사람들, 특히 연구자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유산은 지역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보존과 전승력이 확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주사의 미래는 그닥 밝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형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운주사가 ‘세속의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보존하며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형유산과 함께 무형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운주사와 관련된 자료를 손쉽게 접촉할 수 있고, 나아가 원격으로도 운주사의 유물과 유적을 실감하는 수준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일반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하기 전에 문화유산으로서 운주사의 가치를 미리 인식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영역을 확장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 중의 하나가 운주사 라키비움 설립이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메건 윈젯 (Megan Winget)이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하나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의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이다. 지자체와 학계는 운주사의 문화유산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종합학술조사를 시작으로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 수집, 지역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 조사, 각종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자료 등이 다양하게 축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운주사 관련 자료들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생산되었다기 보다는 시기별로 제기된 일시적 요구에 맞춰서 산발적으로 생산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생산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축적되거나 관리되지도 않았으며, 디지털화도 되어 있지 않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연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아카이브는 자료 수집 및 정리, 보관이 주목적이었다.

1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다음 각 목을 무형유산이라 말한다. 가. 전통적 공예·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143) ‘선녀와 나무꾼-단군신화...설화도 무형문화재 된다’, 『동아일보』, 2023. 1. 19.(<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8/117502565/1>)

144) 오창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무형유산』, 제10집, 국립무형유산원, 2021, 10~18쪽.

145) 국가유산청은 설화 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설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지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우선 지정될 듯하다. 운주사 이야기는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주사와 연계성, 2·3차 텍스트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운주사 이야기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문화유산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주사 이야기의 문화유산 지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운주사의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 수집·정리·보관의 기능을 넘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들이 2차·3차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토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운주사와 관련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부재한 상태이며,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유산으로서 운주사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운주사 라키비움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 고려 대상이 운주사 관련 문화예술 작품이다. 운주사는 시대의 아픔을 품으면서 많은 예술가들의 창작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운주사의 2차·3차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은 한편에서는 실증을 무시한 작가 개인의 상상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작가들은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운주사가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작품을 창작했다. 이 작품들은 운주사의 무형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는지, 문화유산이 당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호흡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 독일인 학자는 운주사를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발전소”¹⁴⁶⁾라 평가했으며, 한 기호학자는 “운주사 역시 우리에게 무한한 의미의 발전소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¹⁴⁷⁾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 부여가 산출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천불천탑과 와불이 있고, 이들이 접했던 운주사 이야기가 있었다. 운주사가 그간 어떠한 모습에서 문화유산으로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고 지속했는지를 되돌아 본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대와 조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가 새로운 시대와 끊임없이 조응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며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6) 요헨 힐트만, 이경재 외 옮김, 『미륵:운주사 천불천탑의 융화세계』, 1997, 95쪽.

147) 송효섭, 『『운주사』에 대한 기호학적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7, 193쪽.

일본 불교 세계유산과 동아시아 교류

아라키 준(荒木潤)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도쿄대 역사학부 인류학 박사

1. 서문

일본에는 ‘호류지(法隆寺)의 불교 건조물’, ‘고도 교토(京都)의 문화유산’, ‘고도 나라(奈良)의 문화유산’, ‘닛코(日光)의 사사(寺社)’, ‘히라이즈미(平泉)-불국토(정토)를 나타낸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 등 불교 관련된 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무수한 불교 유산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 수많은 불교 유산이 존재하는 것은 일본이 ‘불교국가’였기 때문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어 왔는데, 불교가 일본에서 뿌리를 내려 발전해 가는 데에는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역할이 컸다.

본고에서는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로 천태종을 발전시킨 엔닌(圓仁, 794-864)에 주목하여 그가 당나라 구법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맺은 재당 신라인과의 교류를 그리면서 ‘교류’의 관점에서 불교 유산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엔닌(그림1)은 헤이안시대(794-1185) 초기에 당나라에 가서 밀교 경전을 일본(148)으로 가져온 입당팔가(入唐八家: 사이초[最澄]·구카이[空海]·조교[常暁]·엔교[円行]·엔닌[円仁]·에운[惠運]·엔친[円珍]·슈에이[宗叡]) 중 한 사람이며 스승 사이초가 연 일본 천태종(天台宗)을 계승·발전시켰다. 일본 천태종의 본산 히에이산(比叡山)



[그림1] 엔닌 초상화

엔라쿠사(延曆寺)는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신불교의 개조인 호넨(法然), 신란(親鸞), 에이사이(榮西), 도겐(道元), 니치렌(日蓮)과 같은 승려가 배운 곳이기 때문에 히에이산은 “일본불교의 모산(母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일본 천태종은 현대 일본불교의 모태가 되었으며 스승 사이초와 함께 천태종의 토대를 쌓은 엔닌의 일본불교에 대한 공헌은 크다. 그것은 866년 엔닌에 대하여 스승 사이초와 함께 조정에서 최초로 대사(大使) 시호(諡號)가 추증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즉 사이초는 “전교대사(傳教大師)”, 엔닌은 “자각대사(慈覺大使)”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엔닌은 스승 사이초나 일본 진언종(眞言宗) 개조 구카이, 혹은 가마쿠라 신불교의 신란, 도겐, 니치렌 등에 비하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그 업적에 비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역시 개조가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엔닌은 서구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외교관이자 동양학자였던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 1910-1990)(그림2)가 엔닌이 838년 6월부터 847년 12월까지 약 9년 반의 당나라 구법 여정을 한문으로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앞으로 『행기』로 약칭함)의 중대한 학술적 가치와 비범한 문학성에 감명받아 영어로 번역하여 엔닌의 업적을 고찰한 글과 함께 서구사회에 널리 소개했기 때문이다. 라이샤워의 영어 번역본(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¹⁴⁹)은 1955년에 출판되었다. 라이샤워는 『행기』를 고대 중국 여행기로서 현장(玄奘, 602-664)의 『대당서역기』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의 『동방견문록』을 능가할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라이샤워 번역본은 불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엔닌의 인지도는 그의 모국 일본보다 오히려 서구사회에서 높아지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났다.

라이샤워 번역본 중 엔닌의 업적을 고찰한 후반 부분이 1963년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일본에서도 엔닌에 대한 대중적 관심

148) ‘일본(日本)’ 국호는 7세기 중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왜(倭)’라고 불렀다. 본고에서는 시기에 따라 ‘일본’과 ‘왜’를 나누어서 사용하고자 한다.

149)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전반은 일기의 번역, 후반은 라이샤워가 엔닌의 업적을 고찰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라이샤워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기』의 일본어 구어체 번역본은 겨우 1990년이 되어야 출판되었기에 일본에서 엔닌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현재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가? 한국에서는 엔닌의 이름이 화두에 오를 때가 종종 있다. 어쩌면 엔닌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엔닌이 재당 신라인의 지원을 받아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행기』에서는 9세기 중엽 장보고(張保臯, ?-846?)를 비롯하여 엔닌을 도운 신라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행기』는 『구당서』, 『신당서』,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누락된, 한·중·일 사이를 왕성하게 왕래하며 무역 활동을 펼친 신라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II. 엔닌의 생애와 당나라 구법 여정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엔닌의 생애와 당나라 구법 여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엔닌의 생애¹⁵⁰⁾

연도	엔닌 관련 사항	비고
794년	시모쓰케국(下野國, 현 도치기현[栃木縣]) 호족 가문에서 출생 (출생 시 자운(紫雲)이 엔닌의 집을 덮었다는 전설이 있다).	10월 헤이안경(平安京) 천도. 헤이안시대 개막.
802년(9세)	다이지사(大慈寺) 고치(廣智) 밑에서 불교 수행 시작.	
804년(11세)		사이초·구카이 입당(제16차 견당사).
806년(13세)		일본 천태종 공인, 사이초 제1대 좌주(座主).
808년(15세)	히에이산에 올라 사이초의 제자가 됨.	
813년(20세)	출가를 위한 국가시험(관시) 합격.	
817년(24세)	사이초를 따라 동국(동북지방) 순석(巡錫).	
822년(29세)		사이초 입적(54세?).
834년(41세)		엔초(圓澄) 제2대 천태종 좌주
835년(42세)	견당사 청익승(請益僧)이 됨(제19차 견당사).	3월 구카이 입적(60세).
836년(43세)	5월 난바(難波)에서 출항. 실패.	
837년(44세)	7월 다자이후(大宰府)에서 출항. 실패.	
838년(45세)	6월 다자이후에서 출항, 7월 2일 양주 해안에 상륙.	

150) 『円仁』, 佐伯有清, 吉川弘文館, 1989.와 『円仁とその時代』, 鈴木靖民編, 高志書院, 2009. 내용을 재구성했음.

연도	엔닌 관련 사항	비고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	
847년(54세)	9월 당나라를 떠나 9월 19일 다자이후에 도착.	
848년(55세)	3월 입경.	
854년(61세)	제3대 천태종 좌주가 됨.	
856년(63세)	문토쿠(文德)천황에게 양부관정(兩部灌頂) 의례 수여.	
	이후 황족·귀족에게 관정 수계 의례 수여.	
864년(71세)	1월 14일 열병으로 입적. 엔라쿠사 북쪽 매장.	
866년	7월 “자각대사(慈覺大使)” 시호 추증.	같은 7월 사이초 “전교대사(傳敎大師)” 시호 추증

2. 엔닌의 당나라 구법 여정¹⁵¹⁾

제1기 천태산을 향한 길			
구분	연도	엔닌의 활동	비고
① 일본에서 양주로	834년	1월 30년만에 견당사 임명(제19차, 마지막 견당사)	
	836년	5월 난바에서 4척(인원 600명 이상)으로 출항, 조난.	
	837년	7월 다자이후에서 출항, 조난.	
	838년	6월 13일 다자이후에서 제2선을 타서 출항→7월 3일 양주 해릉현 백호진 상전향 동량풍촌(楊州 海陵縣 白湖鎮 桑田鄉 東梁豐村) 도착.	
② 양주 체재	838.7.25 ~ 839.2.21 (234일간)	법화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교리적 의문(“엔락사 미결 30조”)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주(台州) 국청사(國淸寺)를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일단 양주 개원사에 들어갔다. 개원사에서는 많은 승려와 교류하면서 각종 경전, 만다라, 사리 등을 구했다. 결국 국청사 행은 당나라 정부로부터 허락받을 수 없었다 (같이 당나라에 간 유학승·엔사이[円載]는 국청사 행이 허락되었다).	
	③ 적산으로	839.2.21 ~ 6.7. (107일간)	견당사 일행과 같이 귀국할 수밖에 없었으나 구법을 위하여 당나라 체류를 결심했다. 일단 귀국선을 탔으나 신라인 통역사 김정남(金正南)의 도움으로 밀입국을 시도, 우여곡절 끝에 산둥반도 동단에 있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신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체류하게 되었다.

151) 『入唐求法巡礼行記』, 深谷憲一訳, 中央公論社, 1990. 『円仁 唐代中国への旅「入唐求法巡礼行記」の研究』, エドウィン・ライシャワー, 原書房, 1984. 『最後の遣唐使』, 佐伯有清, 講談社学術文庫, 2007. 내용을 재구성했음.

제2기 오대산 순례길			
구분	연도	엔닌의 활동	비고
④ 적산법화원 체재	839.6.7. ~ 840.2.19 . (251일간)	엔닌은 천태산 순례에 집착했으나 신라승 성림(聖林)으로부터 오대산이 천태산보다 가깝고, 고승도 있어 구법의 성과는 천태산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오대산 행을 결심했다.	(⇒ 888년 엔닌의 유언에 따라 히에이산에 적산의 신을 모시는 적산선원이 교토에 지어졌다.)
⑤ 오대산 행	840.2.19 ~ 4.28 (58일간)	오대산을 향하여 제자 유이쇼(唯正), 유이교(唯曉), 요보로노 오마로(丁雄万)와 같이 문등(文登)·등주(登州)·청주(靑州)를 거쳐 2300리(1270km)를 오직 걸어갔다. 드디어 멀리 오대산을 보게 되자 “伏地遙禮不覺雨淚”라고 기록했다.	840.2.10. 문종(文宗) 붕어 840.2.20. 무종 즉위.
⑥ 오대산 순례	840.4.28 ~ 7.1. (68일간)	“엔락사 미결 30조”를 해결한 후, 오대산을 순례했다. 5월 22일 동대(東臺)에 가기 전 숙소에서 “在堂裏忽見五道光明入堂中照忽然不現矣惟正惟曉等同在堂皆云不見物奇之不已”라 하여 엔닌만 초자연적 현상을 체험했다. 그 뒤 두 번 아름다운 광명을 목격하여 문수보살이 나타난 땅에 어울리는 기서(奇瑞)를 체험했다.	(⇒ 엔닌은 귀국 후 861년에 히에이산에 문수루(文殊樓)를 건립하고, 오대산에서 가져온 향목으로 문수상을 만들었다.)

제3기 장안에서의 구법			
구분	연도	엔닌의 활동	비고
⑦ 장안 이리	840.7.1~8.2 2 (53일간)	오대산에서 장안까지 2000리(1100km)를 걸어갔다. 8월 20일 장안성 춘명문(春明門) 밖 진국사(鎭國寺) 서선원(西禪院)에 도착했다.	
⑧ 장안 체재	840.8.22 ~845.5. 14 (1736일 간)	장안 자성사(資聖寺)에 체류하면서 밀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았다. 10월 29일 대흥선사(大興善寺) 칙번경원(勅翻經院)에서 원정(元政) 화상으로부터 금강계대법(金剛界大法)을 받았다. 12월 22일 영창방(永昌坊) 왕혜(王惠) 밑에서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제작을 시작했다. 또한 청룡사(靑龍寺) 의진(義眞)으로부터 태장비로자나경대법(胎藏毘盧遮那經大法)과 소실지대법(蘇悉地大法)을 받았으며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와 금강계구회만다라(金剛界九會曼荼羅)를 제작했다. 이것으로 당나라 구법의 큰 목적을 달성하여 841년 8월 7일에 귀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842년경부터 무종(武宗)에 의한 “회창(會昌)의 폐불”이 시작되어 외출이 제한되고 또한 843년 7월 제자 유이교가 사망하는 등 괴로운 외지 생활을 보냈다. 845년 5월 13일 강제적으로 환속되어 일반인으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아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제4기 귀국 길			
구분	연도	엔닌의 활동	비고
㉑ 다시 적산으로	845.5.15 ~ 8.27. (101일간)	당나라 신라인 고위 관료 이원좌(李元佐)의 배웅을 받으면서 장안성을 떠나 낙양(洛陽), 정주(鄭州), 변주(汴州), 사주(泗州)를 거쳐 초주(楚州)를 향했다. 초주 행이 허락되지 않아 양주(揚州)에 갔다가 7월 3일에 겨우 초주에 도착했다. 귀국선에 탈 수 없어 경전, 만다라 등 귀중품을 신라인 통역관 류신언(劉慎言)에게 맡겨 예전에 신세를 진 적산을 향했다.	
㉒ 적산 체재	845.8.27 ~ 847.閏 3.12. (577일간)	“회창의 폐불”로 인하여 적산 법화원도 황폐가 심한 상황이었으나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 장영(張詠)의 도움으로 법화원 장원에 있는 방에서 머물 수 있었다. 장영은 엔닌을 위하여 귀국선을 만들었으나 참언(讒言)으로 귀국이 성사되지 않았다.	846.3.23. 무종 봉어. 846년경(?) 장보고 사망.
㉓ 초주로 다시	847.閏 3.12. ~6.18. (92일간)	명주(明州: 현 Ningbo)에 일본인 관리 미와노이(神御井)가 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귀국선을 타서 돌아가기로 했다. 일단 초주까지 내려갔으나 거기서 미와노이의 귀국선은 벌써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 엔닌의 귀국은 좌절되었다.	
㉔ 다시 가서 적산으로 귀국	847.6.18 ~ 9.18. (90일간)	일본으로 가려는 신라 상인 김진(金珍)이 적산에서 엔닌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배로 다시 적산을 향하여 복상, 유산(乳山) 장퇴포(長堆浦)에서 김진의 배를 찾아내 갈아탔다. 8월 15일에 다시 삭발하여 승복을 갈아입었다. 적산포를 출항하여 구 백제 연안이나 탐라(耽羅: 현 제주도) 부근을 지나가 다자이부에 도착했다.	

엔닌은 당시 일본 불교계 ‘대스타’였다. 그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848년 13년만에 히에이산에 돌아왔을 때, 히에이산 승려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 쏟아지듯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엔닌이 열거나 중흥한, 연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절이 관동지방 약 200군데, 동북지방 약 300군데 있으며 그중에는 도쿄 센소사(淺草寺), 나가노 젠코사(善光寺), 야마가타 릿사쿠사(立石寺), 히라이즈미 주손사(中尊寺)와 같은 명찰이 포함된다.

III. 엔닌의 당나라 구법 배경

엔닌의 당나라 구법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본 출국 시 두 번이나 조난당했으며 출항에 성공하는 데 벌써 2년을 소요했다(836~837년). 첫째 출항 시 견당선 4척 모두 조난당했는데, 특히 제3호의 손상이 심각하여 승원 약 150명 중 생존자는 28명에 불과했다. 제2호를 탄 엔닌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이후 견당사는 3척 편성으로 당나라를 향하게 되었다.

드디어 당나라 양주에 도착했을 때도 개펄에 좌초하여 매서운 풍파로 생사를 헤맸다(“漂流之間風強濤猛怕船將沈捨 疋疋物口稱觀音妙見意求活路…”). 상륙해도 고난이 이어졌다. 파리와 같이 큰 모기가 일행을 괴롭혔다(“漂着以來蚊虻甚多 其大如繩入野惱人辛苦無極”). 기후나 음식물이 맞지 않아 설사나 열병에 걸리는 일행도 많아 장안 체류 중 제자 유이교를 잃었다(843년 7월).

그 외 엔닌을 괴롭힌 것은 당나라의 행정적 절차와 정치 상황이었다. 구법 순례를 위한 공험(公驗: 여행 증명서)을 몇 번이고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장안에서 구법 목적을 거의 달성했을 때는 중국 사상 최대의 불교 탄압 “회창의 폐불”에 휘말리고 말았다. 구법의 성과인 경전이나 만다라를 바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엔닌은 귀국 허가 신청을 100번 이상 올렸으나 귀국 허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엔닌은 강제 환속됨으로써 드디어 귀국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귀국 선을 구하는 데 아주 고생했다. 결국 신라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초주와 적산을 세 차례나 왕복하여 겨우 적산을 출항하여 일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과거의 견당사의 경험을 비추어 “회창의 폐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를 빼고는 조난이나 질병과 같은 고난에 관해서 엔닌은 미리 잘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닌은 구법의 길로 나섰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는 고대 왜국(일본)이 몇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파견한 견수사·견당사의 전개와 고대 일본불교의 전개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엔닌의 구법에 대한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견수사(遣隨使)·견당사(遣唐使)의 전개

1) 견수사의 전개

수이코(推古) 시대, 즉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섭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왜국은 일본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선진 기술·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수나라에 다섯 차례에 걸쳐 견수사를 파견했다. 책봉은 받지 않았다.

2) 견당사의 전개

618년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자 왜국은 외교 상대를 당나라로 바꾸어 견당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견수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국권의 강화와 선진 기술·지식의 습득에 있었으나 백강 전투(663년) 패전 수습 등 외교 교섭적 요소나 무역적 요소도 지니기 시작했다. 파견 횟수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19차(그중 3회 중지) 정도 실시되었으며 엔닌이 동행한 조와 견당사(承和の遣唐使: 838~839)가 마지막이었다. 동행자가 점점 늘어나 당초 2척이었던 파견선이 8세기를 전후하여 4척이 되었다. 견당사는 선진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불교의 일본 전파에 크게 공헌했다.

견수사·견당사가 가져온 중국의 선진 기술·지식은 일본이 문명화하고 율령·불교국가로 발전해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서투른 항해술로 사절단은 오직 바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항상 조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사히 중국에 상륙해도 거대한 모기의 습격이나 기후, 음식물의 차이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속출되었다. 또한 신라 삼국 통일 과정에서 생긴 긴장이나 “회창의 폐불”과 같은 정치적 사정에 따라 억류되거나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절단의 생사는 오직 ‘운’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절단의 항해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663년 백강 전투를 전후하여 왜국과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신라 연안을 거쳐 산둥반도에 이르는 비교적 안전한 항로(신라로)를 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국은 바로 황해를 가로질러 양자강 하구에 이르는 대양로(大洋路)가 선택되었다. 남도로와 대양로는 신라로보다 훨씬 위험하여 조난하거나 표류 끝에 남양의 섬에서 살해당할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견수사·견당사는 일본의 문명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언제나 죽음에 직면하는 위험한 사업이었으며 소요된 비용(도항 비용이나 당 황제에 대한 조공품 비용 등)도 국가 재정을 압박했다. 또한 안사의 난(755~763)을 전후하여 당나라의 국력이 약화되고, 또한 9세기부터는 당나라나 신라의 상인들이 빈번하게 일본에 오게 되어 굳이 직접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9세기 이후 일본 정부에서 견당사 폐지론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엔닌이 동행한 조와(承和)의 견당사(838-839)가 마지막이 되었다.¹⁵²⁾

152) 일본은 7세기로부터 9세기까지 견수사·견당사를 통하여 대륙문화 흡수에 노력했다. 그 시기의 일본문화는 “당풍문화(唐風文化)”라고 불린다. 한편 견당사가 폐지된 10세기부터는 가나 문자의 개발이나 정토종의 보급 등 “국풍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조와의 견당사 파견 시도 위험을 무릅쓰고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파견은 강행되었다. 당시 일본은 8세기 초 확립된 율령체제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여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민중의 궁핍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일본 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일본 불교계(특히 천태종과 진언종)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진호국가[鎮護國家]) 당나라 구법이 필요하다고 일본 조정에 견당사 파견을 요청했고, 일본 조정도 불교에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와의 견당사는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와의 견당사는 구법을 통한 진호국가를 주요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파견승으로 천태종에서 선출된 것이 청익승 엔닌과 유학승 엔사이였다. 그들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일본을 떠났다.

2. 고대 일본불교의 전개

같은 고생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엔닌은 일본 조정과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구법의 길을 떠났다. 다만 엔닌의 구법 동기를 국가나 불교 조직의 요청으로 단순히 환원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그 열정적 구법의 원천을 깊이 이해하려면 일본불교의 맥락에서 엔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일본불교의 전개 : 먼저 일본불교의 전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생략함).

2) 사이초(766 혹은 767~822)와 구카이(744~835)

엔닌의 구법 동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스승인 사이초와 사이초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구카이의와의 관계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오미국(近江國, 현 시가현[滋賀縣])의 호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이초는 18세 때 도다이사(東大寺)에서 계(戒)를 받고, 히에이산에서 수행 중 법화경의 평등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804년, 즉 35세 때 국비유학생으로 견당선을 타고 입당하여 천태산에서 많은 경전을 입수했다. 사이초는 초기부터 일본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은 엘리트 승려였다. 사이초의 입당 목적은 법화경의 교리를 정확히 습득하는 데 있었으나 귀국선을 기다리는 사이에 월주(越州) 용흥사(龍興寺)의 순효(順曉)로부터 밀교 교리를 잠깐 배우게 되었다. 805년에 귀국한 후 일본 조정은 사이초가 가지고 온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 교리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조정은 천태 교리보다 사이초가 2차적으로 배운 밀교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신비스러운 밀교가 통치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사이초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는데 일본 천태종은 조정의 수요에 맞추어 천태 교리(법화경 중심)와 밀교 교리를 비롯한 다양한 교리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림102] 사이초

한편 구카이는 사이초보다 7년 늦게 사누키국(讃岐國, 현 가가와현[香川縣])의 지방 관료(군사[郡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15세 때 상경하여 유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8세 때 관료 양성 기관인 대학(大學)에 입학했다. 그러나 귀족 중심주의에 부딪치게 되어 대학을 떠나 불문(佛門)에 들어가게 되었다. 31세 때 사이초와 같이 입당했는데, 사이초가 국비 유학생이었던 것에 대해 그는 재야의 사비 유학생에 불과했다. 구카이는 장안 청룡사(靑龍寺)의 혜과(惠果)로부터 밀교 교리를 배웠다. 혜과는 첫눈에 구카이의 비범한 재능을 간파하여 본인의 후계자로 선출했다고 전해진다.

중국 밀교는 인도의 승려 금강지(金剛智)가 중국으로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을 가지고 와서 시작되었다. 금강지는 제자 여섯 명을 두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혜과였고, 또 한 사람이 신라 승 혜초(慧超, 704-87)였다. 금강지의 밀교는 혜과를 통하여 구카이에게 전승되어 일본으로 들어갔다. 이후 일본불교는 밀교를 토대로 전개되었다. 한편 혜초는 신라로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교는 신라에 본격적으로 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는 784년 입당하여 821년 신라로 귀국한 도의(道義) 스님이 가져온 선종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일본에 귀국한 뒤 구카이의 명성은 사이초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조정의 밀교에 대한 수요는 컸는데 구카이 만큼 밀교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승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7세 연상이자 불교계 엘리트였던 사이초마저 구카이로부터 밀교 교리를 배워야 하는 지경이었다.

사이초가 프라이드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구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12년 사이초의 애제자인 다이한(泰範)이 구카이 밑으로 가버리고 히에이산에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 터지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813년 사이초가 밀교 경전 이취석경(理趣釋經)의 대역을 요청했더니 구카이가 “글만으로 불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별했다고 전해진다



[그림103] 구카이

일본 천태종은 밀교를 받아들이는 데 법화경과 대일경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융화시킬지 교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카이와의 결별로 밀교를 흡수하는 데 더 이상 구카이에게 의지할 수 없어서 직접 중국에 가서 스스로 밀교를 배울 필요가 생겼다.

3) 엔닌의 구법 목적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천태종은 사이초의 애제자 엔닌을 구법승으로 선출하여 당나라로 보내게 되었다. 엔닌의 구법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천태 교학과 밀교와의 관계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고 천태 교학을 더욱 심화하고 관련 불전을 가지고 오는 것.
- 둘째, 천태종에서 약점이었던 밀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관련된 불전·불화(만다라)·불구·불상 등을 가지고 오는 것.

엔닌의 여정을 보면 오대산에서 첫째 목적, 즉 천태 교리 습득에 전념하고, 장안에서 둘째 목적, 즉 밀교 교리 습득에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은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귀국 후 일본 천태종을 발전시켰다. 엔닌의 구법은 ‘천재’ 구카이에 대한 대항책으로 일본 천태종이 꾸민 조직적 전략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밀교를 흡수한 융합적인 일본 천태종은 가마쿠라(鎌倉) 신불교의 모태가 되었으며 일본불교의 원류가 되었다.

한편 진언종(眞言宗)을 연 구카이는 밀교의 우위를 주장했는데, 그의 밀교는 난해하고 전승이 어렵고 폐쇄적이었다. 오늘날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는 구카이가 사이초를 능가하고 있으나 조직으로서의 진언종은 사이초가 연 천태종만큼 일본 불교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IV. 당나라에서 약동하는 신라인과 엔닌의 교류

엔닌의 당나라 체재는 당나라 정부의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닌이 9년 이상의 구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당 신라인의 보호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기』의 등장인물은 당인보다 오히려 신라인이 많다.

우리는 당나라나 신라의 정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당 신라인의 모습을 『행기』를 통해서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모습은 마치 지중해나 아라비아해에서 펼친 페르시아 상인이나 아라비아 상인의 활약상을 방불케 한다. 여기서는 『행기』를 통해서 부각된 당나라에서 약동하는 신라인의 모습과 엔닌과 신라인의 끈끈한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약동하는 재당 신라인

『행기』는 9세기 재당 신라인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 치외법권적 자치구 재당 신라인 공동체

엔닌이 당나라에 건너갔을 때인 9세기 산동반동 남안(등주[登州], 유산[乳山], 적산[赤山] 등)과 회하(淮河) 하류 지역(양주[楊州], 초주[楚州] 등)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신라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 그 조직은 끈끈하고 일종의 ‘치외법권’까지 지닌 자치구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인 공동체는 대도시의 경우 “신라방(新羅坊)”, 작은 도시의 경우 “신라촌(新羅村)”이라고 불렸으며, “총관(惣官)”이라고 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독자적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수운업, 조선업, 임업(목탄 생산·운수), 제염업, 금융업,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2) 신라인들에게 의지하는 견당사

엔닌이 동행산 조와의 견당사 일행은 이와 같은 신라인들의 활약상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그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을 떠난 3척의 견당선(원래 4척이었는데 그중 1척은 폐선)에는 각기 신라인 통역사가 1명씩 동승하여 항해에 관해 조언하고 당나라에 상륙한 뒤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특히 김정남(金正南)의 활약은 훌륭했다. 태주(台州) 국청사(國淸寺) 행을 당나라 정부로부터 거절당한 엔닌을 ‘밀입국’ 시켜 재당 신라인들의 보호를 받도록 연결한 것은 김정남이었다. 또한 김정남은 839년 조와 견당사가 귀국할 때, 초주에서 파손된 일본선 2척 대신에 기동성이 좋은 신라선 9척을 구입하여 해로를 잘 아는 신라인 선원 60여 명을 고용하고 조와 견당사의 귀국을 도왔다.

특히 엔닌이 입국 시와 귀국 시에 당나라 해안부에 있었을 때, 행정 절차, 숙박, 이동, 귀중품의 보관, 편지의 교환, 돈·식료의 조달, 당·신라·일본 정세에 관한 정보 입수 등 모든 면에서 신라인들에게 의지했다. 엔닌이 ‘밀입국’했을 때, 신라인으로 분장하여 이동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당나라에서의 신라인의 특권적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재당 신라인의 리더 장보고

이와 같은 재당 신라인 사회의 리더가 장보고였다. 엔닌이 직접 도움을 받은 문등현(文登縣) 압아(押衙)¹⁵³ 장영(張詠), 초주 조선인 지구 총관(惣官) 설전(薛詮), 초주 통역관이자 설전의 후임으로 총관이 된 류신언(劉慎言) 등 모두 장보고의 부하였다. 또한 엔닌이 오대산에 가기 전에 8개월 이상 머물렀던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이었다.

장보고는 신원 불명의 신라인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재산을 만들고, 회하(淮河) 하류 지역에서 장교로 근무에 종사하면서 재당 신라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828년 유력자로 신라에 귀국하여 한반도 서남단의 완도를 거점으로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걸친 무역로를 장악했다. 그는 많은 신라인들이 노예상인에게 속아서 중국으로 연행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노예의 탈환과 해안 일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라 왕실에 수비관의 지위를 요구하고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임명되었다. 그는 왕위 획득에 실패한 김균정(金均貞) 아들인 김우징(金祐徵)을 도와 839년 신무왕으로 즉위시켰다. 그러나 그는 세력 다툼에 휘말려 840년대 전반에 염장(閻長)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암살당했다.

태주 국청사 행을 거절당한 엔닌은 구법을 포기하고 견당사 귀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신라에서 권력투쟁에 승리하고 신무왕을 옹립했다고 하는 소식을 839년 4월 20일에 듣고 당나라에 체류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엔닌은 장보고의 보호가 있으면 ‘불법체류’이더라도 구법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장보고의 힘은 막대했으며 또한 엔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은 장보고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적산 법화원을 떠나기 직전인 840년 2월 17에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어 정중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바가 있다(生年未祇奉久承高風伏增欽仰...태어난 지 오랫동안 각하의 훌륭한 인덕을 받아왔습니다. 옆드려 우러러보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153) 문등현 지방의 신라인 리더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4) 엔닌이 그린 재당 신라인 사회

엔닌의 구법은 재당 신라인의 보호와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기』가 다른 재당 신라인의 비중은 상당히 크며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그 사례로 적산 법화원에서 엔닌이 본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839년 8월) 十五日寺家設餽餽餅食等作八月十五日之節斯節諸國未有唯新羅國獨有此節老僧等語云“新羅國昔与渤海相戰之時以是日得勝矣仍作節樂而喜儂永代相續不息”設百種飲食歌舞管絃以晝續夜三箇日便休今此山院追慕鄉國今日作節其渤海爲新羅罰纔有一千人向北逃去向後却來依舊爲國今喚渤海國之者是也(8월 15일 절에서 떡이나 과자 등을 마련하여 8월 보름날을 축하하면서 지냈다. 이 명절은 여러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신라국에서만 실시된다. 노승들이 말하기를 “신라국이 발해국(실제로는 고구려)과 서로 싸웠을 때 이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날을 명절로 삼아 음악과 춤을 추며 즐겼다. 이 행사는 오래도록 이어져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온갖 음식을 마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3일 만에 끝이 난다. 지금 적산 법화원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명절을 지냈다. 발해는 신라에 토벌되어 겨우 1천 명이 북쪽으로 도망갔다가 후에 되돌아와 옛날대로 나라를 세웠다. 지금 발해국이라 부르는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839년 11월) 十六日山院起首講法花經限來年正月十五日爲其期十方衆僧及有緣施主皆來會見就中聖琳和尚是講經法主更有論義二人僧頓證僧常寂男女道俗同集院裏白日聽講夜頭禮懺聽經及次第僧等其數卅來人也其講經禮懺皆據新羅風俗但黃昏寅朝二時禮懺且依唐風自餘并依新羅語音其集會道俗老少尊卑惣是新羅人但三僧及行者一人日本國人耳(11월 16일 법화원은 이날부터 내년 정월 15일까지 법화경 강의를 한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승려나 인연이 있는 시주가 찾아와 서로 만난다. 그중 성립 화상이 법화경을 강의하는 좌주이다. 또한 경을 강의하는 사이에 문답하는 논자 두 사람이 있다. 승려도 일반인도 남녀가 모두 모여서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예불 참회와 청경으로 이른다. 승려는 약 40명 정도 있으며 경을 강의하거나 예불 참회를 하는 방법은 신라국의 풍속에 따라 실시된다. 다만 저녁과 아침 두 번의 예불 참회는 순수한 당나라 풍습에 따라 실시되며 나머지는 모두 신라어로 행해진다. 그 모임의 불교도, 일반인, 늙은이도 젊은이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신라인이었으며 그중 오직 우리 세 명[엔닌·유이쇼·유이교]의 승려와 종자 한 사람(요보로노 오마로)만 일본인이었다).

이와 같이 엔닌은 9세기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인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2. 엔닌과 신라인의 교류

장안에서 “회창의 폐불”을 겪은 엔닌은 강제 환속을 당한 대신 간신히 귀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귀국선을 찾기가 어려워 귀국하는 데 860일이나 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 엔닌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원해준 것이 장영(張詠)이나 설전(薛詮), 류신언(劉愼言)을 비롯한 재당 신라인이었다. 드디어 초주에서 귀국선을 찾아냈을 때, 설전과 장영의 남동생과 딸이 특별히 송별연까지 열어준 사실(薛詮及登州張大使舍第張從彥及孀皆送路)을 보아도 그들끼리 남다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행기』에는 엔닌과 재당 신라인과의 교류 모습과 엔닌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엔닌을 보호·지원해준 신라인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부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장안에서 “회창의 폐불”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원좌(李元佐)라고 하는 신라인 고위 관료(좌신책군 압아[左神策軍押衙])가 정성스럽게 엔닌을 도왔다. 드디어 엔닌이 귀국 허가를 받아 장안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원좌가 배웅해주었는데, 엔닌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惜別慇懃乃云弟子多生有幸得遇和上遠來求佛法數年供養心猶未足一生不欲離和尚邊和上近遇王難却歸本國去弟子計今生應難得再見當來必在諸佛淨土還如今日與和尚作弟子和上成佛時請莫忘弟子云々又云和上所着納袈婆請留與弟子將歸宅裏終身燒香供養既有此言便以送之([이원자가 말하기에] 화상의 제자인 이원좌는 윤회다 생하여 될 수 있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화상이 멀리 일본에서 오셔서 불법을 구하실 때 될 수 있고 몇 년 동안 공양을 드렸으나 마음은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평생 화상 옆을 떠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상은 지금 천자의 재난을 당하여 일본으로 귀국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생에 될 수 없을 겁니다. 내생은 꼭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에서 또 오늘처럼 화상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화상이 성불되실 때는 부디 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운... 또한 그가 말하기에 화상이 입은 승의를 부디 여기에 두고 저에게 주십시오. 집에 가지고 가서 죽을 때까지 향을 지피고 공양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 승복을 이원좌에게 선물했다.)

7세기 이후 나당연맹을 맺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와 백제와 연대한 일본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행기』를 통해서 엔닌과 재당 신라인과의 관계처럼 신라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적대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를 초월한 끈끈한 유대관계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엔닌은 평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888년 엔닌의 유언에 따라 적산의 신을 모시는 적산선원(赤山禪院, 그림9)이 히에이산 엔랴쿠사 별원으로 교토에 지어진 것이 그 증거이다.



[그림6] 현재 적산선원

V. 결론

여기까지 엔닌의 당나라 구법 배경과 『행기』에 기록된 신라인의 활약상, 그리고 그들과 엔닌과의 교류에 관해서 살펴본다. 『행기』는 한·중·일의 정사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생동감 있게 부각시켰다. 『행기』는 9세기 동아시아사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사료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행기』는 학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실천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는 각 국가·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갈등이나 분쟁이 감소·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실은 그런 낙관적 전망과 정반대로 갈등이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로 인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인식하게 되어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본인들의 문화를 간직하면서도 타자를 존중하는 균형감이 요구되고 있다.

엔닌은 『행기』에서 9세기 사람들이 벌써 그러한 균형감을 가지면서 국가적 갈등을 초월한 우정을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자기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행적은 불교 유산을 ‘교류’의 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入唐求法巡礼行記』, 深谷憲一訳, 中央公論社, 1990.
- 『円仁 唐代中国への旅 「入唐求法巡礼行記」の研究』, エドウィン・ライシャワー, 原書房, 1984.
- 『最後の遣唐使』, 佐伯有清, 講談社学術文庫, 2007.
- 『円仁』, 佐伯有清, 吉川弘文館, 1989.
- 『円仁とその時代』, 鈴木靖民編, 高志書院, 2009.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가미니 위제수리아(Gamini Wijesuriya)

로마 ICCROM 사무총장 특별 고문

I. 서론

이 글은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논의를 위한 불교 사찰과 세계유산 목록에 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완하기 위해 쓰여졌다. ICCROM(세계문화유산보존및복구연구센터)과 국가유산청이 2013년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의 불교 문화 유산 - 그 불국토를 보존하다' ICCROM 포럼(<https://www.iccrom.org/publication/asian-buddhist-heritage-0>)은 아시아 불교유산의 이해와 보존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이 포럼은 불교 유산의 가치 인식 및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각도로 고찰하였으며, 이는 운주사와 같은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지침이 되었다.

불교 사원의 가치

불교가 세계에 기여한 가장 가치적인 공헌 중 하나는 불교 사원이라는 조직적인 공동체를 설립한 것이다. 불교 사원은 소수의 승려를 위한 생활 공간으로 개조된 단순한 석굴에서부터 기거하는 승려의 수가 5000명이 넘는 스리랑카의 아바야기리(Abhayagiri)(기원후 5세기 초)처럼 정교한 복합 단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나 기원후 8세기에 지어진 바간(Bagan)과 같이 처음부터 사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계획 도시도 있었다.

불교 사원은 경전에 나타나는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구조에서 스리랑카의 마하 비하라(Maha vihara)처럼 승려와 대중이 공유하는 구조물인 불탑, 불당, 보리수 법당과 같은 종교 의식 시설과 승려가 기거하는 생활 시설로 구성된 정교한 복합 건물로 진화했다. 이러한 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 불교 공동체의 필요와 관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팔리어 경전은 초창기 승려들의 거주지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그 첫번째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개조된 자연 동굴이고 두 번째는 수 세기에 걸쳐 진화한 고전적인 불교 사원(요사.. 목방.. 현문.. 강당... 화당(火堂)... 창고.. 해우소... 산책로.. 산책로 잔디.. 우물... 우물 잔디.. 욕실... 욕실 잔디.. 연꽃 연못... 햇간... - 쿨바기(Kulavaggi)이다. 둘 다 부처님 사대에 시작되었으며, 정해진 설계에 따라 조성, 건축되었다. 처음에는 불교 승려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던 이 거주지는 점차 의식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단지로 확장되어 경배와 순례의 장소로 대중들을 끌어 모았다.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두 가지 유형의 거주지가 함께 도입되었다. 스리랑카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불교 승려들이 거주했던 5,000여 개의 자연 동굴 거주지가 있다. 동굴의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으로 그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동굴들은 승려들을 위한 거주 공간 겸 의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아잔타(Ajanta) 같은 인도의 석굴과 비슷하다.

신자들이 승려들을 위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특징인 두 번째 유형의 거주지 역시 스리랑카에 도입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적어도 두 개의 종교 구조물, 즉 불탑과 법당이 사원 단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당이나 강당과 같은 건물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서는 불교 사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 아누라다푸라에는 당대 최대의 전탑(기원전 2세기)이 세워졌고, 그 주변으로 거대한 사원 단지가 들어섰다. 5세기에 중국에서 온 법현(法顯)과 같은 승려의 방문 기록을 통해 이 사원 단지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 수 있다. 법현에 따르면 한 사원에 5000명의 승려가 기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원 단지의 웅장한 규모와 뛰어난 불교 예술 및 건축물은 고고학적 증거로도 입증된다.

이 사원들은 승려들이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전파하는, 활력이 넘치는 종교적 허브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는 승려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으로 발전했다. 또한 이 사원 단지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설계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불교 전통을 체화한 무형 유산으로 평가된다.

불교 사원은 단순한 석굴에서부터 거대한 사원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독특하고 복잡하게 발전한 건축물이다. 다양한 건축 유형이 융합되어 있으며, 회화나 조각과 같은 풍부한 문화 유산도 간직하고 있다.

불교 사원 건물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동굴 거주지/석굴.

산사

탑림(塔林)(중국)

선사(禪寺)

다양한 유형의 고전 불교 사원

사원 도시

여러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 단지.

공공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원

각 나라 별로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불교 건축 양식이 발전했다. 불교 건축물과 사원은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화했다. 사원 내에 불당, 불탑, 법당 등 고유의 종교적 기능을 가진 건물들과 강당, 다양한 유형의 요사, 서고 등 생활 시설이 해당 지역의 풍부한 자재, 기술, 지식을 반영하여 세워졌다.

불교 사원은 건축적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상을 중심으로 한 조각, 회화, 법회나 의식에 사용되는 종교적 소품 등 예술 창작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원 단지, 건축, 예술 작품은 불교가 전파된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것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유네스코 운영 지침에 명시된 6가지 기준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 유산 겹 분석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주제 별 겹 분석에 '정신적 대응'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이 분석에 사용된 '주제 분류 기준'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분류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 나아가서 최신 글로벌 전략에 대한 논의를 반영했다.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주제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의하는 기념물과 유적의 유형 또는 범주를 기준으로 했다. "정신적 대응"이라는 주제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기념물 또는 유적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이 테마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주제로 분류된다:

정신적 대응

ICOMOS 겹 분석에 사용된 세분류:

- A. 고대 및 토착 신앙 체계
- B. 힌두교 및 관련 종교
- C. 불교
- D. 유교, 도교, 신도 등
- E. 유대교
- F. 기독교
- G. 이슬람교

2004년 분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세분류는 '라틴 기독교'(59건)였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예수회 등이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인 '선교 단체'(7건)도 라틴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에 비해 동방 정교회(21건), 개신교(5건)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다. 유대교도 7건에 그치며, 이슬람교는 18건이었다. 아시아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30건, 힌두교가 15건, 유교와 신도가 17건 등장한다. 다양한 고대 및 토착 신앙 체계는 35건이 등장하며, 이 중 대부분은 현재는 사라진 고대의 신앙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겹 분석). 분석 대상이 정신적 대응이라는 주제 외에도 겹 분석에서 사용된 다른 주제에 중첩되어 분류된 경우도 있다. .

세계유산 목록 현황

현재 세계유산 목록을 간략히 살펴보고 불교 또는 불교 유산과 관련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20개국 63개 유적지(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1개 포함)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기초 분석 결과 여러 기준들이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준	유적지수
i	19
ii	32
iii	37
iv	30
v	04
vi	35

분석 결과, 불교 유적지는 6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하여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유적지들이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걸작"(기준 i)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불교 예술과 건축의 놀라운 성취를 잘 보여준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간 불교는 종교적 가르침 이상의 깊은 영향을 미쳤다.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및 조경 디자인에서 중요한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강조하는 기준 ii가 전체의 절반 정도의 유적지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유적지가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계속 번성하고 있는 불교 전통과 불교가 발전시킨 문명에 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준 iii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또한, 유적지의 절반은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기준 iv에 해당된다. 이 유적지들은 건축 및 설계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에 걸쳐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불교 유적지들은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외로 기준 v가 적용된 유적지는 단 4 곳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유산의 맥락에서 자연과 문화의 상호의존성 담론이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운주사처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불교적 원리와 깊이 연계되어 있고 건축과 설계에 뚜렷하게 반영된 유적지는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상대로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불교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기준 vi가 적용된 유적지가 과반수를 넘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운주사와 불교 유산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전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특히 운주사와 같은 불교 유산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알다시피 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등재 기준, 진정성 및 완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단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유적지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운주사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가적인 가치

최근 세계유산 등재 심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외에도 고유한 가치 체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가치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세계문화유산 관리 매뉴얼에서도 세계유산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적/추가적 가치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운영 지침에 새로 추가된 111항에 명시되어 있다.

111. 앞서 언급한 다양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공통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a) 유적지, 그 세계관, 국가적/지역적 가치, 사회생태적 배경을 공동체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 공유한다.
- b) 다양성, 형평성, 성평등, 인권,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기획 절차, 관계자 자문

가치 및 속성

현재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등재 기준을 적용할 때 후보지가 가진 가치와 함께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후보지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적지의 속성은 여전히 유산이 가진 가치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원래 RSOUV(Retrospective 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등재 후 가치 보존 및 관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OUV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강조되던 개념이었다.

이후 세계유산 맥락에서 가치와 속성을 명확히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세 자문기구가 공동으로 개발한 HIA 툴킷의 설명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속성은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산의 요소이다. 이는 유형적/물리적 요소일 수도 있지만, 활동이나 과정, 사회적/문화적 관습과 같은 무형적 요소 또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 간의 관계나 상호의존성일 수도 있다'. (HIA 지침)

무형 유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형 유산이 세계유산 담론에 도입된 것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세계유산 운영 지침은 여러 곳에서 무형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112항. '사회적, 문화적 관습, 유산에 대한 인식이나 상호관계와 같은 그 밖의 무형적 측면'

214항.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증진하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무형적 요소를 보호한다'.

137항 b) '각각의 요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히 무형적 측면도 포함된다'.

무형 유산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협약에 명시된 공동체의 중요성은 2007년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후 무형 유산과 공동체가 운영 지침에 추가되었다.

2012년 창립 40주년 회의에서 채택된 교토 비전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세계유산과 공동체의 관계는 협약의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는 사회통합, 대화, 관용, 문화적 다양성 및 평화에 대한 협약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며,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 전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과 유산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형적, 무형적 측면을 모두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다.

무형유산의 인정은 종교 유적지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는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새로운 협약(ICH,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무형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정하는 관습, 개념, 표현, 지식, 기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유산 협약은 무형유산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공예 기술의 경우 공예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식, 기술, 재료, 제작 과정, 그리고 관련된 사상적 배경과 관습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종교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하는 가치와 속성을 평가할 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전통 지식 체계(TKS)

불교유산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체계는 전통지식 체계(TKS)다. TKS는 2005년에 운영 지침에 처음 명시된 이래로 아시아의 여러 유적지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TKS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국가유산청의 도움을 받아 출간된 '아시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통 지식 체계' <https://www.icrom.org/publication/traditional-knowledge-systems-conservation-and-management-asia%E2%80%99s-heritage%C2%A0>)도 이런 홍보 활동의 일환이었다. 무형유산 협약에서도 TKS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최근 개정된 운영 지침은 세계유산의 모든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네 가지 핵심 차원(요소) 중 정신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 원칙(PCA)

PCA는 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원칙/패러다임으로, 세계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3개 자문기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원칙이다. PCA 원칙은 사람을 세계유산 관련 담론의 중심에 두고, 단순히 유산 자체의 보존이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복지까지 담론을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PCA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가치(유형/무형/문화/자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속성을 파악할 것을 권고한다.

비교 분석

비교 분석은 등재 신청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전 등재 신청서들에서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목록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목록에 등재된 비슷한 유산을 공통된 가치와 속성에 초점을 맞춰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사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당 유산이 해당 지역 문화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차별화되는 탁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함께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등재 신청 유산이 비슷한 가치와 속성을 지닌 다른 유산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운주사로

발표자가 보기에 운주사는 ii, iii, iv, v, vi의 다섯 가지 기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인류 가치의 교환, 문명에 대한 증거,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및 경관 유형,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토지 이용,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 불교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운주사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천 개가 넘는 불탑, 명확하게 계획된 부지,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운주사가 가진 대표적인 속성이다. 또한 다양한 건축물과 독특한 기념비적 예술품, 특히 불상들은 운주사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운주사는 전 세계 수많은 불교 유적지 중에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두드러지는 가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간다라 타흐티비히 불교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자라와르 칸(Zarawar Khan) / 파키스탄

스왈트대학교 조교수

초록 :

<아바사힘-치나 사원> Abba Sahib Cheena은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州) 스왈트 지역의 바리콧 테실에 위치한 가장 큰 불교 사원 복합단지 중 하나로, 불교 건축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념비적인 유적은 4개의 거대한 불탑, 개방형 사원들, 불당, 석조 벽돌로 지어진 승원(僧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왈트 지역의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1926년 인도 고고학 조사를 이끌었던 오렐 스타인 경 Sir Aurel Stein이 처음 학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원 단지는 1926년부터 1969년까지 스왈트 번왕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보존되었으나, 지난 50년 동안 골동품 사냥꾼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정부가 이 지역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페샤와르 시 고고학박물관국이 이 단지의 발굴 및 보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0-21년에 고고학박물관국의 첫 번째 공식 발굴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작은 불탑, 불당, 조각상 등 귀중한 유적과 유물이 수 없이 출토되었다. 2021년에 예비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아직 조각상의 도상학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이 유적지의 기념비적 유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불교 조각상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1. 머리말

산스크리트어로 ‘간다라’는 향기의 땅, 호수의 계곡으로 해석되어 왔다(Ingholt 1957: 13, Rahman 2009: 143-46 & 2011: 17-20). 인도-아리아 4대 경전 중 하나인 리그베다(기원전 1500-1200년경)에 기록된 지리적 용어로,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펀자브 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일부에까지 걸쳐 있는 페샤와르 계곡 및 그 인접 지역을 가리킨다(Young 2010: 32, Rahman 2009: 143-46, Jongeward 2012: X). 그러나 고대의 기록들 사이에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 지리적 범위는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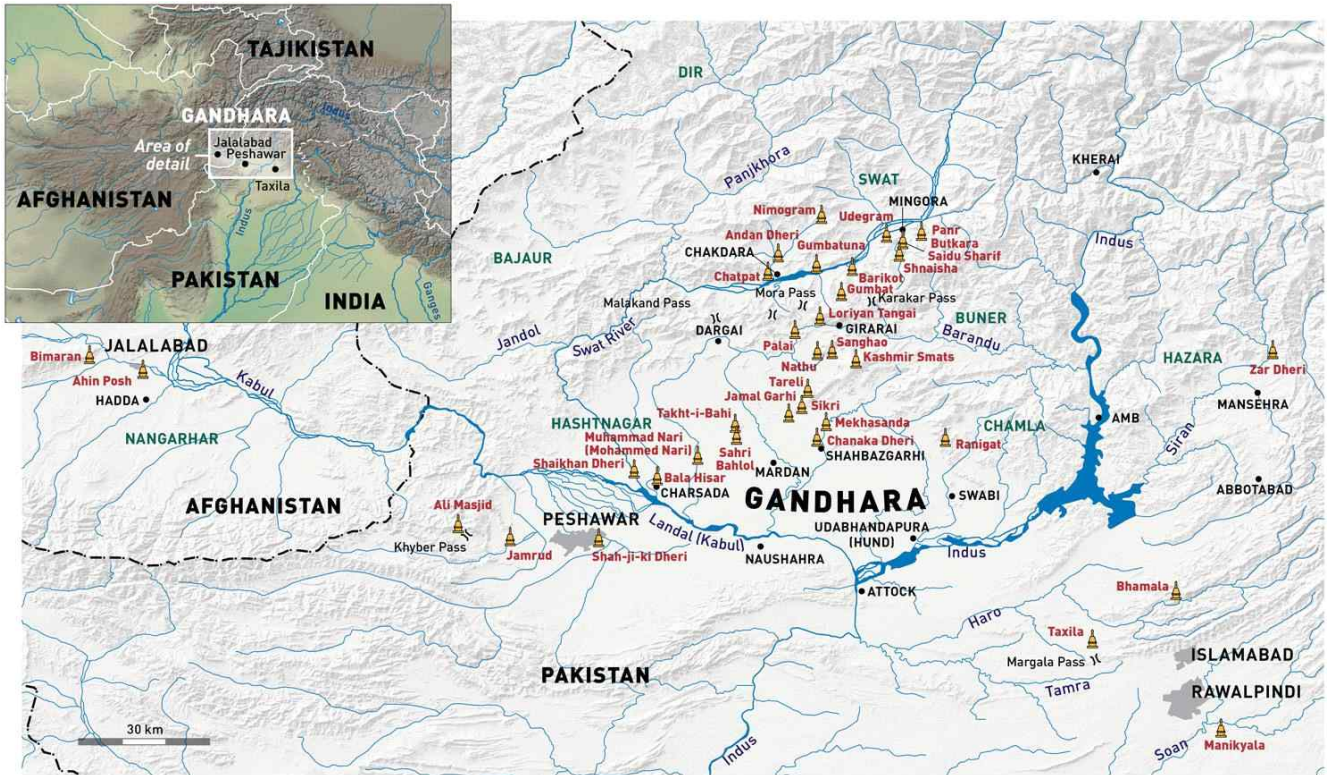
위의 자료 외에도 중국의 불교 순례자 법현(Fa-Hien)과 현장(Hiuen-Tsang)의 여행기에 따르면 간다라는 동서로 1000리, 남북으로 800리¹⁵⁴⁾에 걸쳐 있으며 수도인 포루사푸로(페샤와르)는 우디아나¹⁵⁵⁾에서 약 5일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Beal 1869: 30 & 1884: 97-98). <우파니샤드>와 <브라마나>과 같은 인도 문헌에서도 간다라를 푸쉬칼라바티와 탁실라의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인더스 강 양안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다(Tripathi 1942: 47).

154) 1 리(li) = 369.75미터 (Schinz 1996: 428).

155) 오늘날의 스왈트 계곡.

1860년대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의 설립으로 간다라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ASI의 초대 소장인 알렉산더 커닝햄(Alexander Cunningham)은 고대의 간다라가 서쪽의 람한과 잘랄라바드, 북쪽의 스와트와 부너 언덕, 동쪽의 인더스 강, 남쪽의 칼라바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비정했다 (Cunningham 1871: 48). 또 다른 유명한 학자 알퍼드 파우처(Alferd Foucher)는 간다라가 카이버 고개에서 인더스 강까지 페샤와르, 차르사다, 샤바즈 가르히, 스와비의 훈트(Hund) 시(市)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Foucher 1915: 39). 일부 현대 학자들은 간다라의 경계가 한때 동쪽으로 인더스 강,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산맥, 남쪽으로 사페드 코, 코하트 산맥, 북쪽의 스와트 계곡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다라 예술은 인더스 강을 넘어 동쪽의 탁실라,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까지 퍼져나갔다 (Smith 1911: 98, 슈미트 1990: 22, & 2005: 25, Jansen 2010: 27, Behrendt 2004: 22, Brancaccio 2006: 1).

젤름 강과 체납 강 사이의 지역에서 불교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간다라의 지리적 범위가 더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Dar 2007: 45). 남쪽 경계 역시 타파 사다르와 카라바그의 새로운 불교 유적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까지 확장될 수 있다(Zwalf 1996: 11). 따라서 제라드 푸스만(1994: 33)이나 리처드 솔로몬(1999: 3)과 같은 학자들은 최근 페샤와르 계곡 지역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위치한 스와트 계곡, 동쪽의 탁실라, 서쪽의 아프간까지 범위를 확장한 광역 간다라 (Greater Gandhara)(그림 01)라고 칭하고 있다(Nasim Khan 2024: EN 09 참조).



[그림1] 주요 불교 유적지의 위치를 표시한 광역 간다라 지도
(페샤와르 시 고고학박물관 제공)

II. 간다라의 불교

간다라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전통적으로 아소카 황제(기원전 268~232년) 시대로 본다. 아소카는 최고위 승려 중 한 명인 마잔티카를 간다라와 카슈미르에 보내 불교를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툰크와 지방의 샤바즈 가르히, 만세라¹⁵⁶⁾에 위치한 아소카 황제의 칙령을 새긴 비석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기록으로 추정된다(Tucci 1958: 281, Nasim Khan 1998: 39-40, Marshall 2008: 3).

156)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툰크 주에 위치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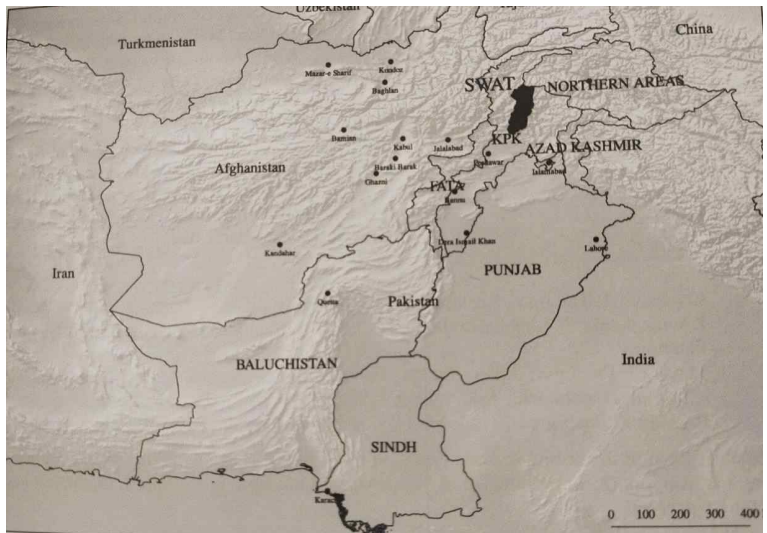
이런 역사적인 기록 외에도 우타오칸, 우마오, 사르바타 비나야와 같은 중국과 인도의 불교 문헌에서는 부처님이 스와트 강의 사악한 용인 나가 아팔라를 굴복시키기 위해 스와트를 직접 찾으셨다는 전설적인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Legge 1886: 29, Beal 1884: 121-23, Watter 1904: 229-30, Zin 2009: 76). 흥미롭게도 파키스탄 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부조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Khan 2016). 당시 간다라 주민들이 불교로 개종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원전 2세기에 간다라에서는 왕실의 후원으로 불교가 크게 융성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 사원들이 많이 건설되었으며, 조각상과 부조가 사원을 장식했다 (Solomon 1999: 5). 카로슈티(Kharoṣṭhi) 문서가 일부 발견되면서 서기 1세기 이후부터 간다라가 불교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불교가 이웃 국가들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되었다(Solomon 1999: 5-10). 오래 지나지 않아 간다라 지역의 불교 공동체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사원과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Errington 1998: 80). 쿠산 왕조 시기(서기 1st ~ 4th 세기)에는 불탑 사원들에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부처와 보살의 대형 성상이 널리 세워지기 시작했다(Rhi 2005: 171).

그러나 이런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왕실 후원의 중단, 외적의 침입, 서기 9세기 힌두교 샤히 왕국의 성립, 서기 11세기 무슬림의 간다라 정복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간다라에서 불교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불교 건축들도 무너져 내려 잔해더미로 변해버렸다.

III. 스와트 계곡 Swat Valley의 불교 유적

한때 간다라에 속해 있던 스와트 계곡은 현재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 속해 있다 [그림2]. 스와트 지역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는 등 고래로 풍성한 문화를 가진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스와트의 명성은 기원전 6세기에 등장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간다라 문명에서 만들어진 수 많은 불교 유적 덕분이다.



[그림2] 파키스탄 지도에서 스와트의 위치(이후 드 치아라: 2020)

스와트에서 고대의 대도시 바지라가 발견되면서, 11세기 이슬람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 이 지역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리스, 스키타이-파르티아, 쿠산, 백훈(White Huns), 투르크, 힌두 샤히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Olivieri 2014: 7-9).

고고학 유적 외에도 스와트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바스투 강에서 물을 끌어와 경작하는 과수원이라는 뜻의 우디아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고대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Stein 1929: 13 & 1921: 2).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가들은 이곳을 소아스토스라고 불렀다. 중국의 불교 순례자들(서기 629-644년)은 스와트 계곡 지역을 우창 또는 우창나라고 불렀다(Beal, 1884: 119, Watter, 1904: 225). 이 외에도 티베트 불교 설화에서는 스와트를 오르지안이라고 칭했다(Tucci 1958: 279).

남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스와트 계곡은 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또는 유명한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산길을 통과하기 위해 찾아 드는 상인들의 짐마차, 외국 침략자, 선교사들로 항상 북적였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은 각종 문헌, 암벽화, 비문, 주화, 낙서, 불교 조각상, 평야 지역이나 계곡 경사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념물 등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불교 유적 중 밍고라 근처에 있는 부카라 1세 사원은 스와트의 초창기 불교 시설 중 하나로, 산치와 바르훗¹⁵⁷⁾의 초기 인도식 불탑과 비슷한 양식의 주탑이 세워져 있다.

이 불탑과 관련 구조물의 대부분은 한때 그림과 조각 장식으로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부처님이 전생과 현생에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은 당시 불교 석조 예술에서 가장 즐겨 묘사한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원 유적지는 대부분 자연재해와 인간의 파괴 행위로 인해 오늘날에는 폐허로 남아 있다.

IV. 아바사힉-치나 불교 단지

아바사힉-치나 불교 유적지[그림3]의 기념비적인 유적은 바리콧 바자르에서 약 6km 떨어진 나지그람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 유적지는 바리콧에서 피르 바바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피르 바바 도로는 바리콧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어 나지그람 마을을 통해 오래된 무슬림 묘지로 방향으로 이어지며(Samad 외 2021: 2), 다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을 따라 좁은 인도(人道)가 이어진다. 계절에 따라 언덕 위에서 발원한 개울이 나지그람의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강변에는 전설적인 무슬림 성자의 이름을 따서 아바사힉-치나라고 불리는 감천(甘泉)이 아직 솟아나고 있다. (Faccenna & Spagnesi 2015: 223, Tucci 1958: 317-18 참조).

1926년 오렐 스타인 경이 인도고고학조사국(ASI)의 의뢰를 받아 아바사힉-치나 지역을 공식적으로 탐사했다(스타인 1930: 17). 스와트 계곡과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조사한 영국 탐험대는 유적을 부분적으로 발굴하고 석상을 수집했다(Barger and Wright 1941: 24-25).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기셉 투치(Guissep Tucci)가 이끄는 이탈리아 고고학 탐사단이 1956년 스와트에 도착했다. 탐사대는 바리콧 인근의 다른 유적지와 함께 이 유적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투치 1958: 317-18). 이후 이 조사팀의 다른 팀원들이 일련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 불교 단지의 건축물의 가치를 강조했다(Spagnesi 2006, Faccenna & Spagnesi 2015: 223-330 참조).

이탈리아 조사팀 외에도 일부 파키스탄 및 외국 학자들도 이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다각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했다(Ashraf Khan 1993 참조). 그러나 이 지역은 행정 구역 상 나지그람 자치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2020-21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고고학박물관국(이하 DoAM)이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발굴하기 전까지는 과학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못했다(Samad 외 2021). 1차 발굴은 2020년 12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골동품 사냥꾼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초목과 잔해를 몇 달에 걸쳐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발굴 과정에서 세 개의 주탑[그림 04-06]의 기단과 원통부(drum) 외에도 15개의 봉안탑, 원형 불당[그림 07], 그 밖의 관련 구조물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대한 불탑(불탑 D)의 잔해도 발견되어 이 사원 단지가 스와트 계곡의 다른 불교 단지와는 달랐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해졌다(사마드 외 2021: 111-116).

하천 양안에 자리잡고 있는 4 개의 거대한 불탑 덕분에 아바사힉-치나 유적지는 오늘날 스와트 계곡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봉안탑이나 광장 또는 성상, 작은 불탑, 각종 성물을 모신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불당 유적도 남아 있다. 봉안탑들이 모셔진 곳 뒤 쪽에 위치한 두꺼운 벽의 아치형 감실 구조는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다.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불과 비슷한 구조로 부처님의 등신상이 모셔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 아바사힉-치나: 불교 유적지 드론 촬영



[그림4] 아바사힘-치나: 스투파-A 전경(필자 직접 촬영)



[그림5] 아바사힘-치나: 스투파-A 전경(필자 직접 촬영)



[그림6] 아바사힘-치나: 스투파-C 및 주변 구조물(필자 직접 촬영)



[그림7] 아바사힘-치나: 원형 신전의 전경(필자 직접 촬영).



[그림8] 아바사힘-치나: 석재 조각 더미(필자 직접 촬영).



[그림9] 아바사힘-치나: 버려진 유물들(필자 직접 촬영).

V. 아바사힘-치나에서 출토된 불교 조각의 재해석

압 사히브 치나 발굴 과정에서 7백여 점의 석조 조각이 출토되었다. 조각의 대부분은 조각상, 서사가 담긴 부조, 석조 장식, 건축 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각상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검은 편암석으로 만들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발굴 보고서에 실린 조각 외에도 각종 조각된 돌과 우산 모양 석판이 현장에 남아 있다[그림 08-10]. 발굴 보고서에 실린 조각들은 현재 사두 샤리프 스와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조각상, 특히 서사가 담긴 부조는 예술적, 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 해석 또는 해독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¹⁵⁸⁾에서 이 귀중한 예술 작품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림10] 아바사힘-치나: 불탑의 우산 모양 석판 (필자 직접 촬영).

1. 마야부인의 꿈 [그림11] Acc. No.183.

이 석재 부조는 코린트식 벽기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오른쪽 칸에는 고다마 싯다르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장식이 들어간 침대 시트가 깔린 높은 소파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마야 부인은 두 다리를 구부린 채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 구부러진 다리 근처에는 마치 오른쪽 방향에서 그녀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작은 코끼리의 모습이 보인다. 창으로 무장한 수행원이 그녀의 머리 쪽에 앉아 있고 다른 인물의 흉상이 배경에 그려져 있다. 패널의 두 번째 칸에는 여왕이 정면을 바라보며 앉은 자세로 손에 꽃, 부채, 또는 왕관을 들고 있다. 이 석재 패널은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긴 직사각형 조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하게 손상되어 지금의 형태로 남아 있다. 패널의 돌출된 처마 장식에는 뾰족한 꽃잎들이 겹쳐진 형태로 새겨져 있다. 이 조각과 비슷한 양식의 석재 부조는 세계 곳곳의 여러 박물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Zwalf 1996: Pl. 142, Ackerman 1975: Pl. Xia 참조).



[그림11] 아바사힘-치나: 마야부인의 꿈(Samad 외 2021).

2. 마야부인의 꿈, 해몽, 출산을 위한 출발 [그림12] Acc. No.185

이 석재 부조는 불탑의 원통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긴 곡선 패널이다. 뾰족한 꽃잎으로 장식된 수평 띠가 부조를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있다. 윗부분에는 다양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 적어도 14 명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단풍 나무 모양 장식이 새겨져 있다. 상단 처마 장식은 연꽃 잎으로 장식되어 있다. 패널의 아래쪽 부분은 다시 코린트식 벽기둥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첫 번째 장면은 마야부인의 꿈을 묘사하고 있다. 그녀

158) 본 논문에 포함된 조각품들은 이미 발굴 보고서에 인용된 등재 번호와 함께 실려 있다. 출처, 치수 및 기타 관련 정보는 DoAM 2021 예비 발굴 보고서를 참고.

는 높은 소파에 앉아 왼손은 머리 아래에 놓고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의 무릎에 얹은 자세로 쉬고 있다. 세 명의 수행원이 그녀의 침실을 지키고 있다. 마야부인의 소파 머리와 발 옆에 서 있는 수행원은 작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여왕의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입을 만지고 있다.

패널의 가운데 칸에 새겨진 장면은 마야부인의 해몽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다. 왕 부부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해몽가가 왼쪽에 앉아 있다. 마야부인은 손가락으로 입을 만지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왕은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수행자가 왕 부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수행자 뒤에는 종자의 모습이 보인다. 패널의 맨 왼쪽에 있는 장면은 한 쌍의 말 또는 사자가 끄는 전차를 제외하고는 절반이 소실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여왕이 아버지 수프라 붓다의 뜻에 따라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Beal 1875: 42).



[그림12] 아바사힘-치나: 마야부인의 꿈, 해몽, 싯다르타 왕자의 별자리 점 (Samad 외 2021 년)

3. 싯다르타의 탄생 [그림13] Acc. No.148

이 패널은 뾰족한 꽃잎이 겹쳐진 가로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다. 상단에는 포도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싯다르타의 탄생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중앙의 인물은 싯다르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며, 양옆으로 두 명의 수행자가 보인다. 여왕은 정면에서 두 손을 든 자세로 나뭇잎을 들고 오른쪽에서 막 태어나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의 수행원은 여왕의 몸을 받치고 있고, 왼쪽의 수행원은 아기를 손에 들고 있다. 인물들의 얼굴 디테일은 훼손되어 닳아 없어졌다. 싯다르타는 마야부인이 친정으로 가는 길에 롬비니 정원에서 태어났다(Beal 1875: 43 참조). 대영 박물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이와 비슷한 석재 부조들이 소장되어 있다(Zwalf 1996: Pl. 150, 151, Ackerman 1975: Pl. XXIIa).



[그림13] 아바사힘-치나: 싯다르타의 탄생 (Samad 외 2021).

4. 싯다르타 왕자의 별자리 점 [그림14] Acc. No.118.

이 석재 조각은 긴 직사각형 부조 패널의 일부분으로, 바깥쪽으로 돌출된 띠에 의해 위 아래 두 부분으로 나뉘며 겹쳐진 뾰족한 꽃잎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패널의 상단에는 포도덩굴 문양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위쪽의 처마 장식에는 잘려진 연꽃 잎이 새겨져 있다. 패널의 하단부는 일부만 남아 있으며 미래에 부처가 되는 싯다르타의 별자리



[그림14] 아바사힘-치나 : 싯다르타 왕자의 별자리 점 (Samad 외 2021)

점을 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좌에 앉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이 인물은 발판에 발을 얹고 오른손을 살짝 들어 반대편 인물을 향해 손짓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은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인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몸을 돌리고 있다. 왼쪽 부분에는 한 남자가 앉아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다. 그는 아마도 슈도다나 왕이 궁정으로 소환한 브라만 점성가일 것이다. 이 점성가는 30 가지 커다란 징조와 80가지 작은 징조가 나타났으며 태어난 아기의 별자리 점이 매우 상서롭다고 말했다(Beal 1875: 54-59 참조). 따라서 이 장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인물은 싯다르타의 아버지인 카펠라바스투의 슈도다나 왕, 거운데 서있는 인물은 마야부인인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아이(싯다르타)를 안고 있는 남자는 싯다르타의 마지막 별자리 점을 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리시 아시타다.



[그림15] 아바사힉-치나 : 싯다르타 왕자의 별자리 점 (Samad 외 2021)

아바사힉-치나에서 발견되어 발굴 보고서에 실린 다른 단편적인 부조 패널에도 같은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이 패널들의 일련 번호는 각각 146번, 199번이다[그림 15, 16 참조].

5. 위대한 포기 [그림17] Acc. No.227

이 흥미로운 패널은 싯다르타가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후광이 드리워진 싯다르타가 부인이 잠들어 있는 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두 명의 시녀들이 페르세폴리탄 기둥들 뒤 양쪽에 서 있다. 침대 앞의 악사들은 잠을 자고 있다. 오른쪽에 한 인물의 상반신이 묘사되어 있는데 도상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싯다르타에게 신발을 건네고 있는 듯하다. 위쪽 발코니에서 세 인물이 싯다르타가 떠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15] 아바사힉-치나 : 싯다르타 왕자의 별자리 점 (Samad 외 2021)



[그림17] 아바사힉-치나: 위대한 포기 (Samad 외 2021)

VI. 결론

아바사힘-치나의 불교 유적지는 성(聖)과 속(俗)의 성격을 모두 가진 기념비적인 불교 복합 단지이다. 유적지의 석벽은 계단식 밭의 제방과 현대식 건축물의 옹벽으로 둘러싸인 협곡의 넓은 지역에 걸쳐 퍼져 있다. 언덕 경사면에서 보이는 일부 구조물과 가시덤불에 가려진 구조물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퇴적물에 묻힌 승방과 지하실 유적도 관찰 당국의 추가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유적지의 건물들은 반 세기에 걸친 약탈과 훼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다. 일부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석회 마감재와 채색 장식이 남아 있다. 이 곳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이 지역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중단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샤와르 시 고고학박물관과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정부의 노력 덕분에 이 중요한 유적지가 향후 발굴 조사를 위한 보존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 중요한 불교 사원 단지가 파키스탄의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서 종교 관광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란다

투 문 무



‘주제발제: (이숙희)동아시아 불교유산에 대한 비교’에 대하여

최선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동양미술사학회 회장
(전)국립경주박물관장

화순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불교와 민간신앙인 도교 등이 결합되어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조형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유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화순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등재 기준의 적정성, 진정성 및 완전성의 충족여부 등을 파악한 후 등재를 위한 전략을 수립 해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들의 특이성과 보편적 가치의 타당성 여부를 동아시아 불교유산과 비교,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과의 비교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경향을 살펴보면, 경관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단독 유산보다는 연속유산의 등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기준의 적용도 보다 강화되면서 세계유산과의 비교연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주사의 불교문화 유산은 지금까지 국내 유산과 세계유산과의 비교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또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세계유산의 가치 해석이 서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구 문화유산의 비중이 높고 동아시아의 불교유산에 대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세계불교유산의 경우, 등재 기준으로 (ii), (iii)번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의 등재기준의 방향이나 추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줌.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주제발제: (아마라 스리수챗)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에 대하여

주수완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예술경영전공 교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이번 아마라 스리수챗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불교유산의 어떤 의미와 특징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태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유적들이 지니는 시대별 특징을 소개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닌 태국에서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성에 대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비록 지금은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은 곧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경우는 지금의 타이족보다 먼저 태국 땅에 살던 문족이 이루어놓은 드바라바티 같은 문화유산도 있고, 현재 이 유적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태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타이족이 아닌,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고, 현재는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태국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에는 단지 단절된 과거로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개념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화순 운주사가 한국사람들이 아닌, 고려시대에 이 땅에 들어와 있었던 몽골군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설도 있어서, 만약 정말로 이 유적이 다른 민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문족이 건설한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던 것처럼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유적 중에 실질적 소유자인 종교단체와의 의견 불일치로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 소유자도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는 세계유산 등재를 원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종교문화재나 유적이 국가문화재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혹은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나 등재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태국의 사례도 그러한 예인지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발표 감사드리며, 화순 운주사도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발제: 운주사 석탑의 유형과 가치’에 대하여

장준식

국원문화유산연구원장

본 발표문은 각국 불탑의 변모를 살펴보고, 운주사 석탑과 운주사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또한 운주사 석탑의 세계유산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발표문의 전체 논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발표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운주사 석탑은 한국 석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불탑에 있어서도 특이한 존재라 하겠다.

가람배치로도 그렇지만 석탑의 양식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민예적이며 토속적인 모습을 보이고있어 특이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하는 바이다. 발표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세계 불교 조각사의 흐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사상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 흐름이 불탑의 양식적인 변화로 이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2. 발표자는 운주사 석탑의 조형기법이 고려초기의 석탑들에서 보이는 양식이나 축조 기법 보다는 다소 후기적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운주사 석탑 건립연대의 상한을 운주사의 창건기보다 늦은 12세기로 낮춰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12세기를 석탑 건립의 상한연대로 하면 실제로는 13세기경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주사 조성 시기를 두고 이루어진 연구는 9~12세기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운주사는 탑의 건립과 사찰의 창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신비스러운 사찰이라 석탑의 건립 배경이나 연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다른 주장들과 비견하여 발표자는 석탑의 조성을 크게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표문에서 그 이유를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동향이 군소종파가 난립하고 토착적인 신비 사조가 부활 되며 민중 중심의 지방 불교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화순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장준식

국원문화유산연구원장

본 발표문은 운주사 석불의 유형을 살펴보고, 운주사 석불의 성격과 특이성 대해 조망 하고 있다. 또한 운주사 석불의 세계유산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발표문의 전체 논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운주사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에 위치하며, 대초천의 상류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화학산의 한 줄기로 해발 100여 미터의 야트막한 야산이며, 남북 방향으로 뻗은 두 산등성이와 계곡에 많은 석불과 석탑이 산재하여 있다. 또한 운주사 석불은 1991년 운주사 종합학술조사에 의해 상세히 보고된 바 있다.

당시 실측 조사에 의하면, 원형불상 57체, 불완전한 불상 43체인데 불두편 24체, 불신편 16체(불두와 불신이 2분된 것 1체, 불두와 불신이 3분된 것 1체, 불두와 불신 일부만 남아있는 것 1체로 모두 합하면 운주사 불상은 총 100체 가량 확인되었다.

1. 발표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운주사에는 가 석불군~바 석불군까지 모두 암반 단애면을 이용하고 있음이 공통 특징이다. 특히 바 석불군은 깎아낸 단애면이 넓은 처마 역할을 하고 있어 눈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좌상의 경우는 좌대 위에 있어 바위벽에 기대어 있지 않은 반면, 입상의 경우는 바위벽에 기대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주사 석탑과 연관하여 각 석불군의 석불들의 육계와 삼도의 유무를 중심으로 석불의 배치와 그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운주사의 시위불(머슴불)은 관모 형태의 육계가 뚜렷하며, 삼도가 없다. 이 시위불은 오른팔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고 왼팔을 펴서 왼쪽 다리에 붙이고 있다. 또한 와불 좌상의 오른쪽에서 떼어내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삼존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발표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세 개의 불상을 한 덩어리의 바위에 새기고 그 중 하나를 떼어냈다면, 셋을 하나의 바위에 조성한 의도는 일체삼용(一體三用), 또는 일즉삼(一卽三), 삼즉일(三卽一)의 원리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3. 운주사가 위치한 곳은 통일신라시대 이전에는 백제에 속한 지역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운주사 칠성바위와 백제 고대 신앙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배치상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토성의 칠성바위가 검단산 정상과 이성산성의 다각형 건물지와 일직선상의 신성라인을 이룬다. 운주사의 칠성바위 역시 와불의 머리와 개천산 정상과 일직선상에 있고, 와불과 개천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칠성바위의 상징성을 불상과 석탑들의 배치와 연계하여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화순 운주사 칠성석과 와불의 천문학적 특성과 천문유산적 가치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왜 운주사인가?

1.1 천불산 운주사의 창건 시기와 고려 중기 문화 유적

전남대 박물관의 1차 조사에서 “雲住寺丸恩天造”가 새겨진 고려시대 암기와 명문이 확인됨에 따라 사명(寺名)이 운주사(雲住寺)이고 창건시기는 고려시대 초중기인 11세기 초반으로 상정되었고, 적어도 12세기 초반 무렵에는 사역 건물이 남북 자오선 방향으로 전면 중창되었다는 점에서,¹⁵⁹⁾ 운주사 칠성석과 와불의 제작시기 또한 이 시기 범주를 따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1,000년의 풍화를 다 견뎌낸 오래된 유적이고, 고려시대 천문학 수준과 당시의 천문사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주목할 자료이다.

1.2 묻혀졌던 운주사 석불석탑과 칠성원반석의 부각

오랫동안 묻혀졌다가 근대 1940년대 들어 운주사 칠성석이 별 밝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조망되어 처음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들어 언론잡지에 소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고, 마침내 1990년대에 본격적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그 전모가 공개되었으며, 이 기반 위에 2000년대 들어 필자의 천문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野村孝文(1940), 성춘경(1980), 박종철(1990), 전남대박물관(1991), 이태호(1994), 김일권(2006, 2008, 2014)¹⁶⁰⁾

2. 운주사 칠성석과 와불의 고려 천문학적 접근

화순 운주사 산자락에 조성된 칠성석과 와불은 운주사 석불석탑의 문화유산 해석에 핵심 요소 역할을 지닌다.

만일 칠성석이 없었다면 와불의 천문학적 해석은 불가능하고, 산정에 조성된 와불은 칠성석의 존재와 배치 관계로 인해 천문의 중심인 북극성 상징성을 획득한다. 이 운주사 칠성석의 천문학적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는 화순군청의 세계유산 학술대회를 통해 자세히 발표하고,(2013.11.01) 이를 학술 논문으로 게재하였다.¹⁶¹⁾ 여기서는 이를 환기하고 그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재론한다.

159) 전남대박물관, 『운주사』 I(1984), p.110. 이 명문은 1984년 5월 20일, 22일 II지구 주변 발가에서 수습한 기와편 중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1987년 2차 조사에서는 운주사지 전역에서 30여편 출토되었고 주로 조선시대 건물지에 해당하는 <가>와 <다>지구에서 발견되었다.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 II(1988), p.61

160) 野村孝文, 「全羅南道多塔峰의遺蹟」(『朝鮮と建築』 19-8, 朝鮮建築會, 1940.8)

성춘경, 「運舟寺의 천불천탑」(『月間全每』 1980.2월호)

박종철, 『무등일보』 1990.1.11.일자 7면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4)

이태호, 『운주사』(대원사, 1994)

김일권, 「한국종교사 속의 미륵과 칠성신앙 :운주사의 칠성바위와 숙종조 미륵불 사건의 해석을 중심으로」(『종교와 역사』, 윤이홍 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대출판부, 2006.8)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 2008.8)

김일권, 「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정신문화연구』 135호, 2014.4, 한국학중앙연구원)

161) 김일권, 「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화순군·전남대박물관 주관 <운주사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3.11.1, 화순군청; 『정신문화연구』 135호, 2014.4 게재)

2.1 한반도 천문조형 거석문화, 운주사 칠성 원반석의 복두칠성 천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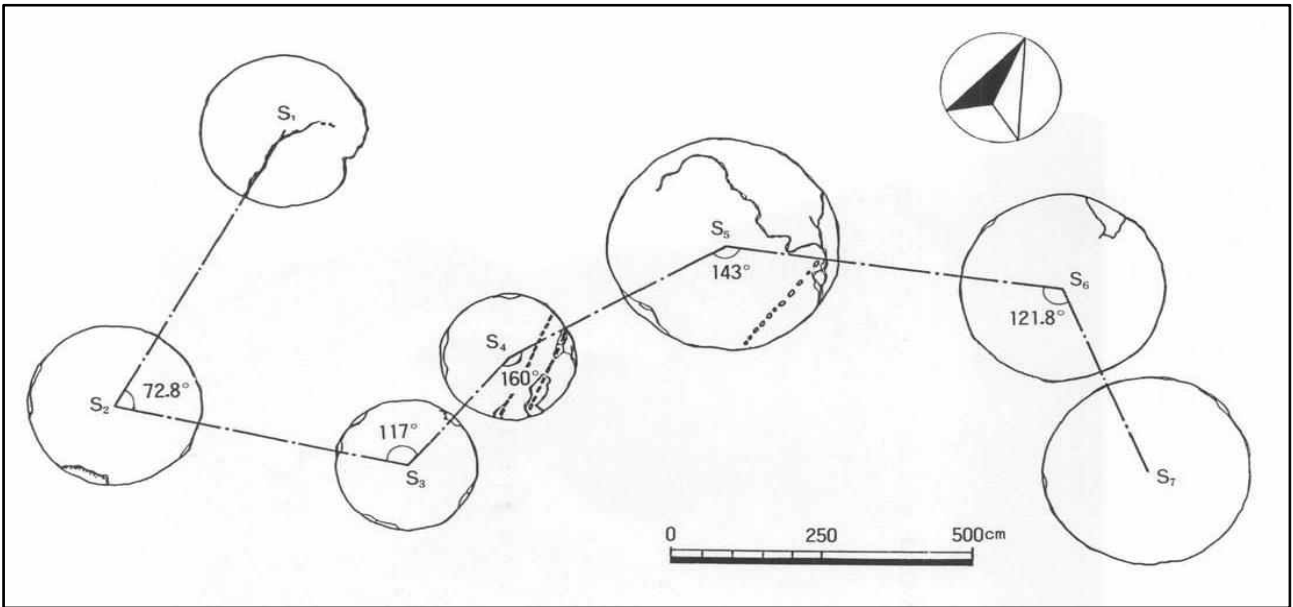
(1) 화순 운주사 계곡의 서쪽 천불산 산기슭 비탈진 곳에 7개의 바둑돌 모양 대형 인공 원반석(지름 230~385cm, 두께 33~43cm)이 복두칠성 배치로 놓여있다.(그림 1, 2)

[표 69] 운주사 칠성석의 크기와 밝기 대조: A, B, C 그룹 분류 (김일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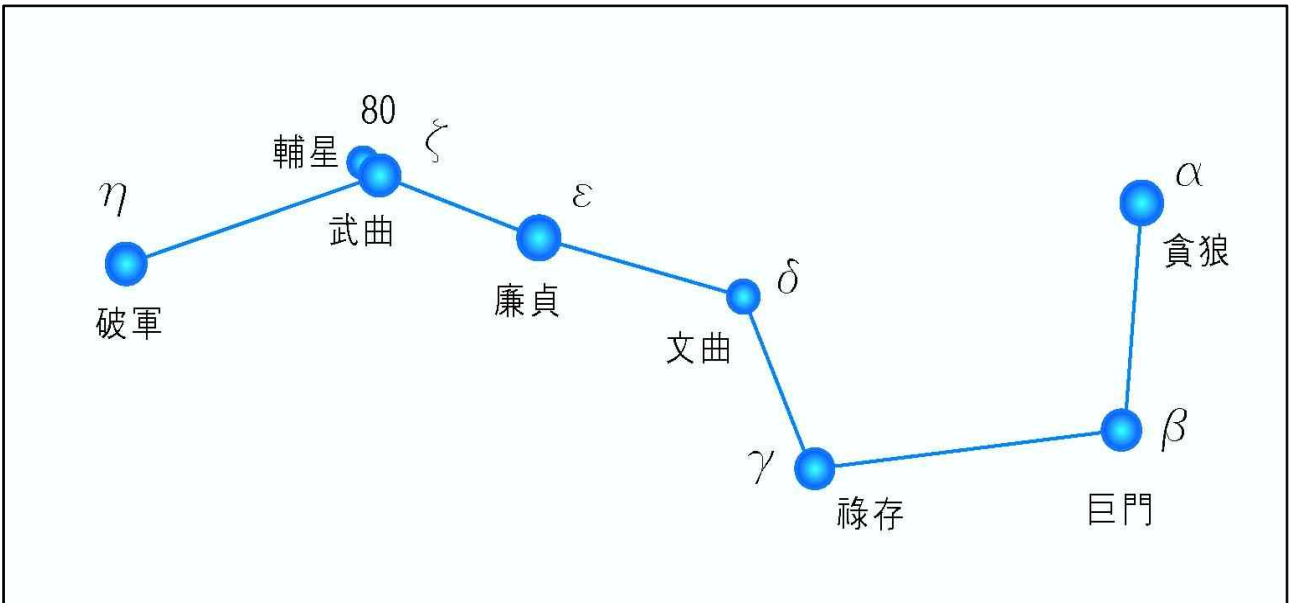
칠성석	공식명칭	이칭	지름	두께	크기순서	서양학명	겉보기등급	밝기순서
S1 (타원)	1 天樞星	제1 倉狼星	275	40	B 5	α Dubhe	1.8등급 (1.79)	A 2
S2 (타원)	2 天璇星	제2 巨門星	294	33	B 4	β Merak	2.4등급 (2.37)	B 5
S3 (타원)	3 天璣星	제3 祿存星	230	38	C 7	γ Phecda	2.4등급 (2.44)	B 6
S4 (타원)	4 天權星	제4 文曲星	234	35	C 6	δ Megrez	3.3등급 (3.31)	C 7
S5 (정원)	5 玉衡星	제5 廉貞星	385	43	A 1	ϵ Alioth	1.8등급 (1.77)	A 1
S6 (타원)	6 開陽星	제6 武曲星	327	35	A 3	ζ Mizar	2.3등급 (2.27)	B 4
S7 (타원)	7 搖光星	제7 破軍星	336	35	A 2	η Alkaid	1.9등급 (1.86)	A 3



[그림 114] 운주사 칠성원반 두건 부분 (필자 촬영, 2013.6.19.)



[그림 115] 운주사 칠성석 실측도 (『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그림 116] 북두칠성의 각성 명칭 (김일권, 2008)

(2) 운주사 칠성석은 실제 천공에서 관찰되는 북두칠성(꺾자형)이 그대로 내려앉은 역꺾자형(S자형 점대칭 형태)으로 구현되었고.(그림 3) 그 칠성석의 각 원반 크기는 북두칠성 각성의 별 밝기(겉보기 등급)와 비례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육안관측 시대로서 놀라운

천문학적 정확성을 구현하였다.(표 1) 7개 각성의 별 밝기 등급이 다 다르다는 인식을 표출한 자체가 고려 천문관측학의 높은 수준을 의미하고, 이를 대형 원반석으로 시각적 구체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천문학사적 가치로 조망된다.

- 가장 밝은 제5 염정성이 가장 큰 S5 원반으로 제작
- 가장 어두운 제4 문곡성이 가장 작은 S4 원반으로 제작
- 밝기와 크기 일치: 제5 염정성, 제7 요광성, 제2 거문성, 제4 문곡성의 4개 원반
- 밝기와 크기 편차: 제1 탐랑성, 제3 녹존성, 제6 무곡성의 3개 원반

- 북두칠성 별 밝기 그룹:
 - A 상등성(1.8등성급): 제5 염정성(1.77), 제1 탐랑성(1.79), 제7 요광성(1.86)
 - B 중등성(2.3등성급): 제6 무곡성(2.27), 제2 거문성(2.37), 제3 녹존성(2.44)
 - C 하등성(3.3등성급): 제4 문곡성(3.31)
- 칠성석 원반 크기 그룹:
 - A 대형(327~385cm): 제5 염정성, 제7 요광성, 제6 무곡성
 - B 중형(275~294cm): 제2 거문성, 제1 탐랑성
 - C 소형(230~234cm): 제4 문곡성, 제3 녹존성

(3) 그러나 위의 밝기-크기 분석에서 각 원반석의 두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칠성석 제작자가 별의 밝기를 충분히 인지하고서 크기와 부피에 반영하여 제작한 측면이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 두께 문제까지 곧 칠성석 원반의 부피 제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 있지 않아 추후 보완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2 북두칠성의 천문학과 문화사적 역할

(1) 북두칠성은 매우 밝은 국자모양 형태로 인해 쉽게 구별되고 쉽게 인지되는 특성으로 인해 밤하늘에 빛나는 모든 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¹⁶²⁾

(2) 북두칠성은 자연에서 찾아지는 가장 큰 자연 시계이다. 1년에 한번 돌고(공전), 하루에 한번 돌면서(자전) 1년의 4계절 시간과 하루의 시간 변화를 표시한다. 밤하늘 별들이나 자연의 지표 중에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천체 시계 지표이다. 대응되는 것으로 낮에는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를 만들어 천체 시계를 만들지만 하루 동안의 자전을 반영할 뿐 계절 변화를 직접적으로 읽지는 못하고 주기적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기계장치의 시계 발명 이전 전근대사회에서 해시계는 도구로 제작하여 구비해야 하는 번잡성이 큰 반면에 북두시계는 그냥 육안관측하면 되는 편익성이 크고, 해시계의 실용성은 생각보다 작은 반면에 북두시계의 실용성과 정밀성은 크다.

(3) 그래서 북두칠성은 대자연의 시간마차라는 신화적 인식이 성립되어 북두 수레 관점이 생성되었고, 천문학적 측면에서 고대 사회는 1년 12개월의 변화를 북두칠성의 자루 곧 두건(斗建)의 방향을 따라 자축인묘 등의 12진으로 매겼다. 월건(月建)이란 용어와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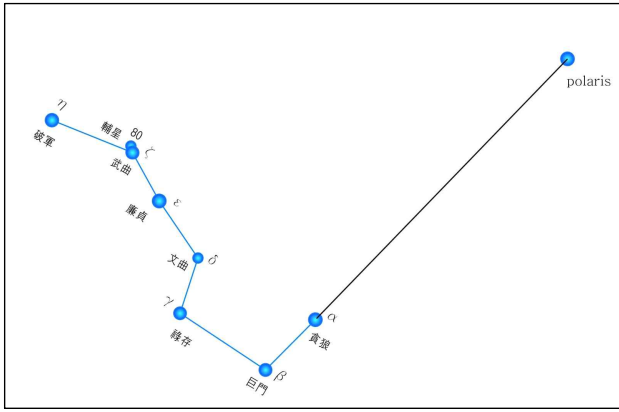
(4) 종교적 신념에서 북두칠성은 북두수레를 타고 인간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인세의 모든 잘잘못을 매일 관찰하며 보듬어준다는 믿음으로 전개되어 도교의 칠원성군신앙과 북두구진(北斗九辰) 신앙, 불교의 칠성신앙, 묘견신앙, 치성광불신앙으로 발달하였다. 현재 사찰의 칠성각은 이런 도불 신앙을 담아낸 공간이고, 임진왜란 이후 무렵부터 성립된 문화이다. 그 이전 고려시대 천문학에서는 행성을 더 중시한 구요신앙과 칠성신앙을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도불습합의 구요당(九曜堂)이란 공간을 사용하였다.

162)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천문학과 문화사 문제는 필자의 다음 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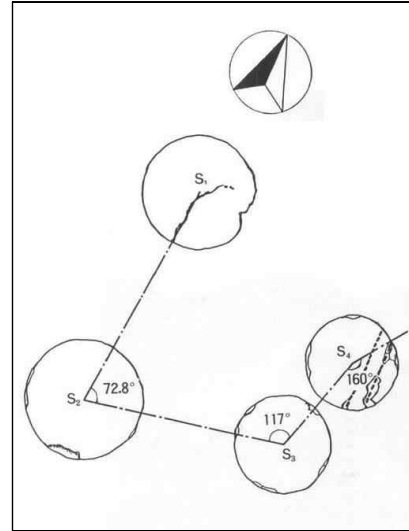
1.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10)
2.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예문서원, 2007.10)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2008.7.17.)
3.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 2008. 8) :2008년 TV책을말하다 - KBS 책문화대상 빛나는역작 후보 선정(2008.11.10.)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2009.7.16.)
4.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 12) :2009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73차 청소년권장도서 선정(2009.3.5.) /2010년 한국일보 제50회 한국출판문화대상(백상출판저작상) 수상(2010.1.14.)
5.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5.4.)
6. 김일권, 『국역고려사 권14 지2 曆志 역주』(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5.4, 국역고려사)

2.3 운주사 천불산 산정 와불의 북극성 천문학

(1) 북두칠성은 두괴와 두견의 두 부분으로 나뉘고, ㄷ자형 두괴가 가리키는 곳에 모든 별들의 구심점인 북극성이 위치하므로 고대 전세계 동서양 모두 농경, 해양, 초원, 사막 생활에서 북극성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북두칠성에 부여하여 인식하였다. 곧 북두의 두괴 지극성(제2 거문성→제1 탐랑성이 가리키는 방향)가 가리키는 곳이 정북 방향이다.



[그림 117] 북두칠성과 지극성 시야도(김일권 2008)



[그림 118] 칠성석 S2-S1의 指極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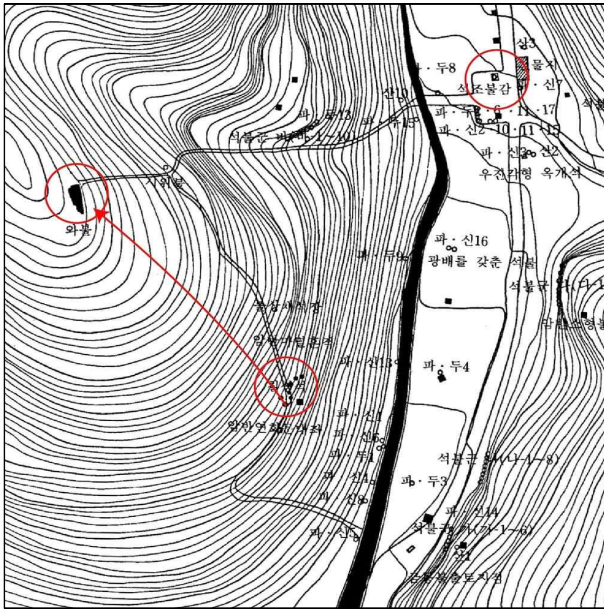
(2) 칠성석과 와불의 방위 각도를 따져보면 거의 정북방의 일직선 방향으로 나란히 놓인 배치를 읽을 수 있다.(그림 12)

이 때 두 유물이 평지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비스듬한 산기슭의 곡률을 따라 놓인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곧 칠성석의 지극성 방향에 와불이 배치되어 있고, 이 두 와불과 칠성석의 배치 관계는 ‘천문의 구심점 북극성-길잡이 북두칠성’의 배치 관계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의도적 배치 구도는 당시 제작자가 산정 와불을 북극성으로 인식한 관점 아래 칠성석을 배치하여 놓았던 것으로 충분히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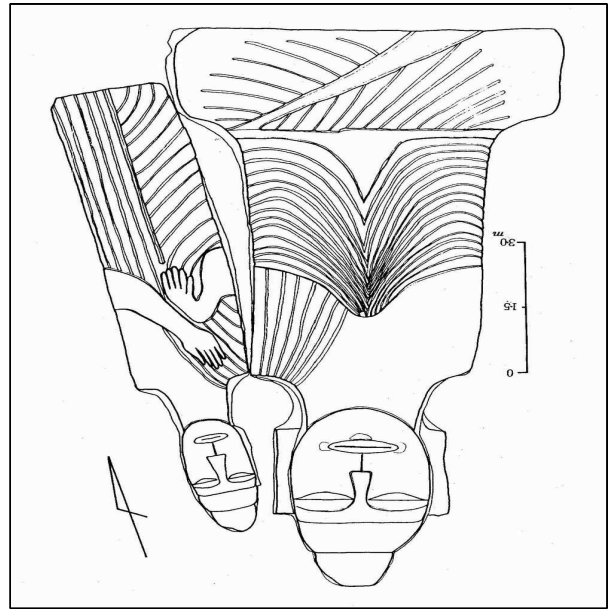
(3) 그리고 와불이 현재는 누워있으나 그대로 일으켜 세우면 정북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와불이 또한 자오선상에서 천공의 북극성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양새다. 이런 면모는 고려시대 유행한 <치성광불강림도> 불화를 통해 보면, 와불은 북극성의 신격인 치성광여래로 대응 해석된다.



[그림 119] 운주사 산정 와불 사진 (필자 촬영, 2013.6.19)



[그림 120] 칠성석과 와불의 방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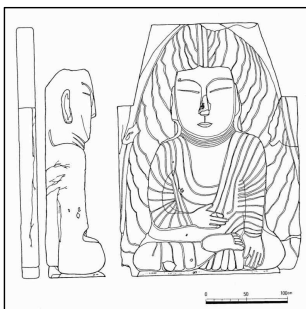


[그림 121] 와불이 놓인 방위

(4) 다른 한편, 와불이 자오선상에서 북향한다는 점에 착안하면, 운주사 천불천탑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쌍배불감의 방위도 함께 상관성을 이룬다.

원반형 연화탑 남쪽 5m 지점에 팔작지붕 형태의 불감 속에 쌍불을 안치한 쌍배불감은 방위를 재보면 정남북의 자오선으로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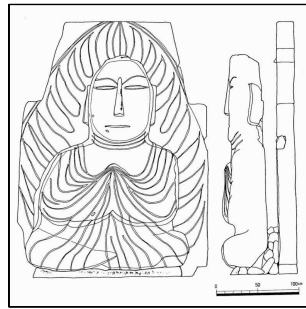
곧 절터 입구를 향하는 남쪽 불감의 석불좌상은 화염문 광배에 오른손을 배에 대고 왼손을 무릎 위에 얹은 촉지인 모습을 하는 석가여래상으로 해석되고, 북쪽으로 향한 북감의 석불좌상은 화염문 광배에 머리에 육계가 없고 통견의를 입었고 옷주름이 가슴 중앙에 모아진 합장인을 취하여 산정와불과 유사한 좌불상 모습이고 석가에 대칭되는 미륵여래상으로 해석 대비된다.



[그림 122] 운주사 쌍배불감의 남감좌불



[그림 123] 운주사 쌍배 불감의 남감좌불 사진



[그림 124] 운주사 쌍배 불감의 북감좌불



[그림 125] 운주사 쌍배 불감의 북감좌불 사진

3. 결론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북극성 와불은 그것이 지닌 독특한 천문적 문화성과 1 천년의 유구한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세계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충족하는 핵심 제재라 평가된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천구상 천체원리의 대표 별자리이고 이 둘을 운주사 경내에 안치함으로써 운주사가 천문세계의 지상 구현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운주사의 세계유산 요소 구성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이른바 우주론적 원리의 생활 유산 특성을 구축한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고려시대적 유도불 삼교의 종교적 습합이 함께 투영되어 있으므로 종교다원화의 지평 확장을 읽는 공간이 되며, 천체원리 구현을 통한 하늘과 인간 그리고 천문과 이 세계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다.

운주사의 문화적 기억 확장을 위한 방안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 인식과 제고」 토론문

정경운

전남대학교 교수

한정훈 교수의 글은, 그동안 우리가 ‘세계유산으로서 운주사’의 가치를 논의할 때 유념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여전히 비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운주사 논의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 교수는 ‘그동안 세계유산으로서 운주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 이유를 지금까지의 논의가 유형유산적 측면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으며, 설화 등 무형유산은 단지 운주사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참조자료로만 동원되는 등 평가 절하되어온 데서 찾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와불 등 물리적 구체와 시간성, 여기에 사람들이 오랜 동안 사회·역사적 관계 속에서 구성했던 ‘무형의 가치’가 더해졌을 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온전히 설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은 운주사의 설화 자원을 포함,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기억유산을 중심자료의 위치로 부상시킬 것을 우리의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운주사는 조성역사가 가진 미스터리, 천불천탑이 가진 이질적 형식성만으로도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와불 등 다양한 이야기가 붙었을 때 그 매력도는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운주사의 전승기억은 한국사의 특정 시기에 의미의 폭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변혁의 역사적 경험과 운주사의 전승기억이 만났던 사례가 그것이다. 이 정도면 ‘이야기로서의 운주사’는 실제에 달린 부속적 존재가 아닌, 마땅히 실체와 비등한 무게를 가진 유산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한정훈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여기에서는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 한정훈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라키비움’에 관련한 것이다. 2017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주사와 관련된 DB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운주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일반인들이 참조하는 것은 운주사 사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블로그의 여행기들이다. 사찰의 정보는 창건설화와 잔존해 있는 석탑·석불군에 대한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블로그 글들은 개인적 관심사에 따른 단편적 정보로 모두 개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디에서도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외부로 공개된 DB가 없다는 것은 비단 일반인들의 방문 유도를 위한 불편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에 ‘운주사 라키비움’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운주사문화관’ 조성이 계획될 당시 라키비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운주사 관련 아카이빙 범주는 이야기, 옛사진, 학술자료, 예술작품, 주민들의 구술증언 등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특히 예술작품은 1980년대 이후 ‘급작스럽게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대규모로 생산되었다. 와불설화가 가진 ‘미완의 서사’와 ‘도래하는 미래’ 모티브는 수많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들어냈으며, 현재도 여전히 작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2014년 즈음에만 약 300여건의 작품이 있었으니,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작품이 생산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운주사는 그대로 라키비움의 전시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개형 수장고 형식의 전시관들이 국내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자료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사이트) 구축도 필요하다.

한 지역의 유형유산이 이렇듯 대규모의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지자체는 운주사 관련 사료들, 이야기 자원과 더불어 이 예술작품들 아카이빙을 시급히 시도해야 한다. 현재로선 수집하기 힘든 회화, 조각 작품들은 이미지 DB로, 음반은 복각본 제작을 통해 실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 아카이빙 자료들

둘째, 유산 보존·관리·활용 측면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유산 보존의 핵심 개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지역사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용의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활용 측면에서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추석 때 운주사 놀이판 축제를 현재는 '화순운주문화축제'로 계승해 주민들의 주도로 전승시키고 있다. 이 외에 필요한 것은 일상적 운주사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주민의 참여일 것이다. 사찰에 모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생적 보존·관리 조직화('문화재 지킴이', 유적보존회 등)가 필요하다. 무형의 전승기억은 단지 설화와 같은 이야기 형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연결된 주민들의 경험도 문화적 전승기억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주사의 문화적 기억을 지역 밖으로 확장시키는 관광시스템 문제이다. 운주사는 1980년대 이후 예술작품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은 사찰이다.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이 부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방문객이 이어진다는 것도 신기할 만큼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그런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더불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이라는 수식어를 앞장세우고 있다. 현재 운주사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있는가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운주사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의 DB 구축(계절별·시간별·지역별 등)을 통한 전략 마련, '세계유산민박네트워크'(고인돌유적-운주사) 브랜딩과 같은 [수익의] 주민 환원, 자생적 주민조직화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제언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2017년 3월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유산명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찾기 힘든 특이한 공간 조성”이란 특징을 내세워 우리나라 16번째 잠정목록이 되었습니다. 잠정목록 신청서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는 10~16세기말까지 조성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불상과 석탑 그리고 별자리나 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칠성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성의 다양성, 조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또한, 운주사는 다른 불교사찰과 달리 불교적 요소와 외에도 밀교, 도교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사찰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채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정목록 등재 이후 매년 주제를 정하여 세계유산 관련된 조사 연구를 했더라면 더 좋은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유산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될 수 있는 유산명은 운주사, 운주사지, 운주사 석불석탑군(잠정목록등재 유산명), 운주사 불교유산군등입니다.

2. 구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운주사지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은 490,831㎡입니다. 세계유산 구역을 설정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문화유산구역[지정구역]을 유산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유산지역 자체를 의미하는 ‘운주사지’로 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지정구역(유산구역)-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완충구역)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OUV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유산 6개항의 선정기준 중에 최소 1개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 결과와 국제적인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여 조사 연구의 지속성과 국제동향의 분석이 중요하다.

4. 보존관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그 과정에서 사찰, 승려, 신도, 주민, 관청, 단체 등 운주사를 살피고 보고 지키고 가꾸어 온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였는가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찰-운주사’의 현재의 모습이 ‘유산-운주사지’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제도의 최근동향과 관련하여 2015년에 도입된 「등재신청 사전자문(Upstream Process)」제도를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잠정목록 개발 등 등재 추진 단계에서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에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은 세계유산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 전에 진행되는 자문·협의·분석 등 자문 기구(ICOMOS, IUCN)의 자문 일체를 말합니다. 운주사지 세계유산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Presentation



Study Achievement of Hwasun Unjusa Temple and Exploration for World Cultural Heritage

PARK, Gyung-Sik

Honorary Professor /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I. Preface

Built in the area of Daecho-ri and Yonggang-ri, Doam-myeon, Hwasun-gun, Jeollanam-do, Unjusa Temple is known as a temple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ccording to the latest survey, it is assumed that a total of 101 stone Buddhas and over 30 stone pagodas once existed. Moreover, due to these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tes, it can be found as recorded as “Temple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in various literatures, such as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n Geography of Korea; 新增東國輿地勝覽),’ and articles with identical descriptions are included in modern literatures, including ‘Neungjumokji (綾州牧誌)’ and ‘Neungjueupji (綾州邑誌).’ This case where a number of stone pagodas and stone Buddhist statues are gathered together at a single temple is quite a special one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nation. In addition, it garners even more attention because of its distinctiveness compared to historic remains in other countries concentrated with Buddhist statutes and pagodas.

At today's event where we all take a gigantic step to have Unjusa Temple designated as World Cultural Heritage, I would like to present the accomplishments from the past studies as well as my personal views regarding its value as World Cultural Heritage.

II. Study Achievements of Unjusa Temple

A study on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at Unjusa Temple was first conducted by ‘Wuhyeon’ Go Yu-Seo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llowed by other studies performed by Japanese scholars; afterward, various studies were engaged in by Korean scholars. Especially with excavation surveys execu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on 4 different occasions between 1984 and 1989,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on foundation and closure of the temple were conducted through relics and remains. Based on these results, a variety of reports on excavations and studies were published, and diverse studies from astronomy to conservation science were also performed. Summary of achievements from the past studies is as follows.

1. Study on Folktales concerning Foundation

In the literature records, foundation of Unjusa Temple and formation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has been passed down in various shapes. Starting from the theory of BIBO temple by Master Doseon and the the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being formed by Hyemyong, Goryeo's monk, appeared in 'Donggukyeoji (1655),' there are the theory of establishment by emigrant clan moved into the Neungju region, a claim that 'cheonmin (the lowest class of people)' and 'nobi (slaves)' believing in revolutionary thoughts of Maitreya came together and built a Maitreya community society by constructing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a temple and assertion that this region would become a capital of Korean Peninsula by succeeding the resentment of the Baekje Dynasty once Lying Buddha rises. From these tales, as Hyemyeong is assumed to be a monk who built Maitreya Buddha at Eunjin Gwanchoksa Temple, it is believed to be the most reliable folktale.

2. Study on Excavation Survey

From the 4 excavation surveys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between 1984 and 1989, a total of 8 building sites and 4 stylobates were surveyed at the Yonggang-ri region, and 3 building sites and stone elevation consisting of 2 layers were verified at the Daecho-ri district.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sults from 4 excavation surveys, it was confirmed that Unjusa Temple was founded in the early 11th century and enjoyed its heyday in the end of the 12th century as the scale of the temple was completed while going through 4 rebuilding processes. And the scale of the temple was completed during the 3rd rebuilding works in the end of the 12th century to inherit the lamp of Dharma, and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temple was closed because of Japanese reinvasion of Korea which broke out in 1597. But afterward, Unjusa Temple was newly built after relocated to the area of Daecho-ri and Yonggang-ri to continue existing until the 19th century; and following a massive scale of rebuilding works from the 19th century and on, the temple has become what it is today. Eventually, Unjusa Temple is believed to be a temple that has continued passing down the lamp of Dharma ever since its foundation.

3. Academic Studies

With academic studies on Unjusa Temple,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Joseon Pagoda (朝鮮塔婆概說)' authored by Mr. Go Yu-Seop in 1932 explored Unjusa Temple under the meaning of esoteric Buddhism, Japanese scholars (野村孝文, 關野貞, 杉山信三) attempted to make approach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ince then,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by Korean scholars, including Choi Mong-ryong, Seong Chun-Gyeong, Cheon Deuk-Yeom, Hwang Ho-Gyun, Kim Hyuk-Jeong, Kang Wu-Bang and Park Gyeong-Sik.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published a report on excavation survey and comprehensive academic survey of Unjusa Temple after organizing the details of excavation surveys executed between 1984 and 1989. Based on these studies, accomplishments were harvested with further approaches to the substance of Unjusa Temple. Key achievements from the past studies can be categorized into 3 issues.

1) Background surrounding foundation of Unjusa Temple: Theories surrounding the foundation of Unjusa Temple include foundation by local powerful families or migrant groups, Maitreya community of cheonmin (the lowest class of people), Inwang Ritual due to Mongolian Invasion and foundation by the Yuan Dynasty.

2) Attributes of Unjusa Temple: A number of views were offered, including Buddhist temple, Taoist temple, esoteric Buddhism temple through roof-end tiles and Mantra Gate discovered from excavation surveys, temple based on feng shui theory, prosperity site of folk belief and autonomous direct of cheonmin (the lowest class of people). But the existence of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formed within the temple site is believed to assure the fact that this site belongs to a Buddhist temple.

3) Foundation period of Unjusa Temple: Various theories have been presented from the foundation by Master Doseon to the early Goryeo Dynasty, early 12th century and early 11th century.

III. Remains and Relics of Unjusa Temple

1. Stone Pagoda

Findings concerning stone pagodas show a total of 30 units: 17 square-shaped pagodas, round-shaped pagodas and 8 pagodas with unknown shape. Their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various types of stone pagodas: Stone pagodas featured with various numbers of layers, diverse flat structures and styles are being built. Especially, egg-shaped pagodas offer unique style.

2) Distinctiveness of stone pagodas arrangement: Construction location of Buddhist pagodas was typically placed in front of the Daeungjeon Hall, but at Unjusa Temple, over 30 units of Buddhist pagodas with various styles in various numbers of layers were arranged at the flat land and halfway up to the valleys. It shows freewheeling styles escaping from the uniformed style of temple arrangement previously established, and such arrangement carries distinctiveness that cannot be found from Buddhist statues in any other countries.

3) Diversity of stylobate styles based on topography: Ever since stone pagodas were built, construction of stylobate became inevitable. But with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ypical stylobate was not built; instead, natural bedrock or a stone block in a single rock chunk was employed for stylobate. Moreover, structural wisdom was displayed as a groove was dug at the upper surface of bedrock to ensure the safe foothold for pagodas during constructions. This style of digging a groove and pinning stone materials has been verified from stone pagodas of Mireuksa temple sites of the Baekje Dynasty, which draws attention to the inheritance of technology established during the previous era.

4) Creation of religious space through arrangement of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The arrangement of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may seem to be in disorder, but it is notable where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are placed in harmony while a small-scaled religious spaces are separately arranged.

5) Stone pagodas in Baekje style confirmed: This fact was verified from various roof stones of stone pagodas, especially from the length of roof support and eave line, formation of gable lines where two roofs cross each other and reversed quarters.

In addition these characteristics, superficial magnificence and technology that can hardly found from other stone pagodas was applied, including double corner stones, supplementary corner stones, special patterns of rhombus (◇, ◆), cross lines (×, ××), vertical lines and folded lines (<, >), decagon cartography and application of golden ratio.

2. Buddhist statues

The number of Buddhist statues verified so far is 101 units, and 62 of them are in a complete shape. Stone Buddhist statu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single ones and groups of statues. Single Buddhist statues are mostly formed in a standing type, but the ones in a group are general in a seated type while standing statues are placed on the left and right as an assistant Buddha; and standing statues can be up to 8 units on the left and right of a seated statue.

Another distinctivenes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would be abstractness and denseness. Abstractness as formative characteristics is displayed as each part of stone Buddha tends to be expressed in a simple manner, and such tendency was found from face, folds in clothes and mudra of stone Buddha. Assumption could be drawn from the above where flat-plated sculpting had to be don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given stone materials which is tuff. Nonetheless,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was not techniques that suddenly emerged, and similar formative characteristics were found from stone Buddhas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areas of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Most of all, the fact that they pursued two issues of large-scale and many stone Buddhas at the same time is deemed a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group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This is believed to be a form of praying house that an individual donor or a group of donors sought after while

fulfilling the faith of BIBO and Thousand Buddha. Accordingly, it is assumed to the reason why gigantic stone Buddhas capable of independent rituals were manifested in a concentrated form at Unjusa Temple.

3. Big Dipper Stone

Astronomical significance that can be found from Unjusa Temple is the most noticeable in Big Dipper Stone. As the constellation in the sky was realized by disc-shaped stone in a form of Big Dipper, it can be viewed as the only constellation megalithic culture in Korea. In addition, it is an important case reflecting not only the faith but also astronomical perspective since the size and placement of each Seven Stat Stone was intentionally in proportion to the outlook grade and distance.

IV. Unjusa Temple as World Cultural Heritage

Buddhist cultural attributes embedded in Unjusa Temple is the fact that construction of this many stone pagodas and Buddhas cannot be found from any other historic remains in Korea. It is why no one doubts that it certainly deserves to be qualified as National Treasures of Korea; however, will it be possible to be recognized of the value of existence as World Cultural Heritage? And will it be possible for everything of Unjusa Temple to gain equivalent positions with the cultural heritages of the world by going beyond the border of Korea?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Examin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cultural heritage to be designated as World Cultural Heritage presented by UNESCO, the subsequent summary is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The speaker believes that Unjusa Temple falls under Criterion I, III and IV and conforms to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in the common subjects.

1) Creativity is embedded in monuments and relics currently existing at Unjusa Temple.

Culture is bound to advance and evolve by going through imitation and dissemination. On the other hand, birth of new culture or style can be the indicator representing the nature and human environment of certain region.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at Unjusa Temple are monuments that just have to exist in any nations where Buddhism is practiced. But the monuments at Unjusa Temple are the ones in which creativity is embedded. The most distinct monument is Lying Buddha.

Subject	Criteria		Example
Cultural Heritage	I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Sydney Opera House, Australia
	II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Church of the Ascension, Kolomenskoye, Russia
	III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Historic City of Ayutthaya, Thailand
	I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Jongmyo Shrine
	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Old Town of Ghadamès, Libya
	VI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recommended to apply together with other criteria)	Hiroshima Peace Memorial, Japan
* All cultural heritages require authenticity (containing original value in materials and techniques)			
Common	Integrity: To possess general elements enough to fully display the value of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system and buffer zone		

Building Buddhist statues is normal practice in a country where Buddhism is practiced, and Buddhist statues in diverse postures are constructed. Lying Buddha was also built during this process, and such examples can be easily found from Ajanta Caves in India to numerous rock cave temples in China and many other nations. But all of those statues are lying on the side and expressed in a single statue. At the same time, disciples and followers in sorrow over the nirvana of Sakyamuni are surrounding the statue. But Lying Buddha at Unjusa Temple shows a complete different style. Two Buddhas are lying on the ground and facing the sky. Moreover, lying Buddhas in other countries have their legs fully stretched, but Lying Buddha at Unjusa Temple displays a unique posture of lotus position. Of course, there is a theory that Lying Buddha at Unjusa Temple is a work in failure unable to be lifted upward, but it was carved on the upper side of neighboring wide natural bedrock. Examining these elements, this statue was not built to be erected; instead, it is believed that Lying Buddha of its own was built by Unjusa Temple facing the sky through utilization of the upper side of wide and flat bedrock. It is because we have to believe that Goryeo people at the time just had to be aware of construction methods and style of lying Buddhas practiced in other countries during the time when lying Buddhas were built. Perhaps, people during the Goryeo Dynasty might have viewed the construction of Buddhist statue as practicing Buddhism rather than taking common approaches to expression of lying Buddha.

2) Tradition of Baekje culture that collapsed in the year 660 thrives through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he beginning of Korean stone pagodas is believed to be stone pagodas at Mireuksa Temple Site and the 5-story stone pagoda at Jeongnimsa Temple Site built during the Baekje Dynasty. But because Baekje collapsed in 660, the culture built by them maintained its existence through mixture with the culture of Silla. But due to cultural restoration movements that began in the Goryeo Dynasty, Baekje culture became popular again within the region under the old territory of Baekje, and such phenomenon can be also found from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It is notable to see the general style shown in the roof stones reenacting the styles implemented in stone pagodas at Mireuksa Temple Site and the 5-story stone pagoda at Jeongnimsa Temple Site.

3) In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all technological prowess of Korea stone architecture is concentrated; and at the same time,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well displayed.

Korea is a country of stone architecture. It is also no exception to India, Greece and China where the culture of stone architecture was far advanced. Bu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ulture of stone architecture developed in each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s of each nation. While sandstone, marble and conglomerate led the culture of stone architecture in India, Greece and China respectively, granite was the focal point in Korea. It is the distinctiveness of Korean stone architecture culture that lasted ever since stone pagodas and Buddhas were built with stone material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is clear distinction from other countries where the culture of stone architecture was develop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natural conditions. Moreover, in cases of stone pagodas, it is evident that traditional stone pagoda culture was in continua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stone pagodas were formatively originated from reenactment of wooden architecture. The same applied to stone Buddhas. Though it was partially verified, it is believed that tradition of stone Buddha sculpture establish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as in continuation when examining Pedestals or Mandorla with Lotus Design engraved and robe of covering mode and mudra with unverified righteous door engraved. In addition, the formativeness displayed by Stone Buddha and Pagoda at Unjusa Temple is an exceptional formation but not the beauty of refined balance. 'Wuhyeon' Go Yu-Seop once defined the distinction of Korean fine arts as "technique in absence of technique, plan in absence of plan, truthful flavor, dull and gentle flavor, pure flavor, non-refinement, disinterestedness and huge pleasant flavor." Diversity and sense of humor verified from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built at Unjusa Temple is interpreted as the outcome of essence of Korean beauty pursued and implemented.

4) It is a fact that Unjusa Temple is a traditional Buddhist temple.

Unjusa Temple is a Buddhist temple where over 30 stone pagodas and 101 stone Buddhas are enshrined. From

the monuments in a number of Asian countries worshipping Buddhism, the notable places concentrated with as many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as Unjusa Temple include Bodh Gaya Temple and Nalanda Monuments in India, Borobudur in Indonesia, Pagoda Forest at Shaolin Temple in China, Angkor Wat in Cambodia and Bagan Monument in Myanmar. But these monuments are in a structure where many divine statues are enshrined to a huge structure, including Buddhist statue, rather than a monument built with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as separate objects. And these monuments have a common denominator that they do not quite represent pure Buddhism but were built in combination of Buddhism and Hinduism. Also from the architectural perspective, it also shares common factors with structures containing multi-angular flat surface verified in the southern region of India, which well displays characteristics southern architectural culture throughout Southeast Asia rather than distinct architectural structures of each country. Pagoda Forest at Shaolin Temple in China has numerous Buddhist pagodas densely constructed at a quiet location within the temple, and since these have Buddhist attributes unlike other countries, they can be a subject to comparison with the stone pagoda groups at Unjusa Temple. But whereas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the ones enshrined with Buddha's relic, those at Shaolin Temple are monk pagodas enshrined with monks' relics. In the end, a complete difference is apparent as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nd Pagoda Forest at Shaolin Temple are Buddhist pagodas and monk pagodas, respectively.

As shown above, it is notable that stone pagodas built at Unjusa Temple demonstrate clear discrepancy from monuments constructed in many countries worshipping Buddhism. Stone Pagodas and Buddhas at Unjusa Temple not only succeed Korean traditional styles as they are but also clearly assume their roles from the religious aspects since each of them was built as an independent unit. Moreover, since Buddhist pagodas and statues constitute independent spaces to worship by forming specific groups, they display an example of religion overcoming the lack of co-realization.

5) Cultural diversity found from Unjusa Temple is not an outside factor but an outcome generated by succession of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ollanam-do.

Based on patterns engraved in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 claim of association with Hinduism or Mongol Ger has been raised. But if rhombic patterns engraved in stone pagodas are from the relief of Hindu Temple, such interpretation could be justified when elements of Hinduism are detected from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But elements of Hinduism cannot be found anywhere from Unjusa Temple. At the same time, though some seeks the origin of Buddhist statues from Mongolian stone sculptures, it is truly difficult to connect each other from the regional and formative aspects because Buddhist statues in such styles have also been found in the Jeollanam-do region. Considering all of these elements, the efforts to identify the styles implemented in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through influences from Hinduism, Mongolia or Yuan Dynasty seem to be excessive leap of logic. Thus, patterns engraved at stone pagodas are believed to be not outside factors but constructional intent of the group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stone pagodas at Unjusa. Interconnectivity between corner stone and supplementary corner stone or between rhombic and X-letter patterns at stone pagodas dynamically generates synergy to emphasize the aspects of complete reenactment of wooden architecture through stone pagodas. Hence, rhombic and X-letter patterns engraved at stone pagodas of Unjusa Temple are believed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will of craftsmen of the time trying to impose stability by granting spatiality to stone pagodas with enhanced the sense of elevation. Also, sense of humor and unconventional characteristics revealed by Buddhist statues are deemed as cultural competence of craftsmen groups apparent in the Jeollanam-do reg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Honam region in Korea is where the second most Buddhist sculptures were constructed, only second to the Gyeongsang region. This phenomenon was maximized during the late years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But from the view of trends in Buddhist culture during this time, sculptures built first in other regions flowed into the Honam region and then elevated their artistic elements to the next level. Some of the most notable examples of this phenomenon are Stupa of Buddhist Monk at Jeok-in Seonsa, Cheolgam Seonsa Pagoda at nearby Ssangbong Temple, Dongbudo at Gurye Yeongoksa Temple and Changseong Pagoda of

Bojoseonsa at Borimsa Temple, and these monk pagodas demonstrated the completed splendid style in addition to further upgraded technique from the previous styles. At the same time, advancements were made into special genre as evidenced in formative exceptionalities found from Dongbudo Stele at Yeongoksa Temple, changes into supplementary materials for lion sculpture to support the trunk appearing in the pedestal of Buddhist statue as shown in the Four Lion Three-story Stone Pagoda at Hwaeomsa Temple and hourglass-drum-shaped stone lantern as seen at stone lantern in front of Gakhwangjeon of Hwaeomsa Temple and stone lantern at Gaeseonsa Temple site changing the entire base platforms. In addition, stone lanterns in double-lion series that completely changed existing styles were built at some regions as evidence in the double-lion stone lantern at Jungheungsanseong Fortress. As discussed above, the Honam region did not simply succeed cultural aspects already completed but created new culture from standardized styles by taking one step further. At the region where novel concepts were created rather than simply relying on imitation and succession, Unjusa Temple was also nested.

From these aspects, various characteristics found from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succeeded diverse distinctiveness identified from Buddhist culture at the Honam region, and it is believed to be the outcome containing artistic sense and knowledge practiced by local craftsmen. Based on such aspects, it is believed that cultural trends and artistic capabilities from the Honam region created Thousand Buddha and Stupa at Unjusa Temple that cannot be found any other Buddhist cultures not only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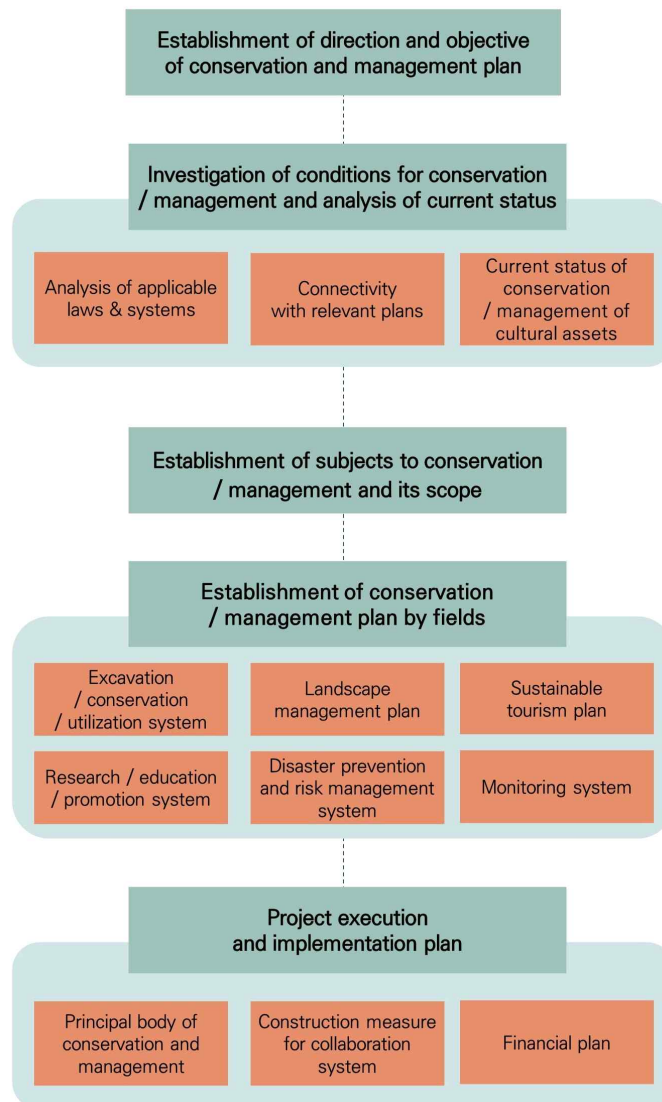
6) Unjusa Temple has long been passing down the lamp of Dharma ever since its foundation through today, and it is a temple where authenticity and integrity can be verified at the same time.

Unjusa Temple is a temple of which substance has been expressly identified based on a number of ancient manuscripts, such as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n Geography of Korea)," a local gazetteer of "Geography of Korea (Dongguk yeojiji)" and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cluding "Joseon Historical Survey Table (Joseon Gojeokdobo)" and black-and-white dry glass plate. Moreover,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temple went through rebuilding works on 4 different occasions since founded in the early 11th century based on excavation surveys. Especially during the third rebuilding era at the end of the 12th century, the scale of the temple was completed, but the temple was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Japanese reinvasion of Korea. Afterward, the site was relocated to the area of Daecho-ri and Yonggang-ri to maintain the presence of the temple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the temple became what it is today after rebuilding works in a massive scale in the 20th century. Examining these aspects, Unjusa Temple has ceaselessly kept passing down the lamp of Dharma without ever holding back.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of Buddhist monuments in a massive scale throughout the Asian region previously mentioned have been mostly ruined, Unjusa Temple can be viewed as a very exceptional case. Based on these facts, Unjusa Temple is a place where powerful viability and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is reassured.

IV. Conclusion

As discussed previously, exceptional culture and value of heritage embedded in Unjusa Temple was verified through numerous stone pagodas and Buddhist statues. And within the immense realm of Buddhism,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heritage was reassured as a complete substance harvested from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exchanges with feng shui theory, Taoism and astronomy.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truly rare to find a monument site where the traces of various exchanges can be found from a single temple, Unjusa Temple is armed with genuinely outstanding values. Furthermore, Buddhist attributes held by various stone relics can be dubbed as a treasure repository of stone monuments that cannot be found from any Buddhist temples in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For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World Cultural Heritage in the future, the follow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needs to be developed and established.



The Digital Reconstruction and Representation of Takht-i-Bahi World Heritage Site

Muhammad Tufail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bstract :

Takht-i-Bahi is a globally significant world heritage site because of its artistic representation of Greco-Buddhism and deep connection to ancient Korea's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o its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site is at risk of extinction due to human-induced threats, including negligence, un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landslides. In the realm of digital heritag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serve a cultural heritage site is to digitally reconstruct and maintain it to ensure its easy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clear representation to a wider audience. In light of this trend, our research team decided to digitally document the site and develop its extended reality (XR) content, enabling digital reconstruction and dissemination. This would allow for an accurate representation and experience of the site in a three-dimensional virtual environment, as well as expand its global audience. We first digitally captured the entire site and then use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XR content creation to turn the site into a museum's immersive content experience. First, we employed a drone camera to digitally record the entire site. Subsequently, we combined VR technology with XR content creation to transform the Takht-i-Bahi heritage site's digital data into an immersive virtual museum content experience. We hope that this will enable potential visitors to actively engage in a VR environment, providing them with the chance to fully immerse themselves in a realistic experience of time and space travel, with the visual representation accurately portraying real-world scenarios of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The Takht-i-Bahi Heritage Site's virtual museum will effectively overcome the typical challenges faced during physical visits by incorporating XR content creation. The Takht-i-Bahi virtual museum's immersive content experience can lead to sustainable outcomes,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physical site and increasing its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n a global scale.

Keywords :

Virtual Reality; Extended Reality content; Virtual Museum; Takht-i-Bahi; Gandhara Art; Cultural Heritage

1. Introduction

In 1980, UNESCO declared Takht-i-Bahi a World Heritage Site. The site offers a glimpse of a Buddhist monastery of great historical importance with its roots in ancient Korean cultural heritage, such as Greco-Buddhist art in the Seokguram Grotto World Heritage Site. In Pakistan's Khyber Pakhtunkhwa province,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is located 80 kilometers from Peshawar City and 16 kilometers northwest of Mardan City. The site lies on the northern slope of a remote spur near Takht-i-Bahi village. It comprises the largest Buddhist remains in the ancient kingdom of Gandhara. The Monastery of Kanishka also bears the name of the great Kushan King, who ruled Gandhara in the 2nd century CE and was renowned for his military, political, and spiritual achievements (Loeschner, 2012).

Takht-i-Bahi is the Gandhara civilization's magnificent religious and ceremonial complex. These glorious endowments evoke a subtle experience that takes one back to the times when hundreds of Buddhists would gather to offer their religious services in the most serene environment. The majority of people believe that 'Takht' means the throne and 'Bahi' means water or spring in the Persian language. The combined meanings of 'Takht' and 'Bahi' suggest that the monastery's name, Takht-i-Bahi, originates from its location at the summit of a mountain, adjacent to a stream. The Buddhist monastic complex of Takht-i-Bahi was founded in the early 1st century (Cornish, 1995). Takht-i-Bahi was in continual use until the 7th century A.D. The construction of Takht-i-Bahi, an assemblage of buildings, followed Gandhara patterns, using locally dressed and semi-dressed stone blocks set in a lime and mud mortar. Today, the ruins comprise a main stupa court, a votive stupa court, a group of three stupas, the monastic quadrangle with meditation cells, conference halls, covered stepped passageways, and other material buildings. [Figure 1]



[Figure1] Aerial view of the Takht-i-Bahi cultural heritage site

The Buddhist ruins at Takht-i-Bahi exemplify the evolution of monastic and urban societies in the Gandhara region from the 1st to the 7th centuries AD (Cornish, 1996). These ruins are notable for their architectural form, design, and concentration techniques. Takht-i-Bahi remains in its original hilltop site, preserving its highly authentic environment. Takht-i-Bahi has maintained the originality of its form and design, and the arrangement of the monastic complex and structures accurately represents the genuineness of the materials, traditions, and construction methods used in Gandhara patterns. The Peshawar Museum acquired the stone sculptures, while the Lahore Museum in Pakistan conserved the Gondophares' stone inscription. The Takht-i-Bahi monastery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in the 2nd and 3rd century CE, under the rule of Parthian King Godophares (Cornish, 1995). In 1836, the initial excavation occurred, resulting in the discovery of a multitude of artifacts, including coins from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270 statues made from clay, stucco, and terracotta. The majority of the statues are currently shown at the Peshawar Museum, which houses the

most extensive assortment of artifacts from the old Buddhist civilization. Xuanzang, a Chinese monk-pilgrim who lived from 602 to 646, discovered the remarkable archeological site by studying the existing trip records on his tour through greater India in pursuit of Buddhist texts (Wriggins, 2020). Nevertheless, the primary stupa of the site, which was the largest and most impressive he had ever witnessed, seems to have already experienced deterioration even during Xuanzang's day.

The first recorded reference to the place in contemporary times was made by General Court, a French officer serving Maharaja Ranjit Singh (1780–1839), in 1836, as previously stated. Dr. Henry Walter Bellew undertook an archaeological study of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in 1864 (Michon, 2015). This survey resulted in a series of excavations. Harold Hargreaves later did research on the site from 1910 to 1911 (Guha, 2010). Sir John Marshall, the director-general of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from 1902 to 1931, posited that the emergence of high-walled monasteries in the Gandhara reg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1st century CE (Lidu, 2019).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Museums in Peshawar has conducted recent studies indicating that the site evolved into a Buddhist monastery complex during the 1st century BCE and this development began under the rule of Gondophares I, a Parthian ruler who reigned from approximately 20 BCE to 10 BCE (Morris, 2020). The site's transformation continued during the reigns of Kanishka I, an emperor of the Kushan Empire who ruled from 127 to 51, as well as Kanishka III and Vasudeva II, who were later kings of the Kushan Empire (Benjamin, 2020). The department has categorized the construction into four discrete periods based on its structure. The stupa court, consisting of a group of stupas located in a central courtyard, as well as the monastery, kitchen, and refectory, were built between the 1st century BCE and the 2nd century CE (Kim, 2011). The second phase, occurring during the 3rd–4th century, is thought to encompass the primary stupa court and assembly hall. The third phase, which corresponds to the 4th and 5th centuries, is believed to encompass the presence of a triad of stupas in the court. The fourth phase, which took place around the 6th–7th century, is associated with the tantric complex. Guand-da et al. (1996) stated that the Hephthalites or White Huns (408–670) from Central Asia were mostly responsible for the destruction of Buddhist monasteries in Gandhara, notably Takht-i-Bahi. The design of the monastery complex is quite remarkable, particularly the arrangement of minor shrines encircling the main stupa court, which is particularly noteworthy.

Besides its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site is in danger of extinction from natural forces and human-induced threats, such as earthquakes, unsustainable tourism, and negligence (Tufail et al., 2022; Jinho et al., 2014). Therefore, it is crucial to digitally reconstruct the site, preserve it digitally, and develop its XR content to enhance its 3D representa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Moreover,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is a significant world heritage, and its association with an ancient Korean cultural heritage is another crucial motive for its digital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XR encompasses a variety of new media technologies, including augmented reality (AR), virtual reality (VR), and mixed reality (MR). These technologies enable us to create more engaging and significant experiences, as well as interact with diverse audiences with different needs and expectations (Silva and Teixeira, 2021). The XR content thus includes both the physical and virtual spaces, fostering enhanced cultural experiences and enabling wide audiences to virtually explore significant cultural assets and deeply engage with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importance (Margetis et al., 2020).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virtual museum and XR content for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to create a detailed experiential space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physical world and virtual reality. First, we chose the stupa in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amidst the Gandhara ruins, as the primary site for digital restoration because of its pioneering role in merging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Furthermore, the Gandhara stupas in present-day Pakistan demonstrate the evolution of Asian stupas before they spread to India, China, and Korea. Therefore, we chose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and its stupa as the focal point for digital restoration, given its inclusion in the Asia Stupa Road, a concept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Asian countries possess stupas.[Figure 2] Second, we transformed the data acquired from the scanning of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into virtual reality content and replicated its original architecture in a virtual space. The VR content in the Takht-i-Bahi heritage site's virtual museum aimed to allow visitors to learn about one of the Asian stupas' historical origins and development process. Additionally, visitors can engage in a virtual reconstruction of the lost Takht-i-Bahi stu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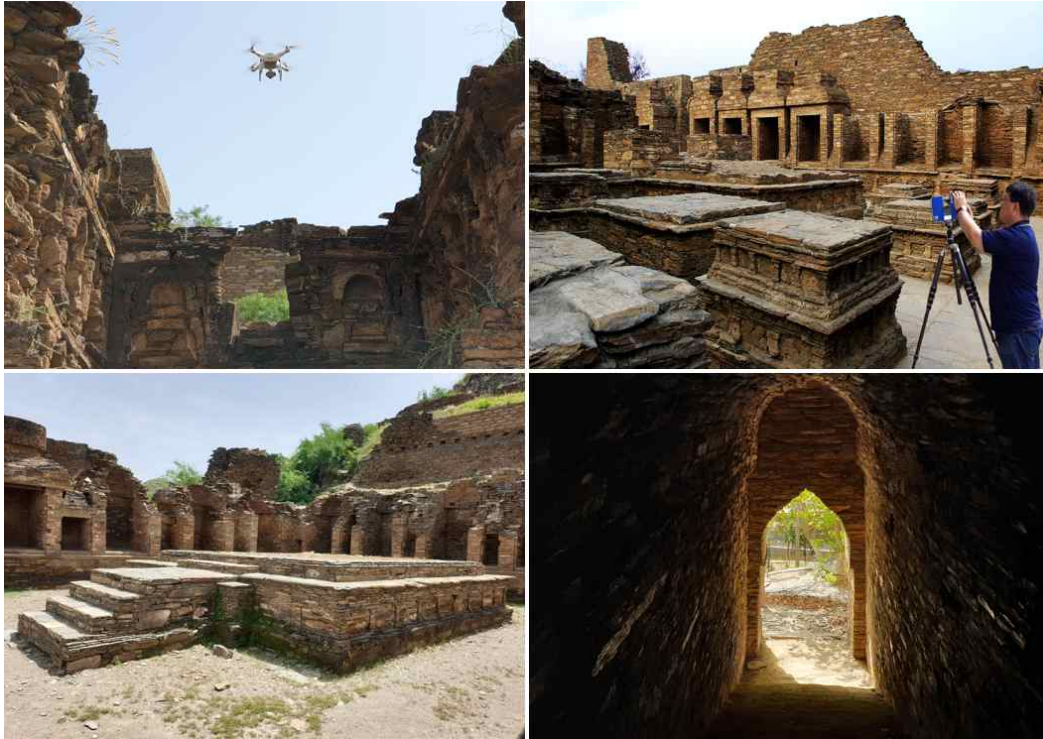
[Figure 2] Asia Stupa concept road from India to Korea and Japan

II. Digital Reconstruction and Presentation of Takht-i-Bahi Heritage Site

1. Site visit and observation

Our research team conducted a one-week visit to the Takht-i-Bahi Cultural Heritage Site in April 2019, to examine and analyze its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presence of multiple archaeological layers at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indicates the intricate history of its development and growth. The aforementioned structures, along with numerous more single and double-story material buildings discovered during excavation, are constructed from local or semi-dressed stone blocks with flakes, following the Gandharan diaper-masonry style. These stones are put in lime and mud mortar. The site serves as an excellent repository of historical knowledge for Buddhists.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t the site is exceptionally abundant. A multitude of Gandharan sculptural artifacts have been unearthed, comprising both complete statues and broken pieces made of unfired clay, plaster, and terracotta. A significant number of the figures feature miniature cavities designed for attach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clay bodies and heads. Stucco figures retrieved from the site are also on display in other European museums. The history of the Gandhara civilization can be observed in several archaeological sites located in Taxila, Swat, and other regions of the current Khyber Pakhtunkhwa Province in Pakistan. What sets Takht-i-Bahi apart from other sites is its varied architecture and peaceful mountain location. The main Stupa is surrounded by minor shrines that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ve design and arrangement, making them the most notable feature. The aesthetic magnificence and grandeur of this extraordinary edifice are unrivaled among Buddhist historical landmarks.

The Gandhara civilization served as both a focal point for Buddhism and a center for the renowned Gandhara art and culture. Buddhist arts and culture originated in that area and spread as a religious influence throughout the Far East, including Japan, Korea, China, Java, and other regions. Therefore, the history of Buddhism represents a bygone era of great significance, which will never be repeated. However, its influence remain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and culture, and its contributions are immeasurable. Buddhist civilization will continue to preserve its beauty for everybody, like a guiding light, at the archeological site of Gandhara, which still retains its historical significance. Figure 3 illustrates the multitude of archaeological layer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site.



[Figure 3] Takht-i-Bahi main temple site with its archeological layers with its stone construction

2. Digital docu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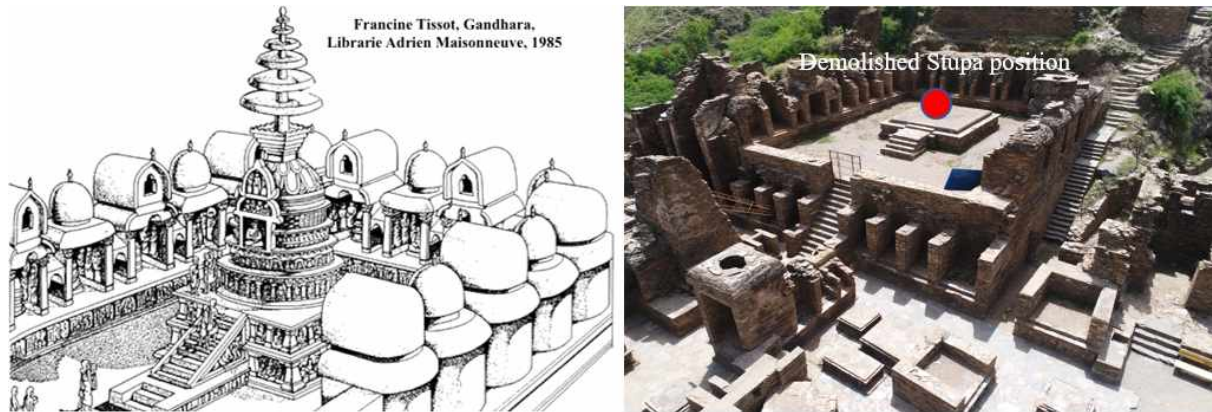
Upon investigating the digital documentation scenario, we discovered that the site's elevated position on the mountains presented challenges in effectively capturing it using 3D scanners (See Figure 4). Hence, we employed a drone fitted with 4K UHD cameras to get detailed images of the delicate features of the Takht-i-Bahi ruins. We employed digital recording techniques to capture the present state of the ruins and endeavored to reconstruct their original appearance, which has been lost, within a virtual setting. Initially, we conducted a comprehensive 3D recording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akht-i-Bahi cultural site in order to obtain the essential data for the 3D digital restoration and generation of XR content. The data-collecting approach employed was highly efficient in digitizing the Takht-i-Bahi ruins. The utilization of this data collection method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digitizing the Takht-i-Bahi ruins.



[Figure 4] Aerial view of the Buddhist ruins of Takht-i-Bahi

3. Digital reconstruction

We conducted digital reconstruction on the stupa located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Takht-i-Bahi cultural site. More precisely, we restored the parts of the stupa that were previously absent by utilizing the data provided by local experts in archaeology and the extensive research conducted by international scholars on Takht-i-Bahi stupas and their origins (Marshall, 2000; Cornish, 1996).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excavations at the Gandharan monastery site, Tissot (1985) concluded that the main stupa at the Takht-i-Bahi site is likely similar to the Loriyan Tangai stupa but significantly taller, standing three floors high.[Figure 5]



[Figure 5] The main stupa in the court of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from the illustration of Tissot (1985)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initial phase of scenario planning, digital restoration, and scanning, the subsequent step entailed the creation of 3D models utilizing computer graphic technolog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we utilized the advanced technology of Pixologic Zbrush to enhance the image to a superior degree of quality by increasing the polygon count. In addition, we employed a substance to generate a surface quality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s of physically based rendering (PBR). The temple and Stupa were enhanced using visual effects (VFX) to achieve a lifelike depiction.[Figure 6]



[Figure 6] Digital reconstruction and 3D modeling of the main stupa in the court of Takht-i-Bahi Heritag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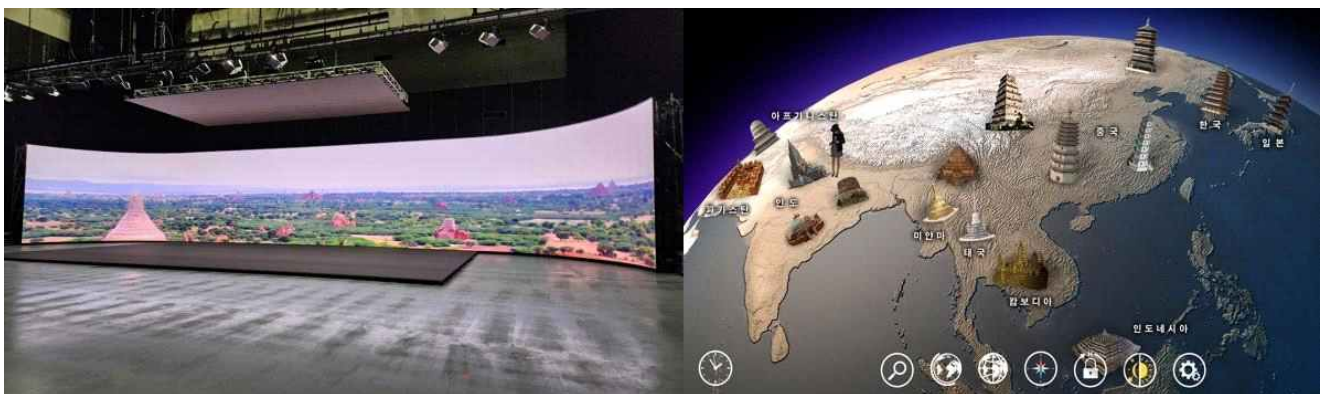
4. Digital Presentation and Dissemination

We utilized XR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immersive exploration of historical Buddhist stupas development from India to Korea. We designed a room dedicated to providing a VR/XR experience in Gwangju, Korea. This technology utilizes room-scale virtual reality to accurately replicate the setting of the Takht-i-Bahi temple and create an immersive VR experience.[Figure 7] We integrated AI digital avatars into this VR environment. We postulated that Hyecho, a Buddhist monk hailing from the Silla dynasty who was actively engaged in the 8th century AD, visited the Takht-i-Bahi heritage site. Through our presence as an AI digital human in VR space, the VR space of the Takht-i-Bahi temple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time and place. Visitors can experience the Hyecho digital avatar at the Takht-i-Bahi Temple, and it can also provide guided VR/XR-based digital tours to the Takht-i-Bahi Temple.



[Figure 7] Room-scale VR-Experience of the Takht-i-Bahi temple

Virtual reality (VR) and extended reality (XR) are the two types of display technology that express the digital restoration of the Takht-i-Bahi Temple. The VR case allows visitors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Takht-i-Bahi Temple using a Head-Mounted Display (HMD). On the other hand, the XR case integrates the Takht-i-Bahi Temple into a virtual pro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media wall. Visitors get the opportunity to not only see the Takht-i-Bahi Temple but also to learn abou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tupas from India to Korea through the XR Experience.[Figure 8] In the current immersive VR experience, VR is a fully engaging experience designed for one individual, but XR is a display that can be shared and experienced by numerous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Figure 8] XR-Experience of the Takht-i-Bahi temple an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tupas from India to Korea

III.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hibit the Takht-i-Bahi cultural heritage site in a museum's immersive content experience using VR technology. Visitors can fully engage in the VR environment, allowing them to feel as if they have been transported to different times and faraway places, while accurately depicting their original con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digital human technology replicates certain individuals from historical periods. The system can produce hybrid information that combines historical locations and historical individuals. AI technology facilitates the precise reproduction of historical space, creating the perception that it exists in the current moment. As a result, VR technology can accurately recreate any place from any point in human history, while AI can accurately replicate any person from the past. These components can be employed in different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globally. AI technology is anticipated to transform the museum experience, resulting in a more dynamic and interactive exhibition format. Our goal was to develop VR and XR material for the Takht-i-Bahi virtual museum, intending to create an immersive environment that combines the physical world with virtual reality.

Currentl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VR), generally concentrate on delivering information and digitally reconstructing experiences. XR content technology encompasses a range of developing technologies, including VR, AR, simulations, holograms, and other digital tools and applications. These technologies can change our perception of the real world in different ways, distinguishing them from standard VR. These technologies stimulate our visual, auditory, and tactile senses, leading to a condition of full immersion in our digital environment. This is achievab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digital avatars within the virtual Takht-i-Bahi museum. The virtual reality experience offers a first-person perspective by utilizing a head-mounted display and showing various scenarios with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Nevertheless, XR surpasses virtual reality in terms of breadth as it enables users to interact with others employing avatars. Thus, by utilizing the XR virtual environment, the virtual museum dedicated to the Takht-i-Bahi cultural site will effectively overcom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physically visiting the site.

The future outlook for 3D re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s extremely promising, as the application of this approach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is currently undergoing a substantial increase. Many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have adopted these methods. As holographic displays, head-mounted displays, ubiquitous displays with AI, and immersive XR content technologies advance, we anticipate a growth in the utilization of digital representation and 3D rendering in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References

- Benjamin, C. (2020). The Kushan Empire. *The Oxford World History of Empire: Volume Two: The History of Empires*, 325.
- Cornish, S. (1995). A study of Takht-i-Bahi (A Gandharan Buddhist Site in the North West Pakistan).
- Cornish, S. (1996). A Study of Takht-i-Bahi (A Gandharan Buddhist Site in the North West Pakistan) Part II.
- Guand-da, Z., Litvinsky, B., & Shabani Samghabadi, R. (1996).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The Crossroads of Civilization: AD 250 to 750 (Vol. 3)*. UNESCO Publishing.
- Guha, S. (2010). Archaeology, photography, histories. *The Marshall Albums: Photography and Archaeology*, 10-67.
- Kim, Y. J. (2011). Evolution, Transformation, and Representation in Buddhist Architecture: The Square Shrines of Buddhist Monasteries in Central Asia after the fourth century. *Architectural research*, 13(4), 31-42.
- Lidu, J. Y. (2019, March). Cross-cultural Buddhist monastery ruins on the Silk Road and beyond: the layout and function of Buddhist monasteries reconsidered. In *The Global Connections of Gandhāran Art: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Gandhāra Connections Project*, University of Oxford, 18th (p. 207).
- Loeschner, H. (2012). Kanishka in Context with the Historical Buddha and Kushan Chronology. *Glory of the Kushans-Recent Discoveries and Interpretations*, 137-194.
- Margetis, G., Apostolakis, K. C., Ntoa, S., Papagiannakis, G., & Stephanidis, C. (2020). X-reality museums: unifying

- the virtual and real world towards realistic virtual museums. *Applied Sciences*, 11(1), 338.
- Marshall, J. (2000). *The Buddhist art of Gandhara: The story of the early school; its birth, growth and decline*.
- Michon, D. (2015). *Archaeology and religion in early Northwest India: history, theory, practice*. Routledge India.
- Morris, L. (2020). Central Asian Empires. *Handbook of ancient Afro-Eurasian economies*, 1, 53-93.
- Park, J. H., Muhammad, T., & Jae-Hong, A. (2014, December). The 3d reconstruction and visualization of seokguram grotto world heritage site. In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Systems & Multimedia (VSMM)* (pp. 180-183). IEEE.
- Silva, M., & Teixeira, L. (2021, December). eXtended Reality (XR) experiences in museums for cultural heritage: A systematic review.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echnologies for Interactive Entertainment* (pp. 58-79).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Tissot, F. (1985). *Gandhara-La Vie Publique et privée dans l'Inde ancienne*.
- Tufail, M., Park, J., Kim, H., Kim, S., Kim, K., & Lee, J. H. (2022). How do visitors perceive the significance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a 3D reconstructed immersive visual experience at the Seokguram Grotto, South Korea?.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7(4), 409-430.
- Wriggins, S. (2020). *Xuanzang: A Buddhist Pilgrim on the Silk Road*. Routledge.

Directionality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East Asia and Comparison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LEE, Sook-Hee

Cultural Heritage Appraiser/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 Preface

With regard to World Heritag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as well as China and Japan, 61 World Heritage Sites in China, 22 sites in Japan and 16 sites in Korea are currently being designated. China, Japan and Korea began their registrations since 1987, 1993 and 1995, respectively. As evidenced above, East Asia relatively fell behind Western states, when it comes to start engaging in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and awareness of Eastern Buddhist culture also needs to be reexamined because the value interpretation has been long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culture.

Looking into Buddhist heritage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there are 48 sites in 14 nations, meaning that the sites are concentrated in the Asian region which falls under the influential sphere of the Buddhist culture. That is, designations have been represented by in the order of 15 sites in China, 6 sites in Japan, 5 sites in Korea, 5 sites in India and 4 sites in Sri Lanka. Since Buddhism has been known to be a representative religion in Asia for a long time, the Buddhism is featured in diverse forms as part of palaces, royal residence districts and major landscape areas, and the sites are also in various shapes since they have been designated as serial nomination together with similar heritage sites. After the Kathmandu Valley in Nepal was first designated in the 1970s, over 10 Buddhist World Heritage Sites in Southwest Asia have been designated in the 1980s. Coming into the 1990s, the East Asian region, including China, Korea and Japan, began pushing forward to fully make their presence in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hich led to the soaring number of designations, but the number of designations is now in decline after remaining sustained during the 2000s. The fact that serial nomination properties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luded in the List, including the Baekje Historic Areas and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The Ancient Town of Si Thep and its Associated Dvaravati Monuments bring a significant meaning in association with the trends surrounding designations of Buddhist World Heritage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nscribed in the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in 2017 was identified as a temple which was founded in the early years of Goryeo Dynasty, near the end of the 10th century, and continued to exist until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by the excavation investigations implemented on 4 different occasions during the 1990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armed with the unprecedented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f which comparable cases can hardly be foun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East Asian region, because of their diverse shapes and distinct sense of formativeness manifesting through combination of Buddhism and Taoism of folk belief.

Temples and ruins of Hinduism, Islam, Christianity and Zoroastrianism in addition to Buddhism have bee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the Asian region; however,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urrently in the pursuit of being designated, we need to

examine by narrowing the scope down to Buddhist heritage sites in East Asia. First of all, we focused on organizing whether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of China, Korea and Japan satisfy the propriety, authenticity, integrity, and criteria. Subsequently, as a strategy for successful designation, we compared and examined the feasibility of distinctiveness and universal valu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Based on the above, we attempted to come up with interpretations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valu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represents multi-faceted legacy through convergence of various religions and cultures, which ultimately aims to evaluate whether it is equipped with the universality and distinctiveness to be designated to the World Heritage.

II. Current Status and Directionality of Buddhist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means the heritage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recognized of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o be protected for the entire humankind pursuant to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hereafter) (1972).”

Examining the World Heritages by regions and types, 103 cases of World Heritage are designated in the African region (56 cultural, 42 natural and 5 mixed properties), which presents relatively higher number of natural heritages than other regions. In the Arabic region, 93 cases of heritages are designated (84 cultural, 6 natural and 3 mixed), followed by 289 cases of heritages (205 cultural, 72 natural and 12 mixed)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565 cases of heritages (485 cultural, 69 natural and 11 mixed) in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regions. Especially,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regions account for far more number of World Heritages,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s, 149 cases of heritages (103 cultural, 38 natural and 8 mixed) are designated.

Delving into Buddhist World Heritage by regions, 14 cases are designated in the Southwest Asian region, including India, Nepal, Sri Lanka, Bangladesh and Pakistan while 8 cases are designat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Thailand, Myanmar and Indonesia. On the other hand, 26 cases are designated in the East Asian region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ccounts for 54.0% of the entire heritages, responsible for most of Buddhist World Heritages. [Table 1] In particular, it is because Buddhism was evolved into various denominations through convergence with the nature worship thoughts and Taoism while a massive scale of temples were built together with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at the State level after Buddhism was chosen to be the powerful national ideology.

Region	Nation	No. of Heritage	Total (48 cases)
Southwest Asia	India	4	14
	Sri Lanka	4	
	Nepal	2	
	Pakistan	2	
	Afghanistan	1	
	Bangladesh	1	
Southeast Asia	Thailand	3	8
	Myanmar	2	
	Indonesia	1	
	Cambodia	1	
	Laos	1	
East Asia	China	15	26
	Japan	6	
	Korea	5	

[Table 1] Current Designations of Buddhist World Heritages by Regions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carry significant values and meanings as an assembly of cultural arts of the given era in addition to the roles of sacred sites embedded with distinguished spiritual significance for the nation and race concerned. For instance, China demonstrates the nature worship thoughts and powerful Confucian and Taoistic features based on early Buddhism in forms of stone caves (Mogao Caves, Longmen Grottoes, Yungang Grottoes, etc.), gardens in various regions and mountains of structures (Mount Taishan, Mount Huangshan, Mount Wutai, etc.). Korea is distinctively characterized with traditional culture of religious heritages based on Buddhism and Confucianism since Buddhism was the state religion of Goryeo Dynasty, followed by the Confucianism reverence policies of Joseon Dynasty. On the other hand, Japan, influenced by its natural environments being islands, is featured with religious heritages which were formed through assembly of nature worship thoughts, ethnic religion of Shinto and foreign religion of Buddhism.

As described above,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have a common denominator of Buddhism originated from India; however, each nation developed and formed independent Buddhist cultures of their own depending on their history, natural environments and indigenous faiths. It means that if these nations share the directions for designation of Buddhist World Heritages in East Asia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rather than pursuing their own national contex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as Buddhist World Heritages will become further conspicuous.

III. Designation Criteria and Main Focus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East Asia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China

China first had 5 cultural sites, such as Mogao Caves, the Great Wall, Mausoleum of the First Qin Emperor, Imperial Palace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n Beijing and Shenyang and Summer Palace, an Imperial Garden in Beijing, and 1 natural sites of Mount Taisha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1987. Currently, the country holds a total of 57 World Heritages, including 39 cultural heritages, 14 natural heritages and 4 mixed heritages. The capital and tombs of the ancient Goguryeo, which once ruled the northern region of China, are also designated in 2004 and included in the list.

From the cultural heritages, Buddhist heritages account for 26.3% of all with 15 cases.[Table 2]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criteria, Criterion of (ii) and (iii) were applied the most. Criterion (i) prescribes,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which Mogao Caves, Dazu Rock Carvings, Longmen Grottoes and Yungang Grottoes fall under. Mount Taishan and 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Lhasa are also almost unprecedented Buddhist heritages. Criterion (ii) and (iii) prescribe heritages which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represent unique or exceptional cases, which most of Buddhist heritages fall under. In addition to Buddhist caves, there are 10 cases of Lushan National Park, Ancient City of Ping Yao, Mount Wutai,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and Silk Roads.

Criterion (iv) specifies outstanding examples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Criterion (v) represents Mogao Caves, Mount Taishan and Silk Roads that demonstrates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Criterion (vi) means heritages which ar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where heritages in combination of Taoism and Confucianism, including 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Lhasa, Lushan National Park and 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in addition to Buddhist Cave. Notably, 3 cases of Mount Taishan, Mount Huangshan and Mount Emei Scenic Area, including Leshan Giant Buddha Scenic Area were designated as Criterion (vii)

through (x)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natural heritages, in addition to Criterion (i) through (vi). As described above, it is rare to see the cases of mixed heritages fulfill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s.

Buddhist heritages in China include a number of remains formed through creative activities of humans under the ideological influence from Confucianism and Taoism. After all, Confucianism and Taoism are originated from China and have been assimilated into the daily life and lifestyle of Chinese people together with Buddhism. Accordingly, China has heritages in combination of Buddhism and Taoism or Buddhism and Confucianism, and even has heritages into which all three converged.

No.	Buddhist Heritage	Religion	Selection Criteria	Year of Designation
1	Mogao Cave	Buddhism	i ii iii iv v vi	1987
2	Mount Taishan	Buddhism, Taoism	i ii iii iv v vi vii	1987
3	Mount Huangshan	Buddhism	ii vii x	1990
4	Mountain Resort and its Outlying Temples, Chengde	Buddhism, Tibetan Buddhism	ii iv	1994
5	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Lhasa	Tibetan Buddhism	i iv vi	1994
6	Mount Emei Scenic Area, including Leshan Giant Buddha Scenic Area	Buddhism	iv vi x	1996
7	Lushan National Park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ii iii iv vi	1996
8	Ancient City of Ping Yao	Buddhism	ii iii iv	1997
9	Dazu Rock Carvings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i ii iii	1999
10	Longmen Grottoes	Buddhism	i ii iii	2000
11	Yungang Grottoes	Buddhism	i ii iii iv	2001
12	Mount Wutai	Buddhism, Confucianism	ii iii iv vi	2009
13	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Buddhism	iii vi	2010
14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Buddhism	ii iii vi	2012
15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	Buddhism	ii iii v vi	2014

[Table 2] Information on Buddhist World Heritages in China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Korea

In Korea 3 cases of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Jongmyo Shrine and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were first designated as World Heritages in 1995. Subsequently, the following 13 cases in total we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s: 2 cases of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and Hwaseong Fortress in 1997, 2 cases of Gyeongju Historic Areas and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in 2000, 1 case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in 2007, 1 case of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n 2009, 1 case of 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in 2010, 1 case of Namhansanseong in 2014, 1 case of Baekje Historic Areas in 2015, 1 case of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in 2018, 1 case of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 2019 and 1 case of Getbol, Korean Tidal Flats in 2021. And as 1 case of Gaya Tumuli was added in 2023, Korea now has a total of 16 cases of World Heritages. In North Korea, a total of 2 cases of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and Complex of Koguryo Tombs are currently designated as World Heritages.

The ratio of cultural heritages is high in Korea. Based on the types of heritages, Buddhism and

Confucianism-related religious heritages account for 9 cases which are responsible for 56.2% of all 16 cases. Those 9 religious heritages consist of 4 cases of Confucianism heritages and 5 cases of Buddhist heritage. For Buddhist heritages, there are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Gyeongju Historic Areas and Baekje Historic Areas (Gongju, Buyeo and Iksan), and in recent years,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Tongdosa, Bongjeongsa, Buseoksa, Beopjusa, Magoksa, Seonamsa and Daeheungsa) was designated as serial properties.[Table 3]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designated in 1995 was constructed in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of the 15th century, and this single-story wooden building designed to preserve the woodblocks and still maintains its original shape as construct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t falls under Criterion (iv) and (vi) of the selection criteria, well demonstrating the advancement processes in human history, and it represents the heritage associated with universal significance and thoughts as well as inherited traditions as religious heritage.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selected pursuant to Criterion (i) and (iv) are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sculptures represent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of the 8th Century, and are touted as the masterpiece fully illustrating the essence of Korean ancient Buddhist arts. Most of all, Seokguram Grotto is armed with superb technology and perfect aesthetic quality throughout architecture, spatial structure and Buddhist sculpture. Gyeongju Historic Areas and Baekje Historic Areas share a common denominator in Criterion (ii) and (iii) as this heritage contains all of palace, ancient tomb and fortress in addition to temple site. They are featured with ruins and relics associated with Buddhism, centered around Gyeongju, Buyeo, Gongju and Iksan, ancients of Silla and Baekje.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designated in 2018 is a serial property comprised of 7 temples of Tongdosa, Bongjeongsa, Buseoksa, Beopjusa, Magoksa, Seonamsa and Daeheungsa. It is equipped with functions of monasteries where Buddhist monks and worshippers maintain their daily lives while practicing their faith and asceticism. It is a representative case for intermonatane Buddhist temples testifying a rich history, falling under Criterion (iii) of the selection criteria.

No	Buddhist Heritages	Religion	Criteria	Year
1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i>Tripitaka Koreana</i> Woodblocks	Buddhism	iv vi	1995
2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Buddhism	i iv	1995
3	Gyeongju Historic Areas	Buddhism	ii iii	2000
4	Baekje Historic Areas	Buddhism	ii iii	2015
5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Buddhism	iii	2018

[Table3] Buddhist World Heritages in Korea

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Japan

Today, there are a total of 25 cases of World Heritages in Japan, consisting of 20 cultural heritages and 5 natural heritages but no mixed heritage.

There are a total of 6 cases of Buddhist heritages in Japan, including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and Ancient Nara, Shrines and Temples of Nikko,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and Hiraizumi, which represents 24.0% of the entire 25 cases. [Table4] Aside from the above, if 10 cases of monuments and historic sites, falling under the religious building structure group, are added, the number of Japanese Buddhist Heritages reaches 10, and it sums up as over half of Japanese World Heritages are religious heritages.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the first ever designated in Japan, are comprised of 48 Buddhist temples, which was constructed by Prince Shotoku during the Asuka period in the 7th Century but burned down once and rebuilt in the early 8th Century. This heritage satisfies 4 requirements of Criterion (i), (ii), (iii) and (iv). While Horyu-ji is filled with numerous wooden building structures symbolizing Asuka period as well as each of other periods, they are one of the oldest examples demonstrating architectural styles during Six Dynasties of China and wooden architectural techniques of Baekje Dynasty.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consist of seventeen shrines and temples that are situated in Kyoto and Uji Cities in Kyoto Prefecture and Otsu City in Shiga Prefecture. They fall under Criterion (ii) and (iv) of the selection criteria. Kyoto is the focal point illustrating the developmental processes in Buddhist architecture, general architecture and garden design between the 8th and 17th centuries.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correspond to Criterion (ii), (iii), (iv) and (vi), featured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integrated with temples influenced by Buddhist cultures of China and Korea and Shinto, Japanese national religion. Especially, temples in Horyu-ji Area and Nara are the oldest wooden building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Baekje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times and substances. Also, Buddhist sculptures in earlier times of Japan are compared to the style of Buddhist statues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of Korea, and such period coincides with the time when cultural exchanges with the Tang Dynasty of China began.

Criterion (iv) and (vi) commonly apply to Shrines and Temples of Nikko and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and they exhibit advancement and exchanges of religious cultures in East Asia through assembly of foreign religion of Buddhism and ethnic religion of Shinto. Characteristics of Japanese Buddhism can be summarized as Buddhist culture was formed through convergence of nature worship thoughts and ethnic religion of Shinto.

Hiraizumi - 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 Pure Land represent Zen Buddhism temples aiming to realize the pure land ideology in the real world through supports from powerful local families in the 11th Century. They are temples in distinct forms where Japanese indigenous nature worship thoughts and Buddhism are converged, and this is a unique and only case where the archaeological sites (temple sites) a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without actual wooden architectural structures in the present time.

No	Buddhist Heritages	Religion	Criteria	Year
1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Buddhism	i ii iii iv	1993
2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Buddhism	ii iv	1994
3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Shinto Buddhism	ii iii iv vi	1998
4	Shrines and Temples of Nikko	Shinto, Buddhism	i iv vi	1999
5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Shinto, Buddhism	ii iii iv vi	2004
6	Hiraizumi - 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 Pure Land	B u d d h i s m , Shinto	ii vi	2011

[Table4] Buddhist World Heritages in Japan

IV. Comparison between Buddhist Heritage in East Asia and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With respect to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urrently in process of being designated, it is difficult not only to make comparisons and contemplations but also to find any comparable Buddhist statues or pagodas even in iconic perspectives because of diverse and distinct sense of formativeness of the site. Moreover, because the elements of esoteric Buddhism and Taoism other than Buddhism are strongly reflected, it is quite noteworthy that 'Seven Star Stone' associated with constellation still remains. From these perspectives, it is truly meaningful and significant to compare and examine the cases of designation of Buddhist World Heritages in order to meticulousl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in 2017 based on Criterion (i), (iii) and (iv)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laim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facts that it is a temple that was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Goryeo Dynasty, continued to exist through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created Stone Buddhas and Pagodas in distinct shapes through assembly of various religions and cultures, such as feng shui theory, Buddhism, esoteric Buddhism, Taoism and astronomy. Furthermore, Thousand Buddha and Stupa displaying abstract aesthetic quality and innovative clustering attributes carries outstanding values from the fact that it is not only rare but unique example from Buddhist heritages in Korea as well as in Asia.

With respect to Buddhist World Heritages designated from 1979 through 1993, Criterion (ii) and (iii) applied the most often. But since 1990, as Criterion (i) of the selection criteria began strictly applying to the masterpieces representing human creative genius, the ratio of application of Criterion (iii) has increased. In fact, most of Buddhist heritages designated between 1994 and 2005 satisfied Criterion (iii), and these trends became a notable factor to increase the number of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Also, after Criterion (iii) was amended to include current civilizations in addition to vanished civilizations since 1994, the Criterion now prescribes,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Consequently, increases have been evident in the heritages fulfilling Criterion (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together with Criterion (iii). Based on these trends, it is inevitable that the significance of Buddhist heritages as World Heritage is now highly touted more than ever.

Accordingly, we need to contemplate the valu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and also need to engage in multi-faceted examinations into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innate with similar attribut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trends concerning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Taking China for example, China has a number of Buddhist World Heritages fulfilling Criterion (iii) of the selection criteria, including Mogao Caves, Mount Taishan, Ancient City of Ping Yao, Dazu Rock Carvings, Longmen Grottoes, Yungang Grottoes, Mount Wutai, 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and Silk Roads (Chang'an-Tianshan Corridor). In Korea, Gyeongju Historic Areas, Baekje Historic Areas and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fall under this category, and the same goes to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and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in Japan. As discussed, Buddhist heritages in East Area commonly contain the selection criteria under Criterion (iii) just as Buddhist World Heritages.

But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riterion (i) and (iv) of the selection criteria aside from Criterion (iii) apply. Under these criteria, there is no comparable subject from Buddhist heritages in Korea, but it can be found from Mogao Caves of Buddhism, Yungang Grottoes and Mount Taishan in China as well as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in Japan. To expand throughout Asian regions, we can include Buddhist Monuments at Sanchi and Mahabodhi Temple Complex at Bodhi Gaya in India, Angkor

in Cambodia and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in Afghanistan.

Based on these selection criteria, Criterion (iii) can be deemed as a common requirement for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however, only 8 cases of Buddhist heritages include all of Criterion (i), (iii) and (iv). It subsequently suggests that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s a heritage from proliferation of Buddhism that was formed through interexchange in East Asia, it proves the fact that it is a heritage armed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that demonstrate inherent culture, religion and aesthetic quality of the Goryeo Dynasty.

V. Conclusion

The criteria applicable to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urrently contained in the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re Criterion (i), (iii) and (iv). It means that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s recognized of its potential values of being featured with innovative sense of formativeness converged with religious faith, culture and religion of the people in the given nation, in addition to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s. Moreover, outstanding heritage values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gigantic Stone Statues of the Lying Buddha, Buddha Statue at Stone Chamber and Multi-Buddhas as well as Disc-Shape Tower, Spherical-Shape Tower, Patterned Tower and Seven Star Stone. It mean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pursue the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for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by more focusing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t is an example that proves the advancements and deployments of Buddhist culture which were deployed throughout East Asia in the 14th Century as it demonstrates distinct sense of formativeness and spatial structure systems of Buddha statues during the Goryeo Dynasty."

With the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 massive number of cases are currently in pursuit of designations, meaning 1,753 cases from 181 nations. Because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is bound to immensely contribute to procuring the symbolism of the nation concerned and increasing its economic feasibility, multidimensional efforts are being made in order to identify Buddhist heritages under new concepts, i.e. serial nomination, and innate cultural landscape of the given nation to have them designated. Looking into the latest trends in designations of World Heritage, as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landscapes are being expanded and increased,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of serial properties rather than single property are gradual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due to enhanced application of the selection criteria,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studies is also being constantly elevated.

Designation of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has been declining since 2010. It is because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 more focus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s previously designated rather than new designations and enhance regular monitoring and sustainable protective measures. Furthermore, since each country is restricted to one application since 2018, competition for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is becoming much fiercer than ever between countries.

Lately, the Ancient Town of Si Thep and its Associated Dvaravati Monuments in Thailand designated in 2023 brought a positive message where historic sites (temple sites) that were not recognized as Buddhist heritage previously or heritages damaged or extinct are now viewed as subjects to designation which may be preserved and managed. Consequently, since three nations in East Asia are engaging in aggress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lues concerning designation of Buddhist Heritages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se nations.

Learning Values of the Buddhist Heritage Sites in Thailand and A Practical Approach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s

Amara Srisuchat

senior advisor (in archaeology & museums) to the Fine Arts Department,
a member of the Committee of Cultural World Heritage of Thailand

Abstract :

Thailand's 'Cultural World Heritage' sites and national heritage sites in 'the Tentative List' of which the Buddhist properties are considered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comparison with other Buddhist World Heritage sites are topics addressed in the paper. They involve lessons being learned from the past failure to recognize the value of protection of heritage and the present achievement of enhancing value of the tangible heritage sites by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ocumentary heritage. These are confirmed by the best practice of presentation and promotion as a campaign to build awareness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Buddhist art heritage which are valuable to all, and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I . Introduction

Buddhism has been one of the most philosophical religions and has a history of over 2,500 years. Some five hundred years of the Parinivarna or extinguishing of his corporeal form, Siddhartha Gautama (the historical Buddha), Buddhism developed into what came to be called Mahayana, and then Vajrayana (and/or Tantric Buddhism), which has a pantheon of mortal Buddhas, celestial Buddhas, immortal Buddhas, and bodhisattvas. The Buddhist philosophy is embedded in monumental and symbolic buildings like a stupa (pagoda), a the Wheel of the Law, and a Buddha's footprints, as well as planting a Bodhi Tree; they have been recognized to be practiced for worship by both Mahayana and Theravada (the orthodox Buddhism).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had the lands of the early states that adopted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both (Srisuchat, 2018 a: 7). Originally, most people of Southeast Asia were animists and practiced ancestral worship. Archaeological evidence reveals that the earliest trans-oceanic contact with China and India, the main historic civilizations of the West and the East, started approximately 400-300 BCE. By the beginning of the 3rd century CE both traditions of Buddhism and Hinduism were well established in both mainland and the Malay Archipelago of Southeast Asia. Some names of city-states or kingdoms that engaged in contact with China appear in Chinese official accounts from the 3rd to 8th century CE. Indigenous traditions, foreign traditions, and assimilation of both as a result of picking and choosing elements of cultures to suit their own particular needs have reflected in their works of art created by indigenous people of Southeast Asia (Srisuchat, 2018 b: 29-30, 40). Therefore, the Buddhist imagery and architectures were strongly affected by local artistic styles and available materials of different periods of time have been evidently found on the land that is modern Thailand.

II. A Brief of Thailand's Buddhist History that is relevant to the World Heritage

It is understood that Buddhism from India and/or from Sri Lanka was introduced and cultivated in Thailand since the 5th to early 6th century CE. The Buddhist cult's icon from overseas was installed and locally adapted in peninsular Thailand and Central Thailand. From the sixth to thirteenth century CE, local communities and small polities were under the central influence of three locally sovereign states, namely, Dvaravati, Srivijaya, and Lavapura. Dvaravati (6th - 12th century CE, exemplified by 'The Ancient Town of Si Thep and its Associated Dvaravati Monument', the World Heritage site [herein TWH no. 3], likely in association with the Pyu and Mon in present-day Myanmar (Myanmar's WHs related to the two Buddhist cultures known as 'Pyu Ancient Cities' and 'Bagan'), dominated most parts of all regions; the northern region later developed into a Buddhist state, Haribhunjaya, between the 11th and 13th century CE. (Srisuchat, 2018 b: 42). The growth of Lavapura or Lopburi (7th -13th century CE) in the central and the northeastern regions paralleled that of the Khmer state in the present-day Cambodia, and at some points between the 10th and 13th centuries CE their shared similar features (Cambodia's WHs that show similar features to those of Lavapura, i.e., 'Angkor'-comprising the Hindu and Buddhist sites, 'Temple of Preah Vihear' - the Hindu site, 'Temple Zone of Sambor Prei Kuk, Archaeological Site of Ancient Ishanapura' - the Hindu site.). The southern peninsular Thailand became states of the Federation States of Srivijaya (7th-13th century CE), encompassing states on the archipelagoes of present-day Indonesia and on the Thai-Malay Peninsula during the 8th to 13th century CE; and dominated the maritime trade within Southeast Asia, and the trade route between the West and the Far East (The WHs of Indonesia which are related to the mainland's states of Srivijaya include 'Borobudur Temple Compounds' -the Mahayana Buddhist site, 'Prambanan Temple Compounds' - the Hindu site.). After the fall of the early historical polities and their traditions handed down to Thai people of the new polities emerging from the mainly Theravada Buddhist ideology, and maintaining the primitive spiritual believes, political tradition of Hinduism, and other foreign traditions. The significant aspect is the practice of the Chinese Buddhist tradition as well as those of the Confucius and Taoist, carried on by the Chinese immigrants; later they are assimilated into the Thai citizenship-communities (Srisuchat, 2016: 8-26). Thailand did The Theravada Buddhism achieve the status of a state religion.

The Thai main polities, of which the main population is Theravada Buddhists, are as follows: Tambralinga (12th - 14th century CE), centred at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Southern Thailand; Lan Na (or Lanna, 12th - 18th century CE), centred at Chiang Mai Province, Northern Thailand (13th - 18th century CE); Sukhothai (13th-15th century CE), centred at Sukhothai Province, Lower Northern Thailand, Ayutthaya (1350 - 1767 CE), Central Thailand, centred at Phra Nakhon Si Ayutthaya Province, Thonburi (1767-1782), centred at Thonburi District, Central Thailand, and Rattanakosin, (1782 - present), Central Thailand, centred at Bangkok, the modern capital city of Thailand (Srisuchat, 2017 a: 8). The land of the northeastern Thailand (the west of the Mekong River) and the land of the modern Lao (the east of the Mekong River) have been known as the polity of 'Lan Chang' (Lan Sang or Lan Xiang), centred at 'Town of Luang Prabang' (which is now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Town of Vientiane, respectively, according to historical accounts, for some period of time some parts of the land had been governed by the kingdom of Siam (modern Thailand) at Ayutthaya and at Bangkok, respectively. The land of the modern Lao was transferred to the French rights of sovereignty over it in 1893-1953 CE. It brought Lao into the independent government,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since October 22, 1953 (Wyatt, 2003: 76 -126, 184 -192, 273 - 274). The Lan Xiang's Buddhist tradition has firmly embedded in a common way of life of people of both the west (the Lao) and the east (the northeastern Thai) of the Mekong River.

As a State Party of UNESCO, the government of Thailand realizes that the Buddhist heritage sites within the territories of the above-mentioned polities in modern Thailand must have been to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achievement of this aim has been confirmed by three National Heritage being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Historic Town of Sukhothai and Associated Historic Towns', 1976 [herein TWH no. 1], 'Historic Cities of Ayutthaya', 1976 [herein TWH no. 2], and 'The Ancient Town of Si Thep and its Associated Dvaravati Monuments', 2023 [herein TWH no. 3]. It is indisputable that the sites are on the 'List' are attributed to the value of Buddhist monuments and images belonging to the sites.

The six cultural properties of Thailand which have been on the UNESCO's 'Tentative List' are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Dossier'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y are Phuphrabat Historical Park, 2004 [herein TTL no. 1]; 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Nakhon Si Thammarat, 2012 [herein TTL no. 2]; Monuments, Sites and Cultural Landscape of Chiang Mai, Chiang Mai, Capital of Lanna, 2015 [herein TTL no.3]; Phra That Phanom, its related historic buildings and landscape, 2017 [herein TTL no. 4]; Ensemble of Phanom Rung, Muang Tam and Plai Bat Sanctuaries, 2019 [herein TTL no. 5]; Songkhla and its Associated Lagoon Settles, 2024 [herein TTL no.6].

The UNESCO's World Heritage mission is to encourage States Parties to sig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and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nominate sites within their national territory for inclus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refore, a national heritage site on the 'Tentative List' which is aiming at a World's Heritage site-to-be, its State Party should have to establish management plans and set up reporting system on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site. The State Party ha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their population in preservation of their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2018: 932). According to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21/01 31 July 202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a mandate to identify, on the basis of Tentative Lists and nomination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cultural and natural propert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ich are to be protected and to inscribe those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y have to decide which properties are to b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or removed from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or whether a property should be deleted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World Heritage Centre, 2021: 15).

III. Five Steps of Learning Values

1. The First Step: Learning from World Heritage Sites of Geo-cultural Area.

Before giving an appraisal of a Buddhist heritage site in our country (as it is in a UNESCO's Tentative List or in the process of a World Heritage site-to-b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mparative potential site's evaluations that facilitate understanding what's the significant features of our heritage site. The scope of the regional comparison is deemed sufficient for the issue.

India: 1. Ajanta Cave, 2. Elephanta Caves, 3. Buddhist Monuments at Sanchi, 4. Mahabodhi Temple Complex at Bodh Gaya, 5. Archaeological Site of Nalanda Mahavihara (Nalanda University) at Nalanda, Bihar; Nepal: 6. Lumbini, the Birthplace of the Lord Buddha, 7. Kathmandu Valley; Pakistan: 8. Taxila, 9. Buddhist Ruins at Takht-i-Bahi and Neighbouring City Remains at Sahr-i-Bahlol; Bangladesh: 10. Ruins of the Buddhist Vihara at Paharpur; Afghanistan: 11.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China: 12. Mount Taishan, 13. Mogao Cave, 14. Historic Ensemble of the Potala Palace, 15. Dazu Rock Carving, 16. Longmen Grottoes, 17. Yungang Grottoes, 18. Mount Wutai;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Republic of Korea: 20.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21.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22. Gyeongju Historic Areas, 23. Baekje Historic Areas; Japan: 24.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25.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Kyoto (Kyoto, Uji and Otsu Cities), 26.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27. Hiraizumi-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 Pure Land, 28. Fujisan, Sacred Place and Source of Artistic Inspiration; Sri Lanka: 29. Ancient City of Polonnaruwa, 30. Ancient City of Sigiriya, 31. Golden Temple of Dambulla, 32. Sacred City of Anuradhapura, 33. Sacred City of Kandy; Vietnam: 34. Hoi An Ancient Town; Lao PDR: 35. Town of Luang Prabang; Cambodia: 36 Angkor; Indonesia: 37. Borobudur Temple Compounds; Myanmar: 38. Pyu Ancient Cities, 39. Bagan.

Practical Tips: It should focus on some Buddhist Heritage Sites as being register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excluding Thailand's World Heritage sites which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in 'The Second Step').

After learning the description of attributes of Buddhist aspects that convey its potential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to the property, the definite conclusions will be drawn, with special reference to what number is given in the bracket(..) of the above-mentioned World Heritage sites, are as follows:

1) The 'Human creative genius' [criterion I]

The Buddhist World Heritage sites (BWH) including Nos. 1, 2, 3, 4, 10, 11, 12, 13, 15, 16, 17, 20, 24, 29, 31, 36, and 37, are valued through expression of the following features: the gigantic sized of works, and/or a large number of monuments, archaeological findings that needed high potential of human beings to create an extraordinary works of art or architecture that needed a lot of patience or determination for working, undaunted by the enormity of the task, continuing for a large amount of time, and/or have shown the great intelligence or the high level of skill. The innovation of layout, which harmonizes with the cultural landscape, as well as created an original art-works, or a masterpiece, required artistic creativity.

2) The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or monumental arts, town planning or landscape design' [criterion ii]

the embodiment of the BWH include Nos. 1, 2, 3, 4, 10, 11, 12, 13,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7, 28, 30, 32, 34, 35, 36, 37, and 38. The criteria is quite comprehensive to link it with the phrases or sentences used to feature the sites: 'a considerable artistic influence'(1), 'its influenced Buddhist architecture as far away of Cambodia' (10), 'the artistic and cultural development' (11), 'Tantric Buddhism from India and Chinese Taoist and Confucian beliefs came together here to create an influential manifestation of spiritual harmony.' (15), 'play a highly significant role in the cultural evolution of this region of Asia' (16), 'The architect reflects a fertile exchange of ideas from Nepal to Mongolia' (18), 'the transition from Buddhism to neo-Confucianism in East Asia' (19), 'It was at the crossroads of considerable technological, religious (Buddhist),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between the ancient East Asian kingdoms of Korea, China, and Japan.' (23), 'Both Chinese culture and Buddhism were having a profound influence on Japan.' (25), 'all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architecture.' (26), 'cosmology of Pure Land Buddhism spread to Japan'(27), 'developed a concept of planning and garden design'(27), 'Poems inscribed on the rock, and are among the most ancient texts show the considerable influence exerted by the city on literature and thought..'(30), 'Khmer art as developed at Angkor, and a profound influence over much of Southeast Asia' (36).

3) The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criterion iii]

The criterion is represented by WBH Nos. 1, 2, 3, 4, 6, 7, 8, 11, 12, 13, 15, 16, 17, 18, 19, 22, 23, 26, 28, 29, 30, 32, 36, and 38. Regarding tradition or civilization which has disappeared are suggested by the phrases: 'cave-temples that were occupied by Buddhist monks and artisans' (1), 'a unique testimony to a civilization that has disappeared' (2), 'a major centre of Buddhism in India until the twelfth century AD' (3), 'It was an important Buddhist centre of learning' (8), 'a renowned intellectual centre until the twelfth century' (10), 'characterized ancient Bakhtria, integrating various cultural influences into the Gandhara school of Buddhist art.' (11), 'an important centre of religious activity for both Buddhism and Taoism' (12), 'In the 12th century, it became the centre of training for ascetic Buddhism, which included Shinto elements' (28), 'Polonnaruwa bears witness to several civilizations.'(31). The following phrases or sentences were used to refer to 'living cultural tradition or civilization': 'It is still as alive today as it was hundreds of years ago' (7), 'destination for pilgrims' (8). 'The cutting from the 'tree of enlightenment' (Bodhi Tree) flourished and today it spread out over the centre of the site from a sanctuary' (32).

4) The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criterion iv]

they are BWH Nos. 3, 4, 5, 6, 7, 9, 11, 12, 13, 14, 17, 18, 20, 21, 24, 25, 26, 30, 33, 35, 36, 38, 39. The phrases or sentences suggesting value that meet the criterion are as follows: ‘It is the oldest Buddhist sanctuary in existence and was a major centre of Buddhism in India.’(3), ‘It is one of the four holy sites related to the life of the Lord Buddha.’ (4), ‘archaeological remains of a monastic and a scholastic institution’ (5), ‘the Indian emperor Ashoka, who erected one of his commemorative pillars there’ (6), ‘Buddhist monuments illustrates the different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a city.’ (8), ‘The Buddhist monastic complex of the site escaped successive invasions and is still exceptionally well preserved.’ (9), ‘numerous Buddhistic monastic ensembles and sanctuaries, as well as fortified edifices from the Islamic period’ (11), ‘Rock inscriptions, stone tablets and temples bear testimony to various visits of emperors and renown scholars’ (12), ‘It symbolizes Tibetan Buddhism and its central role in the traditional administration of Tibet’ (14), ‘representing the outstanding achievement of Buddhist cave art in China’ (17), ‘the landscape was adorn with buildings, statuary, paintings and stelae in recognition’(18), ‘...were constructed to house the woodblocks which are also revered as exceptional works of art’ (21), ‘also for the history of religion, since their construction coincided with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Japan from China by way of the Korean peninsula’ (24), ‘the building of large temples... and the creation of Zen gardens are seen’ (25), ‘The main Buddhist temple were the Todai-ji, with its monumental wooden Great Buddha Hall...The natural environment is an integral element of Shinto shrines, which has been preserved as a sacred forest.’ (26), ‘the site of the Temple of Tooth Relic , ... associated with the history of the spread of Buddhism’ (33), ‘It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fusion of traditional Lao architecture and urban structures with European colonial buildings.’ (35), ‘The remains of the three brick, walled and moated cities...reflect the Pyu kingdoms that flourished for over 1,000 years...’ (38), ‘It is a sacred landscape, featuring an exceptional range of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39).

5) The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criterion v]

The outstanding example of the BWH sites includes Nos. 12, 13, 34, 35. The relevant sentences or phrases are as follows: ‘the way in which this rich cultural heritage has been integrated with the natural landscape’ (12), ‘a fine example of a traditional monastic settlement’ (13), ‘Building are aligned along narrow lanes and include many religious buildings, such as pagodas, temples, meeting houses.’ (34)

6) The ‘Heritage associated with events of universal significance’: The BWH which are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criterion vi]

are presented by Nos. 1, 3, 4, 5, 6, 7, 8, 10, 11, 12, 13, 14, 18, 21, 24, 26, 27, 28, 29, 31, 32, 33, and 37. According to Operational Guideline WHC.21/01 31 July 2021, p. 29-30, the criterion should be preferably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It means that a cultural nominated property must meets one or more criteria above-mentioned, not rely solely on the criterion vi. The BWH meet the criterion, confirmed by the phrases/sentences: ‘for subsequence worship’ (4), ‘the flourishing of monastic and educational traditions’ (5), ‘became the place of pilgrimage’ (6), ‘Temples and courtyards have inspired many writers and artists’ (7), ‘The site is also testimony to the tragic destruction.’(11), ‘the best preserved cave-temple complex ... and the ongoing tradition of repainting’ (31), ‘a famous pilgrimage site.. still religious capital of Buddhism and sacred city of millions of believers.’ (33).

How to apply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above-mentioned Buddhist World Heritage sites [BWH] to outlin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Thailand’s ‘nominated property’ or Thailand’s Tentative List [TTL]?

Among 6 cultural heritage of Thailand that are in the ‘Tentative List of World Heritage’, the attributes of 5 sites are the Buddhist architectures, images of Buddha, and Buddhist symbolic things. The properties of BWH that their attributes are comparable to Thailand’s Tentative List [herein: TTL] expressing the same values are the following: i) The rock-cut temples and rock painting, in harmony with natural landscape formation of

TTL no. 1 is comparable to BWH nos. 1, 2, 13, 16, and 31; ii) A complex of temple presenting the values of TTL no. 2 is similar to BWH no. 35, no. 39, and Thailand's WH no.1 and no. 2, but the bell-shaped stupa of both Thailand's WH were modeled on the principal stupa of TTL no.2, which adapted from Sri Lanka's stupa [BWH no. 29]; however, it exceptionally expresses own identity of form, design, and technique of building; iii) Tradition of planting and worshipping of a Bodhi Tree, a symbolic tree of the Buddha's Enlightenment, at TTL nos. 2, 3, 4, conveys the similar value to BWH no. 4, no. 32; iv) The Interchange of value through architectural form of stupa can be recognized by the 'concave lotus-like shaped stupa' which was particularly built by the Lao, exemplified by BWH no. 35, and by the northeastern Thai, exemplified by TTL no. 4; v). The Buddhist living monuments within a present-day urban community of TTL nos. 2, 3, 4, and 6 are considerably compared to those of BWH nos. 7, 14, 25, 33, 34, 35, and 39. For the 'Intangible heritage' that meets the 'Tangible heritage' of these sites will be discussed on 'The Fourth Step'.

2. The Second Step: Know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condition of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our site /sites that meets/ meet the requirement for appropriat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Bear in mind that the Value of Conservation is the Value of Heritage. What is the obstacle to attain the goal of being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state of condition of Buddhist sites in Thailand being protected more or less relies on what they are of value to people at what level; i.e., local, national, or international. A local Buddhist property would be acknowledged and evaluated to be on 'Official Inventory List' by the Fine Arts Department (FAD), the government unit of legal protection and promotion cultural heritage, under Thailand's Ministry of Culture. A Buddhist site, of which 'value' has been evaluated as a 'high cultural value' by the FAD must be registered on the 'List of National Property' or 'National Protected Monument'; its name and attributes of the site would be legally declared and published in the Royal Gazette (The Fine Arts Department, 2000: 27-46). A 'National Protected Monument' which is considered by FAD or a local/provincial community to have attributes of integrity and authenticity conveying to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ould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Cultural World Heritage of Thailand' (appointed by Minister of Culture) in order to be appraised and allow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prepare a document of the heritage site. The document either 'Tentative List' or the property's 'Nomination Dossier' would be approved by the national committee before submitting to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for assessment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e., the property should be a 'Tentative List', or inscribed it on 'World Heritage List'.

Apart from academic teams of FAD directly working on preparation of a potential site to be a 'Tentative List of cultural World Heritage' and its 'Nomination Dossier', a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 is allowed to do so, and it is responsible to prepare a 'Nomination Dossier' of the site as well. Nevertheless, a 'nomination dossier' prepared by each provincial/local government of three sites in the 'Tentative List' (after bring in the List for 7 to 11 years) have not been completed as yet and not to be approved to submit it to the UNESCO's World Heritage Centre. The disadvantage concerning the issue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what attributes of the property convey its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at need to be protected and sustainably managed well. They have thought that their task is only complete writing of the paper 'nomination dossier' and submitted it; not concerning a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onserve the conditions of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the property, and/or to public raise awareness of value of the property needed to be maintained and protected over time. Their ignorance to follow a sequential process, step by step, and cycle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e., monitor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and lack of key persons (e.g. conservator, archaeologist, qualified site manager) on site at present and future, no long-term policy or strategy for the property maintenance, is a big obstacle to lead the property reaching to be acknowledged as a

World Heritage site and/or retain it for future generations.

Different from the sites on 'Tentative List' being on local government's hands, the heritage sites in the FAD's custody including three sites alread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wo sites on 'Tentative List' have been well protected, conserved, and managed by being legally registered their 'core zone' and a part of 'buffer zone' as a 'National Historical Park'. The great advantage of being a historical park is that it constantly gains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personnel working on site have been provided according to an appropriate requirement that enable the historical park to function smoothly. However, several potential Buddhist sites of World's Heritage-to-be are not enable to be included in the FAD's National Historical Park,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living moments' belonging to temples; each is organized by abbot as a juridical person on behalf of 'The Sangha Supreme Council of Thailand' (Sangha = Buddhist monks) according to the Sangha Act, B.E. 2502 as amended by Sangha Act (No. 2) B.E. 2535 (=1992 CE). The three sites on 'Tentative List' that have been on the provincial government's hands working for being on the World Heritage List are in this situation. Therefore, the first thing should have to be done is to find the optimal solutions and negotiation that will not contradict what a legal owner of temple within a province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will carry o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Buddhist heritage inside the temple.

3. The Third Step: Searching for *significant features* of the Buddhist property of the site as a whole or its attributes that encapsulat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mpirical Inquiry: Seek to Link the 'Types' of Attributes to features our Buddhist Heritage sites:

The UNESCO's Operational Guidelines provides the format for the nomination of propertie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which the 'Types' of cultural attributes include (1) form and design, (2) materials and substance, (3) use and function, (4) traditions, (5)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6) location and setting, (7)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8) spirit and feeling, and (9) 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orld Heritage Centre 2021: 31,107). The cultural value of the heritage site should be truthfully and credibly expressed through the types of the attributes.

Thailand's three national properties associated with the Buddhist monuments, are considered to be 'the World Heritage' sites. Each presents its value that meets one criterion or more and expresses attributes according to afore-mentioned 9 'Types'. Here are key aspects that are relevant to defini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each site, and as a **precedent** for preparation of a 'Nomination Dossier' of properties on the 'Tentative List'

1) 'Historic Town of Sukhothai and Associated Historic Towns (i.e. the towns of Si Satchanalai and Kamphang Phet [herein TWH no. 1])'

The site present its value that meets the criterion i - 'Human creative genius' by the reference of its epitomic form and design of stupa 'the lotus bud-like shaped stupa' and 'the idealistic walking Buddha'. The three towns of TWH no. 1 have abounded with a large number of Buddhist monuments illustrating the beginning of 'Thai architecture' encompassed with Buddha images, made from a fine elaborated materials like stucco, ceramic, and a huge single bloc of laterite digging up from underground with technique of installation it as a post supporting upper structure; the excep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 need a high skill of craftsmanship. The well-planned setting of the Buddhist temples on the sacred land have beautified of three ancient towns as a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that has disappeared' in accordance with criterion iii.

2) The 'Historic City of Ayutthaya [herein TWH no. 2]'

has attributes of Buddhist monuments that meet the criterion iii. The city was endowed with Buddhist

monasteries; a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feature was a 'reliquary tower' (a typical Thai stupa, known as 'prang'), and apart from the 'Buddha's Relics', a large number of offerings, made from precious materials like gold, crystal, and precious stones have been found inside its depository crypt. The glory of the Buddhist buildings was referred to in foreign accounts of several literary languages and cartography. The TWH no. 2 is a testimony to Thailand's Theravada Buddhist tradition regarding building monastery, not only for monks' residence and performing religious rituals, but for placing a Buddhist commemorative architecture (stupa) and images of Buddha of various forms with significantly relevant to the history of the life of Buddha. Additionally, a temple abounded with subsidiary stupas (or 'chedi' in Thai) in various sizes and forms; each was built as a commemorative thing for those who passed away or to be used as ashes container of the deceased by his/her family, for periodical worship. The spiritual practice of tradition has handed down to Thai people even the present-day. The plenty of temples and various functions of them that strongly supported the city and its people to uplift their status to a hub of international trade was a crucial interior factor that met the exterior factor; i.e., the expansion of maritime trade rout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3) 'The Ancient Town of Si Thep and its Associated Dvaravati Monuments [herein TWH no. 3]

is a 'serial property' meets the criteria ii and iii, due to the fact that the property within three sites demonstrated the complexity and specific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Dvaravati culture in terms of well-plan of urban and wider monastic setting on the basis of the Buddhist cosmology, technique of building a large, huge brick stupa, and artistic forms of icons bearing Indian and Indonesian influences, and well-adapted to a new artistic forms and designs with indigenous technique, recognized as 'Si Thep school of art' which is valued as an outstanding style of art by eminent foreign researchers; it is confirmed by literary documents of several languages, which is regarded as an external factor. The spirit and feeling of ancient Buddhist followers were testified by the relief images of Buddha and Bodhisattvas carved on stalactite and stalagmite, a rare material used, inside the high limestone mount; as a significant, sacred, cosmological place, to claim up for worship; it is regarded as an act of will rather than a simple feeling.

4. The Fourth Step: Bringing relev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or 'Documentary Heritage' of international level to meet the 'types of attributes' as convey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Buddhist Tangible Heritage.

With reference to a variety of attributes in 'The Third Step'. The 'Types' nos. 7, 8, and 9 are relevant to the afore-mentioned heritages. Thai cultures and persons gained a list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erein IH], 'Humanity's Documentary Heritage of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herein DH], and 'UNESCO Calendar of Anniversary of Great Personalities and Historic Events' [herein PH]. Explanation about their universal value linking to Thailand's World Heritage sites [TWH] and Thailand Tentative List [TTL] are provided below:

1) The TWH no. 1 is directly related to 'The King Ramkhamhaeng Inscription' [DH no.1, 2003] for it was found at the site, not only showing the history of invention of Thai alphabet, but a testimony of strict observance of the Buddhist religion. It also referred to TTL no.2, no.4 as being a Buddhist land. It reconfirms the 'interchange of value' [criterion ii] between TWH no. 1 and TTL nos. 2, 4.

2) Old pictures of both TWH and TTL of all sites are well preserved by 'The Royal Photographic Glass Plate Negatives and Original Prints Collection' [DH no. 5, 2017] As the most ancient equipment for visual recording (1845-1929 CE), they are a good witness of a Buddhist property condition regarding integrity and authenticity for justification of whether or not it retains the well-preserved condition. The photographs show the visits to the sites of the world-renown persons which

have been worldwide recognized as the 'UNESCO's Great Personalities' [PH] like two kings of Thailand; i.e., King Rama IV, honored as 'Father of Thai Science', King Rama V earned the epithet 'the Great Beloved King' as well as two princes, Damrong and Narissaranuwattiwong, with the epithet 'Father of Thai History' and 'Father of Thai Architecture and Traditional Art', respectively. Their academic views on the heritage sites concerning the aware of their value and recommendation on protection of the sites should be thoroughly picked up from different source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the sites. Additionally, two Supreme Patriarchs of national Buddhist monks (Thai: Sangharaja) and a Buddhist spiritual leader and influencer worldwide (i.e., Buddhadasa bhikkhu) had visited the sites and left their notes and poems on significant features of the Buddhist sites based on the philosophical teachings of the Lord Buddha. Note: This meets criterion ii and iv through literature, spiritual and feeling attributes.

3) The 'Archival Documents of King Chulalongkorn's Transformation of Siam (1868-1910)' [DH no. 2, 2009] is a written information to confirm that he was one of twenty "Most Influential Asians of the Centuries" for the 20th Century by Time Asia Magazine in 1999. The documents including texts of abolition of 'Slave Tradition' and his promotion activity of 'Human Equality and Dignity' are an indisputable confirmation of the king's trustworthy judgement on the Buddhist sites where he had visited regarding its state of condition and value; these have been also found in other sources of his writings.

4) To complete 'Justification for Inscription' of a TTL it is needed to examine academic research papers of which information conveys the views of value of the site. The DH no. 4, 2013 'The Minute Books of the Council of the Siam Society, 100 years of reco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 the arts and sciences' is one of worthily sources for references.

5) The appraisal of a TTL's value on what it meets criterion iii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 needs to learn from 'Epigraphic Archives of Wat Pho' [DH no. 3, 2011] and 'National Collection of Palm-Leaf Manuscripts of Phra That Phanom Chronicle' [DH no. 6, 2023]. The later can play a crucial role to directly enhance value of TTL no. 4: 'Phra That Phanom, its related historic buildings and landscape'.

6) The holy places of TTL nos. 2-5 are a core zone of the 'Songkran in Thailand, traditional Thai New Year festival' [IH no. 4, 2023], for the tradition emerged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belief of the Buddhist followers. Thus, the criteria ii, iii, and iv can be defined by Thailand's Buddhist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7) Several performances of 'Nora, dance drama in southern Thailand' [IH no. 3, 2021] took place at the core zone of 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Nakhon Si Thammarat in southern Thailand [TTL no. 2], which archaeological findings at the site confirm the origin of the dance drama in the region, convey the TTL no.2 to meet the criteria ii, iii, and vi, as well as the confirmation of traditional use that benefits local community and increases spiritual feeling and the aware of its value. Taking the 'Nora' to show abroad-cum-introduce the Buddhist site as a birth place of Nora is regarded as an external factor to enhance the value of the tangible heritage site. [This meets the 'Types of Attributes': 4, 7, 8, 9].

IV. How to Raise Awareness of the Buddhist Heritage' Value

When a Buddhist heritage site is needed to be promoted wisely used aware and sustainably protection, we should bear in mind that people have different attitudes about a Buddhist heritage site which

are affected by their ideological, religious, and moral values. The presentation and promotion of a Buddhist heritage site must be designed so as to minimize contradictory use of the property; i.e., overuse for spiritual practices, making profit from tourism.

The Realistic Objectives for the reasons why we have to present and promote our Buddhist heritage site, must be provided:

- To educate people on the Buddhist property: tangible heritage in association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ocumentary heritage.
- To raise awareness of them on values of the matter.
- To guide them how the Buddhist philosophical teachings that promote peace and human equality will be easily approached to and understood by both Buddhist and non-Buddhist followers through human intelligent works like the Buddhist stupa and images of Buddha.
- To render them participate in protection of the Buddhist cultural heritage site.
- To guide them to use the heritage, wisely and appropriately, and mitigate any adverse changes.

The Campaign Measure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Buddhist heritage, exemplified by the following sentences that meet the OUV's criteria:

- A Buddhist monument and/or object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as well as the history of spiritual evaluation. The religious divisions of the past must not be perpetuated, and might be fatal of a civilization. The Buddhist architectural monuments and art are testimony of peace, not war. [criteria ii, iii, iv, vi]
- The Buddhist art heritage is of intrinsic value contributing to education, quality of life and intellect, and national economy. For example, it is an important cultural tourist destination involving in the country tourism-influenced economy. [criteria i - vi]
- The Buddhist heritage sites provide knowledge of technological invention that some are lost, but some are traceable. They are a source of literature, art and architecture inspiration. [criteria i, ii, iii, iv, vi]

What are the ways to apply the above sentences to make a medium of presentation or promotion for people to appropriate recognize the value of a Buddhist site? The following steps have been outlined and thus are suggested:

- Knowing the 'target group (s)' and their background, which should be defined by nature of (their) action on the Buddhist heritage site, and not overlook the grass roots, vulnerable groups, and disabilities. Bear in mind that people of different beliefs or religions are important, not least because their views are reflection of understanding of common value.
- Thinking of Informative Messages: short or long, in brief or in details, language usage: local, national, international, and/or a special language 'Braille', 'Sign Language', etc. These will be prepared for each 'target group', accordingly. Illustration -pictures, chart, diagram, map, etc. as well as an animated cartoon, or 3-D animation, based on the Buddhist symbols and featuring attributes are needed to be supplemented. Each production must fit the background of knowing the Buddhist heritage site of each group.
- The scope and crucial themes of contents on the Buddhist heritage needed for those 'Target Groups' will be firstly picked out to fit the 'Prime Target Group'; the prime group should attain majority. The group will be the target of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um-campaign.
- Forms and Channels to be contributed the message: Paper publication (book, pamphlet, card, manuscript board), Digital On-line (social media, e-book, QR Code, website), On-site (sign post, sign post plus QR-code), Activities for 'target group(s)' (forum, workshop, conference, symposium, trip), have to be chosen in harmony with what a crucial message would be disseminated to which group.

-Simplifying the 'selected sentences' or 'wording' and clarifying the 'hidden meanings' of the Buddha's teachings, philosophically and substantially, that are embodied in the Buddhist monuments like stupa and/or images of Buddha, bodhisattva, and/or the Buddhist symbolic objects.

What is the universal value of the Buddha's teachings that should be learned and simplified them for the medium-presentation and promotion of a Buddhist heritage site?

They are the teachings that form a framework for society and its moral codes to enable people to leave peaceably together. In this way, people must not be persecuted for their religious beliefs by a medium of presentation and promotion of the Buddhist Heritage's value.

The Paper ends with a 'precedent' clarifying a hidden meaning of a 'wording' written on a long cloth holding by a hundred of people in a procession to the Buddhist Temple '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Nakhon Si Thammarat', a Thailand's Tentative List no. 2, in order to be an object of worship to the principal stupa of the temple which has been a significant part of the local tradition practice for hundreds of years till the present-day. The tradition is going to propose to be register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ere is the wording:

"The Dharma Heritage is the Conveyance of The World Heritage."

"The Noble Truth is Dharma, Not a Folk Legend."

**"Dharma, expressed by the Teachings of the Buddha,
Leads to Freedom and Peace."**

World Heritage Value of Stone Pagoda at Unjusa Temple based on Comparison with Buddhist Pagodas in Other Countries.

Cheon, Deuk-Youm

Honorary Professor/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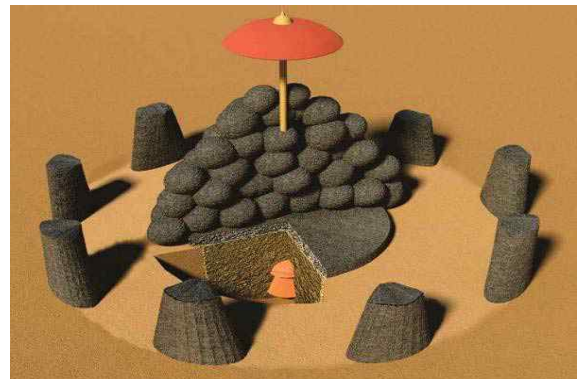
I.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Aspects of Indian Original Stupa

Whichever country it may be, there is always a stone pagoda firmly erected at the center of Buddhist temple with long and rich history. Original Buddhist pagodas represented a sacred space where Buddha's relic is placed. Subsequently, Buddhist pagoda is the most wholesome being as Buddha himself rather than being viewed as physical structure.

It brings a question, what did it look like before Buddhist pagodas came along? There were similar types prior to Buddhist pagodas. Cremated remains of adults or Arahants were placed in a box and covered with a pile of stones. [Figure 1]

Early Indian stupas, which began in a simple shape, were developed into various types of Buddhist pagodas with regard to their meanings, forms and materials depending on the eras and locations. As described, specific appearances of Buddhist pagodas can be studied based on presently existing examples or descriptions from ancient literatures in a number of Buddhist nations. [Figure 2]

Stupas in India, the origin of Buddhist pagodas, were mainly in overturned-bowl style as if a bowl made with stone and brick is placed upside down. Overturned-bowl style is assumed to be originated to be a type of locational sign or to cover up from the heat as an umbrella above the ancient tomb out of concerns for hot weather because India is in tropical region. Afterward, out of respects for Buddha, the owner of the tomb, the sacred relic was placed at the pinnacle in echinus overturned-bowl shape made of soils, and the stylobate was built at the lower part of the bowl, which became the archetype of Buddhist pagodas. [Figure 3,4]



[Figure 1] Cremated remains of adults or Arahants were placed in a box and covered with a pile of stones prior to Buddhist pagodas. (U Win Maung, The Ancestra)



[Figure 2] 인도 초기스투파 산치대탑
I Stupas of Shwedagon



[Figure 3] chilanchi stupa in Kirtipur, [Figure 4] Gumbatuna Stupa in Nepal, showing stylobate and pinnacled Gandhara with distinct stylobate

It means that the low foundation gradually became larger and higher to change into architectural appearances, and the body was lifted higher through overlaying of many layers on top of it. Especially, pillars were assembled upon the foundation, and a number of decorations were placed between pillars for the sake of magnificence. At the same time, a square space called Harmika (平頭) was installed on the pinnacle at the top, and it was believed that one unit of parasol was placed at the center where the number of parasol continued increasing to 2 to 3 units. [Figure 5]

As Buddhism was disseminated to Gandhara of Pakistan, the northwestern region of India, the original-type Buddhist pagodas developed a square-shaped foundation and a round-shaped trunk was overlaid on top of it to emphasize their more elevated appearances. [Figure 6,7]

While the northwestern region is Gandhara, the southeastern region is Andhra region. Though they are now in the territory of India, they had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ancient India era. Bharhut Stupa and Sanchi Great Stupa, the original stupas, are located at the center, whereas Gandhara Stupa and Andhra Stupa are variation versions embedded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by going through transformations afterward.

In Andhra, Nagarjunakonda Stupa and Amaravati Stupa are the most notable ones.[Figure 8] A number of actual examples still exist, showing the decorations by rounding stone plates of the foundation of Andhra Stupa. [Figure 8,9]

Buddhist formative culture originated in India was disseminated to the west going through Pakistan, commonly known as Gandhara region, and to many countries in Central Asia[Figure 10], including Afghanistan, to the north through Central Asia, Nepal and Tibet, and to the east to continents or peninsula of Southeast Asia, as well as Central Asia or China through sea routes, which again continued to Korea and then to Japan. Dissemination range of Buddhist culture can be deemed as have affected almost entire Asian regions, except Siberian region in the north or Southwe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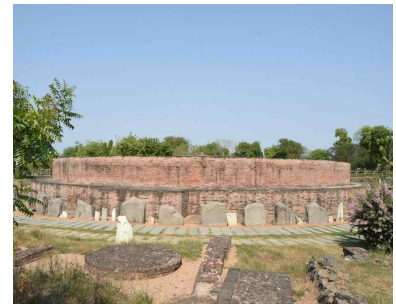
[Figure 5] Stupa relief of Pandulena Caitya 9-cave with a number of parasols



[Figure 6] Gandhara Dharmarajika Stupa



[Figure 7] Taxila Museum, Moran Moradu Devotional Stupa



[Figure 8] Amaravati Stupa in Andhra region



[Figure 9] Foundation Relief of Amaravati Stupa in Andhra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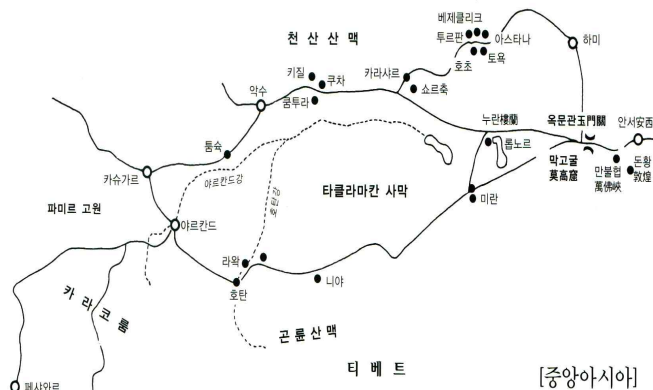


[Figure 10] Gandhara Takht-i-Bahi Buddhist Temple

II. Multi-story Pavilion-type Wooden Buddhist Pagoda, Origin of Korean Buddhist Pagoda

Where can we find the root of Korean Buddhist pagodas? It is only justifiable conclude that Buddhist pagodas, the outcome of Buddhism introduced from the outside, came together with the arrival of Buddhism.

[Figure 11] How did Buddhist pagodas look like in the western regions during the early instruction of Buddhism? First, the shape of overturned-bowl Indian pagodas remained and was found in Uzbekistan; however, once it stepped into the Chinese territory, completely different-looking Buddhist pagodas from Indian pagodas began emerging from the Rawak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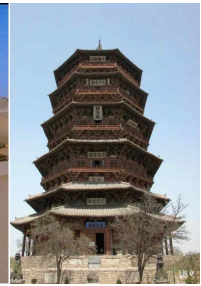


[Figure 11] Tianshan North Corridor and Tianshan South Corridor (Buddhist Arts, Dietrich Seckel)

site[Figure 12]) in the middle of Taklamakan Desert in Khotan, Xinjiang Province. In the rural regions, Taoism was religiously worshiped, and multi-roofed tower temple structures were located in the middle of temples. At the time, they were temple buildings in wooden architecture. Buddhism was assembled with Taoism. It means that Taoism temples had wooden multi-story structures in a tower shape at the center, and these wooden towers served as the beginning of Chinese pagodas.



[Figure 12] Buddhist pagoda at Rawak Temple in Taklamakan, Xinjiang



[Figure 13] Multi-story Pavilion-type wooden pagoda at FoGuang-si Temple, China

The reason why buildings in a style of wooden frame were widely used in 3 Asian countries of China, Korea and Japan was because construction materials were easy to secure in addition to public preference of such materials at the time. Bu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wooden structures were easily flammable and their durability against humidity and insect damages was not favorable, either. It was bound to lead to replacement with alternative materials. That is why brick towers were developed in China, and Korea came up with stone-built towers while Japan mostly had wooden towers.



[Figure 14] Palsangjeon, wooden tower, in Beobju Temple



[Figure 15] Original form of Chinese wooden tower, 樓閣形明器

Due to these social backgrounds, Chinese Buddhist pagodas were in a multi-story pavilion-type of wooden structure transformed from Indian early style through the course of transfer to China. Also known as ‘Far East Model,’ it influenced pagodas in Korea and Japan.[Figure 13]

It means that Buddhist pagodas were originated from India, the birthplace of Buddhism, and disseminated to the east to reach China after going through Gandhara and Central Asian regions; and morphological changes under old tradition and for a long period of time were rather unavoidable consequences where they were perhaps accepted as somewhat altered appearances. However, since geological locations of China, Korea and Japan were quite distant from India, it just had to take such a long time for Buddhist culture to reach these countries.

All Buddhist nations employ stones or bricks for main materials, but only 3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focused on wooden towers of which main material is wooden frame, and eventually had their typical towers by selecting materials appropriate for their local environments.[Figure 13,14,15]

III. Significance of Unjusa Temple and Information on Stone Pagoda

Buddhist monuments at Unjusa Temple, known as ‘Thousand Buddha and Stupa of Multi-tower Peak,’ are nested between two ridges and valleys stretching to north-south direction at low hills of 100-meter altitude above sea level at Doam-myeon, Hwasun-gun, Jeollanam-do. Stone Buddas and stupas are irregularly installed throughout the valley between low hills and ridges horizontally.

Unjusa Temple is widely believed that it was built based on the feng shui theory aiming to prevent the fortune from being swept away toward Japan with the Korean Peninsula being in a situation of a ship in the sea, which represents the Haengju Theory with focus on the feng shui theory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late Goryeo Dynasty, meaning the near-the-end environment.

Just so many stories surrounded the foundation of Unjusa Temple. First, there is a claim that

‘cheonmin (the lowest class of people)’ and ‘nobi (slaves)’ believing in myth related to the State Preceptor Doseon and revolutionary thoughts of Maitreya came together and built a Maitreya community society by constructing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a temple. Furthermore, there is an assertion that it was a Taoism temple rather than a Buddhist temple for the nature of Unjusa Temple, and there is even a claim or story that it was an esoteric Buddhism temple or a prosperity place for folk religion.



[Figure 16] Pagodas at Unjusa Temple

Also, it has been said that there were thousand units of pagodas at Unjusa Temple, but were there really thousand pagodas at Unjusa Temple? And who built them and how?

In Buddhism, ‘thousand’ means a full number, representing ‘countless and limitless’ Tathāgata. The Thousand-Buddha faith in Korea formed and maintained thousand Buddhas all over the nations from the North and South Dynasty of China through the current time. Thousand-Buddha fait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Three Kingdoms era, and it is presumed to be first adopted by Goguryeo. But no



[Figure 17] Pagodas at the valley of Unjusa Temple

other example of Thousand Pagodas can be found other than Unjusa Temple in Korea. It brings up a question that this ‘Thousand’ may not be an actual number, thousand, but instead was used as symbolic meaning of Buddhism with concept of “being full that can no longer be filled.”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perception tells us that the establishment of pagodas at Unjusa Temple and foundation of the temple were engaged in during a similar period, various view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he background and time frame surrounding establishment of stone pagodas since the temple itself has carried numerous mythical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tiveness,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believed to be established during the mid Goryeo Dynasty. Judging from the diversity and unrefined nature displayed by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he time period of their establishment just had to be viewed differently. It is because the typical sense of imbalance displayed by stone pagodas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seemed to have disappeared while somewhat spontaneous and roughly random techniques and folksy and folk crafty aspects appeared evident within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he records depicting specific descriptions concerning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the articles regarding pilgrimage of historic site of Unjusa Temple from Jungeui-ilbo on November 6, 1928. This article was the first-ever record meticulously describing the situations surrounding Buddhist pagodas currently in existence.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re were a total of 30 units of pagodas where the biggest size of those pagodas was on the record. It describ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30 units, including 17 square-shaped pagodas and 5 round-shaped ones. But based on the ones in a complete shape, the number of units was mere 14, including 12 square-shaped and 2 round-shaped ones while 8 of them were found uncertain.

IV. Phases of Time during Early Goryeo Dynasty and Tower-building Patterns

Stone pagodas of the Goryeo Dynasty were featured with diverse and new patterns as indigenous people with power were involved to reflect their own attributes rather than following then-existing uniformed standards by escaping from the uniformed patterns and standards for stone pagodas influenced by the royal residence, Gyeongju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ccordingly, diverse and novel types of stone pagodas were built and emerged even in the deep mountains to display unique local features as the general public took part in. That is why so-called Goguryeo style, Baekje style and Silla style were apparent throughout stone pagodas with different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These changes in construction styles of stone pagodas, propelled by dissemination through rural areas, participation from local people and indigenous powers and various forms of stone pagodas, were presumed to have begun in the 11th century when Goryeo's new characteristics started to become conspicuous after the early years of Goryeo Dynasty elapsed. These were ordinary phenomena from early pagodas of Goryeo, and the case of Unjusa Temple is believed to occur much later in time, compared to other pagodas based on numerous circumstantial elements.

Since the modeling techniqu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hows the style of somewhat latter times rather than construction styles or methods displayed by other stone pagodas during the early years of Goryeo Dynasty, the upper limit of establishment period for establishment of stone pagodas can be viewed as the 12th century later than the early years of Unjusa Temple. Assuming that the upper limit of the years when stone pagodas were built was the 12th century, it would be proper to presume that it actually happened around the 13th century.

Especially, because the Buddhist community of Goryeo Dynasty in the 13th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as general public-oriented local Buddhism as a number of small denominations of Buddhism emerged in Goryeo during the 13th century and indigenous mystic trends were reincarnated, it is only appropriate to deem that those stone pagodas were built during the 13th century.

V. Construction Year and Period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oday, there are 18 unit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nd when building members of stone pagodas are included, there are 20 units. A number of various stone pagoda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temple, including square-shaped and round-shaped stone pagodas of Silla style, stone brick pagodas, Almsbowl-shaped stone pagodas and spool-like stone pagodas.

When would be the construction period of stone pagodas? Was it possible to build these many and diverse stone pagodas all at once? There is no ground to accurately calculate the construction period of one unit of stone pagoda; however, since it has been known to take approximately 4 years to build a 5-story stone pagoda at Geumsansa Temple,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must have been required to build these many stone pagodas if the case of Geumsansa Temple applies even though it is unknown how many craftsmen were deployed. Given the above, there must have been at least a few phases of processes to achieve the task. It could also be related to 3 to 4 rebuilding procedures that were executed from the foundation until closure of Unjusa Temple. It is believed that a certain number of stone pagodas were built during the foundation (or rebuilding works), and new stone pagodas were constructed and added during the rebuilding works. This theory is back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a few different types of stone pagod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styles at Unjusa Temple. Based on various styles of stone pagodas, it can be assumed that they are in different styles because the year of construction, principal body of construction and craftsmen in charge were all different.

It is assumed that square-shaped stone pagodas were first built betwee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followed by round-shaped stone pagodas, brick pagodas with the upper parts of the roof in stair-shape and stone-pillar-type pagodas in such order. The construction of pagodas at Unjusa Temple is believed to be launched during the 11th and 12th centuries and continue through the 15th century on 3 to 4 separate occasions.

The order of construction is presumed to be square-shaped pagodas, round-shaped pagodas, brick pagodas, oval-shaped pagodas, pagodas with only stone-pillar-type trunk left and so-called beggar pagodas.

VI. Classification of Types for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But the grounds for classification in generalities of Korean stone pagoda studies can be materials, flat surface-shapes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stone pagodas. 21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can be subdivided into a few types based on the following forms.

1. Square-shaped stone pagoda (方形石塔)

This type of stone pagodas are typical stone pagoda style in Korea, consisting of trunk and roof in a square shape. 11 units of pagodas fall under this type.

2. Round-shaped stone pagoda (圓形石塔)

This type is an atypical pagoda against typical round-shaped pagodas, where their trunks and roofs are in a round shape. These round-shaped stone pagoda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pherical shape and disc shape. 4 units of stone pagodas fall under this type.



[Figure 18] 9-story stone pagoda at Unjusa Temple



[Figure 19] Spherical-shaped stone pagoda

3. Brick-series stone pagoda (模磚系列石塔)

The stone brick pagoda located at the inner court in front of the Daeungjeon Hall at Unjusa Temple is not comprised of bricks made with small stones similar to bricks but composed of layers imitating the appearance with corbel and racking of a single unit of stone-made brick. 2 units of pagodas fall under this type.



[그림20] Disc-shaped stone pagoda



[그림21] Stone brick pagoda

4. Spool-shaped pagoda

It is the pagoda near the brick stone pagoda located in front of the Daeungjeon Hall at Unjusa Temple and is in a shape of spool wrapped around by threads which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Korea. It is somewhat lack of completeness as a stone pagoda, but it is quite unique and humorous.

5. Stone-pillar-type (石柱形) abandoned pagoda

This type is in an appearance where one unit of thick stone is placed as a foundation stone, rough stone is erected in a shape of long pillar near the center of square and round shapes, and then a stone similar to roof stone is placed on top of them. But it is uncertain how many stories were erected beneath the roof stone. In a shape of stone pagoda, there should have been 1 or 2 stories on top of it. Pagodas in such shape are a total of 4 units, today.

VII. Component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Components featuring Korean stone pagodas are divided into stylobate, trunk and pinnacle. Because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comprised of many atypical stone pagodas, their components are also heterogeneous, but we will examine them by applying components of typical pagodas.

1. Stylobate

Stylobate form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mostly featured where a site is carved off to place a 1-story trunk without typical stylobate of stone pagodas and the trunk part was directly placed on top of it. In addition, the upper side of a big stone was polished, molded housing of 1 through 4 lower tiers was carved off, and the trunk part was placed on top of the housing.

Eventually, the stylobate styl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did not follow a single-story or double stylobate style; instead, the pagoda was directly erected on top of large bedrock or in a single-stone stylobate style replacing the stylobate by using a large stone block with the size of around 5 meters.

Moreover, a distinct and interesting featur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is a question how it was built when a stone pagoda was erected on top of natural bedrock. Especially since the large natural bedrock is not flat and is inclined, it is believed that a high-level technology and construction technique must have been required in order to erect a high stone pagoda on top of slant surface.

2. Trunk

Trunk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in various types, including 4-flagstone assembly-type, single square stone-type, cylinder-type and stone-pillar-type.

The style with assembly of 4 flagstones expresses through graving both corner stones and face stones at one unit of flagstone, erects them on both sides, and inserts face stones on the front at back in between.

Most stone pagodas were assembled with 4 units of flag stones on the first floor,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 trunk consists of a single stone at the 2nd story and higher. Stone-pillar-type is an example where the trunk is comprised of long-column-type single stone, which can be found from stone-pillar-type abandoned pagoda.

And since various geometrical patterns are embossed or intagliated at face ston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patterns were replacing decorative Buddhist patterns commonly found from stone pagodas of the late Unified Silla Dynasty or representing religious and shamanistic patterns embedded with special meanings in relation to mystical environments of Unjusa Temple.

Also, corner stones were not assembled with face stones and extra stones, and most of them had the corner stones projected and engraved on the flag stone; but it is an unusual modeling technique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other than Unjusa Temple as additional corner stones were protected and engraved between the flagstone and corner stones.

Most stone pagodas have a tall trunk at the first story and display a thin and long appearance, which

is similar to sense of formation demonstrated by stone pagodas of Baekje Dynasty to show mutual affinity.

3. Roof stone (屋蓋石)

In the Korean stone pagoda style, roof stone in a roof shape can be divided into a roof and roof support. In this study, the upper surface of roof stone is called a roof (Okgae), and lower surface is called a roof support.

A. Roof

-The shape of roof ston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s displays in various forms. There are a number of types, including square-type, round-type, brick-pagoda-type and natural-stone-type.

B. Roof support

-Roof support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in various styles, including extracted supports, commonly known to be originated from brick pagodas, embossed geometric pattern-type instead of roof supports and a type without any roof supports.

As roofs and roof supports are examined above, the type of roof stones displayed by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ubstantially include decorative elements of wooden building constructions, such as Baekje stone pagodas. These formative elements can be assum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Baekje stone pagodas. More fundamental beginning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Baekje pagodas were originated from wooden building constructions.

4. Pinnacle

Pinnacle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rare to find. Only overturned bowl and central column still remain with a few units of stone pagodas. They show simple appearances without any decorations at decorative wheels.

5. Sarira hall

With Korean stone pagodas, it has been known that the locations of Sarira device are quite various with periodical changes from 1 site to 2 sites and from lower part to upper part of pagoda.

Nothing has been known concerning the items enclosed inside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Only a hole presumed to be Sarira hall was found from the roof stone abandoned as building members of abandoned pagoda.

It is unknown which pagoda these roof stones belonged to, but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general Sarira halls as it is shallowly dug in the middle of upper surface of roof stone.

VIII.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quite distinctive ones from Buddhist pagoda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it is very rare to witness these many Buddhist pagodas with different sizes and shapes to be found at one location that is not large. But most of all, the styles of stone pagodas are truly distinctive as their appearances show traditional, humorous and folksy aspects.

While some pagodas display the look of Baekje pagodas, other pagodas appear to be Silla pagodas, and there are also stone brick pagodas. Some pagodas look as if pots are stacked up, and with some other pagodas, trunks and roofs are all round-shaped, suggesting that they may be associated with Buddhist pagoda styles of the Yuan Dynasty of China. Also, some pagodas are comprised of flagstones roughly polished and stacked up. Though not polished, they are still balanced and beautiful. Now, what would be the significance

and values of Buddhist pagodas at Unjusa Temple as a Buddhist pagoda of the world?

1) Most of all, Buddhist statues and Buddhist pagodas display traditional crudeness and sense of humor. A Buddhist statue represents the look of Buddha, and a Buddhist pagoda is another embodiment of Buddha as well as a place containing Buddha; hence, they need to show majesty and whole-hearted devotion. It is essential for Buddhist pagodas to carry the utmost authority and stableness. Notwithstanding the above,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quite extraordinary with diversity and formativeness of their own.

2) What would they look like when compared to Buddhist pagodas of other Buddhist countries? The cases of having a number of pagodas at a single location are very few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Bagan in Myanmar, Pagoda Forest of Shaolin Monastery in China, Bodh Gaya in India, Gandhara Dharmarajika Stupa in Pakistan and small pagoda for dedication near the Bukara Great Pagoda.



[그림22] 민예적 조형성을 지닌 일명, 거지탑 [그림23] नेपाल의 민예적이고 토속적인 탑

3) One of notable characteristics held by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is the diversity in a shape of stone pagoda where the number of stone pagodas is distinctively large at one temple. These many stone pagodas in various shapes are gathered together at a single site. It is conventional to build one or two pagodas at a temple in Korea, but Unjusa Temple is truly unique as it has 22 to 30 pagodas installed. There is no other similar case of building these many pagodas with diverse appearances in Korea, and the formative style of stone pagodas offer assorted aspects. At least, there is absolutely no other case in Korea where all sorts of pagodas are gathered at one location, including square-shaped pagodas, round-shaped pagodas and spherical-shaped pagodas in a single story, 3-story, 5-story, 7-story and 9-story.

From Buddhist pagodas in the world, there is no other case where wooden structure style is implanted into stone pagodas as shown by Korean Buddhist pagodas. Indian Original Stupa or Buddhist Pagoda of Sri Lanka well learning from Indian Original Stupa and Buddhist pagoda of Nepal are in an overturned-bowl shape and mostly built with bricks. Buddhist pagodas in Thailand show corn-like appearances similarly transformed. Indian Original Stupa was developed with architectural stylobate in Gandhara, and its appearance was transformed as its size became smaller. Buddhist pagodas of temples transferred to Tibet developed another different looks.

4) Small religious spaces are separated formed within the temple space called Unjusa Temple, and each of these spaces has the attributes of another independent worship space. A total of 9 sites are available where 8 sites are close to the Buddhist statue and one site is adjacent to Seven Star Rock. It forms a set of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to create independent worship space for each. Hence, it is an arrangement of temple based on feng shui theory, and stone pagodas appear to be located in the space of temple.

5) They do not have a typical stylobate that is supposed to be present with stone pagodas, and these pagodas instead have their foundation with natural bedrock or large single-piece stone block. Similar examples can be found from stone pagodas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t Namsan Mountain in Gyeongju, 7-story Cheongoksa stone pagoda in Jeongeup and 7-story stone pagoda at Yongdam Temple site in Namwon, but it is still rare to find. Stone pagodas were built in a proper and plain manner in accordance with neighboring

situations or geological conditions.

6) In general, expression of pillar style with stone pagodas is mostly made by placing corner stones at the edges and center pillar in the middle or imitating the engraving. But in case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one more supplementary corner stone looking similar to corner stone is engraved inside the corner stone of 1st-story trunk.

7) Unprecedented geometric figures, which were never found from stone pagoda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manifested in the surface stones of the trunk, including rhombus (◇, ◊), cross line (×, ××), vertical line and diagonal line(<, >). In the past studies, clear interpretation of these patterns have not been offered, but it is certain that the shape of figures essentially begins with rhombus (◇).

Rhombus (◇) is a pattern associated with the diamond shape densely decorating the outer wall of Hindu temples and Buddhist temples in India. Diamond symbolizes the light and firmness and is the hardest mineral among natural substances as also called 'Geumgangseok (金剛石: diamond).' The most sacred Buddhist scripture is also called 'Geumganggyeong (金剛經).'

Some scholars believe that this rhombus shape and ×× are likely associated with Mongolian design.



[그림24] 기단이 없이 암반 위에 세운 탑. 補助隅柱의 예



[그림25] ◇, ×× 문양석탑



[그림27] 탑신의 (보조)우주와 탕주



[그림 26] ◇ 문양 석탑

8)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square-shaped roof stone of stone pagodas at Unjusa is lack of roof supports, but diagonal line patterns were decorated instead to replace roof supports.

9) The stones for roofs of stone pagoda are called a roof stone. Thick bump in a rafter shape found at Unjusa Temple is the unique element in Korean stone pagodas.

10) Forms of Sarira holes discovered from roof stone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also distinctive. Sarira holes found at Unjusa Temple are either dugged from the bottom toward the top of roof stones, unlike typical forms, and rectangular-shaped, not square-shaped, Sarira holes were also discovered. At Unjusa Temple, the number of Sarira holes is mostly either one or two.

11) For most of square-shaped pagodas, roof stones are flat, wide and slightly upward to show different aspects, and trunks are high and steep to suggest the stone pagoda style of the Baekje Dynasty.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sculptures believed to be from Baekje arts are rare to find in the old territory of Baekje. Nonetheless, it is also notable that Baekje-style stone pagodas suggesting close association with Baekje arts manifested at Unjusa Temple in Hwasun, a remote place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Goryeo Dynasty.



[그림28] 옥개석 하부 모서리의 추녀형 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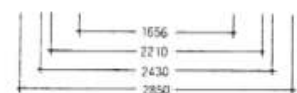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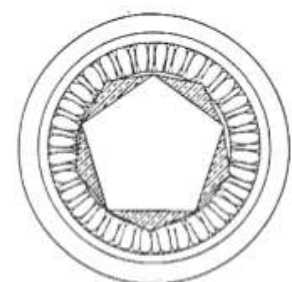
12) Generally, Buddhist pagodas were erected at the center in front of the hall. But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placed in a somewhat disorderly fashion at the site distant from the central space of the temple regardless of temple arrangement. That is why there are some people claiming that the arrangement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is based on the astronomical order.

Escaping from typical arrangements where a single pagoda or a pair of pagodas are installed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it is also noteworthy that pagodas were concentrated within the range of 200-meter length and 90-meter width at the valley nested alongside the temple site.

Regarding the arrangement of pagodas, 10 units are located at the flat surface of the valley together with 7 units (including 3 units of grooves for pagoda site) at the left hillside and 5 units at the right hillside, which eventually forms 3 rows.

13) The examples of decagon cartography and application of golden ratio manifested from the trunk of circular stone pagodas represent quite a rare structural method and sense of geometric formativeness. From traditional architectural structures of Korea in the past, there was a case interpreting the ratio of the front and sides of Muryangsujeon Hall at Buseoksa Temple by a golden ratio, but the golden ratio was nowhere to be found from stone remains.

14) Assumption can be made that construction of temples deep into the mountain of Hwasun Chunbulsan as well as so many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following of feng shui theory in addition to local powers and public participation.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hould be essentially viewed as containing the meaning of Maitreya ideology yearning for 'Sancheonbibojinap' and the future deeply related to feng shui Docham thoughts widely popular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concept of supplementary feng shui is to reinforce the weak and suppress the powerful not to be too powerful in order to bring prosperity by turning the misfortune to the fortune.



기단 양시도

[그림29] 10각형 탑신의 구조

IX. Value of Buddhist Pagodas at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Unjusa Temple is a Buddhist heritage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as a temple founded during second half of the Goryeo Dynasty, followed by a number of rebuilding processe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are unique historic monuments which are creative, traditional, humorous and, most of all, truly rare to find at anywhere in the Buddhist cultural sphere of the world. Based on excavations and academic researches on 4 different occasions since 1970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historic facts and values innate within the remains, and the further details were specifically identified one by one.

Unjusa Temple has been garnering tremendous attention from many people because of the fact that countless stone Buddas and pagodas are concentrated in a single valley in a group as well as their traditional yet humorous formativeness.

As described above, Unjusa Temple is such a mysterious temple, which led to diversified views concerning the background and time frame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ose pagodas. There are numerous relevant theories from establishment by Doseon, a mythical figure, a claim that it was founded in the early years of Goryeo Dynasty, a theory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12th century or an assertion that the foundation year can go back to as early as the early 11th century.

According to excavation surveys, it is believed that Unjusa Temple was constructed in the early 11th century, embraced with its heydays in the 12th century but no longer flourished after 'Hongchi 8 Years (弘治八年; 1495)' and eventually closed during the Japanese reinvasion.

A number of theories are also raised with regard to the principal body of foundation, including claims that it was built by Doseon as a temple of BIBO, that it was founded by local powerful clans at the Neungju region near the end of Unified Silla Dynasty era and that the temple was not a Buddhist temple but a place of prosperity for folk religion, liberation district for 'cheonmin (the lowest class of people)' and 'nobi (slaves),' Taoism temple or esoteric Buddhism temple.

Based on historical records, Volume of Neungseonghyeon from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n Geography of Korea)," Unjusa Temple was located at the Cheonbulsan Mountain where over 1,000 of stone Buddas and stone pagodas for each were placed at the mountain ridge on both left and right sides. But "Donggukyeoji" states, "It was known to the world that the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Silla period or thousand Buddas and pagodas were built by thousands of people led by Hyemyeong, a monk of Goryeo."

Since the modeling techniqu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displays similar to the time of late Goryeo Dynasty, the upper limit of establishment time frame for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hould be viewed as the 12th century. Setting the upper limit of establishment time frame for stone pagodas to be the 12th century, it would be appropriate to assume that it was actually around the 13th century. Especially, because the Buddhist community of Goryeo Dynasty in the 13th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as general public-oriented local Buddhism as a number of small denominations of Buddhism emerged in Goryeo during the 13th century and indigenous mystic trends were reincarnated, it is only appropriate to deem that those stone pagodas were built during the 13th century.

It is because the typical sense of imbalance displayed by stone pagodas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seemed to have disappeared while somewhat spontaneous and roughly random techniques and folksy and folk crafty aspects appeared evident within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But describing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to be crude or lack of Buddhist faith would be very much inappropriate; instead, one can argue that the temple was built and developed with certain goals and intents corresponding to special purposes or backgrounds.

It brings a question where the value, authenticity and creativenes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tand as cultural heritage.

First, with the pattern of temple arrangements, it distinguishes atypical spatial characteristics. They are placed in an atypical manner at the flatland inside the ridges and valleys on both sid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existence with pagodas and Buddha statues forming a group or they maintain the order of their own according to each of their own wills for formativeness, but it rather delivers more powerful sense of independent individuality.

Buddhist pagodas of Korea are based on granite which directly reflects legitimacy of Korean Buddhist arts. As a 'nation of stone pagoda' unlike Chinese brick pagodas or Japanese wooden pagodas, it expresse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tone-made Buddhist culture. The heritage of Buddhist stone culture in Korea delivered granites that were aesthetically trimmed. But Unjusa Temple used tuff collected and processed near the templ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use of quality granites.

Formativenes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offers exceptional roughness unlike typical stone pagodas in Korea. It was not restricted by typical aesthetics, and it instead focused on random contrast by placing significance merely on the construction of stone pagodas.

Embracing the unconventional beauty shattering the formality, beauty of simplicity challenging with power and beauty from the traditional sense of humor that is friendly and funny, though each of them are scattered separately, pagodas are arranged as a group within the temple, which delivers fresh impression and special charms of Unjusa Temple.

There is diversity in the style of stone pagodas formed inside a single temple. Some claims that round-shaped pagodas and brick pagodas were influenced by China; however,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from China, and they can be deemed as independent forms built under the unique environments of Korea. As round-shaped pagodas of the Song Dynasty or Yuan Dynasty revealed differences from those of Korea in specific matters, distinctiveness of our own became more evident. It is a unique and distinct style that cannot be see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specially, unprecedented geometric figures, which were never found from stone pagoda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manifested in the surface stones of the trunk, including rhombus (\diamond , \diamond), cross line (\times , $\times\times$), vertical line and diagonal line($<$, $>$).

(\diamond , \diamond), (\times , $\times\times$), It is a claim that irregular Seven Star Stone is directly reflected with the same shape of the Big Dipper that becomes bigger or smaller based on the brightness. The purpose of formation is to illustrate that Unjusa Temple with Thousand Buddha and Stupa is placed in the air of the sky, not on the ground..

Unrestricted crudeness that can be felt from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looks as if everyone joined to express the desire of their own. It means that the general public built those Stone Buddhas and Pagodas with their aesthetic senses. The works of other Buddhist nations offer exquisiteness and completeness. But it is completely opposite at Unjusa Temple.

Buddhist sculptures at Unjusa Temple are not part of the mainstream in Korean Buddhist arts. But it can be deemed as the space where we can indirectly learn and understand the localization of centralized power during the 12th and 13th centuries, implementation of ideal space for liberation for suppressed public, changes to grant opportunities to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the ideology ruled by aristocrats and variation from typical practice to folksy humor.

Value of Stone Buddh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LEE, Gyeong-Hwa

Cultural Heritage Apprais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 Preface

Unjusa Temple is located at the valley of Cheonbulsan Mountain in Hwasun and known to be the monuments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with 80 Buddhist statues and 20 pagodas. Stone Buddhas and pagodas are placed along the valley and accessible with their outdoor placement. Considering the damaged stones remained at the site,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could have been far more stone Buddhas and pagoda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nducted excavation surveys on 4 different occasions during the 1980s. According to the report of excavation survey, the temple first began in the 11th century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is a Buddhist monument which led its heydays from the 12th century through the mid-13th century.

Unjusa Temple remains as mystery since its establishment years, supporting groups and denomination of the temple are not clearly identified or known.

In the Goryeo history, BIBO thoughts viewed the nature of mountains and streams as subject to treatment and served as the core of Korean indigenous Buddhism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With regard to ideological backgrounds of Unjusa Temple, comprehensive views were offered where Thousand Buddha and Stupa was built through reflection of Thousand Buddha faith during the mid-to-late Goryeo Dynasty based on the theory of 'Sancheonbibojinap' stemming from feng shui theory of Doseon.

II. Type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1. Stone Buddha and Shrine

In Korean fine arts, gigantic stone niche reenacting wooden architecture of gambrel roof is hardly ever found. Stone shrine was placed on top of pedestal of Buddhist statue. At the inner space, Buddhist statues are sitting down on the south and north side with one halo in between. The shoulder of halo is projected like a hook to be hanged over the crossbeam to receive the load of roof. A hinged door was installed at the outer center, and thick main ridge are placed horizontally at the peak of gambrel roof. The metho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the force supporting the reenactment of stone sculpture and a huge roof stone was made possible by the creativity based on long years of experience.

Seated stone Buddha facing to the south placed the right hand in front of the stomach and left hand in Chokjiin position while seated in a lotus position. It is a variation from general Chokjiin Mudra with the left and right switched, meaning that the right hand is on the body and left hand is on the lap. The head is big and round-shaped, and Yukgye was either destroyed or possibly extra stones. Legs are placed with the right foot to be shown from the front. The body mass suggests that it is a flat-shaped and schematic Buddhist statue of the Goryeo Dynasty.

Seated stone Buddha facing to the north is in a form similar to the Buddhist statue in the south. The body seems heavy with a long face, and it displays changes with eyes slightly opened together with different Mudra and clothes. It has horizontally sharp eyes, and a thick and long nose is vertical to the eyes. Vertical line of philtrum was not expressed, but the mouth is small with long philtrum.

Following the direction of force, it leads to the Buddhist statue facing to the north from the starting point at the Buddhist statue facing to the south. Connecting the arrangement of four-directional Buddha, the south-facing Buddha is Sakyamuni, and the north-facing Buddha is Maitreya. Maitreya is a future Buddha erasing sins from those who abiding by Dharma to give guidance after attaining enlightenment in this world during the next life to succeed Sakyamuni, historic Buddha. In general, the north direction is connected to Maitreya.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uniformed principles applied under the localized regional cultures in the Goryeo Dynasty.

2. Lying Buddha and Seven Star Rock

1) Lying Buddha

Lying Buddha at Unjusa Temple is not ordinary Lying Buddha that lies down to the right side. It is a statue fully revealing the contour of laying statue and standing statue on the floor of huge rock at the peak of the mountain through alto-relievo. To the left of big lying Buddha, a slim standing statue is leaning its back to the ground surface.

Seated Buddha is in a lotus posture by extending the right foot forward. On the face, the line from eyebrows and nose is clearly shown, and its half-moon-shaped eyes look overwhelming. Lips are big and thick. The face is long as displayed by most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It offers different impression by expressing long philtrum on a long and plump face. Yukgye was made with separate stones and placed next to the head. It has a wide neck, and three ways were not expressed.

Standing Buddha is on the left side of Seated Buddha. The face is long, and illustration of half-moon-shaped eyebrows, nose, mouth and philtrum is identical with the sculpture scheme of the seated Buddha. The clothes are so-called 'Pyeondanjwagyeon (single point on left shoulder)' covering up the right shoulder, different from common cloth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vering mode and Pyeondanjwagyeon (single point on right shoulder) is common clothes in India, application of Pyeondanjwagyeon is quite unique. Because it is placed to the right side of Buddha in the middle, it raises the left hand and lowers the right hand to make the eyes staying with the magnificent seated Buddha longer. Mudra seems to be floating in the air, and it may be viewed as variation of abhaya Mudra and varada Mudra.

Because Lying Buddha has the head facing toward the south, its eyes are believed to glance to the north. The left direction might have been selected by a narrow square-shaped rock in the south. Mudra is identical with north-facing stone Buddha of stone Buddhist Niche. A unique myth has been passed down that Utopia was to realize if this lying Buddha was erected. During general production process of stone Buddha, stone is quarried, transferred to a certain location, sculptured and moved to the final destination for detailed works, such as face works, to be completed.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seems there was no intention to erect a Buddhist statue of which sculpture was completed from another location just as shown by the current lying Buddha.

On the other hand, so-called servant Buddha located at the entrance heading to the lying Buddha is the one detached from the right side of the lying Buddha, according to passed-down folk stories, and the lying Buddha is viewed as to form a triad. But since the quality of stones as well as sculpturing method is clearly different,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e lying Buddha as the formation of triad. The weight of lying Buddha is 214 tons, assuming the density of granite to be 2.63.

2) Seven Star Rock

Seven Star Stone is nested at the mountain slope in the west of lying Buddha. It is a distinct monument where seven large disc-shaped rocks are symbolizing the constellation of the Big Dipper. Diameter of each disc is 276 to 385cm, and the thickness is 39 to 56cm. Diameter of rocks is in correlation with the grade of brightness of the Big Dipper based on astronomy. Calculating the weight of Seven Star Rock, the big one of Seven Star Rock weights 15.5 ton and the small one is 2.2 ton.

The North Star is placed at five times of distance from the direction of the end of four stars curved like a hook of the Big Dipper,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guide to find direction throughout human history. The Big Dipper, the pivot of sky, was reborn as a faith called Tejabrabha between the late 8th century and the early 9th century following the combination of Indian esoteric Buddhism, astrology and planetarium of Chinese Taoism. As the astronomical thoughts of Goryeo was reflected on the attributes of the mixing of Buddhism and Taoism, Buddhist paintings contained the Big Dipper and Milk Dipper, unlike China or Japan, which implicates the tradition of Goryeo's astronomical thoughts that is quite distinct from other nations.

Arrangement of Seven Star Rock at Unjusa Temple reversed the Big Dipper in the sky as if appeared in the mirror. The image of revered Big Dipper like a shadow of the Big Dipper reflecting on the ground as if the sky and earth are folded as one already took up the half of 22 Big Dippers drawn on the ancient tomb murals of Goguryeo. Lying Buddha is nested at the brightest location pointed by the end of Seven Star Rock.

3. Halo Buddhist Statue and Rock-carved Buddha

1) Halo Buddhist Statue

There are three Buddha statues with halo at Unjusa Temple. They are Halo Buddhist Statue, Rock-carved Buddha and Stone Shrine. The tip of halo is broken, but it is trapezoidal-shaped, long and slim. Two hands are gathered in front of the chest in a '^' shape to hide its great cause, and the statue is in a lotus posture with the right foot forward.

Nose and philtrum are long on an oval-shaped face, and a white tiger is engraved on the forehead. Thick lips are the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the lying Buddha, stone Buddhas A-2 and standing Buddha. Neck is thick with fleshy ears, and the neck is without the expression of three ways. Its expression method is similar to that of lying Buddha.

It is also 'Pyeondanwugyeon (single point on right shoulder)' exposing the right shoulder where the left sleeve has a plain pattern while the right sleeve is wrinkled diagonally. These are characteristics often found from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which is an extraordinary expression where such method cannot be actually completed through 'Pyeondanwugyeon.' The fact that the sleeves are notably narrow compared to general robe of Buddhist statues is also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Both Indian and Chinese Buddhist robes had narrow sleeves. This is also viewed as the reflection of clothes from the Goryeo Dynasty.

Diagonal folds on the clothes are incised differently on the right and left foot. Regardless of circled shining light or inverted light of the halo, carved flame patterns are placed near the Buddhist statues. Flame patterns are not completely symmetric.

2) Rock-carved Buddha

Rock-carved Buddha is located at the rock cliff approximately 40 to 50 meters away from the current Daeungjeon Hall to the north. Mudra, posture, clothing and halo are in identical forms as if they are

transformation of halo Buddhist statues, and detailed expressions are different. Eyes of Buddhist statues are heading southwest to the access road of Unjusa Temple. In addition to shallow relief, cracks and dropouts have progressed substantially.

Rock-carved Buddha has an oval-shaped face with narrow forehead directly connected to Yukgye. Eyebrows and nose are connected in a single stroke,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and the shape of nose is clearly projected. Ears are rather short, and earflaps are clearly illustrated. Neck is long with clearly engraved three ways. The clothes are in 'Pyeondanjwagyeon,' and intaglio robe folds from the left shoulder visually contrast with the folds in the right sleeve where they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rms gathered in front of the chest are covered by the clothes, forming a '^' shape. The seat is engraved with 8 lotus patterns. Regardless of circled shining light or inverted light of the halo, it closes very near to the body up to the upper part of knees from the head, and flame patterns are illustrated in intaglio lines.

Rock-carved Buddha shows a similar style with halo Buddhist statue, including Mudra, illustration of robe folds at shoulders and arms and flame patterns toward the Buddhist statues. Halo Buddhist statues are without three ways, but rock-carved Buddhas have notably clear three ways.

3) Buddhas A through 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re leaning toward natural rock faces at the mountain edge by using the topography. They are drawn in a spiral shape in the order of east, north and west directions, Buddhas of group A through F can be seen sequentially. Stone Buddhas formed open niche protecting Buddhist statues using the cliff face of bedrock. Niches trimmed part of cliff face and are in a form of turtle rocks in overall. Stone Buddha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leaning on the rock faces with the expression of foot omitted. It could be an efficient option to build a number of units in shorter time, compared to independent stone Buddhas. With pedestals, decorations are carved at the main Buddha, and the remainders are simply square-shaped separate stones. Exception with the group D is that foot is sculpted and leaned on.

Arrangement of Buddhas is in a pattern where the main Buddha is placed at the center and small stone Buddhas are located on the right and left. The main Buddha shows superiority with its bigger size or illustration of lotus pedestal, compared to small stone Buddhas on the left and right. The main Buddhas of group A, C, E and F are seated Buddhas with pedestals, and none of them leans on the rock face.

The main Buddha of the group A gathers both hands in a '^' shape and looks like a different version of halo Buddhist statue. It has a bigger head with average body frame. Its robe shows the unique practice of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where robe folds are illustrated on the right shoulder and left sleeve of the 'Pyeondanjwagyeon' robe. A small niche is located on top of the niche to form a layer, and one unit of pagoda is erected on top of it.

Main Buddhas of group C, E and F display the similarity where robe folds are laid down on the Buddhist robes in a stair-like manner with Mudra on the finger of both hands.

Cases of Buddhist statues with fingers on both hands during the Goryeo Dynasty can be found from stone Buddhist statues in Gyosa-ri, Goseong, Gyeongsangnam-do and seated stone Tathagata statue at Baekamsa Temple in Haman. Seated stone Tathagata statue at Daewonsa Temple in Gumi displays a variation where the left palm faces outward from the Mudra on the finger of both hands. Thus, the main Buddhas of group C, E and F at Unjusa Temple are not popular ones, but it is not an unknown Mudra that never manifested anywhere during the Goryeo Dynasty.

Buddhas group D is mixed with statues illustrating foot in a mere formality while leaning toward the rock face. No principle of main Buddhas can be identified, but their sizes seem similar to each other. It is difficult to verify whether they were disturbed or additionally modified afterward by the next generations.

From Buddhas of group E and F, the number of stone Buddhas without fingers with Mudra, such as empty hand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by having both hands horizontally placed in front of the stomach while the Mudra is covered by the Buddhist robe is rather small, and the pieces are relatively with less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Buddhist statues and groups of Buddhas can be schematized as shown below.

	Location	Posture	'^' Mudra	Fingers of both hands	Abhaya Mudra and varada Mudra	Three ways	Lotus posture	Covering mode	Pyeonda nwugye on	Pyeonda njwagye on
Stone Buddha and Shrine	South	Seated		○		○	Right	○		
	North	Seated	○			○		○		
Lying Buddha	Right	Seated	○				Right		○	
	Left	Standing			○					○
Halo Buddhist Statue		Seated	○				Right		○	
Rock-carved Buddha		Seated	○			○	Right		○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Buddhist statues

	Number of surveys	Main Buddha (Mudra)	Seated statue	Standing statue	Pagoda	'^' Mudra	Crossing hands	Fingers of both hands	Bow with hands	Abhaya Mudra and varada Mudra
Group A	7	Seated statue ('^')	1	6	1	4	1			2
Group B	8	Standing statue (Abhaya Mudra and varada Mudra)		8		4			1	3
Group C	8	Seated statue (Fingers of both hands)	1	7	1	5	1	1		
Group D	4	Standing statue ('^')		4		3				1
Group E	8	Seated statue (Fingers of both hands)	2	2			1	2		1
Group F	10	Seated statue (Fingers of both hands)	2	8	2	6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Group of Buddhas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generally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f stone Buddhist statues of Stone Buddha and Shrine are connected to the arrangement of four-directional Buddhas, the statues facing to the south are Sakyamuni statues, and the statues facing to the north can be viewed as Maitreya, the future Buddha following after Sakyamuni.

According to general production methods of stone Buddhas, it appears that there was no intention to erect a lying Buddha after the statue was completely sculptured at different loca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believe that so-called servant Buddha is detached from a lying Buddha or the triad was formed.

Seven Star Stone is what is rare to be found as a large stone structure of the Big Dipper. It is a traditional revered image appearing in the mirror just as a shadow of the Big Dipper reflecting on the ground as if the sky and earth are folded as one. It implicates a profound correlation between astronomy and Buddhism at Unjusa Temple based on traditional astronomy of Goryeo.

As easily evident from halo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have significantly narrow sleeves, compared to clothing of general Buddhist statues.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leeves that are illustrated in a wide form in India and China. The clothing where sleeves are not wide and become narrower at wrists is assumed to be the traditional expression reflecting the clothing during the Goryeo Dynasty.

Rock-carved Buddha is in a similar style with halo Buddhist statues. Despite the above, changes were made with the presence of three ways and pedestals. It implicates a unique production practice for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which were manufactured under a careful plan from various drawings through the use of specific modules.

As shown by the main Buddhas of group C, E and F, similarity can be found where robe folds are laid down on the Buddhist robes in a stair-like manner with Mudra on the finger of both hands; however,

calculated changes can be detected through combinations of various modules. It means that those changes are made when inserting or omitting robe folds, placing the right foot or left foot forward in a lotus posture and expressing or omitting three ways at the neck.

Mudra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re covered into the robe by hands as more than half of stone Buddhas took the mudra in the ‘^’ shape. Despite with the ‘Pyeondanwugyeon,’ it shows a unique illustration method expressing the folds on the right sleeve instead of left sleeve. The patterns to cover up the hands are when a one-piece cloth is worn or hands are covered by a clothes with narrow sleeves.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show consistent reflection of intent for unduplicated variations. These are based on transformation by modules, and it proves a calculated, not spontaneous, production plan from the early stage of production. Stone Buddhas of the Goryeo Dynasty display abstract tendency, compared to the Unified Silla Dynasty, and folksy expressions were diversely varied based on local cultures.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integrate the abstractness and folkways through variations rather than simple duplications.

III. Epic of Buddhist Statues Covering up Mudra

1. Image of Thousand Buddha Covering up Mudra

Many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cover up the mudra with the robe by gathering the hands in front of the chest. In general, expression of covering up the mudra inside the robe was often used for production of unspecified and many Buddhist statues, such as Litany Buddha or Thousand Buddha of Mandorla.

‘Kyejomyung inscription on Buddhist Stone Monument (676)’ is a small Buddhist stone monument excavated from the Yeongi region, the old territory of Baekje. Triad is projected at the lower part of the front side, and small Buddhas were sequentially engraved on 4 sides of stone monuments. These identical seated Buddhas in line are called the stele of Thousand Buddha. Small Buddhas at the stele of Buddhas with 91cm height and 50cm width are all in a posture meditating with hands gathered at the lotus-postured legs, and the robe pulled out from the inside covers up the hands (Figure).

Statues of Thousand Buddha implicate countless Samcheon-daecheon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t world where Sakyamuni presides. The world consists of the tim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paces in four directions, and Thousand Buddha is Sakyamuni as numerous incarnations.

Thousand Buddha manifests in each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4th Buddha is Sakyamuni from Thousand Buddha in the present. Thousand Buddha was already mentioned in the scripture established in the 1st century and expressed through sculptures and murals in the region under the Mahayana Buddhism since the 5th century.

Image of small Buddha meditating at Thousand Buddha is generally available with distinction of being paralleled Buddhist statues of the same size. Thousand Buddha repeating the appearance of Buddha regularly set in line of rows and columns was made widely popular in China. These methods were suitable to fill the most Buddhist statues in the least time. At the stone cave temple in China, Thousand Buddha carried substantial significance with wide areas where they were arranged at the front of the stone caves in the Northern Dynasty; however, they were pushed away from the façade to the ceiling during the Sui Dynasty and Tang Dynasty to function to bring magnificence rather than being the subject to worship.

From stone cave Buddhist stone monuments at the Maiji Mountain Grottoes in China, Dhyana mudra was placed in front of legs in a lotus posture from the statues of Thousand Buddha at 133 cave (Northern Wei; 501-530); however, small Buddhist statues with reversed Dhyana mudra in front of the chest in the ‘^’ shape are also seated in line. It shows a few different appearances, including covering up the hands with the robe or putting the hands in the wide sleeve (Figure).

2. Development of Main Buddha Covering Mudra

The cases where the image of Thousand Buddha statue is illustrated as the main Buddha seated with dignity can be found in the Baekje Dynasty in the 7th century and Silla Dynasty during the 8th century. Gilt-bronze Buddha Plaques from Gimje is presumed to be the image from the late Baeje Dynasty in the 7th century for the purpose of decoration. From 4 rectangular Buddha plaques excavated together, Buddha triad was engraved at the biggest plaque (7.7×7.1×0.6cm). Tongyeon Buddhist robe of the main Buddha covers up two hands and two legs. Keyūra above the head is decorated with baldachins hung in all directions. Bodhisattva statues on the right and left dedicate flowers for Buddha by freely revealing the hands (Figure).

These styles applied to all main Buddhist statues of Rock-carved Buddhas in Tapgok Valley, Gyeongju, which was the focal point of Silla. It is a square-shaped rock with 10m height and 30m width, and is Rock-carved Buddhas with sculptures of Buddhas and Bodhisattvas statues, pagoda, Aprasas and monks of triad engraved in the 8th century of Silla (Figure). Most of Buddhist statues on four sides cover up the robe slipping down, and Bodhisattvas and Aprasas put their hands together by revealing their hands. Rock-carved Buddhas at Borisa Temple at Namsan Mountain, Gyeongju during the 8th century of Unified Silla also engraved these Buddhist statues as Rock-carved Buddha.

It is not the main Buddha but auxiliary pieces in the representative Buddhist statues in the 9th century outside Gyeongju. Mudra of Buddha decorated the middle stone base of Stone Seated Sakyamuni Buddha of Buseoksa Temple was placed inside the sleeve with hands raised above the chest. At the halo of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of Gageonsa Temple, Goesan, Chungcheongbuk-do, 9 nirmana-Buddhas are covered by the robe throughout circled shining light or inverted light.

There are no agreed terms for mudra of these Buddhist statues. Dhyana mudra with legs in a lotus position gathered are covered by the robe slipping down or it shows a gentle slope by raising both hands in front of the chest and putting them inside the sleeves. Interestingly, these mudras are occasionally discovered from the main standing Buddhas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at the title of Buddhist statues covering up the mudra and what customary practices applied to the main standing Buddhas of the Goryeo Dynasty, but it is clear that this practice was spread around certain regions as local practices during the Goryeo Dynasty.

3. Main Standing Buddha Covering up Mudra during Goryeo Dynasty

Rock-carved Buddhas are located at Gaeryeongam Hermitage Site, Jeongnyeongchi near the peak of Jirisan Mountain. With two main Buddhas of the size of 3 to 4 meter at the focal point, 8 or 9 units of small Buddhist statues are engraved to form a group of rock-carved Buddhas. The surface of rock face is coarse, and many of rock-carved Buddhas and engrave texts have been peeled off, which makes it difficult to verify what theme those statues are under. The main Buddha that is the biggest and clearest is a standing statue where both hands are gathered in the middle and placed into the sleeves. The text, ‘月智佛 (Wolji Buddha),’ is visible on the left side of the statue. Wolji Buddha is a Buddha whose name appears at the Volume 7 of ‘Foshuo-foming-jing’ and ‘The life-span of the Tathāgata’ of ‘Avatamsaka Sutra.’ Another main Buddha is a seated statue, and engaged in varied mudra by placing the right hand on the chest and left hand on the stomach. On the left, the text of ‘毗盧遮那佛’ is also written (Figure). ‘Bulmyeong gyeong’ usually lists the name of 600 Buddhas to worship, repent and earn public morals. These scriptures influenced the dissemin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ousand-Buddha ideology.

At the food of the mountain, there are rock-carved Buddhas in Dojeon-ri, Sancheong. Approximately 30 seated Buddhas are arranged roughly in line on 5 different layers. They all consist of seated Tathagata, and name-like tests are also engraved on the left. Similar to the structure where each title is attached to the side of seated Buddhas on the painting of Thousand Buddhas, it can be assumed to be rock-carved Buddhas in combination with Thousand Buddhas faity, but there is no way to decipher in association with the text of ‘Sir ○○ (○○先生).’ They are not all the same mudra, and there are four or five different mudras. And some took a posture in ‘^’ shape by putting both hands in the sleeves (Figure).

A common denominator between two groups of Buddhas is that the group is comprised of Buddhas without statues of Bodhisattva. And it shows the title of Buddha or style of Thousand Buddhas Painting appearing in the Bulmyeong gyeong-related scriptures. It is difficult to be sure that it follows the Bulmyeong gyeong-related faith to earn public moral by reading and learning through the title of Buddha, but they contain the Buddhist statues covering up mudra by placing both hands in the sleeves in the same manner. The difference is that hands are gradual in ‘^’ shape. Each of them is believed to be Buddhist statues in the 10th century and early years of Goryeo Dynasty.

From 18 Buddhist statues at Haehoejeon of Daedong Hwaesomsa during the Yauo era while previously examining Buddhas with fingers of both hands, there is a Buddhist statue with horizontal hand motions by placing both hands inside the sleeves (Figure). During the exchange between Goryeo and Yauo, Buddhism exchange relationship was maintained while Kuran-Tripitaka was imported to Goryeo on 4 different occasions. Buddhist statues of Yauo Dynasty were generally well balanced with mild facial expression in addition to neat, solemn and voluptuous appearance, which demonstrates the influence from the Tang Dynasty. Some of 18 Buddhas show postures hiding mudra or with fingers of both hands, but variations and history displayed by Goryeo have earned attentions.

The main Buddha at Songjeong-ri, Nonsan is a standing statue with 3.2m height. Attendant Bodhisattva is in a small size and forms a triad. The main Buddha is in a shape similar to mudra inside the sleeves. It expressed the Haljeolui robe (割截衣) in a go board shape with cloths (Figure). Rock-carved Buddha, a seated statue at Choseondae, Gimhae, appears to be in a posture of gradual mudra by placing hands inside the wide sleeves.

Standing stone Buddha at Wolchulsan Mountain, Yeongam, known to be Wangin stone statue, stands in a polite posture by placing both arms in the sleeves (Figure). It is assumed to be a stone Buddha in the 11th century. Standing stone Buddha at Osu-ri, Jangsu and standing stone Buddha at Hakjeong-ri, Imsim displays similar postures but with difference in expression of Buddhist robe (Figure). Standing stone Buddha at Hakjeong-ri, Imsim have the mudra covered by the slipping-down robe.

Standing stone Buddha at Namwon Yongdamsa Temple is a gigantic Buddhist statue over 6 meter tall (Figure). Face and mudra are barely visible due to abrasion, but its posture similar to that of standing stone Buddha at Hakjeong-ri, Imsil is identifiable. It is possible that 7-story stone pagoda with 10-meter height installed in front of the Buddhist statue was erected in the same period. 7-story stone pagoda was built in the first half of 13th century. A very detailed one-story trunk was placed on top of one-layer one-story stylobate, and it is also clear that this 7-story stone pagoda at Yongdamsa Temple is quite similar to the stone pagoda at Unjusa Temple (Figure).

On the other hand, standing stone Buddha at Jangheung Gosansa Temple raised the hands in ‘^’ shape in front of the chest (Figure). It influenced the stone Buddha at Maitreya Temple in Jangheung. It has the hand posture the most similar to the mudra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The lone difference is that hands are inside the wide sleeves of the robe.

Rock-carved Standing Buddha in Sinpung-ri, Nonsan has the hands in ‘^’ shape in front of the chest (Figure). They are shallow and unskilled engraved lines but express the halo in flame patterns and display the head and nirmana-Buddhas as if sitting on the shoulders. Rock-carved Standing Buddha in Sinpung-ri does not hide the mudra with the robe, but the shape of hands cannot be clearly identified. It is also difficult to be sure if it attempted to express the robe with very narrow sleeves just as stone Buddhas did at Unjusa Temple. With the fact that hands are raised in ‘^’ shape in front of the chest is the similarity with the mudra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From Buddhist statues of the Goryeo Dynasty, Buddhist statues with the mudra in ‘^’ shape were examined. As of today, 10 statues have been examined. Interestingly, they are concentrated in the Jeolla region surrounding Unjusa Temple, including Namwon and Jangheung. Mudra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is unique, but it schematized the mudra already distributed in the 12th century and imposed significance to develop into distinct expression of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IV. Nature and Specificity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Thousand Buddha and Stupa at Unjusa generates a free space at the flat land of the valley with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It is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Thousand Buddha that is arranged in line. The 11th century following the foundation of Goryeo was the period when fine arts culture of Royal Family was significantly advanced. Unjusa Temple did not display meticulous Buddhist sculptures at the high level; instead, it represents the most distinctive sculptures to bring innova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local cultures after the 12th century.

The origin of the style where numerous Buddhist statues are formed at the four sides of Buddhist pagodas came from Gumbatuna Stupa, and Thousand Buddha faith is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se Buddhist pagodas. Thousand Buddha consisting of pagodas stacked with traditional bricks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is arranged with Buddhist statues, pagodas and quarters. The Thousand Buddha Faith persisted under Goryeo Buddhism. Thousand Buddha and Stupa at Unjusa Temple is widely open throughout the natural valley with Buddhist statues, stone pagodas and quarter-like shrines, and it may be variation with Thousand Buddha and Stupa as their background.

Negotiation between feng shui and Buddhism was quite a unique trend in the culture and history of ideas within Korea. State Preceptor Doseon created the BIBO pagoda theory utilizing the Buddhist means of temple/pagoda as BIBO (Defect-Complementing) of feng shui. BIBO pagoda was presented in the 'Hunjosipjo' of King Taejo; subsequently, temples were not allowed to be built anywhere but the locations designated by Doseon. The BIBO theory was developed into a powerful ideology for harmony and balance of the entire land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and delivered powerful impacts on the society and politics. BIBO temples were reorganized under the Goryeo military regime, and Sancheon-bibo-dogam was installed in 1198. It implicates the 'geological Docham ideology' ratifying the national stability by BIBO's overwhelming victory that surged during the Goryeo Dynasty. BIBO was designed to supplement if there were deficiency in geological environments and to suppress if there were any excess.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agodas of Baekje where 1-story trunk became longer throughout the 12th and 13th centuries and the style of BIBO pagoda to be erected on the natural bedrock, which integrated them all together with geometric patterned decorations that was hard to find from general stone pagodas. From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pagodas of Baekje and Silla can be separately identified, and pagodas of Baekje account for almost half of all. From stone pagodas during the 12th and 13th centuries, pagodas erected on the natural bedrock without stylobate were concentrated, and its meaning can be understood through feng shui Docham and Sancheon BIBO pagodas. Each one of them represents the elements and architectural decorations of Goryeo's stone pagodas backed by traditions, but their integration is very innovative, which cannot be found from any other stone pagodas.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can be divided into independent stone Buddhas and grouped stone Buddhas. It is also important how Buddhist statues are related to each other from the arrangement of independent stone Buddhas. With Stone Buddha and Shrine of Unjusa Temple, seated stone Buddhas facing to the south inside the stone niche and seated stone Buddhas facing to the north are seated with different mudra. Seated stone Buddhas facing south are varied Chokjiin, and seated stone Buddhas facing north cover up the mudra with Buddhist robe by gathering both hands in the chest.

Lying Buddhas at the peak of the mountain are not Lying Buddhas by nirvana but gigantic seated and standing statues with their back on the ground surface. Eyes of lying Buddhas are facing north, and gigantic lying Buddhas in a seated position have the same mudra with stone Buddhas facing to the north of Buddha and Shrine. A well-known myth concerning Unjusa Temple is the expectation for Utopia to open through construction of these lying Buddhas by Doseon.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of stone Buddhas, it seems that there were no ways to remove the lying Buddha of which sculpture was completed from the site of sculpture since they were sculptured after quarried. Lying Buddhas are located at the brightest location pointed by the end of Seven Star Stone.

Awareness of constellation is the most important ideology in the feng shui theory. A propitious site is the location on which this theory is reflected. At Unjusa Temple, there is Seven Star Rock depicting the Big Dipper formed with 7 round-shaped tones. As presented by 'Hunyosipjo' of King Taejo, Buddhism and Ying/Yang as well as feng shui theory are not only the founding ideology of Goryeo but also dominant thoughts throughout the entire era of Goryeo Dynasty. Taoism is a complex faith including faiths in sky/earth, mountain/stream and holy belief. Taoism became a political ideology and most popularized during the mid Goryeo Dynasty.

Stone Buddhas are comprised of five groups in total. They utilize the cliff face of bedrock and form an open niche. Arrangement scheme utilizes topography to have stone Buddhas leaning on natural rock face. Mostly, feet are omitted. The main Buddha shows superiority with its bigger size or illustration of lotus pedestal, compared to small stone Buddhas on the left and right.

During production of stone Buddhas, intention of variation by modules, not boring duplications, was consistently reflected. It proves a schematic, not spontaneous, production intent from the very beginning. It may be different versions of similar Buddhist statues, but it shows planned changes through combination of various modules, including omission of robe folds from arms, changing feet from lotus position and expression or omission of three ways from the neck.

Clothing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has characteristics of substantially narrow sleeves compared to clothing of common Buddhist statues. Sleeves are expressed narrowly both in India and China. Clothing with narrow sleeves and narrowing wrists appear to be localized expression on which clothing of Goryeo era was reflected.

As key characteristic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over half of stone Buddhas show the mudra in '∧' shape and cover up the hands inside the robe. There is no consensus for the title of Buddhist statues with covered mudra in '∧' shape. In general, the expression of covering the mudra inside the robe was widely used during production of unspecified and many Buddhist statues. Interestingly, these mudras were often observed from the standing main Buddhas during the Goryeo Dynasty. Coincidentally, these findings were concentrated in the Jeolla regions, including Unjusa Temple. It implicates that a single standing main Buddha represented specific Buddha.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transformed the mudra, which was already distributed under the tradition of Goryeo, into unique expression of Buddhist statues at Unjusa Temple by schematizing the mudra and imposing its significance. It leads to many questions what respected title these stone Buddhas represented and how they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arranged on the topography.

V. Conclusion: Value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Unjusa Temple fulfills (i) and (vi) of the selection criteria to evaluat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s prescribed in Paragraph 77 of the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t (i) represents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and (vi) is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Outstanding heritage value of Unjusa Temple was realized through gigantic stone Buddhas and Pagodas as well as Seven Star Stone. Based on distinct style and expression of its cultural heritage, it is inevitable that Unjusa Temple is a fruit of diverse cultural and religious exchanges, including Buddhism, Taoism and feng shui. It carries truly significant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utterly rare to find the heritage where traces of these cultural exchanges can be found at a single location.

Unjusa Temple is surrounded by so many enigmas and mysteries yet to be clearly identified, including when and who constructed the temple. The shrine reenacting wooden quarters, pagodas erected at mountain

slopes and Seven Star Rock featured with 7 disc-shaped rocks are true mysteries.

Unjusa Temple carries significant cultural values of Korea.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this temple offers artistic insights that were blossomed under traditional religious practices and regional cultures of the Goryeo Dynasty all mixed with tradition of Korean stone sculpture, Buddhism, Taoism and folksy trends.

In summary, Unjusa Temple is powerful evidence demonstrating rich Buddhist legacy, enigmatic past and continuous artistic heritage of Korea. Unjusa Temple offers an important and rare example where Buddhism was spread throughout East Asia and went through changes in a distinct manner as assimilated into local environments and cultures. Since Unjusa Temple, it is rare to find a case where structures were sequentially built by powerful local supports after Buddhism encountered with local cultures, and it is an outstanding cultural heritage proving medieval Buddhist sculptures of Korea, technology, creativity, artistic inspiration and sociocultural importance.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Intangible Heritage Value of Unjuas Temple

HAN, Jeong-Ho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Cultural Heritage' Unjusa Temple and Intangible Heritage

Hwasun-gun invests vast efforts to help Unjusa Temple being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UNESCO establishe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 1972 and prescribes the protection system of heritage based on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ccording to currently amended operation guidelin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s prescribed to "mean unique transcending borders and commonly important cultural and/or natural significance to entire humankind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UNESCO presented a total of 10 items, and if one or more of these criteria are fulfilled, the heritage concerned will be deemed 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Moreover, in order for the heritage concerned to be recognized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tegrity' and 'authenticity' need to be satisfied, and 'proper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be in place.

When the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presented by UNESCO [Refer to Note 4] roughly apply to Unjusa Temple, the temple may fall under (IV) and (VI).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displayed distinct styles from the tangible aspects of structures, created excellent landscape from the quantitative perspective and embraced technical totality of architecture and fine arts. Unjusa Temple emits further higher value under Criterion (VI) in addition to Criterion (IV). On the hidden side of thousands of years that Unjusa Temple endured, countless stone pagodas and stone Buddhas have 'existed' while making contacts with people of the time as a physical being that ceaselessly stayed viable rather than merely remaining as breathless and fossil-like monuments. Passing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Unjusa Temple delivered lively traditions, ideologies and creeds by embracing events of local communities and functioned as catalyst delivering masterpieces of arts and literature by each era while maintaining its existence as superb art works in itself.

Aside from 10 items of evaluation criteria, conditions that need to be met by Unjusa Temple are 'integrity' and 'authenticity.' According to HWANG Ho-Gyun, Unjusa Temple was utilized as religiously vibrant space of faith for over 600 years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between its foundation (prior to the 11th century) and closure (end of the 16th century) from the aspect of integrity, and it was formed and maintained through integrated compilation of relig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including Buddhism, esoteric Buddhism, Taoism, astronomy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stone Buddhas and stone pagodas. From the aspect of authenticity, Unjusa Temple is a cultural heritage where religious acts continued to be performed at the same location for over thousand years from the 11th century through the 21st century; hence, not only all relics are authentic articles but also the sources of such relics are clearly identified whil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them have well maintained their original values. Based on the above, conditions for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Unjusa Temple can be fully explained.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prove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Site. Despite such efforts, what seems to be the reason for us to still feel short-handed somehow? As a matter of fact, vast efforts and various studies aiming to attain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facts, which means historical studies based on substantial proof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Unjusa Temple does exist as substantiated physical evidence that has endured over thousand years, it still remains unknown who built the temp and when and why it was built. Though countless researchers have invested tremendous efforts to unveil such fact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y eventually all failed to identify evidentiary materials that could lead to reasonable and universal recognitions. But merely because such evidentiary materials are insufficient or because historical facts cannot be uncovered, that does not mean that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is to simply disappear.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hereafter) enacted in 1972 assumed a pivotal role for awareness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But the Convention is based on Western-oriented thoughts and limited to tangible cultures when prescribing th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it is inevitably bound by restrictions when protectiv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determined by unilateral views and evaluation of others. UNESCO also realized thes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and attempted to address such problems. Such efforts of UNESCO brought a fruit, call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for Intangible"; 2003).' This Convention for Intangible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 upon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held by the Convention, and to realize cultural diversity. The Convention for Intangible recognizes the cultural heritage as cultural output formed through dynamic social processes rather than an output 'innate with' values that need to be discovered by researchers (others). '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not where previously-existing cultural identity grants specific values to cultural assets but the process itself to reproduce cultural identify by turning a certain object into a symbolic being containing the memory, experience and significance of a certain group. Discussions over such cultural heritage (its formation) are not merely limi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iscussed previously, it falls under Criterion (VI) from the 10 evaluation criteria o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Convention.

The process where Unjusa Temple earned the value of World Heritage cannot be described in a fragmentary manner. Even if Unjusa Temple and Thousand Buddha and Stupa were founded and created by whom, when or for what purposes, or if it demonstrated special architectural technology or artistic styles,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just cannot be fully explained.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cultural heritage can only be explained in whole when physical substance, temporality and intangible value of Unjusa Temple,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formed by countless people under the social and historical relationships for a long period time is additionally supplemented. Granted the above, how can we possible examine the 'intangible value' of Unjusa Temple? Local people generated dreams and hopes by relying on Unjusa Temple through their lives, and such dreams and hopes are contained in a story passed down through their memories and passed-down words. Local residents have long passed down many stories related to Unjusa Temple ever since a long time ago. These stories touch a variety of subjects from folk myths to actual experiences. These stories also offer diverse facets of Unjusa Temple that historical records never mentioned. Looking through the stories from the memories and passed-down words of local people, it would be quite helpful to learn the intangible value of Unjusa Temple.

II. Stories and Intangible Value of Unjusa Temple

Unjusa Temple is the site where various stories have been inherited. Local people passed down their stories featuring their experiences and memories, and formed significance through symbolism and metaphors. Stories of Unjusa Temple display a wide spectrum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themes and contents. Those stories embrace from 'mythical' stories that have passed down from the past through daily experiences

accumulated by local residents. This fact alone proves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carried by the stories surrounding Unjusa Temple. But when the stories of Unjusa Temple were intervened by historical events and real persons in addition to the description regarding formation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foundation of Unjusa Temple, it was when controversy began looming. Those underlying people without texts and records had no other choice but to interpret questions and curiosity toward physical presence existing before their eyes only through their experiences and memories. When such storylines are accepted by general understanding of a group of people, it turns into history of memories.

Stories have practi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reality. Stories are meaningful time for human that is built at the point where fiction and reality crosses each other. What the story needs to focus on is not whether it is truth or fiction but the significance formed by humans. The meaning of a story is an important element constituting locality, and the location is the power to reach the present after going through the past. Present stories are garnering attention as important cultural assets. Tangible culture as physical being cannot be preserved independently. Behind the background where tangible culture can be preserved as a meaningful being for a long period time, there is a foundation featured with intangible value developed by local communities and their members. Stories are not only the foundation upon which tangible heritage forms its value but also become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 themselves at the same time. All cultural heritages have accompanying stories. For instance, once there is a location for tangible heritage, there are people (local community) associated with the location concer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Locality and local community from which we can sense unique feeling that we can experience when going to a certain place and cultural heritage are indivisible from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As evidenced so far, intangible heritage contains a variety of values that is invisible from tangible heritage. This is what we call 'intangible value.'

While Unjusa Temple has not made exact approaches to its substance as of today, stories of Unjusa Temple formed and passed down by local residents are now becoming the subject of various discussions. But aside from such discussion, it is necessary for now to examine the stories of Unjusa Temple from the perspective of exploring intangible value embedded in Unjusa Temple and Thousand Buddha and Stupa.

1. Place of Sacred and Justice

1) <Propitious site of pagoda for Kings and Generals to be born; Unlawful secret burial causes drought and then leads village women to exhume>

Mountains are perceived by Koreans as a place to protect communities. That is why people believe in mountains closely related to their lives by converting the mountains into a concept of 'god.' Viewing the mountain and valleys where Unjusa Temple is nested as a sacred space, people stayed extremely cautious of any burial of the deceased at the site. If the sacred space is contaminated by burials of the deceased, all subsequent damages would be conveyed to the community. Once the sacred space is contaminated, it results in droughts without rain. The community immediately recognizes where such omen comes from and exhumes the secret burial sites as a countermeasure. As people procure a device of their own in order to prevent the sacred place from being occupied by individuals, this is why the propitious site of Unjusa Temple is called the 'land of empress.' One of important functions of a story is the establishment of borderline indicator of community. Local people try to share and protect the fact that Unjusa Temple area is a sacred space connected to the benefit of their community through their stories. The fact that the site of Unjusa Temple is a sacred space and Buddhism and other folk faith activities were performed can be verified based on the records. The reason why the nose of stone Buddha was damaged, folk belief that a precious son would be born if stone-block next to Stone Buddha and Shrine is moved and acts of praying by believing the stone Buddha is Maitreya and Seven Star Stone of Unjusa Temple are all deeply associated with folk faith, and thes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convert the spaces adjacent to Unjusa Temple into a sacred place.

2) <Story of Master Undam, Monk Marketplace (僧市)>

There is an 'Eo-Hee (語戲)' illustration of Mater Undam in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A person was lying

dead on the ground of market place with a tool called 'Du (斗)' over his body, and a text of 'Bang-gu-wol-pal-sam (方九月八三)' was written on his back. When people were wondering over what the text meant, the Zennist from Songgwangsa Temple, Undam, placed a long pipe that he borrowed from an old man next to him in the middle of the text. It changed the text to '市中用小斗,' which means "A small horse was used at the marketplace." This person in question was killed for dishonest trading practice at the monk marketplace. The monk marketplace had to be different from ordinary marketplaces to which secular orders applied. Most of all, the monk marketplace where monks engaged in transactions did not aim to seek economic gains; instead, it tried to return the benefits to humankind. While the secular orders were ruled by money and power, the monk marketplace was supposed to be free from money and power. Though the monk marketplace was not a sacred place, it should not be ruled by the secular orders. But the person who was killed practiced his trading out of secular greed and was eventually punished for his greed. As soon as the meaning of the text was identified, no one paid sympathy to the dead person. It would be only foolish to contemplate whether the Undam's story of the monk marketplace was truth or fiction.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with Master Undam was only a fiction. But the reason why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formed collective memory of local residents and began being passed down vividly is because of its 'meaning.'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monk marketplace is a marketplace for monks or an ordinary marketplace. At the monk marketplace where local people resided, it becomes meaningful as a place armed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That is why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resonates with today's people living the present time and continues being passed down with powerful viability.

At a glance,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seems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tory of Unjusa Temple. But it would be unwise to interpret the stories narrated by ordinary people solely with the sentences superficially. Stories verbally passed down based on memories are bound to be structured through accumulation of memories and experiences of numerous people fo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are embedded with various symbolism and metaphor. Also, unlike modern novels, folk tales should not be interpreted solely based on the texts itself since they are structured by building contexts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Hence, folk tales are to reveal proper meaning of their own only when surrounding environments of the text and in-depth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groups are fully understood. Locational distinctiveness embedded in monk marketplace is monks. After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and expelled to the outskirts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Joseon Dynasty, monks were forced to settle down at temples located at secluded mountains. Monks exchanged with each other while avoiding attention from the mainstream and developed the order of their own world during the course of such exchanges. The symbolic location for exchange was none other than monk marketplace. The situation that monks were in and the situations of ordinary people leading difficult life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lifestyle of monks was that of local residents, and the lifestyle of local residents was that of monks. The right order demonstrated by the story of monk marketplace was not just the value pursued by monks but also the one sought by ordinary people. Such values are connected to the location of Unjusa Temple praying for fortunes of people, and the monk marketplace was placed within the resonating magnetic field of Unjusa Temple.

2. Site of Myth and Dream

1) <Mago Halmi and Thousand Buddha and Stupa; Thousand Buddha and Stupa of Doseon and Lying Buddha>

The story of Mago Halmi (meaning 'Grandma Mago') has been passed down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character is also called 'Nogo, Magwi (devil), Angadak Halmui and Seolmundae Halmang' depending on regions. Mago Halmi shows various personalities in the story, but the underlying character is more of goddess of the Creation. Goddess being the main principal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can be found not only in Korea but everywhere else in the globe. When the story of Mago Halmi is subdivided into female giant stories, there could be a simple giant type, formation type of natural objects and topography and creation type. A giant myth was originally a myth of world creation, but it was transformed as legend and folk tale after losing its holiness.

The story above is not a myth but a story embedded with mythemes. Local people summon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Mago Halmi, and talk about the reasons why dolmens are scattered around everywhere. But the local people do not view Mago Halmi as a main principal for arrangement of dolmens. People say that Mago Halmi carried rocks to build Thousand Buddha and Stupa but dropped the rocks at that location when a chicken clucked. Of course, this story is not real. Local people tried to explain various topography and terrain features distributed throughout their world within the scope in which they could understand, and the story of Mago Halmi was born during the course where the people tried to stabilize the space of their life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Mago Halmi is woman. Woman represents a fundamental awareness related to production, which make woman a symbolic subject for myth and ritual associated with richness. But the symbolism of woman became weakened as the religious/historic/social environment of the time went through changes, and symbolism was taken over by man at some point in time. Female myths also began losing the power of tradition along with deteriorating female symbolism, and the genre of stories was also converted to legends and folk tales. Mago Halmi was also replaced by gurus or Master Unju, and the conditions where the town would become Seoul if Thousand Buddha and Stupa were built overnight and the story of heavenly children and Taoist fairies came down to help were added. The st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showed various developments and eventually came in contact with Doseon, a real historic figure.

When was Doseon inserted into the story of Unjusa Temple and what was the reason? Doseon and Unjusa Temple first joined each other in the 17th century. The 'Chronicles of Master Doseon (道誥國師實錄; estimated first publication in 1675)' published during the era first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Doseon and Unjusa Temple. But because this book contains a number of articles which are hardly reliable, its values as historical records cannot be deemed highly; however, it still offers a number of clues to learn and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ime. The 'Chronicles of Master Doseon' states that Doseon viewed the Korean topography as a shape of ship and asserted to build Thousand Buddha and Stupa at the Unjugok Valley in Neungju, which fell under the location of abdomen and chest. Joseon suffered State-wide chaos, includ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nd the 17th-century great famine, and called out for Doseon, the forefather of feng shui theory, in order to mitigate the chaos. Unjusa Temple also began being mentioned under such environments, and Thousand Buddha and Stupa started to be viewed as supplementation. That is why the name was changed from 'Unju (雲住)' to 'Unju (運舟).'

The sign of 'Doseon' in the Feng Shui Docham idea carries a meaning of 'stability,' but the meaning which the st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pursued was 'change.'

The story of Doseon's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represents that ordinary people attempted to change Unju into Seoul by reaching the perfection of '1000' after they were gathered at the dark time of 'night.' The story is filled with symbolic words meaning 'waiting and vibrancy,' 'transformation,' 'newness' and 'treason.' A story with these words eventually failed to succeed and ended up in failure. Since the Doseon's st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resulted in failure, it became a 'legend.' Though it was a 'legend' in failure, that failure is connected to the 'future to wait for' because people ran into the future at the point where the story ended. People started to visit Unjusa Temple more often because the Doseon's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did not succeed, and they desperately prayed for their wish of the new world to come around while watching the Lying Buddha.

2) <Unjusa Temple, Place of Thanksgivings Festival>

A human is a being of dreaming. A dream is a driving force of ideas for human society to move forward. But characteristics are to vary depending on the principal being of dreaming. An individual may dream of happiness for him/herself and his/her family, a village and society dreams for safety of its community, and the State dreams for stability of power. Thus, dreams are to be differentiated into 'private dream,' 'common dream' and 'public dream.' There won't be any problem when the dream of each principal being coincides with each other, but the concurrence of dreams is only a conceptual ideal. While dreams of different classes constantly collide and conflict with each other, they often create a new dream through reciprocal coordination at some point.

Unjusa Temple was protected as a sacred place by local communities because of the goal to realize their common dream. On the other hand, the Doseon's feng shui Docham theory was entered for the purpose of stable maintenance of common dream. Unjusa Temple was a Buddhist temple but was abandoned for a long time. Nonetheless, local residents came to visit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to pray for their accomplishment of dreams and wishes. Unjusa Temple was the place for people suffering poverty and disease, women without offspring or parents with children to come to pray for their dreams. Unjusa Temple was the place where private dreams were constituted and hoped for realization. But then again, one has to wonder how the st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where dream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ere blended together yet eyeing for the new world to come around was created and passed down?

Local residents spontaneously came to visit Unjusa Temple every Buddha's Birthday and Thanksgivings Day. Just as the title of the temple suggested, countless people were gathered at the temple. It is rather understandable for people to visit Unjusa Temple on the Buddha's Birthday; however, it is quite puzzling why people visited Unjusa Temple on Thanksgivings Day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Buddhist holidays. Looking into the details, quite a massive number of people were assumed to be gathered at Unjusa Temple. Countless people were gathered at Unjusa Temple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 hometown, gender or age. They appreciated the landscape and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and games, and merchants sold various articles and food strolling through Unjusa Temple, which created chaotic atmosphere. Unjusa Temple was a place of festivity spontaneously hosted by local residents.

When people leading their own lives come to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to have conversation face-to-face, it becomes a festival. The festival site is a place for multi-classes, not a place of a single class. The festival site can be a place of daily life and a place to embrace dreams, yet it also can be a religious place to meet god. As evidenced, Unjusa Temple is a multi-layered place, and that is why people chose Unjusa Temple as a place of festival. Elements of festival disassemble, violate and overturn the order of main hall and official order of reality. These changes become conspicuous through 'communications.' The reason why people came to Unjusa Temple is because the temple was the place where their dreams and hopes stayed dormant as potentials. And people who came to Unjusa Temple in different looks face each other and share 'communications' to find similarity from each other. Unjusa Temple is where people living the world with concerns and agonies and people living their lives while yearning for the future with their dreams and hopes come together. Gathering of people at Unjusa Temple itself confirms the 'togetherness' with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as a medium. Communications at the place of festival focus on the meaning created by us and further concentrate on our own problems over my existence. Festival is the time when each of us is converted to us, and Unjusa Temple is the place of mediate them. The festival at Unjusa Temple became an opportunity where private dreams become common dreams and common dreams turn into public dreams. The story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is the story of dream of the community spontaneously formed through these processes.

III. Expans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Value

The story of Doseon's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became better known by outside populations with soaring interests from the general public since the 1980s. Unjusa Temple was mentioned and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events from 'Janggilsan Mountain,' a novel by Hwang Seok-Young in 1984 to 'General Nokdu' by Song Ki-Sook in 1989 and 'Unju' by Park Hye-Gang in 2001, and many poets like Moon Jeong-Hee, Hwang Ji-Woo, Cho Tae-Il, Song Su-Gwon and Go Eun, chanted today's our reflections through Unjusa Temple. The temple became a valuable subject in the field of fine arts as evidenced through <Petal> by Song Pil-Young (1995), <Thousand People> by Hong Seong-Dam (1995), <Thousand Buddha and Stupa> by Choi Jin-Woo (1995), <Princess Hwaeom> by Lee Jun-Seok in a series (2008), Series of <Unjusa

Temple> by Yoon Il-Gwon (2010) and a video art <Unjusa Temple> by Jin Si-Young (2012). Unjusa Temple is a cultural text restructured by literary imagination of artists at a location built on memories and experiences of local residents, which demonstrated the 'social text' creating various meanings while resonating with the time. It is how Unjusa Temple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existence before us with the current looks while garnering constant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Physical substances, such as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of Unjusa Temple, have already proved their value of history/religion/arts history, and have been preserved through various systems and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and stories, in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in other words, have yet to find specific measure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cusing heavily on the tangible heritage during the course of examining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so far, almost all studies have tended to pay excessive attention to finding the historical origin and development as well as the religious and art historical distinctiveness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In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is mostly constituted by memories and testimonies of local residents, and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substantiate the entity. Therefore, the stories formed and passed down through memories and passed-down testimonies were used only as references during examination of history of Unjusa Temple but never can be a focal data. If the story of Unjusa Temple has no value as factual historic data or contradicts with historical facts, it will be excluded from the subjects of researches.

The story of Unjusa Temple is a text very well preserving the intangible values, proves the appearance of Unjusa Temple as an arena of social practice, and fulfilled its significant role reproducing various art works through modern times. Based on these reasons alone, the story of Unjusa Temple has sufficient values to preserve. Thus, we need to find measures to preserve and utilize the story of Unjusa as intangible heritage from this point on.

UNESCO signed the Convention for Heritage in 2003, and Korea became a country subject to the convention. Korea amend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for Heritage, and has amended and enforces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ntangible Heritage Act" hereafter) as of 2024. The Intangible Heritage Act designates intangible heritage in 7 Items, and Item (D) from the above is "Oral Tradition and Expression." Myth, legend, folk tale, riddle and proverb of a community fall under Item (D) of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Intangible Heritage Act, and the story containing cultural values became possible to be designated as intangible heritage as the community passed down the above fo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this Item. The Convention for Intangible of UNESCO and Intangible Heritage Act of Korea aims to protect intangible heritage with values to preserve but at risks of extinction. But the protection is not a passive policy to supplement the community activities but very active political activities to promote the community to keep changing its own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soci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time while preserving the value of the community. Moreover, cultural heritage needs to pursue new values and assist ceaseless recreations.

The story of Unjusa Temple not only has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but also is armed with justification for protection. Unjusa Temple has constantly updated its meanings through combination of physical substance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with social value of the time by local residents. It is why updates of meanings and values continue existing before us even as of today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But it does not seem quite hopeful if Unjusa Temple keeps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at this particular point of time. There is no doubt that 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would be preserved in various manners; however,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guarantee that the patterns and values of intangible heritage would be continuously preserved.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is not what is determined by outside people, especially researchers. Intangible heritage can be preserved and secure its power of transmissibility only when local residents recognize its value and have a strong will to protect. From such perspective, the future of Unjusa Temple does not seem promising. But that does not mean there is no other way to preserve intangible values. By examining the process where Unjusa Temple is converted to 'secular texts' as mentioned earlier, we would be able to find a solution for such problems.

In order to preserve the values of the past and present and to create future values, it is primarily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intangible heritage together with tangible heritage. Based on the above, people are able to easily access the data related to Unjusa Temple by applying digital technology, and we furthermore need to offer opportunities to have first-hand experience with relics and remains even remotely. These basic works would be very much helpful in expansion of the emotional domain where ordinary people are allowed to recognize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cultural heritage and experience on-site at the same time before personally visiting to experience.

One of specific execution measures for this plan is the establishment of Unjusa Temple Larchiveum. The term, "Larchiveum," is a glossary presented by Megan Winget by integrating 'Library,' 'Archives' and 'Museum' into one word with a concept of cultural complex space capable of delivering comprehensive services. Local governments and academic communities have exhausted diverse efforts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identify cultural heritage value of Unjusa Temple. Starting from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es, a variety of data and materials have been accumulated, including historical literatures, collection of photos, survey of memories and testimonies from local residents and research data through various academic events. But these Unjusa Temple-related data has been sporadically produced according to temporary demands raised at times rather than being produced under fixed systems by local governments or universities.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these produced data and materials are neither comprehensively accumulated or managed nor digitalized.

To prov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basic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targeted cultural heritage need to be systematically organized but digitalized, too. It means that the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s needs to be foremost completed. In the past, archives were mainly aimed to collect, organize and preserve the data. But today's digital archives are able to bring the data to the general public beyond the function of data collection/organization/retention and also to utilize the supplied data as root resources to produce secondary and tertiary relevant contents. As of today, digital archives concerning Unjusa Temple remain unavailable, and there surely is limitation to have the value of Unjusa Temple recognized as World Heritage without basis systems in place.

During local governments' planning of Unjusa Temple Larchiveum, the important subject to consideration is cultural and art works related to Unjusa Temple. Unjusa Temple has been a subject of creation for numerous artists while enduring agony of the times, and these works delivered enormous solace to people. These works, which can be dubbed as secondary and tertiary contents of Unjusa Temple, were sometimes mere imagination of each author ignoring substantiation and even criticized as distortion of history. But these authors did not just produce baseless and absurd stories but created their own works based on the stories of people embedded in Unjusa Temple. These works can be deemed as actual cases demonstrating what values are contained in in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whether such value leads to social practice and how intangible heritage breathes together with the people of the time and creates new values.

One German scholar assessed Unjusa Temple as "A power plant that we do not have today," and one symbologist said, "Unjusa Temple also exists there as a power plant with unlimited significance." It is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that is a focal point to produce such meanings, and those words are the stories experienced by those scholars at Unjusa Temple. If we look back and reexamine in what appearance Unjusa Temple has created and sustained the meanings and values as cultural heritage, we would be able to realize how to respond to the current period in what appearance. When Unjusa Temple constantly responds to new era and creates new meanings, it will be able to preserve and sustai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Some suggestions for Unjusa–ji as World Heritage

Gamini Wijesuriya

Special Advisor to the Director–General of ICCROM, Rome

Introduction

This brief text is to supplement the PowerPoint presentation on Buddhist Monasteries and the World Heritage List for the discussion on the nomination of the Unjusa Buddhist site. The ICCROM Forum on Buddhist Heritage–Conserving the Sacred, organized jointly by ICCROM and CHA in 2023 (<https://www.iccrom.org/publication/asian-buddhist-heritage-0>), offers invaluable insights into understanding and preserving Buddhist heritage in Asia. This forum has shed light on various aspects of recognizing and safeguarding Buddhist heritage, providing valuable guidance that can be used in the nomination process for sites like Unjusa.

Characterising Buddhist Monastery

One of the most tangible contributions of Buddhism to the world is the establishment of planned entities known as Buddhist monasteries. These range from simple natural caves converted into living quarters for a few monks to elaborate complexes like Abhayagiri in Sri Lanka, which accommodated over 5000 monks as early as the 5th century AD. Additionally, there are planned monastic cities such as Anuradhapura, dating back to the 3rd century BC, and Bagan in the 8th century AD.

The evolution of Buddhist monasteries is evident, transitioning from simple yet functional structures described in canonical literature to more elaborate complexes like the Maha vihara in Sri Lanka, characterized by ritual buildings used by the monks and public such as stupas, image houses, and Bodhi tree shrines and a series of utility buildings used by the monks. This evolution reflects the changing needs and practices within Buddhist communities over time.

Pali canonical literature delineates two primary types of early monk settlements: converted natural caves and classical Buddhist monasteries (dwelling places... cells... porches... attendance halls... fire halls... huts for what is allowable... privies... places for pacing up and down in... halls in the places for pacing up and down in... wells... halls at the wells... bathrooms... halls in the bathrooms... lotus ponds... he had sheds made–Culavagga) that were evolved over the centuries. Both originated during the time of the Buddha, prepared and constructed by donors according to prescribed architectural designs. Initially serving as residential quarters for Buddhist monks, these settlements gradually expanded to encompass larger complexes with the incorporation of ritual buildings, attracting masses as places of worship and pilgrimage.

Upon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Sri Lanka in the 3rd century BC, both types of settlements were introduced to the country. Sri Lanka boasts over 5,000 natural cave settlements occupied by Buddhist monks from the 3rd century BC to the 2nd century AD, each identifiable and datable due to inscriptions found at their entrances. These caves find parallels in Indian rock-cut caves like Ajanta, which served as both monk settlements and ritual spaces.

Simultaneously, the second category of settlements, characterized by donor-built structures, was also introduced to Sri Lanka. By the 3rd century BC, at least two ritual buildings, the stupa and the Bodhi tree shrine, had been integrated into these complexes. Over time, additional ritual buildings such as image houses and chapter houses were added, leading to the expansion of Buddhist monasteries beyond imagination, particularly in Anuradhapura, the ancient capital of the country.

During this period, Anuradhapura witne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largest brick-built stupas in the 2nd century BC, around which mega-monastic complexes were developed. Records from visiting Buddhist monks from China in the 5th century, such as Fa Hien, attest to the magnitude of these complexes, with Fa Hien noting the presence of 5000 monks in one monastery. Archaeological evidence further underscores the grandeur of these complexes, with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within these monasteries representing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religion.

These monasteries have served as vibrant religious hubs, nurturing the spiritual practices and beliefs and later an educational institute for both monks and communities. With their unique architecture and planning, they embody a multitude of identifiable intangible practices that have sustained Buddhist traditions over time.

Buddhist monasteri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distinct and intricately developed architectural ensembles, spanning a spectrum from simple to sophisticated in their planning principles. They represent a fusion of diverse architectural typologies, incorporating elements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that contribute to their rich cultural heritage.

Some examples of monasteries are: (To be illustrated with PowerPoint)

Cave settlements/Grottos.

Forest monasteries

Pagoda Forests (China)

Meditation monasteries

Different types of classical Buddhist Monasteries

Monastic cities

Monastic complexes with multiple monasteries.

Monastic buildings associated with administration functions.

Globally, a plethora of Buddhist architectural typologies exhibit distinct characteristics unique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evolution of Buddhist architecture and monasteries reflects an ongoing exchange of values among cultures. Ritual buildings within these complexes encompass relic shrines, stupas, pagodas, image houses, Bodhi tree shrines, and chapter houses, each serving specific ritual functions. Utility buildings include preaching halls, monks' residences of various types, libraries, and more, constructed from diverse materials that reflect strong local influences and the utilization of local skills and knowledge.

Buddhist monasteries are not only architectural marvels but also repositories of artistic creations, including sculptures dominated by Buddha statues, paintings, and other religious objects used for worship and religious purposes.

These complexes, architecture, and artworks represent universal responses to spiritual issues addressed by diverse cultures. Among these responses, some stand out as exceptional, warranting further study and potential nomination for recognition of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under the six criteria outlined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The World Heritage Gap Analysis

Spiritual responses have been considered under the thematic framework of the gap analysis of ICOMOS with an analysis of the status that existed in the year 2004. Accordingly, "The thematic framework class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ings and reflects some of the principal themes that have emerged during discussions of the Global Study and, more recently, the Global Strategy. The theme "Expressions of Creativity" i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types or categories of monuments and sites as defined b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corresponding with the typological framework. The theme "Spiritual Responses" i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religious properties in the typological framework. The Thematic Framework has seven main themes subdivided as follows:

Spiritual Responses

The ICOMOS gap analysis has been done under the following themes:

- A. Ancient and indigenous belief systems
- B. Hinduism and related religions
- C. Buddhism
- D. Confucianism, Taoism, Shintoism, etc.
- E. Judaism
- F. Christianity
- G. Islam

In the year 2004, 'the largest number of occurrences on the list refers to Latin Christianity (59). A second group called 'evangelisation' (7), including Franciscan or Jesuit missions, is related to the Latin Catholic Church. The Eastern Orthodox Church occurs relatively few times (21), also Protestantism (5). Judaism only occurs 7 times, and Islam 18 times. Of the Asian religions, Buddhism occurs 30 times Hinduism 15 times, and Confucianism and Shintoism 17 times. The various ancient and indigenous belief systems occur 35 times, of which most relate to antiquity, with relatively few relating to living spiritual traditions'. (Gap Analysis). In addition to the theme of spiritual responses, these creations can also fall into other classifications given in the Gap Analysis.

Current Status of the World Heritage List

Upon a quick review of the current World Heritage List, I focused on entries associated with Buddhism or Buddhist heritage, totalling 63 sites across 20 countries, including one transboundary site. An initial analysis reveals the varied use of different criteria as follows:

Criteria	Number of sites
i	19
ii	32
iii	37
iv	30
v	04
vi	35

The analysis reveals that Buddhist sites have utilized all six criteria to justify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Notably, one-third of these sites (criterion i) are recognized as "representing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showcasing the remarkable achievements in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Buddhism, originating in India and subsequently spreading throughout Asia,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beyond religious teachings. This influence is evident in half of the sites, which employ criterion ii, highlighting significant cultural exchanges and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Criterion iii is predominant among the majority of sites, as they offer unique or exceptional testimony to Buddhist traditions and the civilizations they have fostered, which continue to thrive across much of Asia.

Additionally, half of the sites invoke criterion iv, showcasing outstanding examples of architectural typologies, ensembles, or landscapes that illustrate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These sites exemplify remarkable architectural and planning achievements across various typologies.

Surprisingly, only four sites have utilized criterion v, despite their potential as outstanding examples of traditional human settlements and land use representative of cultures or human-nature interactions. This gap in recognition may stem from the relatively recent integration of nature-culture interdependency discours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text. However, this concept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for sites like Unjusa, where human interaction with nature is deeply intertwined with Buddhist principles and reflected in their architecture and planning.

As anticipated, more than half of the sites have invoked criterion vi, as they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Buddhist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efore I delve back into Unjusa and Buddhist heritage, I'd like to share some new and relevant ideas that have emerged within the World Heritage domain. These concepts are particularly pertinent to a Buddhist heritage site like Unjusa, and I believe they will be instrumental in the nomination process.

As you're well awar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of a site is supported by three pillars: criteria, authenticity and integrity, and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se pillars,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is a crucial aspect that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significance of sites within the global context.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some of the new ideas further and exploring how they can enhance the nomination process for Unjusa.

Other Values

World Heritage now emphasizes analyz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nd other significant values, given their strong connection to the communities that uphold their own value systems. The necessity of acknowledging local/other value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was emphasized in 2013 in the Resource Manual on Managing World Cultural Heritage. This recognition has now been integrated in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as outlined in the new paragraph 111.

- | |
|---|
| <p>111. In recognizing the diversity mentioned above,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could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a thorough shared understanding of the property, its universal, national and local values and its socio-ecological context by all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b) a respect for diversity, equity,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and the use of inclusive and participatory planning and stakeholder consultation processes; |
|---|

Values and Attributes

Currently,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process emphasizes that in developing the criteria,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values and identify attributes that convey those values. Attributes are still being defined regarding clarity but were originally emphasized when developing the RSOUV. Since then,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clarify values and attributes in the World Heritage context, but attention is drawn to the description given in the HIA Toolkit developed collectively by all three Advisory Bodies.

Accordingly, 'Attributes are the elements of a heritage place that convey its values and make them understandable. They can be physical qualities relating to the material fabric and other tangible features, but they can also be intangible aspects such as processes, social arrangements, or cultural practices, as well as

associations and relationships that are reflected in the physical elements of the property'. (HIA Guidance)

Intangibles

The other development is the introduction of intangibles into the World Heritage discourse, as explained above. Furthermore, the operational guidelines refer to intangibles in several places.

Para 112.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other intangible dimensions of heritage such as perceptions and associations'

Para 214bis.'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and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ssociated with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a 137 b)'Each component part should contribute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may include, inter alia, intangible attributes'.

Intangibles are inseparable from communities,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ties (which is in the convention) was integrated into the World Heritage process in 2007. Since then, intangibles and communities have been added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Kyoto vision adopted at the 40th-anniversary celebrations in 2012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Heritage and local communities is indeed at the heart of the Convention... We acknowledg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Convention to social cohesion, dialogue, tolerance, cultural diversity and peace,...

Only through strengthene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heritage, based on respect for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as a whole, integrat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spects and geare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the 'future we want' become attainable.

Recognition of intangible heritage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for religious sites. A new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CH) was adopted by UNESCO in 2003. The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heritage as encompassing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dentify as integral to their cultural heritage.

To acknowledge intangible heritage, the ICH convention has identified five domain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Performing arts,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When considering crafts, it's essential to focus on the knowledge, skills, materials, and production processes, as well as any associated beliefs and practices, rather than solely on the craft objects themselves.

All of these provide valuable guidance when assessing values and attributes to construc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in religious heritage sites.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TKS)

Another aspect pertinent to Buddhist heritage sites is the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introduced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in 2005. Since then, TKS has integrated into the nomination in a number of sites in Asia. Many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to promote TKS, and the compilation of a book (<https://www.iccom.org/publication/traditional-knowledge-systems-conservation-and-management-asia%E2%80%99s-heritage%C2%A0>) in Asia, thanks to CHA, is one such important step. TKS is also being heavily recognized under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Sustainable Development

Recent revisions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have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SD concerns into all processes of World Heritage. The Social dimension, in particular among the four dimensions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strongly linked to spiritual benefits to society; as such,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is aspect.

People Centred Approaches

PCA is a new doctrine/paradigm that captures all of the above and is being promoted by the three advisory bod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The doctrine of PCA is about placing people at the heart of heritage discourse and recognizing that a focus simply on the well-being of heritage is inadequate: it must be expanded to pursue the well-being of both heritage and society. It promotes assessing all values (tangible/ intangible/ cultural /natural) collectively, identifying attributes that carry those values, and keeping people at the heart.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is indeed a crucial aspect of the nomination process, one that has been identified as weak in many dossiers in the past. It's imperative to compare similar properties list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elsewhere, focusing on shared values and attributes. While highlighting similarities, it's equally important to articulate why the property under nomination stands out,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in its geo-cultural region.

By conducting a robust comparative analysis, we can demonstrate how the nominated property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s with similar values and attributes. This helps strengthen the case for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nd enhances its chances of being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Back to Unjusa

In my perspective, Unjusa possesses the potential to justify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under five criteria: ii, iii, iv, v, and vi. These criteria highlight its role in the exchange of human values, testimony to civilization, the typology of its buildings and ensembles, land use with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 and its association with Buddhism, which holds universal significance.

Key attributes of the site include its remarkable collection of over one thousand pagodas, its distinctly planned site, and its settings and harmonious interaction with nature. Additionally, its diverse architecture and unique monumental art, particularly the Buddha images, serve as compelling evidence for its potential OUV.

Unjusa stands out prominently among the many Buddhist sites around the world, further reinforcing its candidacy for recognition of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 Buddhist Complex of Abba Sahib Cheena in Greater Gandhara

Zarawar Khan

An assistant professor at Swat University

Abstract:

Abba Sahib Cheena is one the largest Buddhist stupas and monastic complex situated in the Barikot Tehsil of district Swat, Khyber Pakhtunkhwa Province of Pakistan. It is a unique site in terms of Buddhist architecture. The monumental remains consist of four huge stupas, some direct access shrines, image chapels and a monastery constructed in stone masonry.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district Swat reveals that the site was first reported by Sir Aurel Stein on behalf of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in 1926. During the tenure of the Swat State from 1926 to 1969, it remained partially preserved until severely damaged by the antique hunters for the last fifty years. Recently the Government of Khyber Pakhtunkhwa has acquired the land of site which enabled the Directorate of Archaeology and Museums, Peshawar to conduct excavation and conservation activities at the complex. The first official excavation by the Directorate was carried out in 2020-21, which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a good number of small stupas, images shrines and a collection of sculptures and other valuable antiquities. The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has been published in 2021, wherein the iconography of the sculptures has not been properly elucidated. Therefore, the present paper is an attempt to add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monumental heritage of the site and to reinterpret some of Buddhist sculptures discovered during the recent excavation.

I .Introduction

The Sanskrit term Gandhāra has been interpreted as the land of fragrance and valley of the lakes (Ingholt 1957: 13, Rahman 2009: 143-46 & 2011: 17-20). It is a geographical term recorded in the Rigveda, one of the four sacred scriptures of the Indo-Aryans (Ca. 1500-1200 B.C), for the Peshawar valley and its adjacent territories in the Khyber Pakhtunkhwa and Punjab provinces of Pakistan together with parts of Afghanistan (Young 2010: 32, Rahman 2009: 143-46, Jongeward 2012: X). However, the geographical extension of Gandhāra is still the subject of academic debate because of the contradiction in the ancient accounts.

In addition to the above sources, the travelogues of the Chinese Buddhist pilgrims Fa-Hien and Hiuen-Tsang shows that Gandhāra was spreading 1000 li from east to west and 800 li north to south with Po-lu-sha-pu-lo (Peshawar) its capital which itself is situating about five days journey from Udyana (Beal 1869: 30 & 1884: 97-98). Similarly, the Indian literary sources like Upanishads and Brahmins places Gandhāra on the right and left banks of River Indus with Pushkalāvati, and Taxila its two main cities (Tripathi 1942: 47).

The formation of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 in the 1860s, marked an epoch of academic research about the geography and historical profile of Gandhāra. In this connection, Mr. Alexander Cunningham, the first Director of the ASI proclaimed that Gandhāra of the ancient times was surrounded by

Lamghan and Jalalabad from the west, the hills of Swat and Buner from the north, the river Indus from the east and the hills of Kalabagh from the south (Cunningham 1871: 48). Another well-known scholar Mr. Alferd Foucher says that Gandhāra was comprised of the area stretching from the Khyber Pass to the Indus encapsulating Peshawar, Charsadda, Shahbaz Garhi and the city of Hunḍ in Swabi (Foucher 1915: 39). Some modern scholars are of the opinion that Gandhāra was once bordered by the Indus River in the east, the mountains of Afghanistan in the west, the Safed Koh and the Kohat Mountains in the south and by the Swat valley in the north. But its artistic activities spread to Taxila in the east of the Indus and to Bāmiyān in Afghanistan (Smith 1911: 98, Schmidt 1990: 22, & 2005: 25, Jansen 2010: 27, Behrendt 2004: 22, Brancaccio 2006: 1).

The discovery of some Buddhist sites in the area between the river Jhelum and river Chenab has pushed the geographical limits of Gandhāra to further east (Dar 2007: 45). Similarly, its southern boundary can be extended to Ghazni in Afghanistan, because of the newly explored Buddhist sites of Tapa Sardar and Qarabagh (Zwalf 1996: 11). Hence the scholars like Gerard Fussman (1994: 33) and Richard Solomon (1999: 3), have recently invented the term Greater Gandhara (Fig.01) which besides the Peshawar valley could be extended to the Swat valley situated to the north, Taxila to the east, and Afghanistan to west (see Nasim Khan 2024: E.N.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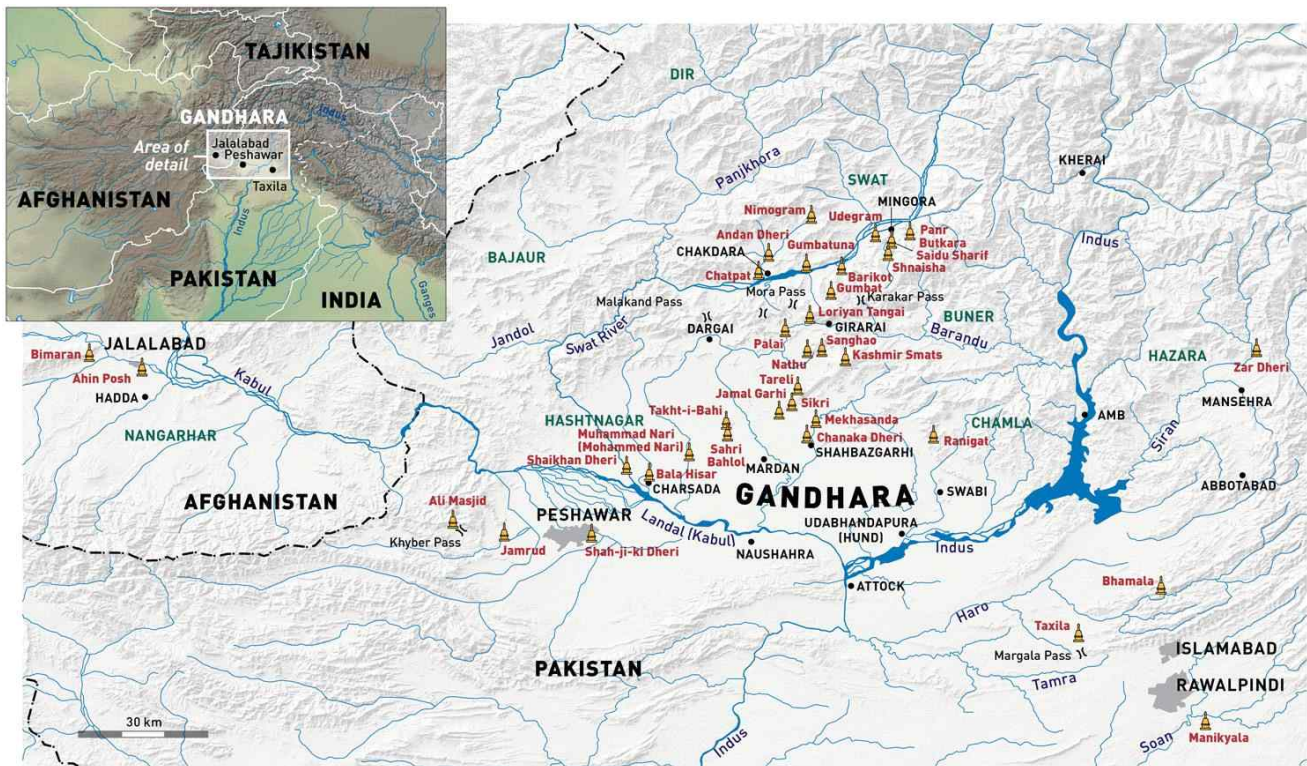


Fig. 01. Map of Greater Gandhāra showing the location of major Buddhist sites.
(Courtesy of DoAM, Peshawar)

II. Buddhism in Gandhāra

The emergence of Buddhism in Gandhāra i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Emperor Ashoka (268-232 BCE). He is said to have send Majjhantika, one of the chief Buddhist monks to Gandhāra and Kashmir for the propagation of this religion. To support this hypothesis, the Ashokan rock edicts at Shahbaz Garhi, and Mansehra, in the Khyber Pakhtunkhwa province of Pakistan, are supposed be the earliest written record (Tucci 1958: 281, Nasim Khan 1998: 39-40, Marshall 2008: 3). Besides these narratives, some of the Chinese and Indian Buddhist literature, like Wu-tao-kan and Wu-miao, and Sarvata Vinaya, have proclaimed that lord Buddha had paid a miraculous visit to Swat for the subjugation Nāga Apalāla, the wicked dragon of river Swat (Legge 1886: 29, Beal 1884: 121-23, Watter 1904: 229-30, Zin 2009: 76). Interestingly, this event has been depicted in several

Buddhist narrative relief panels currently housed in the Museum of Pakistan and elsewhere (Khan 2016). Whether the inhabitants of Gandhāra at that time were converted to Buddhism or not, is still a debatable issue and needs further academic research.

In the second century BC, Buddhism flourished in Gandhāra due to the royal patronage of the ruling dynasties. With the passage of time, several Buddhist monasteries were not only constructed but also decorated with sculptures and narrative reliefs (Solomon 1999: 5). The discovery of some Kharoṣṭhī manuscripts further testifies that from the first century AD, onwards, Gandhāra became one of the major centers of Buddhism and played a vital role in the spread of this religion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lomon 1999: 5-10). Soon the Buddhist community rapidly increased in Gandhāra and demanded for more sacred buildings and dwellings (Errington 1998: 80). While during the reign of the great Kushan (1st to 4th century AD), the stupa shrines were provided with large images of Buddha and Bodhisattva for worship and adoration (Rhi 2005: 171).

But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Buddhism gradually disintegrated in Gandhāra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lack of royal patronage, invasion of alien nations, the formation of the Hindu Shahi kingdom in the 9th century A.D. and the conquest of Gandhāra by the Muslims in the 11th century A.D. Since that, the Buddhist monuments collapsed and converted to mere heaps of debris.

III. Buddhist Remains in the Swat Valley

Once forming part of Gandhāra, the modern district of Swat is situated in the Khyber Pakhtunkhwa Province of Pakistan (Fig.02). The cultural profile of Swat is enriched by the artefacts dated to the Stone age, Bronze, and Iron ages of history. However, the fame of Swat i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xtensive Buddhist remains belongs to the vanished Gandhara civilization, which emerged out in the 6th century BCE.

The discovery of the ancient metropolis of Bazira in Swat has also revealed that the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of region was influenced by the Persians, Greeks, Scytho-Parthians, Kushans, White Huns, Turks, and the Hindu Shahi ruling dynasties until it was conquered by the Muslims in the 11th century CE (Olivieri 2014: 7-9).

Apart from the archaeological remains, Swat has been mentioned in various ancient literature by the name of Udyana, which in Sanskrit corresponds to an orchard irrigated by the river Suvastu (Stein 1929: 13 & 1921: 2). The historians of Alexander the Great have mentioned it as Soastos. While the Chinese Buddhist pilgrims (629-644 AD), have used the term U-Chang and U-Chang-na for Swat valley (Beal, 1884:119, Watter, 1904: 225). Besides these, the Tibetan Buddhist narratives mentions Swat as Orgyyan (Tucci 1958: 279).

Due to its location on the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 connecting South Asia with China and Central Asia, Swat valley has always attracted caravans of traders, foreign invaders, and religious missionaries to settle here or to move forward through its mountain passes to the famous Silk Road. The traces of such interaction have been found in the form of literatures, rock paintings, inscription, coins, graffiti, Buddhist sculptures and monumental buildings scattered in plain and hill slopes of the valley. Among the Buddhist heritage, the monasteries of Butkara I, near Mingora is considered one of earliest Buddhist establishments of Swat where the main stupa was constructed analogous to the early India style stupas of Sanchi and Bharh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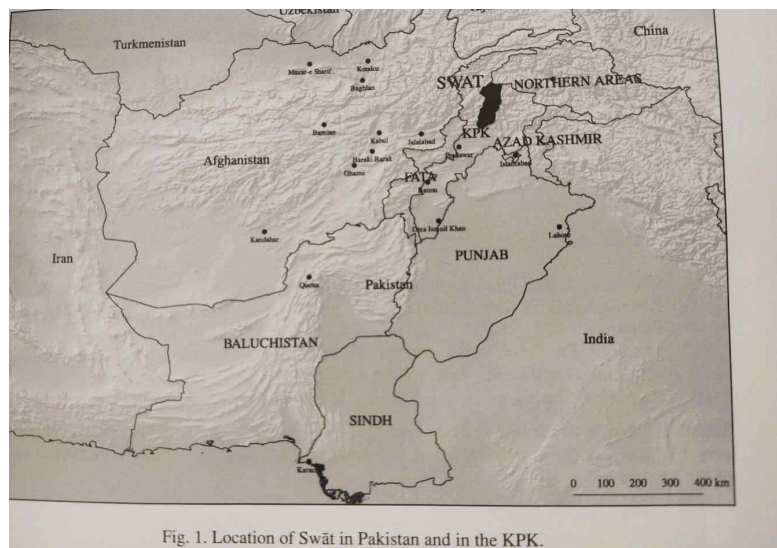


Fig. 1. Location of Swāt in Pakistan and in the KPK.

Fig. 02: Location of Swat on the map of Pakistan (After De Chiara: 2020)

Most of these stupas and associated structures were once elegantly adorned with paintings and sculptural decor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visual narration of various events experienced by the Buddha in his previous incarnations and during his lifetime, was one of the favorite subjects of depiction in the stone art. Unfortunately, most of these monastic sites have been devastated by natural calamities and human vandalism.

IV. The Buddhist Complex of Abba Sahib Cheena

The monumental remains of the Abba Sahib Cheena Buddhist site (Fig. 03) are in the outskirts of village Najigram, which itself is situated about six km from the Barikot Bazar. The site can be approached through the Barikot to Pir Baba Road, from which a branch bifurcates to the right and extends to an old Muslim graveyard through the village of Najigram (Samad et al 2021: 2). From here, a pedestrian passage leads to a nullah surrounded by mountains from three sides. A seasonal rivulet issuing from the hills falls to the mainstream of Najigram. A spring of sweet water still exists in this riverine which is called the Abba Sahib Cheena after the name of legendary Muslim saint. (see Faccenna & Spagnesi 2015: 223, Tucci 1958: 317-18).

Abba Sahib Cheena was officially explored by Sir Aurel Stein on behalf of the ASI in 1926 (Stein 1930: 17). The British Expedition to Swat valley and northern Afghanistan conducted partial excavation of the remains and collected some stone sculptures from the site (Barger and Wright 1941: 24-25). After the independence of Pakistan, the Italian Archaeological Mission led by Guiseppe Tucci arrived at Swat in 1956. The mission surveyed the site along with other remains in the vicinity of Barikot (Tucci 1958: 317-18). Later, other members of the same mission highlighted the architectural legacy of this Buddhist complex in a series of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see Spagnesi 2006, Faccenna & Spagnesi 2015: 223-330).

Besides the Italian Mission, some Pakistani and foreign scholars have also carried out academic research on various aspects of this important site (see Ashraf Khan 1993). However, no scientific excavation at the site could be conducted since the area belonged to the local communities of Najigram until a portion of the land was acquired and excavated by Provincial Directorate of Archaeology and Museums (hereafter DoAM), Khyber Pakhtunkhwa, in 2020-21 (Samad et.al 2021).

The first season excavation was started on the 5th of December 2020, and continues for some months until a large portion of the remains was cleared from vegetation and debris caused by the antiques hunters for several decades. Besides the base and drums of the three main stupas, (Figs. 04-06), the remains of fifteen votive stupas, a circular (Fig. 07), and other associated structures revealed during the excavation. The remnants of the previously unknown huge stupa, marked as stupa D, were also discovered which further distinguished the site from other Buddhist complexes of the Swat valley. (Samad et. al 2021: 111-116)

Today the site of Abba Sahib Cheena stands unparalleled in the Swat valley since there are at least four large stupas of which the one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rivulet and other on the left side. Besides these, there are the remains of votive stupas and square and rectangular shrines destined for the accommodation of images, small stupas, or other venerated objects. The sunken arch built in the thickness of wall behind the court of votive stupas is richly ornamented with fresco painting. It was probably housing the life size statue of Buddha and can be compared to the rock cut niches of the Bamiyan Buddhas in Afghanistan.



Fig. 03. Abba Sahib Cheena: Drone shot of the Buddhist remains.



Fig. 04. Abba Sahib Cheena: View of Stupa-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05: Abba Sahib Cheena: A view of Stupa-A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06: Abba Sahib Cheena: Stupa-C and associated buildings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07: Abba Sahib Cheena: A view of the circular shrine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08. Abba Sahib Cheena: The Assemblage of art pieces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09. Abba Sahib Cheena: Close view of the stray finds (Photograph by the author)

V. Reinterpretation of the Buddhist Sculptures from Abba Sahib Cheena

The excavation of Abb Sahib Cheena has revealed a collection of seven hundred stone pieces. The bulk of sculptures consist of statues, narrative reliefs, decorated panels, and architectural pieces etc. The sculptures are made of black schist stone imported from somewhere to the site. Beside the art pieces published in the excavation report, a collection of the carved stones and umbrella disks are left at the site for some unknown reasons (Figs. 08-10). While those published in the excavation report are currently preserved in the Swat Museum, Saidu Sharif. The sculptures, especially the narrative reliefs, are of great artistic and iconographic importance. However, most of these are either misapprehended or erroneously deciphered. It is therefore felt necessary to revisit some of these precious art pieces in the present research.



Fig. 10: Abba Sahib Cheena: The umbrella disk of stupa
(Photograph by the author)

1) The Dream of Queen Maya (Fig. 11) Acc. No. 183

This relief panel is divided into two portions by an enclosed Corinthian pilaster. The right compartment shows queen Maya, the mother of Bodhisattva Siddhartha, resting on a high couch furnished with decorated bedsheets. The queen is shown turning to her left with both the legs bending. Impressions of a small elephant can be seen near her bent legs as if entering to her womb from the right direction. An attendant figure armed with a spear is shown seated to her head side, while bust of another figure is shown in the background. In the second compartment of the panel, the queen is seated frontally and holds a bunch of flower or hand fan or could be the royal circlet in the right hand.



Fig. 11. Abba Shai Cheena: The Dream of Queen Maya
(After Samad et. al 2021)

The panel was destined to a long rectangular piece devoted to the depiction of other related scenes; however, it is badly damaged and broken. The projected cornice of panel is decorated with rows of overlapping lanceolate petals. The panel is comparable with other such art pieces currently preserved in various Museums of the world (see Zwalf 1996: Pl. 142, Ackerman 1975: Pl. Xia).

2) The Dream of Queen Maya, Interpretation and Departure for Maternity (Fig. 12) Acc. No. 185

It is a long curvilinear panel possibly detached from a stupa drum. It is divided into two compartments by a horizontal band of lanceolate petals. The upper portion depicts at least fourteen human figures in various gestures. The imitation of trees with foliage is also depicted here at regular intervals. The cornice above is decorated with the representation of lotus petals. The lower portion of the panel is further divided horizontally by enclosed Corinthian pilasters. From right to left, the first scene depicts the dream of queen Maya. She is shown resting on high couch with the left hand placed beneath the head and the right touches the knee of the right leg. Three attendant figures are shown guarding her bedroom. The attendant standing to the head and feet of the queen's couch are touching the mouth with fingers in the act of astonishment since they probably see the small elephant descending in the space and approaching to the right

side of the queen.

The scene in the middle compartment of the panel is depicting the episod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of queen Maya. Here the royal couple are sitting to the right while the fortune teller ascetic is shown seated to their left. Queen Maya expresses astonishment by touching her mouth with finger. The king raises the right hand in the pose of salutation whereas the ascetic pays respect to the royal couple. An attendant figure is also shown behind the ascetic. The scene in the extreme left of the panel is half missing except a chariot probably drawn by a pair of horses or lions, to testify the departure of the queen to her paternal house as bequested by her father Supra Buddha (Beal 1875: 42)



Fig.12: Abba Sahib Cheena: The dream of Maya, interpretation, and the horoscope of Prince Siddhartha (After Samad et. al 2021)

3) The Birth of Siddhartha (Fig. 13) Acc. No. 148

This fragmentary panel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by a horizontal row of overlapping lanceolate petals, mostly chipped and eroded. The upper portion is depicting the vine scrolls motif whereas in the lower compartment we can see the birth scene of Bodhisattva Siddhartha. Here the central figure is queen Maya, the mother of Siddhartha, flanked by two attendants on either side. The queen stands frontally and holds tree foliage with her raised hands and looking to the child emerging from her right side. An attendant figure from the right support her physique, whereas the figure to the left holds the baby in his hands. The facial detail of the figures is defaced and worn out. The birth of Siddhartha took place in the Lumbini garden while the queen Maya was on the way to her paternal home (see Beal 1875: 43). The panel is comparable with those housed in the British Museum; and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Zwalf 1996: Pl. 150, 151, Ackerman 1975: Pl. XXIIa)



Fig. 13. Abba Shai Cheena: The birth of Bodhisattva Siddhartha (After Samad et. al 2021)

4)The Horoscope of Prince Siddhartha (Fig. 14) Acc. No. 118

It is a fragmentary piece of a long rectangular relief panel, divided into two segments by a projected outwards band, decorated with a series of overlapping lanceolate petals. The upper zone is occupied by the vine scroll motif, The cornice above the scroll is furnished with incised lotus petals. The lower register of the panel is partially preserved and depicts the scene of the horoscope of the child



Fig. 14. Abba Sahib Cheena: The scene of the horoscope of Prince Siddhartha (After Samad et. al 2021)

Siddhartha, the future Buddha. From right to left, a human figure seated on throne and turns the head to right. His feet rest on foot stole and the right hand slightly raised in the pose of making a gesture towards the figure opposite to him. A standing figure in the middle of the scene turns to take the child from the seated figure sitting opposite to him. In the left portion of the scene, the man seating and holds the child with both hands. He is probably the Brahman astrologer summoned by king Suddhodana. On that occasion the astrologer identified thirty major and eighty minor auspicious signs in the child (see Beal 1875: 54-59). Hence it can be proclaimed the first seated figure in the scene represents king Suddhodana of Kapilavastu, the father of Siddhartha, whereas the standing one could be queen Maya. While the man holding the child (Siddhartha) in his lap is undauntedly Rishi Asita, who descended from the heaven for final horoscope of Siddhartha.

The same story is also depicted by other fragmentary relief panels discovered from Abba Sahib Cheena and published in the excavation report. These panels bear the allocated accession No. 146 & 199 (see Fig. 15 & 16)



Fig. 15. Abba Sahib Cheena: The scene of the horoscope of Prince Siddhartha (After Samad et. al 2021)



Fig. 16. Abba Sahib Cheena: The scene of the horoscope of Prince Siddhartha (After Samad et. al 2021)

5) The Great Renunciation (Fig. 17) Acc. No. 227

This interesting panels shows the scene of the renunciation of princely life by Bodhisattva Siddhartha. His haloed figure is shown stepping down from his sleeping bed, while his consort is sleeping. Two female attendants are standing on either side behind the Persipolitan pilasters. The musicians in front of the bed are shown sleeping. The bust of another human figure emerges out from the right and perhaps offers footwear to Bodhisattva, though the iconography is questionable. Bust of three figures from the balcony above are viewing the scene of the departure.



Fig. 17. Abba Sahib Cheena: The Great Renunciation (After Samad et. al 2021)

VI. Conclusion

The Buddhist site of Abba Sahib Cheena represents a complex of monumental remains of sacred and secular nature. The remains of the site are spreading over a large area of the nullah as gleaned by the remnants of masonry walls encased in the embankments of the terraced fields and retaining walls of modern constructions. Some of the structures visible on the hill slopes and those concealed by the thorny shrubs are yet to be investigated. Whereas traces of the monastic cells and subterranean chambers buried by later deposits require the attention of the responsible authorities. But despite the pillage caused by the illegal diggers and antique collectors over half a century, the edifices at the site still retain their former glory. The exterior walls of several buildings still maintain stucco plasters and painted decoration. Moreover, the discovery of numerous art pieces testifies that the site has enjoyed a very long period of uninterrupted peace and tranquility. Thanks to the Directorate of Archaeology and Museums,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hyber Pakhtunkhwa that this important site is now protected for future investigations. It is hoped that soon, this important Buddhist complex will play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eritage and religious tourism in Pakistan.

Discussion



Discussion on 'Directionality of Buddhist World Heritage in East Asia and Comparison with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hoi, Seon-Ju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Art, Chung-Ang University
former Director of Gyeongju National Museum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reated arts in various and distinct forms through assembly of Buddhism and Taoism, a folk religion. This formativeness has been confirmed as cultural heritage armed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without any comparable cases that can hardly be found anywhere in the East Asian region.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created arts in various and distinct forms through assembly of Buddhism and Taoism, a folk religion. This formativeness has been confirmed as cultural heritage armed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without any comparable cases that can hardly be found anywhere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speaker asserted that a strategy for design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fter compliance with appropriateness,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selection criteria is fully verified in order to have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o be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For this purpose, the speaker first examined the distinctiveness and feasibility of universal valu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nd compared them with other Buddhist heritages in East Asia.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s, I utterly realized that comparative studies with World Heritage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order for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looking into the latest designation trends of UNESCO World Heritage, it is evident that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of serial properties rather than single property are increasing as the conceptual expansion and significance of landscape is elevated. At the same time, as the application of selection criteria becomes further enhanced,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studies with World Heritage is also becoming more valued. Based on these findings, I would like to ask for additional explanations with regard to how far comparative studies on Buddhist cultural heritage at Unjusa Temple have been progressed in comparison with domestic heritage and World Heritage and how much of outcomes have been secured.

Second, valu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has been conducted with focuses on Western cultures, which led to situations where Western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able to carry bigger weights compared to Buddhist culture in East Asia holding relatively less weights. With Buddhist World Heritage, the speaker said that Criterion (ii) and (iii) of the selection have applied the most often, but I would hope to hear a brief explanation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and trends of the selection criteria.

* (ii)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iii)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Discussion on Present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Learning and Awareness of the Value of Thailand Buddhist Historic Sites"

Joo, Soo-Wan

Professor of Arts Management a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osuk University

Thanks to the presentation given by Dr. Amara Srisuchat, we were able to learn and understand what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heritage are recognized as the value of World Heritage. Especially in the historic footsteps of Thailand that we are not quite familiar with, we could learn tremendously from her introduction of periodic characteristics embedded in each historic monuments.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 I began to wonder of one question concerning historical feature which cultural heritage is armed with in Thailand where historical background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Despite many changes made in Korea for recent years, Koreans tend to strongly believe that Korea is a homogeneous country in terms of ethnicity. But in Thailand, there is the Dvaravati Monuments accomplished by the Mon people living in the land of Thailand ahead of Thai people, and this historic site has also bee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according to Dr. Srisuchat. When the historic heritage of the race which used to reside in the same land but now is a minor ethnicity and not Thai people, the current mainstream of Thailand, was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Thailand, I had to assume that the value was bestowed as a concept of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rather than a concept of the severed past, and I would like to hear from Dr. Srisuchat concerning this matter. The reason why I pose this question is because of the theory, which I refuse to agree, that Hwasun Unjusa Temple was built not by Korean but by Mongolian troops who were in this land, and even if these historic monuments were truly built by the different race after all, I believe we need to contemplate what values this historic site may be embedded with just as the monuments built by the Mon people in Thailand wer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The next question concerns the fact that Dr. Srisuchat discussed the situations where some heritage sites plac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are having difficulties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because of disagreements with a religious group of actual owner; and in such cases, I wonder whether the owner in question consents the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itself or the owner does not wish to be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in principle.

Also in Korea, because, if the assets are designated a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or World Heritage, religious cultural assets would experience difficulties in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or the owner of such assets can no longer dispose the assets at its will, there are cases where the owners do not wish for the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accordingly,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whether the cases in Thailand previously mentioned fall under similar situations.

I truly appreciate such a helpful presentation, and I would like to ask for more advice and supports for u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World Heritage from Hwasun Unjusa Temple.

Discussion on the 'Value of World Heritage in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based on Comparison with Buddhist Pagodas in Other Countries'

Jang, Jun-Shik

President of the Kook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transformations of Buddhist pagodas in other countries and surveys the Unjusa Temple and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lso, it attempts to discuss the value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There is no different view concerning the overall aspects of presentations; however, I would just like to fulfill my duties as a panel by posing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presentations.

1. As stated by the speaker,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can be deemed as distinct presences not only as Korean stone pagodas but also in the worlds' Buddhist pagodas. From the temple arrangement as well as the styles of stone pagodas, I completely agree with the assertions that the stone pagodas display the folk arts and folksy appearances that cannot be seen anywhere else. Based on what has presented by the speaker, additional explanation would be required whether these phenomena were possible to foster independent advancements under the trends in the world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or whether, if otherwise, significant ideological chang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moving on from the Unified Silla Dynasty to Goryeo Dynasty, which brought the possibility for changes in the styles of Buddhist pagodas to be made.

2. The speaker viewed the formative techniques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showed the ones in the latter years rather than the styles or construction techniques demonstrated by stone pagoda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Goryeo Dynasty. Subsequently, the upper limit of the construction period of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is deemed necessary to be lowered down to the late 12th century, which was later than the foundation period of Unjusa Temple. If the 12th century is assumed to be the upper limit of the construction period of stone pagodas, it would be more feasible to assume the actual construction period to be around the 13th century.

With regard to the above, studies on the foundation period of Unjusa Temple raised a number of viewpoints from the 9th century to 12th century. General consens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s of both pagodas and Unjusa Temple were conducted in the same period; however, because it is such a mysterious temple, it is believed that various views have been offered with respect to the backgrounds or construction period of stone pagodas. It led the speakers to determine that the formation of stone pagodas happened later than conventional belief compared to other claims. The presentation stated that it was because a number of Buddhist denominations emerged in the 13th century and folksy mythical trends of ideology were reincarnated, which brought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oriented local Buddhism into the Buddhist trends in the Goryeo Dynasty; however, additional insights would be required.

Discussion on 'Value of Stone Buddh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Jang, Jun-Shik

President of the Kook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type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nd surveys the natures and distinctiveness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lso, it attempts to discuss the value of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There is no different view concerning the overall aspects of presentations; however, I would just like to fulfill my duties as a panel by posing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presentations.

As we all are well aware, Unjusa Temple is located at Daecho-ri, Doam-myeong, Hwasun-gun, Jeollanam-do, which is nested at the upper region of Daechocheon Stream. This region is featured with low hills of 100-meter altitude above sea level as part of Hwahaksan Mountain, and a number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re placed at two ridges and valleys stretching to north-south direction. Moreover, stone Buddhas at Unjusa Temple have been reported in detail by the comprehensive academic survey of Unjusa Temple in 1991. According to actual measurement at the time, there were 57 units of completed Buddhist statues and 43 of incomplete Buddhist statues, and a total of 100 units of Buddhist statues were confirmed at Unjusa Temple, including 24 units of Buddha heads, 16 units of Buddha bodies, 1 unit of Buddha head and body divided into 2, 1 unit of Buddha head and body divided into 3 and 1 unit with parts of Buddhist head and body.

1. As examined in the presentation, common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rom Unjusa Temple where Buddhas of group A through F all utilized the cliff face of bedrock. Especially with the Buddhas of group F, the carved cliff face acts as a wide eave to protect the statues from rain and snow. Whereas the seated Buddhas are not leaning on the rock wall on top of pedestal, it is confirmed that the standing Buddhas are leaning on the rock wall. It brings up the needs for additional explanation regarding the arrangement and meanings of stone Buddhas by focus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Yukgye and three ways with each group of stone Buddhas in relation to stone pagodas at Unjusa Temple.

2. So-called servant Buddha at Unjusa Temple does not have distinct Yukgye and three ways. This servant Buddha raised and placed its right arm to the left chest while stretching and placing the left arm on the legs. And it was identified to be detached from the right side of the left Lying Buddha. Henc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being a Buddha triad, but the speaker expressed a negative view toward this matter. But if three Buddhist statues were carved into a single chunk of rock and one of them was detached, we can assume the intent of having three in a single rock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ree uses in a single body (一體三用)' or 'one is three (一卽三), and three is one (三卽一)'; and with regard to this matter,

I would like to learn what the speaker thinks.

3. The location where Unjusa Temple is nested can be viewed as the region belonging to the Baekje

Dynasty prior to the Unified Silla Dynasty. From such perspective, I belie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n Star Rock at Unjusa Temple and ancient faith of Baekje cannot be overlooked. At the same time, the arrangement structure would be another aspect deserving attentions. The Seven Star Rock at Earthen Fortification, Gyosan-dong, Hanam-si, Gyeonggi-do is placed in the straight line with the peak of Geomdansan Mountain and the polygon structure site at Iseongsanseong Fortress. The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is also located in the straight line with the head of Lying Buddha and the peak of Gaecheonsan Mountain, and also in the middle of Lying Buddha and Gaecheonsan Mountain. It brings a question if the symbolism of the Seven Star Stone can be explained in association with the arrangement of Buddhist statues and stone pagodas.

Astronomical Characteristics and Astronomic Heritage Value of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at Hwasun Unjusa Temple

Kim, Il-Gweon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 Why Unjusa Temple?

1.1 Foundation Period of Unjusa Temple at Cheonbulsan Mountain and Cultural Monuments during the Mid Goryeo Dynasty

As convex roof-end tiles and engraved texts with “Unjusa Hwan Eun Cheon Jo (雲住寺丸恩天造)” during the Goryeo Dynasty were verified from the preliminary survey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it was presumed that the name of the temple was Unjusa Temple (雲住寺) and the temple was founded in the early years of 11th century while the buildings were completely rebuilt to the direction of north and south in the early 12th century; based on the above, the production period of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is presu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the rebuilding period; consequently, the survey well demonstrates the level of astronomy of the Goryeo Dynasty and awareness of astronomy at the time where the site proves to be a historic site that has endured over 1,000 years of history.

1.2 Emergence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nd Seven Start Disc-shaped Stone at Unjusa Temple That Have Been Buried

After remaining buried for a long period time,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first garnered attention as it was presumed to be in proportion to the brightness of stars during the 1940s and became well known to the general public when introduced through media outlets and magazines in the 1980s; finally, its complete picture was revealed when a comprehensive academic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the 1990s, and the astronomical study by the author was conducted in the 2000s based on the above: ‘Yachonhyomun (野村孝文; 1940),’ Sung Chun-Gyeong (1980), Park Jong-Cheol (1990),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1991), Lee Tae-Ho (1994), and Kim Il-Gweon (2006, 2008, 2014).

2. Goryeo's Astronomical Approach to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at Unjusa Temple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at the hill of Hwasun Unjusa Temple assumes the role of key elements for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for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Unjusa Temple. Without Seven Star Stone, astronomical interpretation of Lying Buddha would have been impossible, and Lying Buddha at the peak of mountain attains the symbolism of North Star, the center of astronomy, because of the presence and arrangement of Seven Star Stone.

Astronomical nature and value of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was well presented at the World Heritage Academic Conference of Hwasun-gun Office (November 1, 2013) and published through academic journals. This paper is to remind them and discuss their value as World Cultural Heritage.

2.1 Astronomical megalithic cul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ig Dipper Astronomy of Seven Star Disc-shaped Stone at Unjusa Temple

(1) 7 gigantic artificial disc-shaped stones in a form of go stone at the slope of Cheonbulsan Mountain in

the western hill of Hwasun Unjusa Temple (diameter of 230 to 385cm and thickness of 33 to 43cm) are placed in a shape of Big Dipper. (Figure 1, 2)

[Table 1] Size and Brightness Contrast of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Classification of group A, B and C (Kim, Il-Gweon, 2006)

Seven Star Stone	Official name	Other name	Diameter	Thickness	Order of size	Western scientific name	Apparent grade	Order of brightness
S1 (Oval)	1 天樞星	1st 貪狼星	275	40	B 5	α Dubhe	1.8 magnitude (1.79)	A 2
S2 (Oval)	2 天璇星	2nd 巨門星	294	33	B 4	β Merak	2.4 magnitude (2.37)	B 5
S3 (Oval)	3 天璣星	3rd 祿存星	230	38	C 7	γ Phecda	2.4 magnitude (2.44)	B 6
S4 (Oval)	4 天權星	4th 文曲星	234	35	C 6	δ Megrez	3.3 magnitude (3.31)	C 7
S5 (Circle)	5 玉衡星	5th 廉貞星	385	43	A 1	ϵ Alioth	1.8 magnitude (1.77)	A 1
S6 (Oval)	6 開陽星	6th 武曲星	327	A 3	ζ Mizar	2.3 magnitude (2.27)	B 4	
S7 (Oval)	7 搖光星	7th 破軍星	336	35	A 2	η Alkaid	1.9 magnitude (1.86)	A 3



Figure 1 Bandana Part of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photographed by the author on June 19,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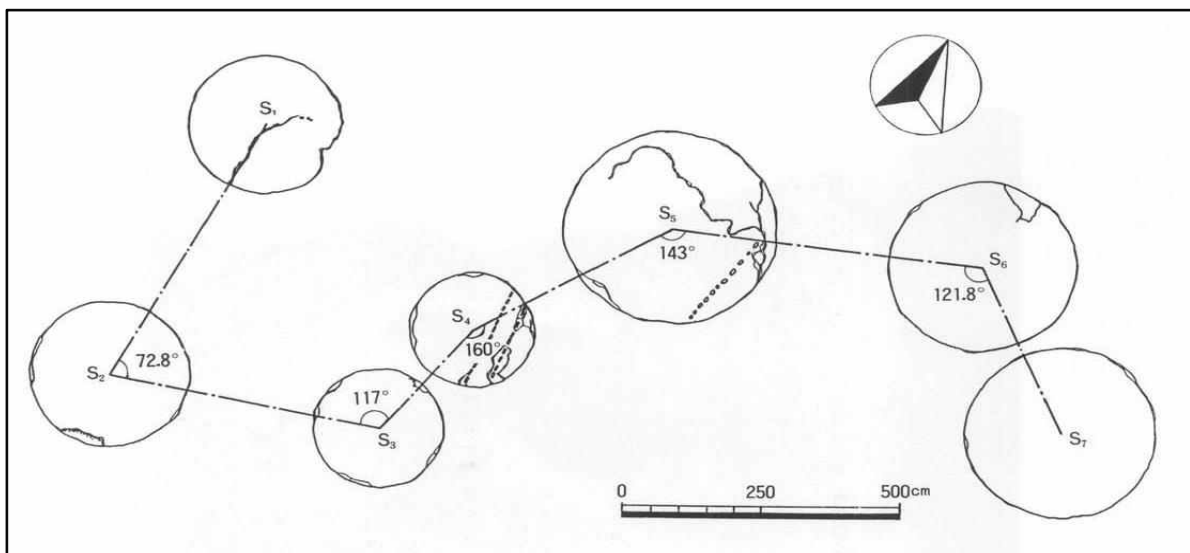


Figure 2 Surveyed Drawing of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Comprehensive Academic Survey of Unjusa Temple,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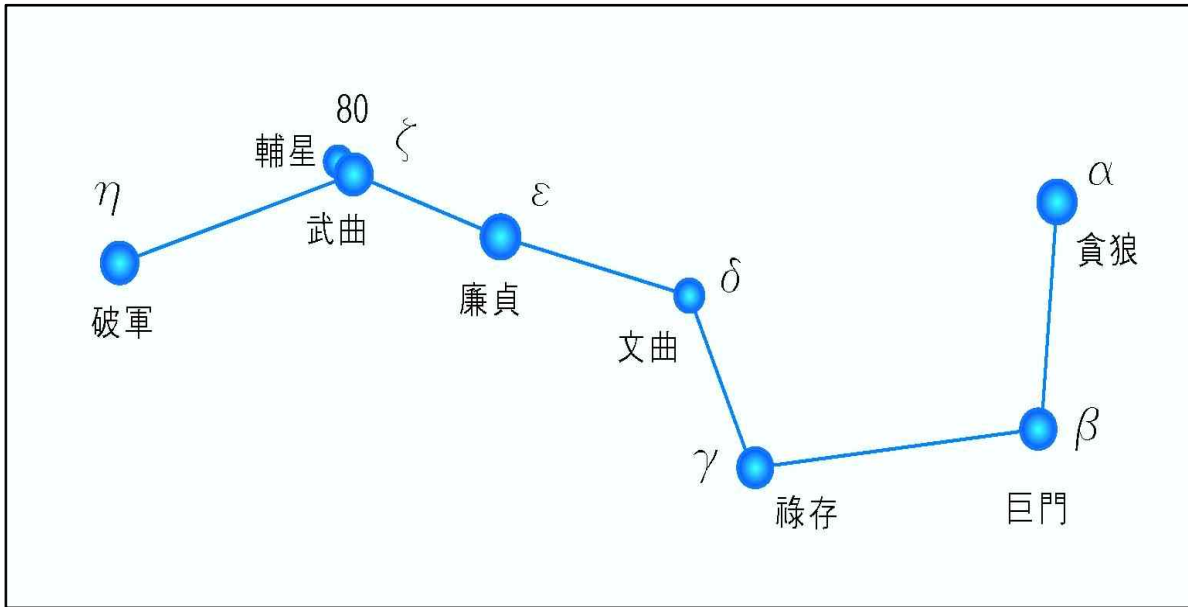


Figure 3 Name of Each Star of Big Dipper (Kim Il-Gweon, 2008)

(2) Seven Star Stone at Unjusa Temple was realized in a reverse \equiv -shape (point symmetry of S-shape) as if the Big Dipper observed in the sky landed on the ground as they are (\equiv -shape) (Figure 3), and the size of each disc of Seven Star Stone was produced in proportion to the brightness of each star of the Big Dipper (appearance magnitude), which realized amazing astronomical accuracy for the age of naked-eye observation (Table 1). Exhibition of understanding that the brightness brightness for each of 7 stars is different suggests the high level of astronomical observat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such understanding was realized through visual objects of disc-shaped stones, which leads to presumption for the value in the world history of astronomy.

- The brightest 5th Alioth was created with the biggest S5 disc.
- The darkest 4th Megrez was created with the smallest S4 disc.
- Correspondence with brightness and size: 4 discs of the 5th Alioth, 7th Mizar, 2nd Merak and 4th Megrez
- Deviation of brightness and size: 3 discs with the 1st Dubhe, 3rd Phecda and 6th Alkaid
- Star groups in Big Dipper by brightness:
 - A high-grade star (1.8 magnitudes): The 5th Alioth (1.77), 1st Dubhe (1.79), 7th Mizar (1.86)
 - B mid-grade star (2.3 mangitudes): The 6th Alkaid (2.27), 2nd Merak (2.37), 3rd Phecda (2.44)
 - C low-grade star (3.3 magnitudes): The 4th Megrez (3.31)
- Groups by disc sizes of Seven Star Stone:
 - A large (327~385cm): The 5th Alioth, 7th Mizar, 6th Alkaid
 - B medium (275~294cm): The 2nd Merak, 1st Dubhe
 - C small (230~234cm): The 4th Megrez, 3rd Phecda

(3) But the thickness of each disc-shaped stone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brightness-size analysis because apparent aspects can be read where the creators of Seven Star Stone reflected the size and volume after fully recognizing the brightness of each star. But since close examination is yet to be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volume specification of disc-shaped stone of

Seven Star Stone for the issue of thickness,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needs to be performed in the future.

2.2 Role of Big Dipper in terms of astronomy and cultural history

(1) The Big Dipper has been a guide for all the stars shining at night in the sky due to its characteristics where it can be easily distinguished because of its bright ladle shape.

(2) The Big Dipper is the largest natural clock that can be found in the natural world.

It rotates once a year (revolution) and once a day (rotation) to display four seasons in a year and the changes in daily hours. It is the most powerful astronomical clock indicator presenting both revolution and rotation of the earth among stars in the night sky and all natural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the sun dial was created to read the time based on the shadow of the sun during the day, but it only reflects the rotation for a day and is unable to directly tell the seasonal changes while periodic revision is required.

In the pre-modern society prior to the invention of machine clocks, the sun dial demanded inconvenience where it had to be produced and secured by means of tools, but the Big Dipper clock allows naked-eye observations and also offers much better practicality and precision than the sun dial.

(3) With the mythical perception of the Big Dipper for being a time carriage of Mother Nature, a perception of wagon was created; and in the ancient society, 12 stars of 'Ja-chuk-in-myo, etc.' were determined for the changes of 12 months a year along the direction of the handle of the Big Dipper. The terminology and concept of 'monthly luck (月建)' was originated from the above.

(4) Under the religious conviction, the Big Dipper was believed to oversee the human world and observe all wrongdoings of humans while riding on the North Star wagon, which led to evolvement into 'Chilwonsunggun' and 'Bukdugujin (北斗九辰)' faith of Taoism and 'Seven Star faith,' 'Myogyeon faith' and 'Chisunggwangbul faith' of Buddhism. Currently, the Chilseonggak Pavilion of the temple is a space embracing the Taoism and Buddhism faiths, and the culture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astronomy of the Goryeo Dynasty, it was operation through a method combining 'Guyo faith' and 'Seven Star faith' more valuing the planets, and the space called 'Guyodang (九曜堂)' of the assembly with Taoism and Buddhism was used.

2.3 Lying Buddha of Unjusa Temple at the peak of Cheonbulsan Mountain and North Star Astronomy

(1) The Big Dipper was divided into two parts of 'Dugoi' and 'Dugeon,' and the North Star, the pivot of all stars, is located at the position which □-shaped Dugoi points to; thus, the guiding role was recognized and bestowed on the North Star throughout the agricultural, marine, grassland and desert life in both Eastern and Western world of the ancient times. The direction which the pointers of the pole of the North Star (the direction pointed by the 2nd Merak and 1st Dubhe) point to is the due north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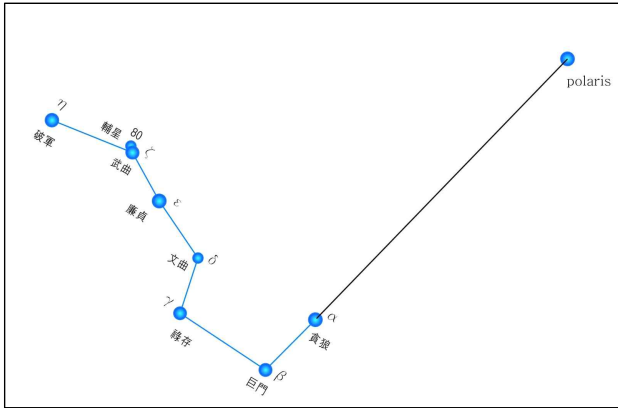


Figure 4 Drawing of Big Dipper and pointers of the pole (Kim Il-Gwe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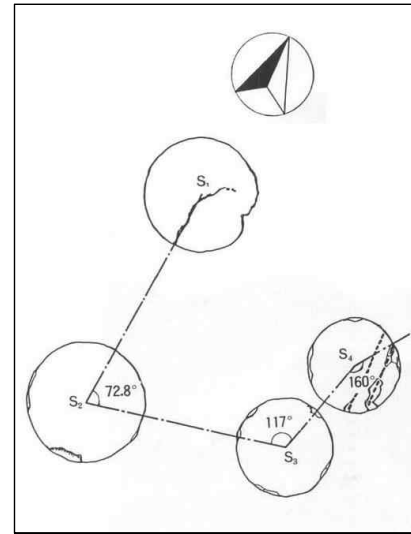


Figure 5 Vertical arrangement of S2-S1 of Seven Star Stone

(2) Examining the directional angle of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they are placed in a straight line almost to the due north direction (Figure 12).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se two relics are not placed on the flat land but on the sloped foot of a mountain. Lying Buddha is placed to the direction of pointers of the po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ying Buddha and Seven Star Stone is identic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Dipper as an astronomical pivot and directional guide.’ Thus, this intentional arrangement can be interpreted where Seven Star Stone was placed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producers recognized Lying Buddha at the peak of the mountain as the North Star.

(3) Though Lying Buddha is currently laid down, it would be in a posture facing the due north direction if raised to stand, which shows a posture in which Lying Buddha is worshipping toward the North Star in the sky. Based on the above, examining the Buddhist painting of ‘Chiseonggwang Buddha Advent Drawing’ of the Goryeo Dynasty, Lying Buddha can be interpreted as Chiseonggwang Buddha, the divinity of the North Star.



Figure 6 Photo of Unjusa Temple Lying Buddha at the peak of mountain (photographed by the author on June 19,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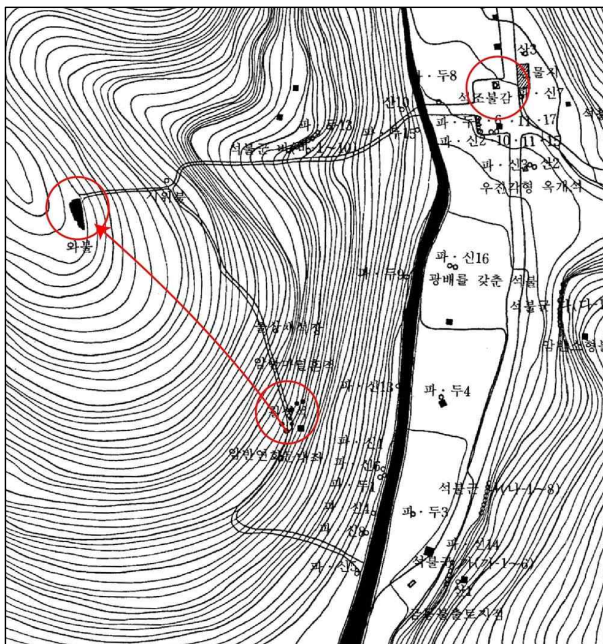


Figure 7 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even Star Stone and Lying Budd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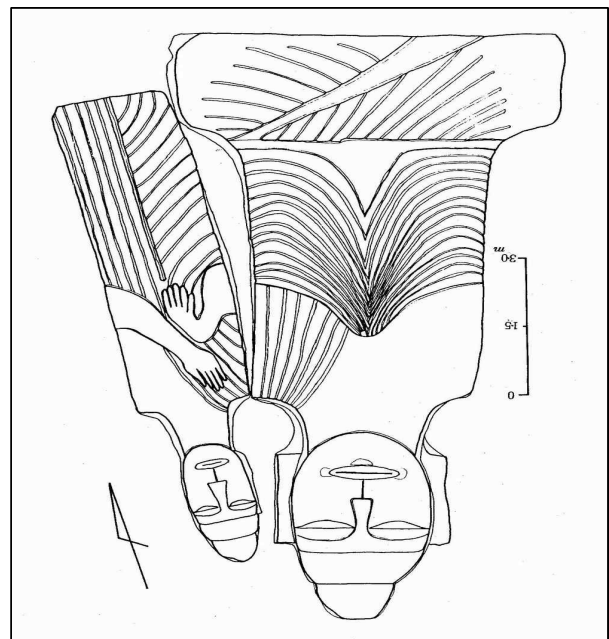


Figure 8 Direction and placement of Lying Buddha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Lying Buddha faces the north on the meridian, the direction of Twin Back Buddha sculptures in the shape of Hipped and Gable Roof 5 meters to the south of the disc-shaped Yeonhwa Pagoda is also to the due south and north on the meridian. The seated stone Buddha of the southern Buddha sculpture facing the entrance to the temple is interpreted as Sakyamuni Buddha in a posture with the right hand on the stomach and left hand on the lap, and the seated stone Buddha of the northern Buddha sculpture is without Yukgye but wearing a Buddhist robe where the folds of robe offer namaskar mudra, forming the appearance of seated Buddha similar to Lying Buddha at the peak of the mountain, which is interpreted as the Mireuksa Buddha statue symmetric to Sakyam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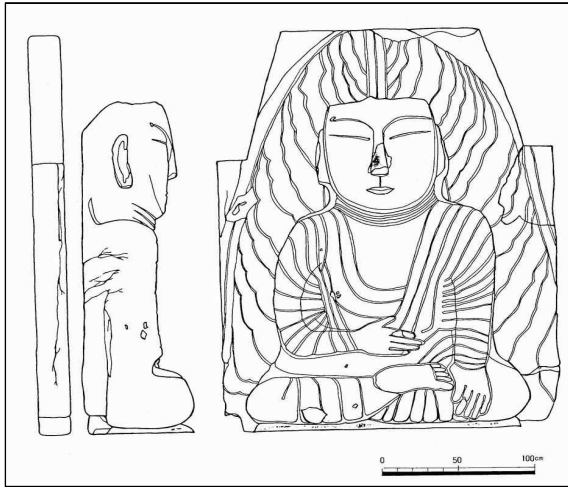


Figure 9 Southern seated Buddha from Twin Back Buddha sculptures at Unjusa Temple



Figure 10 Photo of Southern seated Buddha from Twin Back Buddha sculptures at Unjusa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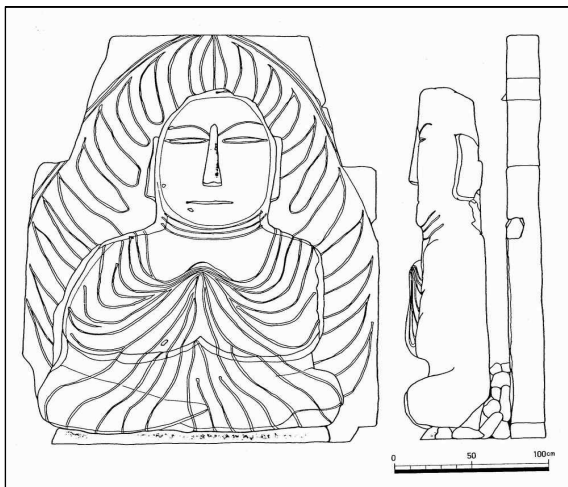


Figure 11 Northern seated Buddha from Twin Back Buddha sculptures at Unjusa Temple



Figure 12 Photo of Northern seated Buddha from Twin Back Buddha sculptures at Unjusa Temple

3. Conclusion

The disc-shaped stones of the Big Dipper and Lying Buddha of the Big Dipper at Unjusa Temple are deemed as core elements satisfying the authenticity of World Cultural Heritage because of over 1,000 years of history together with their distinct astronom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North Star and Big Dipper are representative constellations of celestial principles on the celestial sphere, and these two are nested within the site of Unjusa Temple; hence, they assume the central role for Unjusa Temple in the components of World Heritage as the temple is converted to the space realizing the astronomical world. T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life heritage in the cosmological logics have been built, and the religious assembly of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is being projected; therefore, it becomes a space where the horizon of religious diversification is expanded, and it is also a spa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astronomy and this world as well as between the heaven and humans through realization of celestial principles.

Measures to Expand Cultural Memory of Unjusa Temple

-Discussion on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at Unjusa Temple'-

Chung, Gyeong-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writing of Professor Jeong-Hoon Han provided a significant meaning as it demands the enhancement of discussion concerning Unjusa Temple by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disclosing the matters that we so far have failed to pay keen attention or left unfulfilled during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Professor Han said, "Despite countless studies conducted to prove the value of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I still find them unfulfilled," and he noted that all discussions so far have been heavily focused on the aspects of tangible heritage while its intangible heritage, such as folk tales, has been underappreciated by being used merely as reference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Unjusa Temple. As asserted by Professor Han, Unjusa Temple would be able to thoroughly explain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when 'intangible values,' which were formed by many people under the social/historic relationships for a long span of time, are added to its physical existences of Thousand Buddha and Stupa and Lying Buddha. From such aspects, this writing presents the immediate tasks for us to elevate the inherited memories that were newly created or are currently being created after the resources of folk tables into the stature of focal data.

As a matter of fact, Unjusa Temple offers substantial charms to visitors merely with mysteries surrounding the history of its foundation and heterogeneous formation embedded in Thousand Buddha and Stupa; however, when various stories, such as Lying Buddha, are additionally attached, the affectionate aspects of Unjusa Temple would just have to become even greater. Furthermore, the passed-down memories surrounding Unjusa Temple experienced the expansion of its significance in a massive scale during a certain period in Korean history. There was a case where historical experience with social reform since the 1980s and passed-down memories of Unjusa Temple encountered with each other. Hence, 'Unjusa Temple as a story' needs to be recognized as heritage with weights equivalent to its substance rather than being a supplementary being attached to the substance. Based on the above, I completely agree with the assertion presented by Professor Han that we need to improve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and I would like to add a few issue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of Unjusa Temple.

First, it concerns the 'Larchiveum' suggested by Professor Han. Though being plac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in 2017, it is quite unfortunate for the database regarding Unjusa Temple yet to be properly built. What ordinary people are allowed to refer to in order to find information concerning Unjusa Temple is only the official website operated by Unjusa Temple and travel reviews posted by bloggers. The information offered by the temple is merely comprised of information regarding stone pagodas and statue groups remained in addition to folk tales surrounding its foundation, and all reviews posted by bloggers offer individualized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personal interests of each blogger. Comprehensive information cannot be found anywhere. The absence of the DB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not only causes inconvenience to promote visits from the general public gives away an impression that anyone or any local community has not made any efforts since being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which translates into the urgency of 'Unjusa Temple

Larchiveum.' At first, 'Unjusa Temple Culture Center' wa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Larchiveum when it was planned, but it is only being used as cultural space, today.

The scope of archives related to Unjusa Temple show quite a wide spectrum, including the stories, old photos, academic materials, artworks and verbal testimonies of residents. Especially, artworks were produced in a massive scale as described "suddenly poured out" since the 1980s. The motives of 'incomplete epic' and 'upcoming future' held by the folk tales of Lying Buddha incited artists' imaginations, which led to a number of works in various genres and such production still continues as of today. Since over 300 works were introduced in 2014, no one knows how many more works have been created for the past 10 years. It is really rare to witness such a massive creation of works from intangible heritage in a single reg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without delay, engage in archiving these artworks together with historic records related to Unjusa Temple and resources of stories. At this particular point in time, physical works need to be secured by means of image database with paintings and sculptures, which are hard to be collected, as well as reproduced copies of phonograms. Such archives can be exhibited at the Larchiveum as they are. We also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exhibition halls in a form of open storage are now being built in Korea and overseas lately. In addition, portal sites (i.e. 'Hwasun Dolmen Sites of World Heritage') also need to be built to provide such materials for the general public.

Second, it concerns what level of voluntary participations and cooperation from local residents has been completed from the aspects of preservation/management/utilization of heritage. We all are well aware that the core concept of heritage preservation is the concept of sustainable advancement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at is why UNESCO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communities. It means that the role of local residents is that much important as a principal body for sustainable preservation/management/utilization. Fortunately, from the aspect of utilization, the Unjusa Temple Festival that was once severed is now operated as 'Hwasun Unju Culture Festival' led by local residents during the Thanksgiving season. What are additionally necessary would be the participations made by local residents as a principal body of daily preservation/management of Unjusa Temple. Responsibilities should not be forwarded to the temple alone; instead, we need to ensure forming an organization for autonomous preservation/management by local residents on a daily basis ('Protector of Cultural Assets,' Heritage Preservation Group, etc.). The passed-down intangible memories do not represent the folk tales and similar stories alone; instead, we need to understand that experiences of local residents connected to the site can also become the heritage of passed-down cultural memories.

Third, we have to contemplate a tourism system to expand the cultural memories of Unjusa Temple to other regions. After Unjusa Temple began earning recognitions through artworks since the 1980s, visitors continue paying visit to the temple today. Despite the absence of systematic tourism programs, it seems fortune as well as surprising to see so many visitors to the temple on a regular basis. However, no one can guarantee such luck would prolong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n addition, UNESCO stresses the word, 'sustainable,' during its development of tourism programs for World Heritage. We need to examine and contemplate whether Unjusa Temple is attracting visitors as a 'sustainable' tourist attraction. It is surely necessary for us to develop strategies by building a database for analysis of visitors' satisfaction with Unjusa Temple (by seasons, hours and regions, etc.) and to construct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tourism system, including redistribution of profits for local residents from the branding of 'Home Stay Network for World Heritage (Dolmen Site-Unjusa) and supports for autonomous resident organizations.

Suggestion for Designation of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as World Heritage

Kim, Hee-Tae

former Cultural Heritage Expert Member of Jeollanam-do

In March of 2017,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was enlist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With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spatial formation that can hardly be found in East Asia," the heritage became the 16th selection from Korea to be plac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Summary of the details in the application for the tentative list is as follows.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include stone Buddhas and pagodas in very diverse shapes in addition to Seven Star Stone related to constellations or Seven Star faith. These spatial formations, diversity and formativeness represent a rare case that can hardly be foun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East Asia. Moreover, unlike other Buddhist temples, Unjusa Temple strongly reflects the elements of Buddhism as well as esoteric Buddhism and Taoism, and it is also quite notable that the traces of quarry where stone materials for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were excavated and traces of stone deliveries still remain intact."

It is rather regrettable since much better discussions may have been conducted if investigative researches had been performed with regard to World Heritage after topics were determined on a yearly basis following the designation into the official list.

1. It concerns the title of the heritage. The titles which may be discussed are Unjusa Temple, Unjusa Temple site, Stone Buddhas and Pagodas at Hwasun Unjusa Temple (title of the heritage placed in the World Heritage Site Tentative List) and Buddhist Heritages at Unjusa Temple.

2. Discussion concerning the area is also required. The area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f Unjusa Temple site is 490,831m². When a World Heritage area is established, this cultural heritage area [designated area] will be established as a heritage area. If 'Unjusa Temple site' meaning the heritage area itself is chosen, it may be limited to the designated area (heritage area)-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rea (buffer district) subject to application of current applicable statutes.

3. It concern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t least one or more of 6 items in the selection criteria need to be applied. But because discrepancy may arise between the findings of studi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continuity of investigative studies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are also very important.

4. Discussion concerning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s also important. It is critical to organize and arrange how management works have been conducted and what roles were bestowed on the temple, monks, Buddhists, residents, government offices and organizations who have looked after, watched, protected and managed the heritage. It also needs to identify how different the current look of 'temple-Unjusa Temple' is from the 'heritage-Unjusa Temple site.'

Lastly, with respect to the latest trends in the world heritage systems, we need to stay cautious of 'Upstream Process' system introduced in 2015. A country may request the World Heritage Center and advisory organizations (ICOMOS, IUCN) for advance consultations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for designate of World Heritage. This must be considered during the course of preparation for application of Unjusa Temple site for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